

국립국어원 2011-01-26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348-01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2 보고서
- 중국 무주촌 편 -

■ 연구 책임자 : 소강춘

■ 연구 보조원 : 서정섭 · 주경미

■ 조사 지역 :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 송강진 무주촌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도 중국 무주촌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연구책임자 : **소 강 춘**

연구보조원 : **서 정 섭 · 주 경 미**

〈국문 초록〉

이 보고서는 2004년부터 수행된 국립국어원의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1년 6월 29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 송강진 무주촌에서 이루어진 방언 조사의 결과이다.

중국 무주촌은 1941년부터 이주하기 시작한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사람들이 세운 부락으로 1943년 전라북도 김제군 죽산면 사람들이 합류하여 현재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주제보자인 김 님과 보조제보자인 김 님이 수고해 주셨다. 84세의 김 님은 전북 김제군 죽산면에서 13세기 이주하여 무주촌에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 70세의 김 님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소사하에서 살다가 25년 전에 무주촌으로 이사를 왔다

조사는 전적으로 주제보자인 김 님과 어휘, 음운, 문법, 그리고 구술발화 거의 모두를 진행했다. 조사 장소가 김 님 집이었고, 김 님이 동식물명에 밝아 몇 번의 도움을 주는 수준에서 참여를 했다. 자료 정리 과정에서 김 님은 구술발화에 2 문장 정도가 전사되었을 뿐이다.

조사는 정해진 조사 질문지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총 녹취 시간은 약 34시간 9분이며 작업은 총 46개이다. 조사된 자료 가운데 어휘, 음운, 문법 항목은 모두 음성전사를 했으며, 약 7 시간의 녹취된 구술발화 자료 가운데 약 3시간 30분의 분량이 전사되었다. 전사된 구술발화 자료에는 김 님이 중국에 이주해온 이야기와 결혼 생활, 농사 및 식생활에 관한 전북 김제의 추억과 중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주제어 :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 방언 조사, 중국 무주촌, 음운, 문법, 어휘, 구술발화, 전사

〈English Abstract〉

This report is the result of the dialect survey which has been made in Muju-chon(in Yanji, China) from June to July in 2011.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has conducted the nationwide project to survey all Korean dialects since 2004, and this report shows how the survey was conducted in Muju-chon(in Yanji, China).

The report includes natural conversation or narrative discourse, local words, phonological aspect and grammatical expressions of Imsil-gun area through which we expect to understand the linguistic aspect of central area of Muju-chon(in Yanji, China).

Two informa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mong whom Ryu gave much information at lexical, phonological, grammatical and discursive levels as a main informant.

The survey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questionnaire for about 34 hours, and especially four hours of narrative data was put into transcription, which covers ge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region and private and traditional way of life of the main informant.

Key Words :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dialect survey, Muju-chon, Yanji China, phonological, grammatical, discourse, local word, transcription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2 보고서
- 중국 무주촌 편 -

목 차

1. 조사 과정	7
2. 전사 원칙	14
3. 전사 자료	17
제 1 편 구술 발화	19
제 2 편 어휘	160
제 3 편 음운	208
제 4 편 문법	248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파일 48,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조사 지역 : 中國 吉林省 延邊朝鮮族自治州 安道縣 少沙河鄉 茂朱村

2011년도 조사지점으로 선정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 송강진 소사하향 무주촌은 [그림 1, 2]처럼 연결에서 남서쪽으로 백두산을 향해 19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화룡시와 안도현은 인접해 있다.



그림 1 연변자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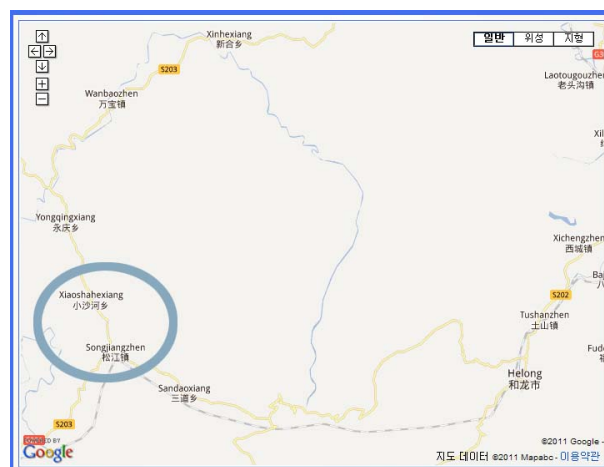


그림 2 안도현 송강진

제보자가 살고 있는 무주촌은 송강진 소사하향에 위치하고 있다. 소사하향은 현

지인들이 소사로 부르고 있는데, 소사에서 무주촌까지는 약 2Km정도의 거리로 가까운 곳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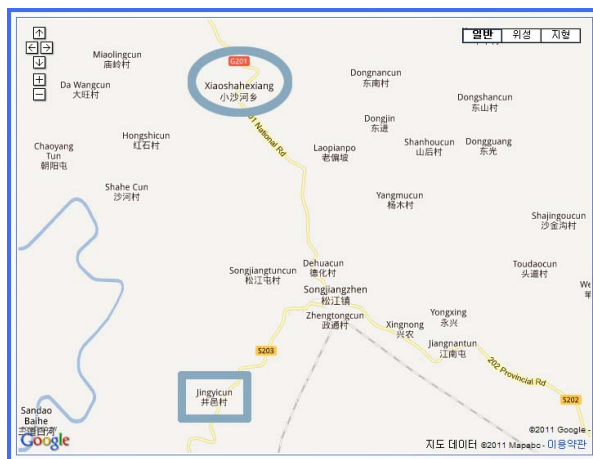


그림 3 송강진 소사하향과 정읍촌

그리고 전라북도 정읍사람들이 세운 정읍촌과 전라도 사람들이 세운 남도북도는 무주촌으로부터 백두산쪽으로 더 남서쪽으로 내려간다. 이 지역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정읍촌은 거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지 않으며, 남도북도에는 약간의 동포들이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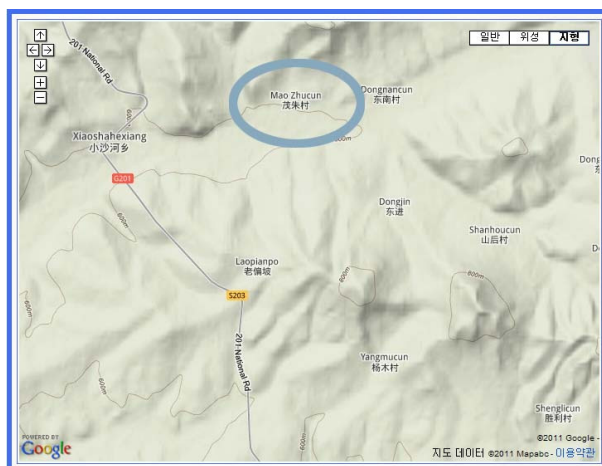


그림 4 소사하향 무주촌

현재의 무주촌은 원래의 무주촌보다 약 1Km정도 남쪽으로 내려와 세워졌다. 원래 무주촌은 토성을 쌓고 100여 호에 달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44년 봄에 불이 나서 거의 모든 집들이 불타 없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거나 중국의 다른 거주지로 이주했다. 현재의 무주촌은 그 중 일부가 남아서 새로 세운 마을로 약 40호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그리고

이 마을은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무주촌에 살고 있었던 갈 씨들과 김제 죽산에서 이주해온 김 씨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한족들이 이사회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1.2. 조사 진행

조사는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조사자가 직접 조사를 했다. 이 지역은 필자가 1996년 4월에 15일간 머물면서 한국 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방언조사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에든 현재의 제보자인 김 할머니와 조사를 했다.

제보자는 13살에 전북 김제 죽산면에서 소사하향으로 이주하였고, 몇 년 뒤에 현재의 무주촌에 집을 짓고 이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총명하고 밝고 부지런한 분이다. 전주 KBS에서 ‘무주촌 사람들’이라는 특집을 제작했다. 필자가 약간의 도움을 주었고,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 때 김 할머니가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죽산에서 동생들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제보자 김 할머니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조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으며, 현재도 아픈 조카를 수발하면서 살고 있다. 15년 전에 비해 많이 연로하셨고, 기억력이 떨어져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필자와는 오랜 만남이 있었기에 쉽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어 조사는 편하게 진행되었다.

1.3. 제보자

(1) 주제보자 :

- 이름 : 김
- 나이 : 84세
- 출생지 : 전북 김제시 죽산면
- 거주지 : 중국 길림성 안도현 송강진 무주촌
- 선대거주지 : 전북 김제시 죽산면
중국 길림성 안도현 송강진 소사하
- 직업 : 농업, 무(현재)
- 경력 :

- 학력 : 무
- 제보자 소개 과정 :
 - 1994년 한글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서 무주촌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음.
 - 1996년 조사자가 연길시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 교환교수로 재직하면서 1996년 4월에 현재의 제보자인 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국정신문화원에서 개발한 방언 조사 질문지를 가지고 방언조사를 실시했었음.
 - 금년도 사업을 위해 건강을 확인한 결과 크게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제보자로 확정하였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 13살에 가족이 중국 길림성 안도현 송강진 소사하에 이주해 왔음.
 - 남한의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에서 이주해온 남편과 이웃집에서 살았고, 18세에 결혼하였음.
 - 결혼 중에 자녀가 없어 조카들을 돌보며 살았고, 지금도 아픈 조카를 돌보고 계심.
 - 충기가 있고, 긍정적이며, 정이 많으신 분이심.
 - 1996년보다는 조금 옛날 일을 기억하는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음.
 - 전주 KBS에서 제작 방영한 ‘무주촌 사람들(조사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감수에 참여했었음)’ 방영 이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음.

(2) 보조제보자 :

- 이름 : 김
- 나이 : 70세
- 출생지 : 함경도 회령
- 거주지 : 중국 길림성 안도현 송강진 무주촌
- 선대거주지 : 함경도 회령
중국 길림성 안도현 송강진 남도북도
- 직업 : 농업, 무(현재)
- 경력 :
- 학력 : 무

- 제보자 소개 과정 :
 - 1994년 한글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서 무주촌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음.
 - 1996년 조사자가 연길시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 교환교수로 재직하면서 1996년 4월에 현재의 제보자인 김 할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할 당시 머물던 이웃집에 살고 계셨음.
 - 머물고 있던 갈영철 씨 집이 조사 장소로 부적합해서 김 할머니 집에서 조사를 했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 함경도 출신이시기에 전라북도 방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으시고, 현재 무주촌의 삶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문의했음.

1.4. 조사자

- (1) 이름 : 소강춘(전주대학교 교수)
주경미(전주대학교 교수)
서정섭(서남대학교 교수)
- (2) 조사 일시 : 2011년 6월 30일-2011년 7월 15일
- (3) 조사 장소 : 보조제보자 김춘자 님의 집
- (4) 조사 내용 (총 34시간 9분)

파일명	시간	누계	시작번호	끝번호	자연발화
CN_MJ_01.WAV	00:09:41.672				결혼생활 처음
CN_MJ_02.WAV	01:41:00.864	01:50	20101	20223-1	제보자 정보, 결혼, 마을 생활, 가족현황, 0-50분
CN_MJ_03.WAV	00:50:06.904	02:40	20301	20523	
CN_MJ_04.WAV	01:40:58.364	04:30	20524	20842	음식
CN_MJ_05.WAV	00:50:37.744	05:20	20901	21013	새초올리기
CN_MJ_06.WAV	01:31:58.184	07:51	21014	21254	
CN_MJ_07.WAV	00:15:34.632	08:06	21255	21308	
CN_MJ_08.WAV	01:05:55.392	09:11	21309	21443	목화농사, 길쌈 00:29:-36:
CN_MJ_09.WAV	00:04:14.544	09:15			노래
CN_MJ_10.WAV	01:03:46.152	10:18	21501	21601	이민 이후 삶 00:21:-48:
CN_MJ_11.WAV	00:13:38.040	10:31	21602	21619-1	
CN_MJ_12.WAV	00:09:09.600	10:40			감자 녹말가루
CN_MJ_13.WAV	00:38:53.712	11:18	21620	21719	
CN_MJ_14.WAV	00:15:40.656	11:33	21720	21742	
CN_MJ_15.WAV	01:12:25.712	12:45	21801	22018	노래
CN_MJ_16.WAV	00:39:59.784	13:34	22019	22136	
CN_MJ_17.WAV	01:19:03.744	14:53	22201	22328	
CN_MJ_18.WAV	00:43:58.519	15:36	22329	22379	노래, 대화 40:-
CN_MJ_19.WAV	00:07:01.680	15:43			보조제보자 삶
CN_MJ_20.WAV	01:18:01.992	17:01	22401	22637	
CN_MJ_21.WAV	00:36:11.496	17:12			자연발화(일상의 삶)
CN_MJ_22.WAV	01:11:01.440	18:23	22701	22921-1	
CN_MJ_23.WAV	00:35:12.200	18:58	22922	23102	
CN_MJ_24.WAV	00:41:12.600	19:39	23103	23233	
CN_MJ_25.WAV	00:01:40.800	19:40			노래
CN_MJ_26.WAV	00:04:49.776	19:44			노래
CN_MJ_27.WAV	00:43:11.136	20:27	23301	23441	
CN_MJ_28.WAV	00:12:43.272	20:39			대화
CN_MJ_29.WAV	01:08:20.272	21:47	31001	31068	음운목록
CN_MJ_30.WAV	00:16:01.680	22:03	31069	31088	음운목록
CN_MJ_31.WAV	00:54:21.168	22:57	32001	32046	활용
CN_MJ_32.WAV	00:59:47.288	23:56	32047	32130	활용, (가래토시)
CN_MJ_33.WAV	00:27:17.192	24:23	32131	32185	활용
CN_MJ_34.WAV	00:24:41.688	24:47	32186	32222	활용
CN_MJ_35.WAV	00:04:19.656	24:51			보조제보자와 대화
CN_MJ_36.WAV	01:27:27.512	26:18	32223	32299	활용
CN_MJ_37.WAV	00:59:49.248	27:17	32300	32362	활용
CN_MJ_38.WAV	01:08:32.760	28:25	40101	40241	문법
CN_MJ_39.WAV	00:08:42.216	28:33			보조제보자 대화
CN_MJ_40.WAV	00:52:22.720	29:25	40242	40708	문법
CN_MJ_41.WAV	00:07:28.728	29:32			노래
CN_MJ_42.WAV	00:42:13.752	30:14			자연발화
CN_MJ_43.WAV	00:49:31.304	31:03	40801	41116	문법-사동피동
CN_MJ_44.WAV	01:21:33.816	32:24			자연발화-음식중심
CN_MJ_45.WAV	01:00:09.624	33:33			자연발화-주,보조제보자
CN_MJ_46.WAV	00:49:36.216	34:09			자연발화-주,보조제보자
CN_MJ_47.WAV					원래 CN_MJ_02.WAV과 동일한 파일인데 구술발화와 어휘항목이 중복되어 구술발화만 여기서 다시 전사(제보자 정보, 결혼, 마을 생활, 가족현황)

1.5. 전사

(1) 전사(2011년 7월~10월)

구술발화: 소강춘 / 서정섭 / 주경미

어휘: 소강춘 / 서정섭 / 주경미

음운: 주경미

문법: 소강춘

(2) 점검(2011년 11월)

구술발화: 소강춘 / 주경미

어휘: 소강춘 / 서정섭

음운: 소강춘

문법: 주경미

(3) 전사의 미비점

활용(3.2.1)의 ‘32156 곳:-’ 에서부터 ‘32173 가두-’ 까지 18항목에 대한 음성파일이 없다. 보고서에는 조사자가 질문지에 전사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한 것처럼 되어있다. 후일에 보충하려 한다.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간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 -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2011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2 보고서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1.2. 일생 의례^[CN_MU_01]

1.2.1. 제보자의 출생과 중국 이주

- 10201 # 그케 놀기 조아 항거시 월래는 나이 처머궁개 놀 놀믄또 어꼬, 누가 보며
는 욱하는 거또 거트고 내절로 가채기 된담마리여. @ 허허허. {그렇게 놀
기 좋아한 것이 원래는 나이 처먹으니까 놀 놀 멋도 없고, 누가 보며는 욱
하는 것도 같고 내 절로 가책이 된다는 말이야. @ 허허허.}
- 10201 # 그래가지고 #2 거가 여 어디간 그때 그 불 아이 나쓰면 항국 가찌며, 그
지? {그래가지고 #2 거기가 여 어디가니 그때 그 불 아니 났으면 한국 갔
지 뭐, 그렇지?}
- 10201 # 응? {응?}
- 10201 #2 불만 아이 나쓰면 항국 간다구. {불만 안 났으면 한국 간다고.}
- 10201 # 응. {응.}
- 10201 # 가따 와땀마리요, 함번. {갔다 왔다는 말이요, 한번.}
- 10201 # 그저 함번 가따 완넌디 그때 내가 거기서 안:올라고 우리 동생더리 시방
거그 둘: 인써, 남동생. {그저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안 오려
고 우리 동생들이 시방 거기 둘 있어, 남동생.}
- 10201 @ 어디 죽산에? 무주에? {어디 죽산에? 무주에?}
- 10201 # 무주에. {무주에.}
- 10201 # 무주에. {무주에.}
- 10201 # 응, 아니, 무주 말고 징계. {응, 아니, 무주 말고 김제.}
- 10201 @ 징계? {김제?}
- 10201 # 징계. {김제.}
- 10202 @ 월래 고향이 어디라구렌찌? {원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지?}
- 10202 # 내? {나?}
- 10202 @ 어. {응.}
- 10202 # 징계. 징계지 머. {김제, 김제지 뭐.}
- 10202 @ 징계 어디? {김제 어디?}
- 10202 # 징계군 @ 영. # 죽산면 @ 영. # 서포리. {김제군 @ 응. # 죽산면 @
응. # 서포리.}
- 10202 @ 서포리? {서포리?}
- 10202 # 응. {응.}

10201 # 거기 조금 동생드른... {거기 지금 동생들은...}

10201 # 머하는지 무르갯썌. {뭐하는지 모르겠어.}

10201 # 저나도 업썰, 소식또 업썰, 나도 그래 나도 그러케 저마나게 저내도 저마나게 거저... {전화도 없지, 소식도 없지, 나도 그래 내도 그렇게 저만하게 전에도 저만하게 거저...}

10201 # 부무제가 죽꾸낭개로 이르게... {부모가 죽고 나니까 이렇게...}

10201 @ 그며는 그, 그 동생드른 언제 드르갯썌? {그러면은 그, 그 동생들은 언제 들어갯썌?}

10201 # 그 동생들 드르간지 오::라지 머. {그 동생들 들어간 지 오래지 뭐.}

10201 # 거저넌 이십 이십년도:: 넘찌머. {그 이제는 이십 이십년도 넘지 뭐.}

10201 # 여기 일따가. {여기 있다가.}

10201 @ 그러니까. {그러니까.}

10201 @ 할머니가 여그 여그 맨쌀때 오셴썌요? {할머니가 여기 여기 몇 살 때 오셴썌요?}

10201 # 열두살때. {열두 살 때.}

10201 @ 그럼 그때 왜완썌? {그럼 그때 왜 왔어?}

10201 # 부무네드리 오나까니 거저. {부모네들이 오니까 그저.}

10201 @ 공개 부무네드리 # 이미느로 보내땀마리여 이민. {그러니까 부모네들이 # 이민으로 보냈다 말이야 이민.}

10201 @ 이미느로? {이민으로?}

10201 # 이미느로. {이민으로.}

10201 # 그러니까 거저 부모네 오니까 할쑤업썌 따라와야제, @ 응. # 그리서 따라와제. {그러니까 그저 부모네 오니까 할 수 없이 따라와야지, @ 응. # 그래서 따라왔지.}

10201 @ 근디 그때 올때, 올때 그:: 멘 멘명정도 완썌? {그러데 그때 올 때, 올 때 그 몇 몇 명 정도 왔어?}

10201 # 응? {응?}

10201 @ 올때 점부 멘명이 완냐고? {올 때 전부 몇 명이 왔냐고?}

10201 # 어:! 멘명이 완능가? @ 응. {어! 몇 명이 왔는가? @ 응.}

10201 # 그때 아마 한 대:호 와쓰니까나 사래미 메시 온지 시꾸더른 모른담 마리여. {그때 아마 한 댓호 왔으니까 사람이 몇이 온지 식구들은 모른다 마리아.}

10201 # 나 어려 @ 다선 호 정도 완따고? # 응? @ 다서시 # 다선호. {나이 어려 @ 다섯 호 정도 왔다고? # 응? @ 다섯이? # 다섯 호.}

10201 # 그렇게 나이 어링개로 모른담마리여, 그러케 응, 그 그령걸 모르제. {그러니까 나이 어리니까 모른다 말이야, 그렇게 응, 그 그런 것을 모르지.}

10201 # 그따 낭개로... {그렇다 나니까...}

10201 @ 그러면 와쓸때 그때는 여기가 마으리 인써서? {그러면 왔을 때 그때는
여기가 마을이 있었어?}

10201 # 여그로 여그로, 여기에 업쨌지, 업꼬. {여기로 여기로, 여기에 없었지, 없
고.}

10201 # 저 소사와서 떠러저쨌땀 마리여. {저 소사에 와서 떨어졌었다 말이야.}

10201 @ 음::. {음.}

10201 # 그 소사서 우리 친정 자그나무지가 @ 음. # 소사 와가지고 먼저 와서,
먼저 완땀마리야. {그 소사에서 우리 친정 작은아버지가 @ 음. # 소사 와
가지고 먼저 와서, 먼저 왔다 말이야.}

10201 @ 아::! {아!}

10201 # 그래 먼저 와가지고 거그서 지불 자꼬, 우 우리는 그저 소사가 엄능간 해서
송강으로 가 가바 가가지고는 송강 아니 소사에서 나... {그래 먼저 와가지
고 거기서 집을 잡고, 우 우리는 그저 소사에가 없는가 해서 송강으로 가
가 봐 가가지고는 송강 아니 소사에 나...}

10201 # 그리서 소사서 그래 되비 나와가지고 되비 완쨌, 도라 완쨌. {그래서 소
사에서 그래 다시 나와 가지고 다시 왔지, 돌아 왔지.}

10201 # 그리서 도라 와가지고, 소사 와서 떠러저가지곤, 거그서 기양:: 살다가...
{그래서 돌아 와가지고, 소사 와서 떨어져 가자고는, 거시서 그냥 살다가...}

10201 # 공개 거그서 살다가 더 떡 몬쨌게 생깁개 또 여그 올라완땀마리야. {그러
니까 거기서 살다가 더 딱 못 살게 생기니까 또 여기 올라왔다 말이야.}

10201 @ 그럼 여기는 무주싸람드리 먼저 와인쨌쨌? {그럼 여기는 무주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어?}

10201 # 야! {야!}

10201 # 무주 싸람드리 여그와 몬, 와 인꼬, 착 각:꼬테서 다 와서 인땀마리여 여
기. {무주 사람들이 여기 와 몬, 와 있고, 착 각 곳에서 다 와서 있다 말이
야 여기.}

10201 # 무주 싸람도 와인꼬, 징계 싸람도 와인꼬. {무주 사람도 와 있고, 김제 사
람도 와 있고.}

10201 # 머여, 어디서 한테 와서 이쓰이까. {뭐야, 어디서 함께 와서 있으니까.}

10201 # 그때는 나이가 어떻게 잘 모른담마리야.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
른다 말이야.}

10201 # 그랜쨌. {그랬어.}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형성

10101 @ 그러면 그때는 지금 저 바테 바깥 사네 인는 바치 점무다 나무여 산이열 씨? {그러면 그때는 지금 저 밭에 바깥 산에 있는 밭이 전부 다 나무야 산이었어?}

10101 # 사니열지. {산이었지.}

10101 # 점:부 사닌데, 이리 다 인자 까까내고 다 그래 그래노코 인제 바슬 맨드러서 농사를 저씨. {전부 산인데, 이리 다 이제 깎아내고 다 그래 그래 놓고 이제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어.}

10101 @ 그면 바슬 맨들면 그냥 내꺼시 되능거여 그때? {그러면 밭을 만들면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때?}

10101 # 응? {응?}

10101 @ 바슬 맨들면 내꺼시 되능거여? {밭을 만들면 내 것이 되는 거야?}

10101 # 그럼, 바설 맨들면 내꺼시담마리여. {그럼, 밭을 만들면 내 것이 된다 말 이야.}

10101 # 그면 그때 오셔서 집짚코, 밤만들고... {그러면 그때 오셔서 집 짓고, 밭만들고...}

10101 # 밤만, 집짚코, 밭 만들고. {밭 만, 집 짓고, 밭 만들고.}

10101 # 아이고! 집찌키 밥찌키라드이, @ 응? # 참 심드러 집찌키가. {아이고! 집 짓기 밥 짓기라더니, @ 응? # 참 힘들어 집짓기가.}

10101 @ 음. {음.}

10101 # 다:: 돌 날라다가 싸야제 머, 흑파서 이게서 머 베름빠글 다 부체, 베름빠글 다 발라야제. {다 돌 날라다 쌓아야지 뭐, 흙 파서 이겨서 뭐 벽을 다 붙여, 벽을 다 발라야지.}

10101 # 또 허간도 지어야제. {또 헛간도 지어야지.}

10101 # 나무청도 이씨양개 양 나무청도 저야제. {나무청도 있어야 하니까 그냥 나무청도 지어야지.}

10101 # 맨 그렇거 그러케 해가고 사라, 사라나. {맨 그런 것 그렇게 하면서 살아, 살아나.}

10101 @ 그러케 해서 집 진지가 얼마나 걸렸써? {그렇게 해서 집 지은 지가 얼마나 걸렸어?}

10101 @ 덴년도에 지블 지코 이리 완써? {몇 년도에 집을 짓고 이리 왔어?}

10101 # 그렇게 내 열뚜사레 여그, 열뚜사레 드리완따가, 공개 열네살, 열네사레, 나 열네사레 완끄만 열네사레 @ 아::! # 여기. {그러니까 내가 열두 살에 여기, 열두 살에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열네 살, 열네 살에, 나 열네 살에

왔구먼 열네 살에 @ 아! # 여기.}
 10101 @ 소사에 일따가? {소사에 있다가?}
 10101 # 소사에 일따가. {소사에 있다가.}
 10101 @ 그 지번 언제 언제 완성됐써? {그 집은 언제 언제 완성됐어?}
 10101 @ 여기 지번 언제 그면 열 열네사레 와서 그때 바로 그해에 집 절써? {여
 기 집은 언제 그러면 열 열네 살에 와서 그때 바라 그 해에 집 지었어?}
 10101 # 예 거 그렇게로 야 거 그래 와가지구 너무집 이쓰면서 @ 응. # 그리 지
 별 지었제. {예 그 그러니까 야 그 그래 와가지고 남의 집 있으면서 @ 응.
 # 그렇게 집을 지었지.}
 10101 @ 그면 그 땅은 누구 누가 줘?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누가 줘?}
 10101 # 응? {응?}
 10101 @ 집 진는 땅언? {집 짓는 땅은?}
 10101 # 집 진는 땅? {집 짓는 땅?}
 10101 @ 응. {응.}
 10101 # 누가 주기는 내절로 어디다 지코 시푸먼 진는, 지어땀마리여. {누가 주기
 는 내 절로 어디에다 짓고 싶으면 짓는, 지었단 말이야.}
 10101 @ 어:: 주인도 업꼬, 임자고 업꼬? # 응, 임자도 업꼬 뭐 내절로 그저 암테
 나 질 지코시폰 저레 다가 내절로 지언땀마리야. {어 주인도 없고, 임자도
 없고? # 응, 임자도 없고 뭐 내 절로 그저 아무데나 짓 짓고 싶은 절에 다
 가 내 절로 지었다 말이야.}
 10101 @ 그리고 나서 바설 얼마나 만드렐써? {그리고 나서 밭을 얼마나 만들었어?}
 10101 # 그러니까나 받 그때 한 움모지기 되는가? {그러니까 밭 그때 한 6모지기
 되는가?}
 10101 # 움모지기다가 쿵 싱꼬, 강녕이 싱꼬, 머 그 두가지만 하면 된담마리여. {6
 모지기에다가 쿵 심고, 강녕이 심고, 뭐 그 두 가지만 하면 된다 말이야.}
 10101 @ 그러면 # 패끼 패끼쪼끔 심꼬. {그러면 # 팔 팔 조금 심고.}
 10101 @ 그면 그걸까지고 먹꼬 사라? {그러면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
 10101 # 그러 그거 가지고 먹꼬 사람제. {그래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았지.}
 10101 @ 움모지기 가지면 먹꼬사라? {6모지기 가지면 먹고 살아?}
 10101 # 어. {어.}
 10101 @ 그때는 땅이 조알써? {그때는 땅이 좋았어?}
 10101 # 양! 싱개 일구니까 곡씨기 잘:: 된담마리요. @ 어! # 그래가지고는 그러케...
 {그냥! 싱개 일구니까 곡식이 잘 된다 말이요. @ 어! # 그래가지고 그렇게...}
 10101 @ 그며는 세금도 업썰써? {그러면은 세금도 없었어?}
 10101 # 세금? 아! 우더. {세금? 아! 어디.}
 10101 # 머시 머 가더가능 거또 업꼬 머 그냥 그러고 사라. {뭇이 뭐 가져가는 것
 도 없고 뭐 그냥 그러고 살아.}

10101 @ 그며는 도둑 도둑뜨른 업써? {그러면은 도둑 도둑들은 없어?}
 10101 # 도 도둥놈덜 호 이끼는 이써도 그르케 시마지 안치, 안 시마지. {도 도둑
 놈을 혹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안 심하지.}
 10101 # 지금도 머, 지금도 머, 머가 도둑질 하는 사라미 업써. {지금도 뭐, 지금
 도 뭐, 뭐가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어.}
 10101 # 궁개 머늘 저 여러노코 어디 가따와도 그양 그냥 그러고 일췌. {그러니까
 문을 저 열어놓고 어디 갔다와도 그양 그냥 그러고 있지.}

1.2. 일생 의례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3 @ 그러면 게로는 뭇싸레 헐써요? {그러면은 결혼은 몇 살에 했어요?}
 10203 # 내? 여레선싸레. {내? 열여섯 살에.}
 10203 @ 여레선싸레? # 열여섯싸 머꼬, 영가미 수물한살 먹꼬. {열여섯 살에? #
 열여섯 살 먹고, 영감이 스물한 살 먹고.}
 10203 @ 음. {음.}
 10203 # 그렇게 차이가 얼마요?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요?}
 10203 @ 오년. {5년.}
 10203 @ 그며는 그 그 하라버지는 가튼 동네 사람써? {그러면은 그 그 할아버지
 는 같은 동네 살았어?}
 10203 # 하먼, 압뵈찌비서 사람췌. {아무렴, 앞뵈집에서 살았지.}
 10203 @ 허허허허 # 압뵈찌비서 사는데 또 뵈 사라미 나으 욱췌나서 그양 그러능
 게 고 우리 시방 주근 영가미 자바췌찌머. @ 허허허허. # 허허허 응. {허허
 허허 # 앞뵈집에서 사는데, 또 뵈 사람이 나 욱췌나서 그양 그러는 것이 그
 우리 시방 죽은 영감이 잡아췌지 뵈.}
 10203 # 나는 여러가지 이무렵따고 그냥 막 마라고, 마:이 마라고, 궁개 부무네드
 리 그러케 막 데릴싸우, 데릴싸우제 헐뵈마리요. {나는 여러 가지 임의롭다
 고 그냥 막 말하고, 많이 말하고, 그러니까 부모네들이 그렇게 막 데릴사위,
 데릴사위 했다 말이요.}
 10203 @ 아:!! {아!}
 10203 # 데릴싸우도, 데릴싸우 아오? {데릴사위도, 데릴사위 아오?}
 10203 @ 예예. {예예.}
 10203 @ 그먼 데릴싸우로 뵈쌀때 완써, 뵈년간 일췌써, 데릴싸우는 데리고 오자
 나? {그러면 데릴사위로 몇 살 때 왔어, 몇 년간 있었어, 데릴사위는 데리
 고 오잖아?}

10203 # 응 공개 데리, 데리고 오능겔썅개 여슬쌀 자치해가지고는 기양 그러케 데
 릴싸우로... {응, 그러니까 데리, 데리고 오는 것이니까 여섯 살 차지해가지
 고 그냥 그렇게 데릴사위로...}

10203 @ 그지베는 아드리 마난써? {그 집에는 아들이 많았어?}

10203 # 아드리 마난써. {아들이 많았어.}

10203 # 아드리 세이제. {아들이 셋이지.}

10203 # 그러케 해서. {그렇게 해서.}

10203 @ 그 뎀뎀째 아드리여? {그 몇 번째 아들이야?}

10203 # 내가? {내가?}

10203 @ 아니, 그 저, 그 하라버지가? {아니, 그 저, 그 할아버지가?}

10203 # 마지. {만이.}

10203 @ 마지가 데릴싸위로 완써? {만이가 데릴사위로 왔어?}

10203 # 마지가 데릴싸우로 완따고 마지가. {만이가 데릴사위로 왔다고 만이가.}

10203 # 그러고 동생더리 두릴꼬, 동생들이 둘 있고. {그리고 동생들이 둘 있고,
 동생들이 둘 있고.}

10203 # 저 소변줌 바야겔써. @ 그레. {저 소변 줌 봐야겠어. @ 그레.}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CN_MJ_47]

1.1.1. 조사의 필요성

10101 # 이거 이러케 무러, 이르케 해가지고 머 어찌자고? {이것 이렇게 물어, 이
 령게 해가지고 뭐 어찌자고?}

10101 @ 아니 인자 한구게서 엔나레 사 사라뎀 그런 어른들 마리 다 벼네써, 그
 레가지고 이제 안 벼넌 소리를 지금 차자웅거여. {아니 이제 한국에서 옛날
 에 사 살았던 그런 어른들 말이 다 변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변한 소리
 를 지금 찾아온 거야.}

10101 # 야::! {아!}

10101 @ 허허허. {허허허.}

10101 # 안 벼난 거요? {안 변한 거요?}

10101 @ 예. {예.}

10101 # 예째 그러케 벼네쓰까? {어째 그렇게 변했을까?}

10101 @ 인제 테리비가통거 마니 보고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 같은 것 많이
 보고 그러니까.}

10101 # 음::! {음!}

1.2. 일생 의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이주

- 10201 @ 할머니 나이, 그 연 저 생 생이리 멘녀니여? {할머니 나이, 그 연 저 생 생일이 몇 년이야?}
- 10201 # 동지딸 여랜쨌날. {동짓달 열엿쨌 날.}
- 10201 @ 동지따리면 # 동지따리여. @ 시비월? {동짓달이면 # 동짓달이야. @ 12 월?}
- 10201 # 십 응 시비월. {십 응 12월.}
- 10201 @ 십 십비월 # 아니, 시비월 시비월 오롱가? {십 12월 # 아니, 11월 11월 옳은가?}
- 10201 @ 동지딸 서딸 아 시비월. {동짓달 섰달 아 11월.}
- 10201 # 시비월이여. {11월이야.}
- 10201 @ 으 시빌월 # 시빌월 @ 어. {응 11월 # 11월 @ 어.}
- 10201 @ 시빌월 이십유길? {11월 26일?}
- 10201 # 이십유길. {26일.}
- 10201 # 아니 십 십유길 저 @ 십유길? # 어 여랜쨌 나링개 @ 열엿쨌 나리니까? {아니 십 16일 저 @ 16일? # 어 열엿쨌 날이니까 @ 열엿쨌 날이니까?}
- 10201 @ 그먼 멘년도에 태어난쨌, 멘녀에 태어나? {그러면 몇 년도에 태어났어, 몇 년에 태어나?}
- 10201 # 멘녀에 태어난능가? {몇 년에 태어났는가?}
- 10201 @ 응, 친구뻥 멘녀니여? {응, 친구뻥 몇 년이야?}
- 10201 # 아 나 그건 잘 모르제. {아 나 그건 잘 모르지.}
- 10201 @ 응. {응.}
- 10201 # 그건 따제보먼 알제, 연세로 따져보먼. @ 지그문 지금 오레가 팔십 넷? @ 팔십 넷. {그것 따져보먼 알지, 연세로 따져보먼. @ 지금은 지금 올해가 팔십 넷? @ 팔십 넷.}
- 10201 @ 팔십 넷. {팔십 넷.}
- 10201 @ 그먼 여기 올때가 멘년도여, 중구게 올때가? 열두살때가 멘년도 열써? {그러면 여기 올 때가 몇 년도야, 중국에 올 때가? 열두 살 때가 몇 년도였어?}
- 10201 # 그렇게 그 내가 멘년돈지... 조사보먼 알지, 난 잘 모르겐쨌. {그러니까 그 내가 몇 년도인지... 조사해 보먼 알지, 난 잘 모르겠어.}
- 10201 @ 와서 해방... 와서 얼마 이따가 해방 마잔쨌? {와서 해방... 와서 얼마 있 다가 해방 맞았어?}
- 10201 # 와서 일 저... {와서 있 저...}
- 10201 # 아 그 그렇거는 나 잘 모르겐쨌. {아 그 그런 것은 나 잘 모르겠어.}

10201 # 어째 내 말소리 안배넨쏘? {어째 내 말소리 안 변했소?}
10201 @ 안 벼넨썬요. 허허허허 안벼넨썬. {안 변했어요. 허허허허 안 변했어.}
10201 # 나는 어찌 벼낭거 거튼데 @ 허허허 안 벼넨썬. # 안 벼넨따구? {나는 어
찌 변한 것 같은데 @ 허허허 안 변했어. # 안 변했다고?}
10201 @ 예. {예.}
10201 # 안... {안...}

1.2.3. 전통적 결혼식

10208 @ 그면 겨론 해가지고, 겨론 어뜨게 헨능가쥌 이애기쥌 해쥬봐요, 게론? {그러면 결혼 해가지고, 결혼 어떻게 했는가 쥌 이야기 쥌 해쥬봐요, 결혼?}

10208 @ 여기서는 그때 데릴사위 데려올 때 게론시근 헨써 안헨써? {여기서는 그때 데릴사위 데려올 때 결혼식은 했어 안했어?}

10208 # 게론식 해:쥬. {결혼식 했지.}

10208 @ 어뜨케 해? {어떻게 해?}

10208 # 애구! 상이랑 큰::상 바꼬. {애구! 상이랑 큰 상 받고.}

10208 @ 응. {응.}

10208 # 그렇게로 또 대반도 와, 시방 저 저기 인는 양바니 내 대반 안자쥬때... 그렇게 아::. {그러니까 또 대반도 와, 시방 저 저기 있는 양반이 내 대반 앉았을 때... 그러니까 아.}

10208 @ 다바니 머여? {대반이 뭐여?}

10208 # 대반 저테서 날 요로케 그래준담 마리여 안자서. {대반 곁에서 날 이렇게 그래준다 말이야 앉아서.}

10208 @ 여자가? {여자가?}

10208 # 여자가 @ 음::. # 이르게 안자서. {여자가 @ 음. # 이렇게 앉아서.}

10208 # 머 저 이르게 해주고, 머 온또 쥌 잘몬 니번쓰면 잘 이피주고 머, 이렇게 하니라고 저테 안잘땀마리여. {뭐 저 이렇게 해주고, 뭐 옷도 쥌 잘 못 입었으면 잘 입혀주고 뭐, 이런 것 하느라고 곁에 앉았다 말이야.}

10208 # 궁개 심바람 하지머. @ 응. # 내나 심바람꾸니지머 그거, 허. {그러니까 심부름 하지 뭐. @ 응. # 내나 심부름꾼이지 뭐 그것, 허.}

10208 @ 그면 대바는 나이가 더 더 드른 사라미여? {그러면 대반은 나이가 더 더 들은 사람이야?}

10208 # 더:: 나이 이리쥬, 어린 안절쥬쥬. {더 나이 어렸지, 어린 앉아있었지.}

10208 # 그럼 시방 그양반더른 죽꼬 업찌머. {그럼 시방 그 양반들은 죽고 없지 뭐.}

10208 # 내가 이르게 오래 오래 살다낭개 @ 호호호. {내가 이렇게 오래 오래 살다나니까 @ 호호호.}

10208 # 내가 다 자바머거뿌써. @ 허허허허 # 허허허허 아이구! {내가 다 잡아 먹어버렸어. @ 허허허허 # 허허허허 아이구!}

10208 @ 그며는 겨론식 할 때, 할 때 인자 대바니 인꼬, 어뜨케 해? {그러면은 결혼식 할 때, 할 때 이제 대반이 있고, 어떻게 해?}

10208 @ 상은 어뜨케 채려? {상은 어떻게 차려?}

10208 # 상으 멀 머 아주 걸::게 머 오만 거슬 다:: 장마내가지고어, 마 이르게 크: 게 채래. {상은 뭐 뭐 아주 걸게 뭐 오만 것을 다 장만해가지고, 마 이렇게 크게 차려.}

10208 # 채려서 아페다 탁 가따 노코, 또... {차려서 앞에다 탁 갖다 놓고, 또...}

10208 # 사진 사진도 찍꼬 시푸먼 사진도 탁 찍꼬, @ 음. # 머 그릴땀 마리어. {사진 사진도 찍고 싶으면 사진도 탁 찍고, @ 음. # 뭐 그랬단 말이야.}

10208 @ 음. {음.}

10208 # 그레노코 그러니께 땀씨간 투무 시어. {그레놓고 그러니까 몇 시가 틈에 쉬어.}

10208 # 으 서너시간 그러케 상얼 받꼬 안저썸따고. {으 서너 시간 그렇게 상을 받고 앉아있다고.}

10208 # 그레따가 인자 그 다:: 그러고 나면 인자 상얼 물리치우지 머. {그랬다가 이제 그 다 그러고 나면 이제 상을 물리치우지 뭐.}

10208 @ 바깥에서 해, 마당에서? {바깥에서 해, 마당에서?}

10208 # 방에, 방에서. @ 방에서? # 하 동진따링개 # 아! 동진... {방에, 방에서. @ 방에서? # 하 동짓달이니까 # 아! 동짓...}

10208 @ 겨로늘 언제 헨는데? {결혼을 언제 했는데?}

10208 # 아! 저기 저 그 동 그렇게 아이라 방에서 해, 방으서 헨써. {아! 저기 저 그 동 그런 것이 아니라 방에서 해, 방에서 했어.}

10208 @ 메될따레 겨론헨써? {몇 월 달에 결혼했어?}

10208 # 몰라 뭐, 메될따린지 모르겐꾸나. {몰라 뭐, 몇 월 달인지 모르겠구나.}

10208 @ 추웠써? {추웠어?}

10208 # 아니, 더벌써. {아니, 더웠어.}

10208 # 더버서 머여... {더워서 뭐야...}

10208 # 배갈, 배까티서 해도 되지 더분디, 그러는디 방 방으서 형개 내가 어느 다린지 잘 모르겄땀 마리어. {배갈, 바깥에서 해도 되지 더운데, 그런데 방 방에서 하니까 내가 어느 달인지 잘 모르겠다 말이야.}

10208 @ 어, 음. {어, 음.}

10208 # 나이가 그때는 또 어릴제, 그거또 기어글 아나 아넬찌, 그러니까나 머 아 이고 니에미 절머 나버렐써. {나이가 그때는 또 어렸지, 그것도 기억을 안 아 안했지, 그러니까 뭐 아이고 지어미 젊어 나버렸어.}

10208 @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1.2.3.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 10202 @ 아니 그런데 그 압씨베 살고 일편 그 오 오빠그만, 겨론허기 저네는 오빠라고 불렀쎄요? {아니 그런데 그 앞집에 살고 있던 그 오 오빠구먼,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라고 불렀어요?}
- 10202 @ 겨론허기 저네는? {결혼하기 전에는?}
- 10202 # 저네? {전에는?}
- 10202 @ 어, 압똥집 사람쓰면. {어, 앞똥집 살았으면.}
- 10202 # 으, 압씨베 야 찌기, 오빠 오빠라고 했으면 조캐는지 머 안했으면 조캐는지, 그래도 기양 동무동무 허고 지난제, @ 응. # 동무 동무 하고. {으, 앞집에 야 저기, 오빠 오빠라고 했으면 좋겠는재 뭐 안했으면 좋겠는지, 그래도 그냥 동무 동부 하고 지냈지, @ 응. # 동무 동무 하고.}
- 10202 # 동무라캐지 머 오빠되능거또 모르고 머 뭇시 어트게 되능거또 모르고 그저 이르케 하고 사람찌. {동무라고 했지 뭐 오빠 되는 것도 모르고 뭇이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하고 살았지.}
- 10202 @ 음. {음.}
- 10202 # 그래다가 부무네드리 그르케 갠차늘꺼 거트다고 줘써 그, 나는 마메 하:: 나 들지 안치 머. {그러다가 부모네들이 그렇게 갠참을 것 같다고 줘서 그, 나는 맘에 하나 들지 않지 뭐.}
- 10202 # 마미 업찌머, 그렇게 억찌로 시방 억찌 공사로 잔치를 해가지고는 그럭저럭 살다가... {맘이 없지 뭐, 그러니까 억지로 시방 억지로 공사로 잔치를 해가지고는 그럭저럭 살다가...}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 10212 # 하::주 그 내가 또 여라흙싸레 그렇게로 어르내가 드러서드람 마리여 응. {하 주 그 내가 또 열아흙 살에 그러니까 어린애가 들어서더란 말이여 응.}
- 10212 # 그러고 그케에 어르내 드러서는디, 우리 시방 저 시지베 시애끼 @ 응. # 그기 군대 가따가 와가지고는 총을 가지고 완뜨람 마리여. {그리고 그렇게 어린애가 들어섰는데, 우리 시방 저 시집에 시동생 @ 응. # 그게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총을 가지고 왔더란 말이야.}
- 10212 @ 응. {응.}
- 10212 # 그리서 그노무 총을 바로, 우리 똥찌비 이르케 신장노지, 저 운뿌라게 이썰때, 똥찌비 신장논디. {그래서 그놈의 총을 바로, 우리 똥집 이렇게 신장노지, 저 똥 부락에 있을 때, 똥집이 신작로인데.}
- 10212 # 거그 나가서 총을 쏘따 마리여. {거기 나가서 총을 쏘단 말이야.}

10212 # 총을 쏘개 내 깜짝 놀랜찌. {총을 쏘니까 내가 깜짝 놀랐지.}

10212 @ 음. {음.}

10212 # 그리 놀래가지고는 이 일쓰니까 위트가겐써, 뭐 아침찌레 그랜는디 오후
에 발써 출현하지머 @ 어. # 별:거케 막. {그래 놀래가지고는 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뭐 아침결에 그랬는데 오후에 벌써 출혈을 하지 뭐 @ 어.
별정게 막.}

10212 # 그러 하꼬 어찌거써 할쑤 업써, 근디 그해 해필 또 부리 난찌 @ 아. #
부라게. {그래 가지고 어찌 하겠어 할 수 없이, 그런데 그 해 하필 또 불이
났지 @ 아. # 부락에.}

10212 # 그러서 또 그러서 그때 딱 따신 땡개, 그때 삼 삼사워리 땡땡가 그랜쥼
쑈. {그러서 또 끄래서 그때 딱 따뜻한 땡 게, 그때 삼 사 월이 땡든가 그
랬쥼소.}

10212 # 그랜는디 막 한디다가 날 끄저다 뉘퍼노코. {그랬는데 막 한테다가 날 끌
어다 눕혀 놓고.}

10212 # 그저네는 저: 지푸라기 토성을 싸코 사라끄덩. {그전에는 저 집 부락이
토성을 쌓고 살았거든.}

10212 @ 어::. {어.}

10212 # 이르게 허망이 아니지, 전:체 토성을 싸코 사람찌. {이렇게 허망이 아니
지, 전체 토성을 쌓고 살았지.}

10212 # 흐그로 도걸 노코 이르게 막... {흙으로 돌을 놓고 이렇게 막...}

10212 @ 얼마큼 노피로? {얼마큼 높이로?}

10212 # 근디 사람 키는 넘찌머 @ 어! # 그르키 노피 싸노코 땡문해서 탁 다다노
코, 그래노코 사러 사는디 그르케. {그런데 사람 키는 넘지 뭐 @ 어! # 그
렇게 높이 쌓아 놓고 대문 해서 탁 닫아 놓고, 그래 놓고 살아 사는데 그렇
게.}

10212 # 그래가지고는 거그서 놀래가지고는 아가 그만 떠러지고, 떠러전빠릴쥼.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놀래가지고는 애기가 그만 떨어지고, 떨어져버렸지.}

10212 @ 음. {음.}

10212 # 그러고는 시방, 아는 설지도 안체, 나도 땡시니 되야 버링개 영감 생각또
업쥼, 이러케 생게땡 마리어. {그리고는 시방, 애는 서지도 았지, 나도 땡신
이 되어 버리니까 영감 생각도 없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화재

10101 # 아! 참말로... {아! 참말로...}

10101 @ 그먼 그 토성을 쌀 때는, 토성을 싸며는 무니 뎌개여? {그러면 그 토성을 쌀 때는, 토성을 싸면 문이 몇 개야?}

10101 # 문? {문?}

10101 @ 응. {응.}

10101 # 서쪼개 인꼬, 남쪼개 인꼬, 동쪼개 인꼬 그러케 세개네요. @ 세개네요? # 야. {서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동쪽에 있고 그렇게 세 개네요. @ 세 개네요? # 예.}

10101 # 그러고는 그기 저쪽...게는 북쪼개는 @ 산쪼근? # 산쪼근 머 업꼬 그냥 그러케 그러고스리, 샘물터와 다수 무를 질 지르다 먹꼬. {그러고는 그기 저쪽에는 북쪽에는 @ 산 쪽은? # 산 쪽은 뭐 없고 그냥 그렇게 그렇고 스리, 샘물터에 와 다소 물을 길어다 먹고.}

10101 @ 무른 무른 그먼 # 무른 인땀 마리오 샘물. {물은 물은 그러면 # 물은 있단 말이요 샘물.}

10101 @ 그 그 토성 아네? {그 그 토성 안에?}

10101 # 배까테. {바깥에.}

10101 @ 토성 배까테? {토성 바깥에?}

10101 # 토성 배까테. {토성 바깥에.}

10101 # 그래가지고년 아니서 또 무리 차꼬 나 나는데 어디 단 단냥을 잘 봐가지고는 올라올 데 생긴데 판찌머. {그래가지고는 안에서 또 물이 자꾸 나 나는데 어디 단 방향을 잘 봐가지고는 물 올라올 데, 생긴 데 봤지 뭐.}

10101 # 그래 그 파 파노코 인자 거그서 물지러다 먹꼬 그랜찌. {그래 그 파 파놓고 이제 거기서 물 길어다 먹고 그랬지.}

10101 @ 근디 아까 그 불란 얘기좀 해줘바요. {그런데 아까 그 불 난 이야기 좀 해줘 바요.}

10101 @ 불란 불란 부리 난는데 왜 왜 그러케 지비 다, 다 사람드리 다 이사를 완써? {불 난 불 난 불이 났는데 왜 왜 그렇게 집이 다, 다 사람들이 다 이사를 왔어?}

10101 @ 불라지만 한집만 나쓸꺼 아니여? {불난 집만 한 집만 났을 것 아니야?}

10101 # 한집 한지비 난게 아니라 공개, 그해 사멸따린디 바래미 열:마나 처부는지, 바람 처봉개 막 날라가고 여가 불꼬 저가 부꼬... {한 집 한 집이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해 3월 달인데 바람이 얼마나 처부는지, 바람 처부니까 막 날라가지고 여기가 불고, 저기가 불고...}

10101 # 그저 그저니는 어디 이러케 뜨리 이써. 그렇게 지와가 이꼬, @ 음. # 업
 짜 다:: 새초람 마리여. {그저 그전에는 어디 이렇게 뜰이 있어, 그러니까
 기와가 있고, @ 음. # 없지 다 새초란 말이야.}

10101 @ 으으으. {으으으.}

10101 # 그르케 새초를 싹따 지붕을 이고 상개... {그렇게 새초를 싹 다 지붕을 이
 고 사니까...}

10101 # 거가 불덩어리만 하나 떠러지면 막 바래미 붕개 망 내려나지 머 머. {거
 기가 불덩어리만 하나 떨어지면 막 바람이 부니까 막 일어나지 뭐 뭐.}

10101 @ 응. {응.}

10101 # 그러니까 머 어디가 어트개 해볼쭈 업써. {그러니까 뭐 어디가 어떻게 해
 볼 수 없어.}

10101 # 무를 머 어디 퍼서 어트개 헐쭈 인능가, 머 그리고 머 물로 꺼 몬:꺼지
 머 물로. {물을 뭐 어디 퍼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그리고 뭐 물로 꺼
 못 끄지 뭐 물로.}

10101 # 망 노피 그르케 탕개. {막 높이 그렇게 타니까.}

10101 @ 음. {음.}

10101 # 그르케까꼬 훌딱 다 타고선 그래도 멘쩍, 한 여나무집 나만뜡가 어쩡뜡가
 잘 모르젠네. {그렇게 해가지고 훌딱 다 타고서는 그래도 몇 집, 한 여남의
 집 남았든가 어쩡든가 잘 모르겠네.}

10101 @ 총 멘찌비나 일썬까니? {총 몇 집이나 있었까니?}

10101 # 배:코가 너머써. {100호가 넘었어.}

10101 @ 히! 그르케 켜써요? {히! 그렇게 컸어요?}

10101 # 그르케 크게 사란는디 글썬, 아 그르케 부리 나가지고는 그양... {그렇게
 크게 살았는데 글썬, 아 그렇게 불이 나가지고는 그양...}

10101 @ 시계쏘리네 시계쏘리. {시계 소리네 시계 소리.}

10101 # 시계쏘리여? @ 어 시계쏘리 가테요, 허허허. {시계 소리여? @ 어 시계
 소리 같아요, 허허허.}

10101 # 아이고! {아이고!}

10101 @ 그레가지고 그때 인자 싹 네레옹거야? {그레 가지고 그때 이제 싹 내려
 온 것이야?}

10101 # 응 그저 그레가지고 여그다가 지불 인제 지코서는... {응 그저 그레 가지
 고 여기에다가 집을 이제 짓고서는...}

10101 @ 그때는 여기는 마우리 일썬써 업썬써? {그때는 여기는 마을이 있었어,
 없었어?}

10101 # 업썬써 하나도 업썬써 여그년. {없었지 하나도 없었지 여기는.}

10101 # 어:꼬 기양 아조 새초바시여. {없고 그냥 아주 새초밭이었어.}

10101 @ 음. {음.}

10101 # 그렇기 새초바신디 저그 질도 찌그 오솔찌리고. {그런 것이 새초밭인데 저기 길도 저기 오솔길이고.}

10101 # 질도 공개 우리가 땡김선, 땡기따낭개 우리가 뉘째. {길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뉘지.}

10101 # 아이고! 그러케 해가꼬는 여그 여그를 다:: 인자 지별 지코 한집 두집 차꼬 하다낭개 너도 나도 집 지코 그 여와...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기 여기를 다 이제 집을 짓고 한 집 두 집 자꾸 하다나니까 너도 나도 집 짓고 그 여기 와...}

10101 @ 그먼 그때 할머니네도 여그다 지별 지언썌요? {그러면 그때 할머니네도 여기에다 집을 지었어요?}

10101 # 그럼 우리도 집 지언썌 머. {그럼 우리도 집 지었지 뭐.}

10101 @ 그먼 부부가 지응거여, 어머니랑 아버지랑 가치 지언썌? {그러면 부부가 지은 거야,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지었어?}

10101 # 어머이 아버지랑 다 가치 가치 헐썌머. {어머니 아버지랑 다 같이 같이 했지 뭐.}

10101 # 그렇개 시어마이 시아바이 그러케 가치 모도.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렇게 같이 모두.}

10101 # 가치 지언썌, 시애끼덜 이썌개 시애씨덜또 방조하지. 새 시애끼덜또 머. {같이 지었지, 시동생들 있으니까 시동생들도 돕지. 새 시동생들도 뭐.}

10101 # 우리 영가미 나이 머거썌개 그 저 방조 바들만 해땀 마리며, @ 음음. # 동생덜. {우리 영감이 나이 먹었으니까 그 저 도움 받을만 했단 말이며, @ 음음. # 동생들.}

1.2. 일생 의례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5 @ 동생들또 그머는 할머니가 키우썌썌요? {동생들도 그러면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10205 # 아::이. {아니.}

10205 # 그 그렇개 시애끼, 저 우리 영감 동생잉개 시애끼되제 @ 그렇개. # 내 아니. {그 그러니까 시동생, 저 우리 영감 동생이니까 시동생 되지 @ 그러니까. # 내 아니.}

10205 @ 그 여 그 그 동생드를 남자 동생을 # 남자 동생 @ 시애끼라 그러고 # 시애끼라구러고. {그 여 그 그 동생들을 남자 동생을 # 남자 동생 @ 시동생이라 그러고 # 시동생이라고 그래.}

10205 @ 여자 동생은? {여자 동생은?}

10205 # 시누. {시누.}

10205 @ 시누? {시누?}

10205 # 시누. {시누.}

10205 @ 그러면 시누는 업썰썰? {그러면 시누는 없었어?}

10205 # 시누 하나 일쑤. {시누 하나 있지.}

10205 @ 손 우에 밀테? {손 위에 밀에?}

10205 # 우 우에. {위 위에.}

10205 # 썸 여 남도 남도 아려? @ 예예. # 남도? @ 응. {저 여 남도 남도 알아?}

@ 예예. # 남도? @ 응.}

10205 # 거그레 거그르 시지까가지고 주거썸. {거기로 거기로 시집가가지고 죽었지 뭐.}

10205 # 살다가 아들따 나노코는. {살다가 아들 딸 낳아 놓고는.}

10205 @ 남도, 절라도 사라미열썸요? {남도, 전라도 사람이었지요?}

10205 # 절라도 썸람 마나 거기도. {전라도 사람 많아 거기도.}

10205 # 거그도 하 어디서 와가지고... {거기도 하 어디서 와가지고...}

10205 @ 지금 남도는 업썸썸 야튼? {지금 남도는 없어졌지 아무튼?}

10205 @ 그 조선썸람 하나도 업능거 가편테. {그 조선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10205 # 조선 썸람 더러 이썸꺼여. {조선 사람 더러 있을 거야.}

10205 @ 응. {응.}

10205 # 일썸 더러 메토 안될썸요. {있어 더러 몇도 안 될 거예요.}

10205 # 남도 거그 가본지도 하도 인제 오래되얏썸. {남도 거기 가본지도 하도 이제 오래 되었어.}

10205 @ 여그서 거러서 얼마나 가? {여기서 걸어서 얼마나 가?}

10205 # 거러서 못까. {걸어서 못 가.}

10205 @ 그레요? {그레요?}

10205 @ 송강 지나요? {송가 지나요?}

10205 # 송강 지나서 가. {송강 지나서 가.}

10205 @ 송강 지나서 이도배카썸그로 가? {송강 지나서 이도백하썸쪽으로 가?}

10205 # 으, 저 남썸그로. {응, 저 남썸쪽으로.}

10205 @ 지금 장백썸니 이 남썸게 일썸 이? {지금 장백산이 이 남썸쪽에 있어 이?}

10205 # 야. {야.}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

- 10218 @ 여기서 장백 장백산까지는 거리가 얼마내 돼? {여기서 장백 장백산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돼?}
- 10218 # 거리가 멀:지, 야 거 못까, 차타야 가제. {거리가 멀지, 야 그 못 가, 차타야 가지.}
- 10218 # 으 항구게서 마:니 와따드만. {응 한국에서 많이 왔다고 하드만.}
- 10218 @ 장백산 가보셴쎄요? {장백산 가보셨어요?}
- 10218 # 응? {응?}
- 10218 @ 장백산 가반냐고? {장백산 가보았냐고?}
- 10218 # 가:봐 가보지, 함번 가서 달갈, 거그 무리 대:다니 뜨겁담 마리오. 그리각 뜨금물... 그 시방 폭발 땀따고 그러데. {가봐 가보지, 한 번 가서 달갈, 거기에 물이 대단히 뜨겁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 그 시방 폭발 되었다고 그러데.}
- 10218 @ 그래요? {그래요?}
- 10218 # 응. {응.}
- 10218 # 거그다가 달갈 가따가 여먼 다:: 익제. {거기에다가 달갈 갖다가 넣으면 다 익지.}
- 10218 # 그레 가꼬 가서 거가 잘도 썩달갈 가꼬가서, 거가서 썰마 뭉꼬 그랜는디, 다 폭발 땀따드만. {그레 가지고 가서 거기 가 잘도 썩달갈 가지고 가서, 거기 가 삶아 먹고 그랬는데, 다 폭발 되었다더구먼.}
- 10218 @ 그래요? {그래요?}
- 10218 # 어. {어.}
- 10218 @ 그먼 삼뽕 강거여? {그러면 산보 가는 거야?}
- 10218 # 삼뽕 간제, 삼뽕로 삼뽕로 구경가쎄제. {산보 갔지, 산보로 산보로 구경갔었지.}
- 10218 @ 응. {응.}
- 10218 # 야. {야.}
- 10218 # 백싼 미테서 살텐서 백싼 구경이나 좀 하자. {백산 밑에서 살면서 백산 구경이나 좀 하자.}
- 10218 @ 허허허허. {허허허허.}
- 10218 # 그래가지고 모두 동위내서 간제. {그레 가지고 모두 동원해서 갔지.}
- 10218 @ 아, 동네 싸람드리? {아, 동네 사람들이?}
- 10218 # 아먼, 동네 싸람드리. {아무렴, 동네 사람들이.}
- 10218 @ 자 인자, 그러케 그러케 하고, 이제 계론 해서 그러케 살다가, 농사는 얼마나 전쎄? {자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가, 농사는 얼마나 지었어?}

10218 # 농사 그렇게로... {농사 그러니까...}

10218 # 내 농사가... 칠무지강가 응: 팔무지기깁따. {내 농사가... 7문 지기가 영 8 문 지기겠다.}

10218 # 그 다 그때는 그러케 오다낭개 소가 업썩개 받까리도 모더고, 다 짹지로 @ 어, 짹 # 어 짹지질 해서, 짹지르 파서, 느타낭개 마:이 몬하끄만. {그 다 그때는 그렇게 오다 나니까 소가 없으니까 밭갈이도 못하고, 다 팽이로 @ 어, 짹 # 어 팽이질해서, 팽이로 파서, 넣다나니까 많이 못 했그만.}

10218 @ 그정도 허면, 팔무지기정도 허면 콩을 얼마나 해, 뎡까마니나 해? {그 정도 하면, 8문 지기정도 하면 콩을 얼마나 해, 몇 가마니나 해?}

10218 # 그렇게로 콩, 콩이 그때:: 콩 파시 그때 쪼그만 요마년 주머니로 한나, 한 백꾼 너물꺼여 그때. {그러니까 콩, 콩이 그때 콩 팔이 그때 쪼그만 이만한 주머니로 하나, 한 100근 넘을 거야 그때.}

10218 # 그러고 또 콩, 콩이 큰 가마 가마스, 그저네는 가마스 사 씨먹꼬 그랜썩. {그리고 또 콩, 콩이 큰 가마 가마니, 그전에는 가마니 사 씨먹고 그랬어.}

10218 # 가마스다가 세 가마승가, 세 가마스. {가마니에서 세 가마니인가, 세 가마니.}

10218 # 강냉이는 얼맨지 난 잘 모르깁서. {강냉이는 얼마이지 난 잘 모르겠어.}

10218 @ 강냉이는 마니 해? {강냉이는 많이 해?}

10218 # 강냉이는 더 만치. {강냉이는 더 많지.}

10218 @ 그며는 그거 가지면, 그때 식꾸가 뎡 뎡 식꾸여? {그러면 그것 가지면, 그때 식구가 몇 몇 식구야?}

10218 # 우리? {우리?}

10218 @ 어. {어.}

10218 # 우리 그렇게로 엄마 어부지, 동생 둘, 그 너이 나끄지 다선.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동생 둘, 그 넷이 나까지 다섯.}

10218 @ 음, 여선? {음, 여섯?}

10218 # 나꺼지... {나까지...}

10218 @ 엄마 아버지 # 동생 @ 동생 둘, # 둘, 다섯 이지 @ 내외간 # 나꺼지 다섯. {어머니 아버지 # 동생 @ 동생 둘, # 둘, 다섯이지 @ 내외간 # 나까지 다섯.}

10218 @ 응 바깥 낭만도 계시니까 여선명이구만. {응 바깥양반도 계시니까 여섯 명이구먼.}

10218 @ 응 그 그때 뎡싸리라고, 뎡쌀때여, 아녀. {응 그 그때 몇 살이라고, 몇 살 때야, 아녀.}

10218 # 그때는 @ 그 하라버지 뎡쌀때 도라가썩썩요? {그때는 @ 그 할아버지 몇 살 때 돌아가썩어요?}

10218 # 나? {나?}

10218 @ 응. {응.}

10218 # 내가 그 멘살태연능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내가 그 몇 살 때였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10218 @ 절머서 도라가설씨요?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10218 # 차며, 나 저 아조 기양 어::찌 बे기실코 싸멸해싸코 가쌍개, 나 그 읍뿌라 게서 살다가 무례 빠져 주굴라고 @ 누가? # 내가. {아무렴, 나 저 아주 그 냥 어찌 보기 싫고 싸움을 해쌍 갔으니까, 나 그 윗부락에서 살다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 누가? # 내가.}

10218 @ 어::! {어!}

10218 # 하 이러고 살라, 사려서 머하능가 탕 무례 빠져 주굴라고 아침 일찌건치 해서 먹꼬는 들고 뿔:찌. {하 이러고 살아, 살아서 뿔:하능가 탕 물에 빠져 죽으려고 아침 일찌감치 해서 먹고는 들고 뿔:었지.}

10218 # 그릴떠니 이노무 영가미 어찌 받똥개비여 @ 응. # 보고서는 따루니 내가 담당하 @ 응. # 남자가 더잘 뛰제. {그랬더니 이놈의 영감이 어디서 보았 든가보아 @ 응. # 보고서는 따르니 내가 담당을 해 @ 응. # 남자가 더 잘 뛰지.}

10218 @ 응. {응.}

10218 # 그래 부뚜러다가 하::! 살면스 기양 싸멸허고 사라 살고 살면서 그렇게 내가 그때... {그래 붙들어다가 하! 살면서 그냥 싸움을 하고 살아 살고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

10218 # 하 메싸린지 생각 아이나네, 생각 아이나. {하 몇 살인지 생각 안 나네, 생각 안 나.}

10218 @ 응. {응.}

10218 # 그거는. {그것은.}

10218 # 어 어찌 뿔뜬지 내가 그때 장백산: 가쓸 때, 나를 시집까라고 권도하는 사라미 인는다. {어 어찌 뿔뜬지 내가 그때 장백산 갔을 때, 나를 시집가라고 권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10218 # 내가 시지벌 가서 머하능가고 양갈라군다며, 근대 내가 그때 예:: 서 서 룬... {내가 시집을 가서 뿔:하능가 하고 안 가려고 한다며, 그런데 내가 그때 예 서 서 룬...}

10218 # 서룬 서룬한난지 그러케 돼꼐쑈. {서룬 서룬하나인지 그렇게 되었쑈.}

10218 # 그렇게 차꼬 나를 영감 어더 가라고 차꼬 권도하는 사람 일따람마려. {그러니까 자꾸 나를 영감 얻어 가라도 자꾸 권고하는 사람 있었단 말이야.}

10218 # 하 나는 영감 안, 영감 몸쌀난다고 아이 간다. {하 나는 영감 안, 영감 몸 살 난다고 아니 간다.}

10218 @ 그먼 한 십년, 시보년쑈 사란네 이? {그러면 한 10년, 15년쑈 살았네 이?}

10218 # 그러케 사람쓸꺼 어, 그러케 사라. {그렇게 살았을 거야 어, 그렇게 살아.}
 10218 @ 그먼 그 영감 그 하라버지는 병으로 도라가셨쎄요? {그러면 그 영감 그
 할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10218 # 병으로 도라가셨쎄, 기양 알타가. {병으로 돌아가셨지, 그냥 앓다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그먼 전쟁을 마:니 받쎄? {그러면 전쟁을 많이 봤지?}
 10201 # 어? {어?}
 10201 @ 전쟁, 그때 전쟁 마니남쎄쎄? {전쟁, 그때 전쟁 많이 났었지?}
 10201 # 전쟁? {전쟁?}
 10201 @ 으에. {응예.}
 10201 # 아이고 전쟁 머, 전쟁이고 머고, 막:: 기양 사느로 막 중는다고, 주꼴까바
 @ 응 # 막 야단칭개로 사느로 막 들고 뛰고 막:: 그레써 우리가. {아이고
 전쟁 뤼, 전쟁이고 뤼고, 막 그냥 산으로 막 죽는다고, 죽을까봐 @ 응 # 막
 야단치니까 산으로 막 들고 뛰고 막 그랬어 우리가.}
 10201 @ 왜? {왜?}
 10201 # 아 전장 이러낭개로 기양 중능간 해가지고. {아 전쟁 일어나니까 그냥 죽
 는가 해가지고.}
 10201 @ 응. {응.}
 10201 # 막, 총소리가 사:구니에서 나지 막, 비적뜨리 또, 그때는 또 도동노미 비
 저기라깁쎄. {막, 총소리가 사방에서 나지 막, 비적들이 또, 그때는 또 도둑
 놈이 비적이라고 했소.}
 10201 @ 어::! {어!}
 10201 # 도동놈보고. {도둑놈보고.}
 10201 # 저저 양꼬라네 @ 음. # 거그서 그렇게 읍뿌락 저 양꼬라네 또 귀라니
 인, 쿵 귀라니 일쎄. {저 저 안 골안에 @ 음. # 거기서 그러니까 윗부락 저
 안 골안에 또 골안이 있, 큰 골안이 있지.}
 10201 # 사니 큰 사니고, 거그서 막 비적뜨리 막:: 와가지고는 막 머 사정이 업쎄.
 {산이 큰 산이고, 거기서 막 비적들이 막 와가지고는 막 뤼 사정이 없지.}
 10201 # 약땀배 내라고. {아편 내라고.}
 10201 # 그저니는 약땀배도 싱귀묵꼬 사람땀 마리오 은. {그전에는 아편도 심어
 먹고 살았던 말이요 응.}
 10201 @ 응. {응.}
 10201 # 약땀배 @ 아편? # 알제? @ 아편? 애 아편. {아편 @ 아편? # 알지? @
 아편? 예 아편.}

10201 @ 응. {응.}

10201 # 그 그건 내라고. {그 그것 내라고.}

10201 # 그거 안내면 쥐긴다능기제. {그거 안 내면 죽인다는 것이지.}

10201 # 아이 그렇걸 누가 거그 어띠이 들키기만 허면 크:일나고 중는디 그렇걸 누가 하오? 아너지. {아니 그런 것을 누가 거기 어떻게 들키기만 하면 큰일나고 죽는데 그런 것을 누가 하오? 안 하지.}

10201 # 그래가지고는 막:: 자바 안낸다고 막 자바 치고 개지랄덜 허지 아이고:: {그래 가지고 막 잡아 안 낸다고 막 잡아 치고 개지랄을 하지 아이고...}

10201 # 더런노무 세상이여. {더런 놈의 세상이야.}

10201 @ 그먼 그 비적뜨른 중국, 중국싸람드리여 한국싸람드리여? {그러면 그 비적들은 중국, 중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이야?}

10201 # 다 중국싸람드리제. {다 중국 사람들이지.}

10201 # 중국, 중구게 싸람들. {중국, 중국에 사람들.}

10201 # 명게 조선싸람도 일제, 하 궁게 저기 한중논들또 일제 다 그랜땀 마리어. {멀게 조선 사람도 있지, 하 그러니까 저기 한족놈들도 있지 다 그랬단 말이야.}

10201 @ 그먼 저 읍뿌라게 살때는 조, 저 한 한조근 업썸썸요? {그러면 저 윗부락에 살 때는 조, 저 한 한족은 없었어요?}

10201 # 업썸썸. {없었어.}

10201 # 아 전치 다 조선사라미때썸. {아 전체 다 조선 사람이었었어.}

10201 # 한족 하나도 업썸. {한족 하나도 없어.}

10201 # 그렇개로 이부라게 와가꼬도 이 조선싸람이 맨 조선싸람만 사랄땀는디,
@ 응. # 한집 뻥, 받끼 시자강개 그사람드리 또 줄기가 이썸개 자꼬 끄저 드린담 마리어 @ 응응 # 그리가꼬 이러케 이러케 한, 맨 한족뿌락, 맨 한족 싸라미. {그러니까 이 부락에 와가지고도 이 조선 사람이 맨 조선 사람만 살았었는데, @ 응. # 한 집박, 받끼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줄기가 있으니까 자꾸 끄집어드린단 말이며 @ 응응 #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맨 한족 부락, 맨 한족 사람이.}

10201 @ 그러면 그때에 그먼 불라고 나서, 불라고 나서 동생이랑 이런분드른 항국그로 도라간썸요? {그러면 그때에 그러면 불나고 나서, 불나고 나서 동생이란 이런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10201 # 그래, 항구그로 간썸머 테베. {그래, 한국으로 갔지 뭐 도리어.}

10201 # 그렇개 우리 자그나부지가 데리고, @ 응. # 자그나부지가 데리고 나가, 다 데리고 나간땀 마리어.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고 데리고, @ 응. # 작은아버지가 데리고 나가, 다 데라고 나갔단 말이야.}

10201 @ 그먼 아버지는 언제 도라가썸썸?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

10201 # 영? {영?}

10201 @ 아버지는 언제 도라가서, 친정아버지?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서, 친정아버지?}

10201 # 우리 친정아버지? {우리 친정아버지?}

10201 @ 응. {응.}

10201 # 우리 친정아버지 그렇게, 여그 오던 내가... {우리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오던 내가...}

10201 # 이 소사 와, 열 열두사레 여그 완쫓개 @ 응. # 열세사레 사망 돼쫓개... {이 소사 와, 열 열두 살에 여기 왔으니까 @ 응. # 열세 살에 사망 됐으니까...}

10201 @ 아::! 소사에서 도라가곶쑤? {아! 소사에서 돌아가곶어?}

10201 # 소사서 도라가곶쑤. {소사에서 돌아가곶어.}

10201 @ 아! {아!}

10201 @ 그리고 인자 자그나버지가 # 오던 기지땡가 기지땡 사망대쑤. {그리고 이제 작은아버지가 # 오던 그 이듬해인가 이듬해 사망됐지.}

10201 @ 그러고는 자그나부지가 그러케, 다 데리고 나가...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다 데리고 나가...}

10201 @ 그먼 월래 월래 동생드른 멘명이여 친동생드른? {그러면 원래 원래 동생들은 몇 명이야 친동생들은?}

10201 # 둘. {둘.}

10201 @ 딸들, 아들들? {딸들, 아들들?}

10201 # 아들 둘. {아들 둘.}

10201 # 아들 둘. {아들 둘.}

10201 # 그렇게 자그나부지가 데리고 나갠땡 마리어 @ 응. # 항구그로.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데리고 나갠단 말이야 @ 응. # 한국으로.}

10201 @ 그먼 그때는 해방되기 저니여? {그러면 그때는 해방되기 전이야?}

10201 # 해방되기 저니 저니지머. {해방되기 전에 전이지 뭐.}

10201 # 우리 동생드리:: 이 열두살, 내 열세살 땡지 열두살 땡지 @ 툽 그때넌 데리고 간쑤. {우리 동생들이 이 열두 살, 내 열세살 때인지 열두 살 때이지 @ 툽 그때는 데리고 갔어.}

10201 @ 그먼 여기를 멀 타고 완쑤? {그러면 여기를 뭘 타고 왔어?}

10201 # 여기까지 머 타고 완냐고? {여기까지 뭘 타고 왔냐고?}

10201 # 그때는 그 그때도 차가 일쑤서, 차가 일뜨라고요. {그때는 그 그때도 차가 있었어, 차가 있더라고요.}

10201 # 그리서 차에 그러케 기양 시러다노코는 간쑤. {그래서 차에 그렇게 그냥 실어다 놓고는 갔어.}

10201 # 여끄지 머 어트게 오곶쑤, 차가 인쑤개 완쑤. {여기까지 뭘 어떻게 오곶쑤, 차가 있으니까 왔지.}

10201 @ 금 메:칠 걸려? {그럼 며칠 걸려?}

10201 # 아이. {아니.}

10201 # 하루반 걸::리뎡가... {하루 반 걸렸던가...}

10201 @ 그러케... {그렇게...}

10201 @ 그먼 여그, 그먼 여기가 김제보다도 더 살기가 조알써?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가 김제보다도 더 살기가 좋았어?}

10201 # 오잉개 머 그러케 생깁기 정이 떠러지지 머 @ 응. # 그 버더게서 살다가, 여그 오이까 막 산쏘기지. {오니까 뭐 그렇게 생긴 게 정이 떨어지지 뭐 @ 응. # 그 들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막 산 속이지.}

10201 # 근디 먹꼬 살기는 갠찬치, 먹꼬 살기는. {그런데 먹고 살기는 괜찮지, 먹고 살기는.}

10201 # 거그서는 좀 골라난 사람 영 골라나지. {거기서는 좀 곤란한 사람 영 곤란하지.}

10201 # 그런디 여그 오이까나 배불리 먹꼬, 먹꼬 살기는 갠찬트라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배불리 먹고, 먹고 살기는 괜찮더라고.}

10201 @ 그 싸른 업썸써? {그 쌀은 없었어?}

10201 # 어디서? {어디서?}

10201 @ 여기. {여기.}

10201 # 여기? {여기?}

10201 @ 응. {응.}

10201 # 싸리 일썸, 싸리 이썸, 싸리 일꼬. {쌀이 있지, 쌀이 있어, 쌀이 있고.}

10201 # 그렇게 쌀 싸리 귀 좀 귀하드라고요. {그러니까 쌀이 귀 좀 귀하드라고요.}

10201 # 그러고는 전치 강냉이. {그리고는 전체 강냉이.}

10201 @ 음음음. {음음음.}

10201 # 강냉이 그저 와서 만날 죽끄리 먹꼬, 강냉이 죽. {강냉이는 그저 와서 만날 죽 끓여 먹고, 강냉이 죽.}

10201 @ 강냉이 죽? {강냉이 죽?}

10201 # 응. {응.}

10201 @ 마싯써? {맛있어?}

10201 # 어 난 지금 강냉이죽 대다이 조아요, 강냉이 주건. {어 나는 지금 강냉이죽 대단히 좋아요, 강냉이 죽은.}

10201 # 그레 시방도 야 누가 누네가 또 강냉이죽 오늘 꼬린다허글레, 아따 그 그저썸 항그럭 무거받쓰면 쓰건네. {그레 시방도 야 누가 누구네가 또 강냉이죽 오늘 끓인다 하길래, 아따 그 그것 좀 한 그릇 먹어봤으면 쓰겠네.}

10201 @ 음. {음.}

10201 @ 그먼 강냉이주건 어트게 꼬려? {그러면 강냉이 죽은 어떻게 끓여?}

10201 # 갱냉이죽 머 꽤끼 여코, 콩 여코, 물 부셔 노코 기양 불때면 팍 퍼진담
마리여 막 이 이러케 퍼지제. {강냉이 죽 뭐 팔 넣고, 콩 넣고, 물 부어 놓
고 그냥 불 때면 팍 퍼진다 말이야 막 이 이렇게 퍼지지.}

10201 @ 음. {음.}

10201 # 그그 다 퍼지면 머저, 먹찌. {그 그 다 퍼지면 먹어, 먹찌.}

10201 @ 갈그내서 그 허능게 # 아이. @ 아니고? {가루 내서 그 하는 것이 # 아
니. @ 아니고?}

10201 # 어:!! {어!}

10201 # 통강냉이르 쟁거. {통 강냉이를 쟁 것.}

10201 # 응. {응.}

10201 # 달 그저니는 또, 지그문 지개다가 찌쿠 머 벨진들 다 머 그러케 하는디.
{달 그전에는 또, 지금은 기계에다가 찼고 별짓들 다 뭐 그렇게 하는데.}

10201 # 그저니는 이러케 절구지라고 또 발방아도 방아, 이러케 디딜빵애 그렇겔
로 찌어서 강냉이주글 끄리먹꼬. {그전에는 이렇게 절구라고 또 발 방아도
방아, 이렇게 디딜방아 그런 것으로 찼어서 강냉이 죽을 끓여 먹고.}

10201 @ 그며는... {그러면...}

10201 @ 강냉이가 요로케 인자 요로케 생게쓰면 # 응. @ 절구 절구나 디딜빵아
로 이러케 찌면, 깨지 깨지지? {강냉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
응. @ 절구 절구나 디딜방아로 이렇게 찌면, 깨지 깨지지?}

10201 # 응, 껍째기가 흘랑흘랑 다, 물부셔 물분꼬 찌어야혀. {응, 껍질이 흘랑흘
랑 다, 물 부어 물 붓고 찼어야 해.}

10201 @ 응. {응.}

10201 # 그냥 찌면 안되제, 다 빠와지제. {그냥 찼으면 안 되지, 다 바스러지지.}

10201 # 그렇게 무털 분꼬, 그케 찌머는 껍떼기가 흘랑흘랑흘랑 답빠써지고 그 또
강냉이 농까리 일쏘. {그러니까 물을 붓고, 그렇게 찼으면 껍질이 흘랑흘랑
흘랑 다 벗어지고 그 또 강냉이 눈이 있소.}

10201 @ 아:!! {아!}

10201 # 강냉이 새카만 농깁 그놈도 다 빠지고. {강냉이 새카만 농깁 그놈도 다
빠지고.}

10201 # 그래야 이러케 잘 퍼진담바리요. {그래야 이렇게 잘 퍼진단 말이요.}

10201 @ 그냥 너먼 압퍼지고? {그냥 넣으면 안 퍼지고?}

10201 # 아:!! {아!}

10201 # 응, 그거머 저 주겔 그냥 허먼 마시업찌, 껍띠기채 어티게 머저, 어. {응,
그거 뭐 저 죽을 그냥 하면 맛이 없지, 껍질 채 어떻게 먹어, 응.}

10201 @ 어:!! {어!}

10201 # 마시업제. {맛이 없지.}

10201 @ 따릅씨 어트게 # 걸지도 앙코. {쌀 없이 어떻게 # 걸지도 앙고.}

10201 @ 음. {응.}

10201 # 그 이러케 방아다 찌어서 주걱 끄리면 어불러져 푸리 망 나제. {그 이러케 방아에다 찼어서 죽을 끓이면 터져 풀이 막 나지.}

10201 @ 어. {어.}

10201 # 푸리 나머는 영 조치며. {풀이 나면 영 좋지 뭐.}

10201 # 그렇게 그냥 쌀무먼 만날 멀쪼가니 @ 애. # 기양 맹물로 그냥 일땀마리여, 그러케 땀. {그러니까 그냥 삶으면 만날 멀쪼하니 @ 예. # 그냥 맹물로 그냥 있단 말이여, 그렇게 돼.}

10201 @ 응, 그럼 쌀죽, 쌀죽처럼 그러케 하야나게 인자 퍼져? # 야, 퍼져. {응, 그럼 쌀죽, 쌀죽처럼 그렇게 하얏게 이제 퍼져? # 야, 퍼져.}

10201 @ 그먼 그먼 그거슬 하루 종, 인자 하루 세끼씩 멍능거여?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하루 종, 이제 하루 세끼씩 먹는 거야?}

10201 # 그럼, 그 머거찌. {그럼, 그 먹었지.}

10201 # 하루 세끼만 먹게쏘, 마나면 이튼날까지 먹제. {하루 세끼만 먹겠소, 많으면 이튼날까지 먹지.}

10201 # 그거또 그러케 한:사발씩 머그먼 참 조치. {그것도 그렇게 한 사발씩 먹으면 참 좋지.}

10201 # 지그먼 그렇거도 만또 업찌, 이 무신 임마시 그러케 변하는지 무신 아무리 마신는 거또 마시 업씨. {지금은 그런 것도 맛도 없지, 이 무슨 입맛이 그렇게 변하는지 무슨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

10201 @ 응. {응.}

10201 # 이 이비 벨라탐 마리오. {이 입이 별나단 말이요.}

10201 @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10201 # 나이 머궁개 그렇가, 절머쓸때 양가꼬 어?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젊었을 때 안 갖고 어?}

10201 @ 응. {응.}

10201 # 야 내가 어디가서 그리 누구 오라개도, 야 이거 늘궁기 머 흐:여이 해가꼬 머 어디로 차꼬 어더머그로 땡기갠능가, @ 응. # 이런 생가기 드러가고. {야 내가 어디 가서 그리 누구 오라고 해도, 야 이거 늙은 게 뭐 하얏게 해가지고 뭐 어디로 자꾸 얻어먹으러 다니겠는가, @ 응. #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10201 # 하허허 아이고! {허허허 아이고!}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형성

- 10101 @ 그뎨 이 마을 만들 때, 만들 때, 위에서 그 백까오 중에서 땡까오쫘 네레
완써? 처으메? {그러면 이 말을 만들 때, 만들 때, 위에서 그 100가호 중에
서 몇 가호쫘 내려왔어? 처음에?}
- 10101 # 체으멘... {처음에는...}
- 10101 # 이러곱 이 다선, 다선까옹가, 다선까오가 와서 지벌 진 진키 시자강개 엄
방 엄방 차꼬 내려온담 마리여. {일여곱 이 다섯, 다섯 가호인가, 다섯 가호
가 와서 집을 짓 짓기 시작하니까 연방 연방 자꾸 내려온단 말이야.}
- 10101 # 지불 지코 내려오고 내려오고 허다낭개 다 내 내려와. {집을 짓고 내려오
고 내려오고 하다나니까 다 내 내려와.}
- 10101 @ 그뎨 그 토성은 인자 싹 허러져 버렐써? {그러면 그 토성은 이제 싹 헐
어져 버렸어?}
- 10101 # 그럼 다 뭉게져뿌릴써 인자. {그럼 다 뭉개져버렸지 이제.}
- 10101 # 다 허물고, 다 바덴뿌릴써 거기는. {다 허물고, 다 밭 되어버렸어 거기는.}
- 10101 @ 음. {음.}
- 10101 # 바트만 한담마리여. {밭만 한단 말이여.}

1.3. 생업 활동

1.3.2. 밭농사

- 10307 @ 그뎨 여기 내려와가지고, 농사는 주로 먼 농사? {그러면 여기 내려와가
지고, 농사는 주로 뭘 농사?}
- 10307 @ 아까 인자 강냉이 하고 # 강냉이하고, @ 패끼하고 # 패끼하고, 쿵, @
쿵. {아까 이제 강냉이하고 # 강냉이하고, @ 팔하고 # 팔하고, 쿵, @ 쿵.}
- 10307 @ 그다메 싸른? {그 다음에 쌀은?}
- 10307 # 싸른 아닌써. {쌀은 안 했어.}
- 10307 # 노니 업썰개로 노닐 아낭개 싸른 업썰. {논이 없으니까 논을 안 하니까
쌀은 없지.}
- 10307 @ 그럼 싸른 어디서 파라다 머거? {그럼 쌀은 어디서 팔아다 먹어?}
- 10307 # 송강 가서. {송강 가서.}
- 10307 # 송강으 가서 쪼끔씩 이 도니 일쓰면 싸다 먹꼬, 그라너면 그냥 먹고 살고

그러게 만. {송강에 가서 조금씩 이 돈이 있으면 사다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만.}

10307 @ 그먼 일러네 일러네 싸를 얼마나 머걸써? {그러면 일 년에 일 년에 쌀을 얼마나 먹었어?}

10307 # 아 그거는 몰르걸써. {아 그것은 모르겠어.}

10307 @ 거이 거이 쌀 암머걸써? {거의 거의 쌀 안 먹었어?}

10307 @ 어::. {어.}

10307 # 쌀 캄 그점 머... {쌀 캄 그것은 뭐...}

10307 @ 그먼 도는 만들라면 뭘로 만드려 그때는? {그러면 돈은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 그때는?}

10307 @ 돈 별 일이 업네, 업짜나? {돈 별 일이 없네, 없잖아?}

10307 # 별 일이 업썬제, 그래도 부무네드리 어트캔는지, 하 하는지 부무내드리 그르케 도늘 그래가지고는 내사머 모르지. {별 일이 없었지, 그래도 부모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 하는지 부모네들이 그렇게 돈을 그래 가지고는 나야 뭐 모르지.}

10307 # 그렇게로 부부네드리, 아 이 이 소사서 소사와가지고 사넌디 쪼끄만 낭구 하로 간따가 쪼끄만 느지면 대:무닐 꼭 다다부려. {그러니까 부모네들이, 아 이 이 소사에서 소사 와가지고 사는데 조그만 나무하러 갔다가 조그만 늦으면 대문을 꼭 닫아버려.}

10307 @ 음. {음.}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그때도 소사도 토성을 싸코 사람써? {그때도 소사도 토성을 쌓고 살았어?}

10101 # 아니. {아니.}

10101 # 그거넌 널롱개로 몬싸서 안싸찌머. {그것은 넓으니까 못 싸서 안 쌓지 뭐.}

10101 @ 그먼 대문 다드면 어트게허? {그러면 대문 닫으면 어떻게 해?}

10101 # 응? {응?}

10101 @ 대무늘 다드면 어트게 허냐고? {대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냐고?}

10101 # 거기메럴 일찍 땡게야지 그머... {거기메를 일찍 다녀야지 그 뭐...}

10101 # 아 알머넌 그 시가네 시간저네 가야제, 드리가야제. {아 알만한 그 시간에 시간 전에 가야지, 들어가야지.}

10101 # 막 대문, 그저네 왜 경찰덜 또 보초보넌 사라미 인땀마리요. {막 대문, 그 전에 왜 경찰들 또 보초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10101 @ 동네마다? {동네마다?}

10101 # 이 그 무네 무네 보초 보는 사람. {이 그 문에 문에 보초 보는 사람.}

10101 @ 총 들고? {총 들고?}

10101 # 총 들고. {총 들고.}

10101 # 그리니까나 그저 그 시간 저네 가야제. {그러니까나 그전 그 시간 전에 가야지.}

10101 # 그 시간 냉기면 기양 문 쳐다다 버린담 마리어. {그 시간 냉기면 그냥 문 쳐 달아 버린단 말이야.}

10101 @ 그면 비적뜨리 오면, 비적뜨리고 싸와? {그러면 비적들이 오며는 비적들 하고 싸워?}

10101 # 어 비적들, 저 오면 그냥 막 뛰들고 패고 막 생 지랄덜 허고 싸우고 쪼겨 가지며. {어 지적들, 저 오면 그냥 막 두드리고 패고 막 생 지랄들을 하고 싸우고 쫓겨 가지 뭐.}

10101 # 그노무 그게 약땀배 때미 그지랄허고 땀긴담 마리어. {그놈의 그게 아편 때문에 그 지랄하고 다닌단 말이야.}

10101 @ 그 약땀배를 그때 키운 사람도 일썬쓸꺼 아녀? {그 아편을 그때 키운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야?}

10101 # 키운 사람 일썬찌며, 기운 사람 일썬. {키운 사람 있었지 뭐, 키운 사람 있어.}

10101 # 근디 도도그로 키우지며. {그런데 도둑으로 키우지 뭐.}

10101 @ 아! 그때도. {아! 그때도.}

10101 # 야, 도도그로, 도도그로. {야, 도둑으로, 도둑으로.}

10101 @ 그때도 모더게 헐꼬만? # 모더게 헐써. {그때도 못 하게 했구먼? # 못 하게 했어.}

10101 @ 약땀배 꼬시 예쁘지 이? {아편 꽃이 예쁘지 이?}

10101 # 곱:찌며, 꼬시 고바, 하양걸. {곱지 뭐, 꽃이 고와, 하얀 것.}

10101 # 그렇게 약땀배 배꼬진써 배꼐 하:양꼐, 그기 야기된담 마리오. {그러니까 아편 배꽃에서 배꽃 하얀 꽃, 그것이 약이 된다 말이요.}

10101 # 이러케 새깁 인능걸 말고 하양거 하양거시. {이렇게 새깁 있는 것 말고, 하얀 것 하얀 것이.}

10101 @ 그면 시집, 시집싸리는 아넌컨네? {그러면 시집, 시집살이는 안 했겠네?}

10101 # 나? {나?}

10101 @ 응. {응.}

10101 # 시집싸리 우리 시어마이 시아버이가 참:: 조아, 경상도 싸람인디. {시집살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참 좋아, 경상도 사람인디.}

10101 # 그래가지고는 날 대::다이 열리고 참:: 글고 사람써, 시집싸리는 아넌써. {그래가지고 날 대단해 열리고 참 그렇게 하고 살았어, 시집살이는 안 했어.}

1.2. 일생 의례

1.2.1.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2 @ 그 저 바깥양반 성씨는 며얼씨? {그 저 바깥양반 성씨는 뭐였어?}
10202 # 성이? {성이?}
10202 @ 어. {어.}
10202 # 박까. {박씨.}
10202 @ 아! {아!}
10202 # 박정하. {박정하.}
10202 @ 거기는 경상도뿐니고? {거기는 경상도 뿐이고?}
10202 # 경, 야 경상 경상도. {경, 야 경상 경상도.}
10202 @ 그 그분드른, 그분드른 언제 완씨? {그 그분들은, 그분들은 언제 왔어?}
10202 # 모르겠소, 난 그 언제 완는지. {모르겠소, 난 그 언제 왔는지.}
10202 # 그땐 나이가 어리니까나 그렇걸 저렇걸 기억 아나고, 기양 산다드라 하고 사니까 몰라. {그땐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기억 안 나고, 그냥 산다드라 하고 사니까 몰라.}
10202 @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10202 # 아이고! {아이고!}

1.2.1. 생일에 대한 이야기

10201 @ 그땐에 그 엔나레, 어:: 생일날 도라오면 어트게 헐씨요? {그땐에 그 옛날에, 어 생일날 돌아오면 어떻게 했어요?}
10201 # 생일? {생일?}
10201 @ 어. {어.}
10201 # 생이리 다 며여. {생일이 다 뭐여.}
10201 @ 애기들 태어나고 며 그러면 생일잔치 돌잔치 이렇걸 아넬씨? {애기들 태어나고 뭐 그러면 생일잔치 돌잔치 이런 것 안했어?}
10201 # 그 인는지번 하고. 엄는지번 며 쫌... {그 있는 집은 하고, 없는 집은 쫌...}
10201 # 자기네 식꾸끼리 그저 그냥 그러고 먹꼬 말지머. {자기네 식구끼리 그저 그냥 그렇고 먹고 말지 뭐.}
10201 @ 응. {응.}
10201 # 그저 오너리 생일이다 하고, 오너리 도리다 하고 그저 그러케 하고 먹꼬 살지 어디 며... {그저 오늘이 생일이다 하고, 오늘이 돌이다 하고 그저 그렇게 하고 먹고 살지 어디 뭐...}

10201 @ 그 인는 지분 어르게 허고? {그 있는 집은 어떻게 하고?}

10201 # 인는 지분 그래도 저 자기네 친척 인쓰머는 친척 다 알구고, 그래서 데리다 노쿠 먹꾸, 그랜찌머. {있는 집은 그래도 저 자기네 친척 있으면 친척 다 알리고, 그래서 데려다 놓고 먹고, 그랬지 뭐.}

10201 @ 그면 친척드를 알구면, 그면 갈때 빈소느로 가, 머 가지고 가? {그러면 친척들은 알리면, 그러면 갈 때 빈손으로 가, 뭐 가지고 가?}

10201 # 아 뭐 인쓰면 들고가고, 업쓰면 또 그때는 대::다이 골라나게 상개, 업쓰면 기냥 가고 그저 그 그러치머. {아 뭐 있으면 들고 가고, 없으면 또 그때는 대단히 곤란하게 사니까, 없으면 그냥 가고 그저 그 그렇지 뭐.}

10201 # 그때는 머 도니나 어디 그러케 호니 빠절써. {그때는 뭐 돈이나 어디 그렇게 흔해빠졌어.}

10201 # 지그문 도니 호내빠져가지고는 그래도 어징간항건 다 돈들 주고 야 그러는다. {지금은 돈이 흔해빠져가지고는 그래도 어지간한 것은 다 돈들 주고 야 그러는데.}

10201 @ 그면 그때 겨로날 때, 다른 사라마 겨론한다 그러면 동네서 사람드리 다 갈꺼야녀? {그러면 그때 결혼할 때, 다른 사람이 결혼한다 그러면 동네서 사람들이 다 갈 것 아니야?}

10201 # 응. {응.}

10201 @ 동네 사람드리 다 모 다 모이지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 다 모이지이?}

10201 # 모이제. {모이지.}

10201 @ 응. {응.}

10201 @ 그면 음식또 장만허고 # 그래 음식또 장마너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능게 아이라 인제 오라 할마난 지비 일땀 마리오... {그러면 음식도 장만하고 # 그래 음식도 장만하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라고 할 만 한 집이 있단 말이요...}

10201 # 그래 그런 사람들만 거저 멘 이러케 허고, 청하고 오라가고 그러제 완따간 다 도라가 빠러제 머. {그래 그런 사람들만 그저 몇 이렇게 하고, 청하고 오라고 하고 그렇지 왔다가는 다 돌아가 버리지 뭐.}

10201 # 구경 완따가 다 가버리제 머. {구경 왔다가 다 가버리지 뭐.}

10201 @ 그면 그럴 때, 올 때 빈소느로 와, 머 가지고와? {그러면 그럴 때, 올 때 빈손으로 와, 뭐 가지고와?}

10201 # 그렇게 인자 뭐 음식꺼팅게라도 인쓰면 쯔 가져오고, 업쓰면 그냥 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쯔 가져오고, 없으면 그냥 오고 그런데.}

10201 @ 그면 어찌튼 겨로날라면 도니 또 마니 드러갈 드러갈꺼 아니여? {그러면 어찌든 결혼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갈 들어갈 것 아니야?}

10201 # 아 게로날라면 도니 드러가지 양코, 드러가는데 어트게 행는지 모르겐써.
{아 결혼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1.2.5.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

10218 @ 요즘 겨로는 어때, 요즘 게로는? {요즘 결혼은 어때, 요즘 결혼은?}

10218 # 응? {응?}

10218 @ 요즘 게론식 시근 어떠? {요즘 결혼식 식은 어때?}

10218 # 지끔? {지끔?}

10218 @ 예. {예.}

10218 # 지그문 게로날라면 돈들 가조고 땡기제, 음서건 안, 그래가꼬 또 싸서 싸고 싸고 시풍거 인는 지분 싸서 가꼬가고. {지금은 결혼하려면 돈들 가지고 다니재. 음식은 안, 그래 가지고 또 사서 사고 사고 싶은 것 있는 집은 사서 가지고 가고.}

10218 # 돈 인는 지분 돈도 가꼬 가고. {돈 있는 집은 돈도 가지고 가고.}

10218 # 다 그냥 안땡기고, 빈소느로 하:나도 안땡기지 머, @ 응응. # 그래. {다 그냥 안 다니고, 빈손으로 하나도 안 다니지 뭐, @ 응응. # 그래.}

10218 # 그래 먹꼬는 거저 잘 머견따고 인사나 하고, 그러고 가지, 갈 때는. {그래 먹고는 그저 잘 먹었다고 인사나 하고, 그리고 가지, 갈 때는.}

10218 @ 머 돈 가지고 가서? {뭐 돈 가지고 가서?}

10218 # 야. {야.}

10218 @ 요즘 요즘 며느리드른 시집싸리를 하능거 가태 아나능거 가태? {요즘 요즘 며느리들은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아 안하는 것 같아?}

10218 # 메느 메느리드리? {며느 며느리들이?}

10218 @ 응. {응.}

10218 # 텨때나 씨미가 메뉴리 시집싸리 혀. {도리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해.}

10218 @ 허허허. {허허허.}

10218 # 지그면. {지금은.}

10218 @ 정말이요. {정말이요.}

10218 # 그래요? 그럼. {그래요? 그럼.}

10218 # 막 지맘대로 막 지맘대로 항개 시어마이는 그저 이:: 이러카고 이씨야지 머.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러 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뭐.}

10218 # 카! 아이구::. {카! 아이구.}

10218 @ 그게 한족플 때무네 그렇가? {그게 한족들 때문에 그런가?}

10218 # 아 모르지며 어째서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거써 어째서 그러는지. {아 모르지 뭐 어째서 그러는지, 그것은 모르겠어 어째서 그러는지.}

10218 @ 한족뜨른 여자드리 더 강하다며? {한족들은 여자들이 더 강하다며?}

10218 # 응? {응?}

10218 @ 한족뜨른 여자드리 더... # 응. @ 세자나? {한족들은 여자들이 더... # 응. @ 세잖아?}

10218 # 한족뜨른 여자드리 쎄, 씨어 쎄다나. {한족들은 여자들이 세, 세어 세어.}

10218 @ 그면 이 동네에는 한족드라고는 어트게 좀 와따가따 왕내를 해요? {그러면 이 동네에는 한족들하고는 어떻게 좀 왔다갔다 왕래를 해요?}

10218 # 허:구! 왕내하고 어짜고, 영 치나게 지나지머. {허구! 왕래하고 어찌고, 영 친하게 지내지 뭐.}

10218 @ 거 말들 다 다 통해? {그 마들 다 다 통해?}

10218 # 그렇게로 통한 사람 다 통하지 나가튼 너미 시방 한족말 중국말 모더제. {그러니까 통하는 사람 다 통하지 나 같은 놈이 시방 한족말 중국말 못 하지.}

10218 # 뭐여, 다::들 한족말 잘 잘한다고. {뭐여, 다들 한족말 잘 잘 한다고.}

10218 @ 거 지금 할머니 연세된 사람드른 한족말 모더? {그 지금 할머니 연세된 사람들은 한족말 못 해?}

10218 # 내 연세 인는 사람도 한족, 여그 영감 하나 시방 내동갑 인는디, 혼자 인는 영가미여. {내 연세 있는 사람도 한족, 여기 영감 하나 시방 내 동갑 있는데, 혼자 있는 영감이야.}

10218 @ 응. {응.}

10218 # 여그 따리 시방 저기 여기 부라게 이꼬 그런데, 그 양바는 한족말 자:려. {여기 딸이 시방 저기 여기 부락에 있고 그런데, 그 양반은 한족말 잘 해.}

10218 # 아! 나는 멍청해서 그런지 그렇거또 몹빼와 멍청해서 몹빼와. {아! 나는 멍청해서 그런지 그런 것도 못 배워 멍청해서 못 배워.}

10218 @ 영리하게 생겼는데 왜그려 허허허허. {영리하게 생겼는데 왜 그래 허허허.}

10218 # 금방 드른 인자, 금방 드른 소리도 자꾸 이저먹찌 인자넌. {금방 들은 이제, 금방 들은 소리도 자꾸 잊어먹지 이제는.}

10218 # 아니고! {아이고!}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6 @ 사라미 주그면, 사라미 주그면 그 장례지내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 지내지?}

10226 # 응. {응.}

10226 @ 장례는 여그는 어트게 지내요? {장례는 여기는 어떻게 지내요?}

10226 # 장례는 인자는 시 시 시장언 기양 쓰뿌지가 이꼬 그렇게 일췌개. {장례는
이제는 시 시방은 자동차가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10226 @ 응? {응?}

10226 # 쓰뿌지. {자동차.}

10226 @ 쓰뿌지가 머여? # 차 @ 어어어. {자동차가 뭐야? # 차 @ 어어어.}

10226 # 차 쓰뿌지 여그 차꾸 덩기자나. {차 자동차 여기 자꾸 다니잖아.}

10226 # 그런디다가 기양 쪽 시러서 기양 가꾸가서 화장도 아이하고 그저 막 가따
묻는다고, 땅파고 @ 응. # 무더뿌리지며. {그런데다가 그냥 쪽 실어서 그냥
가지고 가서 화장도 아니하고 그저 막 갖다 묻는다고, 땅 파고 @ 응. # 묻
어버리지 뭐.}

10226 @ 엔나레는 어트게 헨써?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10226 # 그저니도 그러케 무덜찌. {그전에도 그렇게 묻었지.}

10226 # 시방 우리 친정아부지도 찌 소사가는 거 빼쪽산 거기, 거 소사서 사망되
나랑개 그 뽉죽싸네 거기 시방 무첸제. {시방 우리 친정아버지도 저 소사
가서 그 뽉죽산 거기, 그 소사서 사망 되다나니까 그 뽉죽산에 거시 시방
묻혀있지.}

10226 # 그렇게 어제는 머 빼 빼따구덜, 뽉따구나 나맡꼴찌 머 어제년. {그러니까
이제는 뭐 빼 빼다귀들, 빼다귀나 남았겠는지 뭐 이제는.}

10226 # 내 열뚜살때 열세살때 주걸쓰이까나. {내 열두 살 때 열세 살 때 죽었으
니까.}

10226 # 오던 기 이드매서 사망댄는데. {오던 그 이듬해 사망되었는데.}

10226 @ 그먼 사라미 주그면, 그 사라미 주그면 으 지붕에다가 옴까통걸 던지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으 지붕에다가 옷 같은
것 던지고 그래요?}

10226 # 응, 던져 지붕 지붕에다가. {응, 던져 지붕 지붕에다가.}

10226 # 새타:양거, 우티가 던져. {새하얀 것, 옷을 던져.}

10226 @ 머라구면서 던져? {뭐라고 하면서 던져?}

10226 # 모리지머 그거는. {모르지 뭐 그것은.}

10226 # 그거는 안드러 봉개 그런 소리는 머. {그것은 안 들어 보니까 그런 소리
는 뭐.}

10226 @ 거 왜 던진대? {그 왜 던진대?}

10226 # 그기 무신 방버비라네. {그것이 무슨 방법이라네.}

10226 @ 응. {응.}

10226 # 방버비대. {방법이대.}

10226 @ 그리고 나서 # 그러구 그러구 그러케 머. {그리고 나서 #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뭐.}

10226 # 그렇게 귀 귀신을 쫓는 거신지 원 뭐를 어뜨케 하능거신지 그러케 지 지 버던징개 그 어 저러케 버비 저러능구가 그저 그 그러구 살제. {그러니까 귀 귀신을 쫓는 것인지 뭘 뭣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지 집어 던지니까 그 어 저렇게 범이 저러는구나 그저 그 그리고 살지.}

10226 @ 응. {응.}

10226 @ 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인자 그 그 사لامي 주그면 시체를 어뜨케 혀? {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어떻게 해?}

10226 # 지베서? {집에서?}

10226 # 지베? {집에?}

10226 @ 응. {응.}

10226 # 쉬지 기냥 무신. {쉬지 그냥 무슨.}

10226 # 당신 이불 더편짜나? @ 응. # 그 이불 빼게가지고는 또 그거머 색깔로도 안덮고. {당신 이불 덮었잖아? @ 응. # 그 이불 벗겨가지고는 또 그것 뭘 색깔로도 안 덮고.}

10226 # 새타양거 아네가 하그덩. {새하얀 것 안에가 하얗거든.}

10226 @ 응. {응.}

10226 # 그노멀 인제 빼게가꼬 신체를 더퍼노치며. {그놈을 이제 벗겨가지고 시체를 덮어놓지 뭐.}

10226 # 그며는 인제 던 그러케 더페노코... {그러면은 이제 던 그렇게 덮어놓고...}

10226 # 더퍼노코. {덮어놓고.}

10226 @ 그다메? {그 다음에?}

10226 # 그러케 더편 더퍼나따가 이 이튼 이튼 이틀마넌가 가따가 내다 묻는담 마리여. {그렇게 덮은 덮어놓았다가 이 이틀 이틀 이틀만엔가 갖다가 내다 묻는단 말이며.}

10226 @ 내다 나갈때는 어터게 나간써? {내다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어?}

10226 @ 어뜨케 허고 나간냐고 엔나레는? {어떻게 하고 나갔냐고 옛날에는?}

10226 @ 지그문 스푸지 타고 실코가고, 엔나레는? {지금은 자동차 타고 실코가고, 옛날에는?}

10226 # 그저네 왜 이 이 그러거 인짜냐, 이러케 지다만 낭구 낭구 @ 응. # 우리 사당따리가치 헐짜나. {그전에 왜 이 이 그런 것 있잖아, 이렇게 기다란 나무 나무 @ 응. # 우리 사다리같이 했잖아.}

10226 # 거그 거그다가 이러케 언저가지고 가제. {거기 거기다가 이렇게 엎어가지고 가지.}

10226 @ 그면 이러케 # 언저가꼬 사لامي 메고간담 마리여. {그러면 이렇게 # 엎어가지고 사람이 메고 간단 말이며.}

10226 @ 그거슬 머라구레? {그것을 뭐라고 그래?}

10226 @ 그걸 상여 멘다고 그러가? {그걸 상여 멘다고 그런가?}

10226 # 생이. {상여.}

10226 # 그렇개요 그제니도 지그문 생이가 업찌마는 그저니 시방 저그, 찌그 생이 찌비 인는다, 그 생이를 메고 간담... {그러니까요 그전에도 지금은 상여가 없지만은 그전에 시방 저기, 저기 상여집이 있는데, 그 상여를 메고 간단...}

10226 # 사람 공개 메시나 너이 다선 여서시. {사람 그러니까 몇이나 너이 다섯 여섯이.}

10226 # 가운데 양짜게 도울, 이쪽 가상에 둘 그러케 메고 간담 마리여. {가운데 양쪽에 둘, 이쪽 가에 둘 그렇게 메고 간단 말이여.}

10226 @ 그머는 사라덜 어따 너서 가따 가지가, 그대로 뿔뿔해서 가지가? # 어 과를 짜지. {그러면은 사람을 어디에다 넣어서 갖다 가지고 가, 그대로 뿔뿔해서 가지고 가? # 어 관을 짜지.}

10226 @ 음. {음.}

10226 # 과를 짜야제, 관 안짜고 관쪽 관 짜서 관쏘그다 여가지고는 그러케 메고 메나가지며. {관을 짜야지, 관 안 짜고 관속 관 짜서 관 속에다 넣어가지고는 그렇게 메고 메 나가지 뭐.}

10226 @ 음. {음.}

10226 @ 과는 멀로 짜? {관은 무엇으로 짜?}

10226 # 널, 널 몰루? {널, 널 모르오?}

10226 @ 음. {음.}

10226 # 송판때기 @ 어어어. # 그걸로 그러케. {송판때기 @ 어어어. # 그것으로 그렇게.}

10226 # 그렇개로 관너를 다 나도 관너를 해난는디 불타다낭개 다 탐빠릴써. {그러니까 관 널을 다 나도 관 널을 해났는데 불에 타다 나니까 다 타버렸어.}

10226 @ 호호호. {호호호.}

10226 @ 음::. # 불타다낭개. {음. # 불 낳다 나니까.}

10226 # 그러게 손 손자드리 그러케 해다노코 내가 그 그렇개로 내가 새끼가 업썩개로 조카자시글 데레다가 키완따마리여. {그렇게 손 손자들이 그렇게 해다 놓고 내가 그 그러니까 내가 새끼가 없으니까 조카자식을 데려다가 키웠단 말이여.}

10226 @ 음음. {음음.}

10226 # 그리 그러케 키완는디 그기 그러케 간너리랑 다 해나 나가는다. {그리 그렇게 키웠는데 그것이 그렇게 관 널이랑 해놔 나가는데.}

10226 # 부리낭개 짹 다 탈찌. {불이 나니까 짹 다 탔지.}

10226 @ 어디 어디서 부리나. {어디 어디서 불이나.}

10226 # 응? 윗부락 일쓸때 거그서 부리나, 부리나다낭개 거그서 그러케 짹다 해난뻔찌. {응? 윗부락 있을 때 거기서 불이 나, 불이 낳다 나니까 거기서 그렇게 짹 다 해났었지.}

10226 # 그런디 불라다낭개 싹 다 탐뿌렌써. {그런데 불이 날다 나니까 싹 다 타 버렸어.}

10226 @ 음. {음.}

10226 @ 그며는 사라물 그 인자 주근 사라물 놔따가 와네다가 넌는 걸 머라구레? {그러면은 사람을 그 이제 죽은 사람을 놓았다가 관에다가 넣는 것을 뭐라고 그래?}

10226 # 와네다가 넌능기야 머라가겐써, 그 관너레 드러가야제 어찌거써. {관에다가 넣는 것이야 뭐라고 하겠어, 그 관 널에 들어가야지 어찌겠어.}

10226 @ 그걸 여먼다구레 염? 여문 어트게 혀? {그걸 염한다고 그래 염? 염은 어떻게 해?}

10226 # 여미 떠여? {염이 뭐야?}

10226 @ 막 코랑 막꼬 이러케서 그러케 아네, 주그면? {막 코랑 막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해, 죽으면?}

10226 # 주그면? @ 어. # 코? @ 어. {죽으면? @ 어. # 코? @ 어.}

10226 # 어 코 , 코 막 망능게 아니라 이별 막편지... {어 코 막 막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막던지...}

10226 # 몰라 인자 지그면 사라미 그러케 안 **공개 인자는 모르겐써, 지그문. {몰라 이제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안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겠어, 지금은.}

1.2.8. 제사에 대한 이야기

10230 @ 그면 사라미 주그면, 주그며는 일련되며는 지내능 걸 머라구레?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죽으면 1년 되면 지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

10230 @ 그 주근날 지내자나? {그 죽은 날 지내잖아?}

10230 # 제돌 지냉거? @ 으. # 제돌 지날따고 그저 그러지 머. {제 돌 지내는 것? @ 으. # 제 돌 지났다고 그저 그렇지 뭐.}

10230 @ 그면 그때 그 제사 지내지? {그러면 그때 그 제사 지내지?}

10230 # 그 그럼 이제 그 제도레 쫘 바비나 쪼끔 떠노코 그저 그러지. {그 그럼 이제 그 제 돌에 쫘 밥이나 조금 떠놓고 그저 그러지.}

10230 @ 그 밤떠놀 때 어트게 떠놔? {그 밥 떠놓을 때 어떻게 떠놔?}

10230 # 어트게 떠노케써, 그냥 떠놔. {어떻게 떠놓겠어, 그냥 떠놔.}

10230 # 그러고 저 소사 사 살 때, 지청이 일써 지청. {그리고 저 소사 사 살 때, 제청이 있어 제청.}

10230 @ 음. {음.}

10230 # 지청 모르제? {제청 모르지?}

10230 @ 음. {음.}

10230 # 그러케 이러케 짜그마:나케 지별 지언는다고 @ 음. # 지별 지어노코. {그렇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집을 지어 었는다고 @ 음. # 집을 지어놓고.}

10230 # 거그다가 인자 때마다 바별 떠노치 머. {거기다가 이제 때마다 밥을 떠놓지 뭐.}

10230 # 그러다가 인자 때마다 그러케 떠날따가 도리 지나머년 거가 업썸다고, 싹 태와버리지 머. {그러다가 이제 때마다 그렇게 떠놓았다가 돌이 지나면 거기 없앤다고, 싹 태워버리지 뭐.}

10230 @ 제청얼? {제청을?}

10230 # 응. {응.}

10230 @ 응, 그런 인자 돌 지나고나서부터 일러네 함번만 지내지 이제? {응, 그러면 기제 돌 지나고 나서부터 1년에 한번만 지내지 이제?}

10230 # 어. {어.}

10230 @ 그런 제사를 지낼 때 그 도라가신 날 지내, 도라가시기 전날 지내?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그 돌아가신 날 지내, 돌아가시기 전날 지내?}

10230 # 산 날로 지낼꺼요 산 날로. {산 날로 지낼 거요, 산 날로.}

10230 @ 산 날로? {산 날로?}

10230 # 산 날로. {산 날로.}

10230 # 그렇게 전날 전날로 지내. {그러니까 전날 전날로 지내.}

10230 @ 그러면 여기서 제사 지낼 때는 여자들도 절혀? {그러면 여기서 제사 지낼 때는 여자들도 절 해?}

10230 # 절? {절?}

10230 @ 어. {어.}

10230 # 아 다 하오. {아 다 하오.}

10230 # 하다모테 애들또 막 절하라고 막 야단나제. {하다못해 애들도 막 절 하려고 막 야단나지.}

10230 @ 음. {음.}

10230 # 어 그래. {어 그래.}

10232 @ 음식근 머 머 채려? {음식은 뭐 뭐 차려?}

10232 # 아 음식기야 인는대로 다:: 이씨면 인는대로 가추제. {아 음식이야 있는대로 다 있으면 있는대로 갖추지.}

10232 @ 그 주로 머 머 가추냐고? {그 주로 뭐 뭐 갖추냐고?}

10232 @ 함번 함번 이야기 해줘바요, 먼말? {한 번 한 번 이야기 해줘봐요, 뭣뭣?}

10232 # 그구 어트게 말해야 하 @ 쪽 그 할머니네는 어트게 지냈써? {그것 어떻게 말해야 해 @ 쪽 그 할머니네는 어떻게 지냈어?}

10232 # 멍태 싸고, 갈치 아 갈치는 안논는다 참, 그거는 그런 고기라고 안 노코,

나물 해서, 노코 어디 가서 뭘 싸온 놈도 그거 가따 노코. {명태 사고, 갈치 아 갈치는 안 놓는다 참, 그것은 그런 고기라고 안 놓고, 나물 해서 놓고, 어디 가서 뭘 사온 놈도 그거 갖다 놓고.}

10232 # 머, 그저 일쓰면 인는대로 다 가취노먼, 머 노치머. {뭘,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갖춰 놓으면, 뭘 놓지 뭘.}

10232 @ 떠근? {떡은?}

10232 # 떡 떡 떡또 머 찰떡거튼거 이렇거 무신 그다매 저기 머여, 시루떡 @ 음. # 백설기 그러케 해서 논는담 마리여. {떡 떡 떡도 뭘 찰떡 같은 것 이런 것 무슨 그 다음에 저기 뭘야, 시루떡 @ 음. # 백설기 그렇게 해서 놓는단 말이어.}

10232 # 파기도 안 노코, 아무겔또 엄능거 엄새 백설기로 그러케 논는거또 일꼬. {팔도 안 놓고, 아무것도 안 넣는 거 없애, 백설기로 그렇게 놓는 것도 있고.}

10232 # 또 시루떡 패끼너코 그러케 하능 거또 일꼬. {또 시루떡 팔 넣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10232 # 그저 그려. {그저 그래.}

10232 @ 두가지를 다해? # 어. {두 가지를 다해? # 어.}

10232 # 내 저 그러케... {내 저 그렇게...}

10232 # 도리 엄씨 아니 항가지만 하는데, @ 음. # 그러케 그거 할라면 하고 이거 할라면 하고, 그게 이숙카. {도리 없이 아니 한 가지만 하는데, @ 음. # 그렇게 그것 하려면 하고 이것 하려면 하고, 그것이 익숙해.}

10232 @ 자 백설기는 어트게 만드라? {자 백설기는 어떻게 만들어?}

10232 # 백설기? {백설기?}

10232 @ 응. {응.}

10232 # 아 백설기야 글씨 이러케 쌀 당과따가 빠시서 그검만 찢담 마리여 그건. {아 백설기야 글씨 이렇게 쌀 담궜다가 뺏아서 그것만 찢담 말이어 그것은.}

10232 # 갈구 갈구 이러케 버물러서 물 버물러서 그래가지고 시루에다가. {가루 가루 이렇게 버물러서 물 버물러서 그래가지고 시루에다가.}

10232 @ 시루다 찢는구만 내나? {시루에다 찢는구먼 내나?}

10232 # 응, 시루다가 찢담 마리여. {응, 시루에다가 찢는단 말이어.}

10232 @ 그며는 백설기하고 시루떡하고 다른 거슨, 차이가 낭거슨 머가 차이가 나? {그러면 백설기하고 시루떡하고 다른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뭘가 차이가 나?}

10232 @ 찢는 방버비 달라 갈 가터? {찢는 방법이 달라 갈 같아?}

10232 # 찢는 방법? {찢는 방법?}

10232 @ 응. {응.}

10232 # 항가지. {한가지.}

10232 @ 항가지? # 이. {한가지? # 이.}

10232 # 지그먼 기계가 이쑹개 기계 가따가 척:: 내고 그레. {지금은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 갖다가 척 내고 그레.}

10232 @ 아 엔나레, 엔나레. # 그지만 지그먼 기양:: 절구다가 찢찌머. {아 옛날에, 옛날에. #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절구에다가 찢었지 뭐.}

10232 @ 찢찌 인? {찢어 이?}

10232 # 어, 절구 절구에다 찢코, 발방아다 찢코. {어, 절구 절구에다 찢고, 디딜방아에다 찢고.}

10232 @ 음. {음.}

10232 # 그러고 사라. {그렇게 하고 살아.}

10232 @ 그먼 인자 그러케 해서 하얀 가 가루가 나면 # 언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얀 가 가루가 나면 @ 없혀.}

10232 # 하얀 가루가 된담 마리여. {하얀 가루가 된단 말이여.}

10232 @ 어어. {어어.}

10232 # 그러면 인자 그놈 가지고, 그러케 시루에다 찢머는 백설기가 된담 마리여. {그러면 이제 그놈 가지고, 그렇게 시루에다 찢으면 백설기가 된단 말이여.}

10232 @ 시루떠근? {시루떡은?}

10232 # 내나 @ 팩 패끼를 # 패끼허고 내나 그건 그거는 패끼럴 여면 궁개 영개로 그게 @ 시루떠기 되능 거여? # 시루떠기 되제, 응. {내나 @ 팔 팔을 # 팔하고 내나 그것 그것은 팔을 넣으면 그러니까 넣으니까 그게 @ 시루떡이 되는 거야? # 시루떡이 되지, 응.}

10232 # 백설기는 그러케 아무것도 안넣게 백설기라고 하제. {백설기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넣은 것이 백설기라고 하지.}

10232 @ 그머는 그냥 하면 미트로 찢리 빠져버릴꺼여 시리 미테 구멍이 툭러 크자나? {그러면은 그냥 하면 밑으로 쌀이 빠져버릴 것이야 시루 밑에 구멍이 툭러 크잖아?}

10232 # 어. {어.}

10232 @ 그 그먼 어뜨케 혀? # 그러 그 그 지푸락 인짜나? {그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그 그 쥔 있잖아?}

10232 @ 예. {예.}

10232 # 지푸라그로 요로케 꼬게 해가꼬는, 저기 집신짜 @ 애. # 아 아능가 몰라 @ 애 예. # 그건처럼 그케 쪼크마케 맨드러서 그 구녀그다 탁탁 논는담 마리요. {쥔으로 이렇게 곱게 해가지고는, 저기 쥔신짜 @ 예. # 아 아능가 몰라 @ 예 예. # 그것처럼 그렇게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그 구멍에다 탁탁 논는단 말이요.}

10232 @ 아! {아!}

10232 # 그래노코는 패끼 미티다 쪽 깔제, 쪽 깔고 그다메 갈기를 이르게 헌치지며. {그래 놓고 팔 밑에다 쪽 깔지, 쪽 깔고 그 다음에 가루를 이렇게 뿌리지 뭐.}

10232 @ 음. {음.}

10232 # 그래 그래가꼬 찌머는 기양 시리떼기 여그 패끼떼기 되고, 백설기도 그럭케 찌서 찌고 그려. {그래 그래 가지고 찼으면 그냥 시루떡이 여기 팔떡이 되고, 백설기도 그렇게 찼어서 찼고 그래.}

10232 @ 그머는 그걸 패끼 너은 걸 패끼떼기라구레? {그러면은 그것을 팔 넣은 걸 팔떡이라고 그래?}

10232 # 패끼떡. {팔떡.}

10232 @ 그 찰떡하고는 달라? {그 찰떡하고는 달라?}

10232 # 다르지 머. {다르지 뭐.}

10232 @ 그 패꺼더근 싸리 무슨 쌀 너어써? {그 팔떡은 쌀이 무슨 쌀 넣었어?}

10232 # 메쌀로. {멥쌀로.}

10232 @ 아!! {아!}

10232 # 패끼떼근 메쌀로 메쌀로 하고, 또 찰떼근 치자나 메로 막. {팔떡은 멥쌀로 멥쌀로 하고, 또 찰떡은 치잖아 메로 막.}

10232 @ 무슨 쌀로 해? {무슨 쌀로 해?}

10232 # 그거는 이 저기 찹쌀. {그것은 이 지기 찹쌀.}

10232 # 그렇게 차지지 찹쌀로 칭개. 찹쌀 당과따가 그걸로 친담 마리어. {그러니까 찰지지 찹쌀로 치니까. 찹쌀 담켰다가 그것으로 친담 말이어.}

1.3. 생업 활동

1.3.1. 논농사

10302 @ 농사진은 건쫘 무러보께요. {농사짓는 것 좀 물어볼게요.}

10302 # 농사진은 건, 내가 농사진은 걸 어트게 대다배. {농사짓는 건, 내가 농사짓는 걸 어떻게 대답해.}

10302 @ 엔나레 농사 절 절짜나. {옛날에 농사 지었 지었잖아.}

10302 @ 요골 머라구레 요고 요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것 이것?}

10302 # 이 머요? {이 뭐요?}

10302 @ 쯔 바까테 저 수저네 시몽거. {저 바깥에 저 눈에 심은 것.}

10302 # 응? {응?}

10302 @ 수저네다 심는 거슨 무 멀 멀 시머? {논에다 심은 것은 무 뭇 뭇 심어?}

10302 @ 수저네. {논에.}

10302 # 아 수저내? {아 논에?}

10302 @ 예. {예.}

10302 # 수저니 저기 뽕몸감마. {논에 저기 뽕모인가봐.}

10302 @ 응. {응.}

10302 # 뽕모그만 수저네. {뽕모구먼 손에.}

10302 # 뽕보 심그지머 뽕모. {뽕모 심지 뭐 뽕모.}

10302 @ 자 이거 뽕모면, 뽕모는 어떤거슬 뽕모라구레? {자 이것이 뽕모이면, 뽕모는 어떤 것을 뽕모라고 그래?}

10302 @ 자 그 뽕모에 요고 요 요 알 달링걸 요골 머라구레? {자 그 뽕모에 이것이 이 알 달린 것을 이것을 뭐라고 그래?}

10302 # 아 이거, 나락. {아 이것, 나락.}

10302 # 나락. {나락.}

10302 @ 어떻게시 나라기여? 요고? {어떤 것이 나라이야? 이것?}

10302 # 여그서 인제 이 뽕모에 모에서 @ 응. # 모를 싱귀가꼬, 크머는 @ 응. # 여그서 또 저 뽕모가 생 저그 나라기 생긴담 마리여, 달린담 마리요. {여기서 이제 이 뽕모에 모에서 @ 응. # 모를 싱귀가지고, 크면 @ 응. # 여기서 또 저 뽕모가 생 저기 나락이 생긴단 마리여, 달린단 말이요.}

10302 @ 응응응응. {응응응응.}

10302 # 달어 달려. {달려 달려.}

10302 @ 그머는 그 저 나라글 씨로 쓸라고 모아노치 그런 씨를 머라구려? {그러면은 그 저 나락을 씨로 쓰려고 모아놓지 그런 씨를 뭐라고 그래?}

10302 # 베씨. {뽕씨.}

10302 # 베씨. {뽕씨.}

10302 @ 베씨를 가따가 어따가 시머? {뽕씨를 갖다가 어디에다 심어?}

10302 # 찌기 머어 베씨 가따가 머 노네 그렇게 싸걸 티와야제. {저기 뭐야 뽕씨 갖다가 뭐 논에 그러니가 싸을 티워야지.}

10302 # 싸글 티와가꼬 @ 싸글 어따 티와? {싸을 티워가지고 @ 싸을 어디에다 티워?}

10302 # 지바네 지바네다가. {집 안에 집 안에다가.}

10302 # 이러케 온도 쫘 해노코는 거기다 티우면 영 잘 트지 머. {이렇게 온도 쫘 해놓고는 거기에다 티우면 영 잘 트지 뭐.}

10302 # 그러면 인자 그놈 내다가 노네다 막 뿌려. {그러면 이제 그놈 내다가 논에다 막 뿌려.}

10302 @ 그: 그 싸글 띠운 베씨를 그냥 뿌려? {그 그 싸을 띠운 뽕씨를 그냥 뿌려?}

10302 # 어 그냥 뿌르, 그러케 뿌리기도 하고 또... {어 그냥 뿌려, 그렇게 뿌리기도 하고 또...}

10302 # 저기 모를 이러케 모를 부서가지고... {저기 모를 이렇게 모를 부어가지고...}

10302 @ 어디다가 부서? {어디에다가 부어?}

10302 # 노네다가. {논에다가.}

10302 @ 어, 그걸 가따 그런 모를 갠따 부순테를 머라구레? {어, 그것을 갖다가 그런 모를 갖다 부은 데를 뭐라고 그래?}

10302 # 모자리. {못자리.}

10302 # 모자리다가 이르케 갠따 해노코 부수면 거그서 다 막 팍 찌러가지고는 큰담 마리어. {못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해놓고 부으면 거기서 다 막 팍 찢어가지고는 큰담 말이어.}

10302 # 그럼 인자 그놈 가꼬가 결쌍 가꼬가 결쌍 안 안자서 저 찢담 마리어. {그럼 이제 그놈 가지고 결상 갖고 가 결상 안 앉아서 저 찢담 말이어.}

10302 @ 음. {음.}

10302 # 찌 찌어가지곤 찌가지고는, 이러케 지푸라그로 요만씩허니 묵꺼서는 온::머 노네다 막 쥐 뿌리지 머. {찌 찌가지고는 찌가지고는, 이렇게 짚으로 이만씩하게 묶어서는 온 뭐 논에다 막 꿰 뿌리지 뭐.}

10302 # 그럼 인자 그놈 가지고 엽뜨레서 축:: 서서 싱군다고. {그럼 이제 그놈 가지고 엽드려서 쪽 서서 심는다고.}

10302 @ 음. {음.}

10302 @ 그 싱군거슬 머 싱 머 싱군다구레? {그 심는 것을 뭐 심 뭐 심는다 그래?}

10302 # 모 싱군다고 하제, 모. {모 심는다고 하지, 모.}

10302 # 아이고! 모심네 하자나, 아이고 모심네. {아이고! 모 심네 하잖아, 아이고 모 심네.}

10302 @ 그며는 모판은 멀 모판이라구레? 그러면은 모판은 뭘 모판이라고 그래?}

10302 @ 모판이란 마른 안씨? # 모 모판. {모판이란 말은 안 씨? 모 모판.}

10302 # 어 그렇게 모 모판이라능게 그 머 이러케 부송거 그걸 모판이라고 하제. {어 그러니까 모 모판이라는 것이 그 뭐 이렇게 부은 것 그것을 모판이라고 하지.}

10302 @ 아::! {아!}

10302 # 어, 모 부서 모 모 부선편 자리털 모판이라가고. {어, 모 부어 모 모 무엇던 자리를 모판이라고 하고.}

10302 @ 음. {음.}

10302 @ 요로케 소에다가 매 해서 땅 가는 거슬 머라구레? {이렇게 속에다가 매 해서 땅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

10302 # 박까리. {밭 갈이.}

10302 @ 아니 그 그 기계 그 그러케 요 요로케 생겨서 땅 파능거 일짜나, 소가

아페서 끌고. {아니 그 그 기계 그 그렇게 이 이렇게 생겨서 땅 파는 것 있잖아, 소가 앞에서 끌고.}

10302 # 아::! 쟁기. {아! 쟁기.}

10302 @ 쟁기가 일쓰면 엔나레 여기도 쟁기 일썰썬? {쟁기가 있으면 옛날에 여기도 쟁기 있었어?}

10302 # 그럼 그럼 그저니도 다 쟁기 일썰썬. {그럼 그럼 그전에도 다 쟁기 있었지.}

10302 @ 쟁기가 일쓰면 아페 쇠가 일썰? {쟁기가 있으면 앞에 소가 있지?}

10302 # 요로케 생긴썰. {이렇게 생겼지.}

10302 @ 응 그 # 삽, 삽처럼 생긴썰. @ 으, 그걸 머라구레? {응 그 # 삽, 삽처럼 생겼지. @ 으, 그것을 뭐라고 그래?}

10302 # 궁개 그 그게 내내 쟁기 쟁기라구려, 기양. {그러니까 그 그게 내내 쟁기 쟁기라 그래, 그냥.}

10302 # 기양 쟁기라고 하지, 땅건 @ 그 그 쇠이르미 이르문 몰라? {느냥 쟁기라고 하지, 땅 것은 @ 그 그 쇠 이름이 이름은 몰라?}

10302 # 몰라. {몰라.}

10302 @ 그거슬 가따가 보스비라고 양그레? {그것을 갖다가 보습이라고 안 그래?}

10302 # 아! 그 보습: 오려 보습 제 다 알 알면서. {아! 그 보습 옳아 보습 제 다 알 알면서.}

10302 @ 어트게 허능가 무러볼라구레 어트게 어.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려고 그래 어떻게 허.}

10302 @ 근디 동네마다 이르미 달라. {그런데 동네마다 이름이 달라.}

10302 # 어:: @ 그런 마리 # 그래. {어 @ 그런 말이 # 그래.}

10302 # 그러 하기는 @ 그러? # 어. {그래 하기는 @ 그래? # 어.}

10302 @ 그걸 머라고 헨따고?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

10302 # 응, 쟁기를? {응, 쟁기를?}

10302 @ 아니 쟁기 아페 인는걸 아까 머라고 한다고? {아니 쟁기 앞에 있는 것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10302 # 보소. {보습.}

10302 @ 자 보소비지 이? {자 보습이지 이?}

10302 # 보습. {보습.}

10302 @ 어, 그러면는 그거시 깨절따 그먼 머시 깨절따 그래? {어, 그러면은 그것이 깨졌다 그러면 무엇이 깨졌다 그래?}

10302 # 보소시 깨절따. {보습이 깨졌다.}

10302 @ 그먼 인자 그거시 보소비고, 보소비 일쓰면 이러케 인자 이러케 보소비 일쓰면, 보소비 이러케 일쓰면 뒤에가 호기 호글 넘기기 위해서 보소피 쇠

가 두개 두짜그로 돼인써, 한짜그로 돼인써? {그러면 이제 그것이 보습이고, 보습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습이 있으면, 보습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가 흠이 흠을 넘기기 위해서 보습에 쇠가 두 개 두 짝으로 돼 있어, 한 짝으로 돼 있어?}

10302 # 우를 우로 막 이러케 너머가. {위를 위로 막 이렇게 넘어가.}

10302 @ 이러케 이러케 흐글 넘기능건 일찌? {이렇게 이렇게 흠을 넘기는 것 있지?}

10302 # 아이 그러개 이러케 기양 막 우로 망 너머가 이러케 기양. {아니 그런 것이 이렇게 그냥 막 위로 막 넘어가 이렇게 그냥.}

10302 @ 음::. {음.}

10302 # 이러케 망 너머와. {이렇게 막 넘어와}

10302 @ 음. {음.}

10302 # 이기 보습 가트그만, 아녀? {이것이 보습 같구먼, 아니야?}

10302 @ 아녀 그거슨. {아니야 그것은.}

10302 # 아녀? {아니야?}

10302 @ 아 요곤 요곤 보소비여 # 아이 요곤. @ 음음음. {아 이것 이것은 보습이야 # 아니 이것. @ 음음음.}

10302 # 이진 보소피여. {이것은 보습이야.}

10302 @ 그면 벼슨 머여 별? {그라만 벼은 뭐야 벼?}

10302 # 엉? @ 벼시란 마른 안썰써? {어? @ 벼이란 말은 안 썰어?}

10302 # 췌?: {벼?}

10302 @ 음. {음.}

10302 # 벼시라능기 이르케 하누리 말쭈강기 벼시지. {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늘이 말쭈한 것이 별이지.}

10302 @ 음::. {음.}

10302 # 그럼 하누리 하누리 말쭈가면 이 구 구름 한점도 업씨 그러게 되면 아이고 오닐 날 벼시 벼시 참 존네 이러제. {그럼 하늘이 하늘이 말쭈하면 이 구 구름 한 점도 없이 그렇게 되면 아이고 오늘 날 별이 별이 참 좋네 이러지.}

10302 @ 음음. {음음.}

10302 @ 쟁기하고, 쟁기하고 이, 사라미 끌고가능건 머라구레? {쟁기하고, 쟁기하고 이, 사람이 끌고하는 것은 뭐라고 해?}

10302 @ 쟁기는 소가 하고, 흑씨 # 사라미 끌고 가능기 머 일쏘? {쟁기는 소가 하고, 흑씨 #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뭐 있오?}

10302 @ 극쟁이 극쟁이란말 썰써, 극쟁이? {극쟁이 극쟁이란 말 썰어, 극쟁이?}

10302 # 각쟁이? {각쟁이?}

10302 @ 어, 각쟁이는 어떠케 생깁거여? {어, 각쟁이는 어떻게 생긴 것이야?}

10302 # 깍쟁이 이러케 이러케 생긴찌 머 이러케, 이르케. {깍쟁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 뭐 이렇게, 이렇게.}

10302 @ 음. {음.}

10302 # 그저 갈쿠 @ 음. # 칼쿠 시그로 그러케 향기지 그건또. {그저 갈키 @ 음. # 갈키 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도.}

10302 @ 노네 인자 노닐 할 때에, 노네다가 모를 시 싱 싱굴라면, 노닐 판파너게 골루능거 일찌? {논에 이제 논을 할 때에, 논에다가 모를 시 심 심으려면, 논을 편편하게 고르는 것 있지?}

10302 # 쓰리, 쓰리. {써리, 써리.}

10302 @ 요고 이? {이것 이?}

10302 # 요거, 요게 쓰리. {이것, 이것 썰.}

10302 @ 음. {음.}

10302 @ 자 쓰리를 쓰리질 허고 나면 그 위에다가 이러케 판바너게 골룰라고 이케 그:: 널판때기로 이러케 머 이러케 널로 이러케 밀 밀고 다니지 # 으응.
@ 그걸 머라구레? {자 써리를 써리질 하고 나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편편하게 고르려고 이렇게 그 널판때기로 이렇게 뭐 이렇게 널로 이렇게 밀 밀고 다니지 # 으응. @ 그것을 뭐라고 그래?}

10302 # 아이구 그 머디야. {아이구 그 뭐대.}

10302 @ 그걸 번지라구레? {그것을 번자라고 그래?}

10302 # 응 오려 번지, 번지. {응 옳아 번지, 번지.}

10302 # 아이 다 아능구만 차꾸 에이::. {아니 다 아는구먼 차꾸 에이.}

10302 @ 번지라고 해, 번지하고 써 쓰리는 달르지요? {번지라고 해, 번지하고 써 써리는 다르지요?}

10302 # 응. {응.}

10302 @ 그다으메 모를 간따가 모를 간따가 심는 거슬 머한다구레? {그 다음에 모를 갖다가 모를 갖다가 심는 것을 뭐한다고 그래?}

10302 # 모싱군다 그러지 머. {모 심는다 그러지 뭐.}

10302 @ 모싱군다 그러, 모내기현다 구레? {모 심는다 그래, 모내기 한다 그래?}

10302 # 아이 모싱 모싱군다 구려 우리는 보통. {아니 모 심 모 심는다 그래 우리는 보통.}

10302 # 아이구 모싱구느망 그러는데. {아이고 모 심는구먼 그러는데.}

10302 # 모내기라고 다 아네 북션말드리 모내기 자꾸 허드만. {모매기라고 다 안 해 북션말들이 모내기 자꾸 하드먼.}

10302 @ 여그서는 모내기란 말 아네? {여기서는 모내기란 말 안 해?}

10302 # 아녀 우리 남선 사람들 다 모 싱군다 그러제. {안 해 우리 남선 사람들 다 모 심는다 그렇지.}

10302 @ 모싱구자 그러케 이? {모 심자 그렇게 이?}

10302 # 야. {야.}

10302 # 노니나 바틀 갈면 # 모싱구로 갈따, 모싱구자, 모싱구로 갈써, 그저 그러지 며. {논이나 밭이나 갈면 # 모 심으러 갔다, 모 심자, 모 심으러 갔어, 그러 그렇지 뭐.}

10302 @ 그저설 갈따가 모내기한다 그러케는 양코? {그것을 갖다가 모내기 한다 그렇게는 양고?}

10302 # 야. {야.}

10302 # 아이. {아니.}

10302 # 모내기한다소리 잘 아냐. {모내기 한다 소리 잘 안 해.}

10302 # 그러구 모싱군다고 소리는 잘해도. {그리고 모 심는다고 소리는 잘 해도.}

10302 @ 노니나 바틀 이러케 갈며는 호기, 이러케 크게 이러케 영켜 일짜나, 그걸 그렇거슬 머라구레? {논이나 밭을 이렇게 갈면 흙이, 이러케 크게 이렇게 영켜 있잖아, 그것을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

10302 # 덤벙이 덤벙이 진다구려제. {덩어리 덩어리 진다고 그러지.}

10302 # 푸러 안지고 덤벙이 진다고 막. {풀어 안지고 덩어리진다고 막.}

10302 @ 그걸 무슨 덤벙이여 그먼? {그것을 무슨 덩어리야 그러먼?}

10302 # 흑땀벙이라구제 흑땀벙이. {흙덩어리라고 하지 흙덩어리.}

10302 @ 요령거 일찌? {이런 것 있지?}

1.2. 일생 의례[CN_MJ_42]

1.2.1. 제보자의 이주와 생활

10201 # 그렇게 @ 응. # 내가 조서네서 열두사레 드리완따 마리오, 공개. {그러니까 @ 응. # 내가 조선에서 열두 살에 들어왔다 마리오, 그러니까.}

10201 # 드러옹개로 왜 그 여그 막 수렁 수렁쏘기지 막 나무가 짹: 드러차고. {들어오니까 왜 그 여기 막 수렁 수렁 속이지 막 나무가 짹 들어차고.}

10201 # 아이고 어디서 이런디를 오녕가 어디. {아이고 어디서 이런 데를 오는가 어디.}

10201 # 그러케 생겼찌, 하도 막 사람드리 막 털모자를 막: 쓰고댕기고, 하이고 세상에. 그래 털모자 쓰고댕기면 어:찌나 무서분지 생전 그런 사람을 봤싸야제, {그렇게 생겼지, 하도 막 사람들이 막 털모자를 막 쓰고 다니고, 하이고 세상에, 그래 털모자 쓰고 다니면 어:찌나 무서운지 생전 그런 사람을 봤어 야지.}

10201 # 암받썰개 모룽개로 무섭따 마리어.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무섭다 말이어.}

- 10201 # 그래 인자 차츰차츰 인자 살다냥개로 응 여그는 추운 지방이라 그러케 털모자를 쓰고 땡기는구나 또 어른들도 그러케 마를 하고, 여그는 추웁게 그러케 찌기 머여 털모자를 쓰고 땡긴다고 그런단 마리여. {그리 이제 차츰차츰 이제 살다나니까 응 여기는 추운 지방이라 그렇게 털모자를 쓰고 다니는구나 또 어른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어기는 추우니까 그렇게 저기 뭐야 털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그런단 말이여.}
- 10201 # 그래갸꼬 이 소사와서, 소사와서 떠러절찌, 그래 거그서 살다가. {그래가지고 이 소사 와서, 소사 와서 떨어졌지, 그래 거기서 살다가.}
- 10201 # 거그서 궁개 거그서 살면서 친정어머이 아버지 거그서 사망되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친정어머니 아버지 거기서 사망되고.}
- 10201 @ 응. {응.}
- 10201 # 그러고서나 그여 그렇게 내 겨론하기 저네, 겨론허고 나서 사망됐찌. {그리고서 그 이 그러니까 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사망됐지.}
- 10201 # 그런디 그러케 겨론허고나서 사망되고는, 아 어찌개써 또 찌기 머여 이리 이사를 와쓰면 조커찌 여그 운뿌라기 이쓸 때 @ 으으으.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사망되고는, 아 어찌하겠어 또 저기 뭐야 이리 이사를 왔으면 좋겠지 여기 윗부락에 있을 때 @ 으으으.}
- 10201 # 거그를 이사를 와쓰면 조컨디 어떠케 해야 이사를 올라능가. {거기를 이사를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사를 오려는가.}
- 10201 # 그래도 그냥 털고나서면 되겐찌 허고서나 막 그때는 머 집또 싸지도 안코 기양 그러케 그러케 땡깡개, 그양 등꺼지 거 집또 안 팔고, 여그 집또 안 싸고 기양 그러케하고 사라 드런따 마리여. {그래도 그냥 켜고 나서면 되겠지 하고서나 막 그때는 뭐 집도 사지고 앓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다니니까, 그냥 등까지 그 집도 안 팔고, 여기 집도 안 사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 들었단 말이여.}
- 10201 # 그래 드러 사는디... {그래 들어 사는데...}
- 10201 # 아 한 이태 삼년 사는디, 아 북쪼서네서 또 사람드리 이사를 자꾸 온단 마리여, 북쪼서네서. {아 한 이태 삼년 사는데, 아 북조선에서 또 사람들이 이사를 자꾸 온단 말이여, 북조선에서.}
- 10201 @ 으. {으.}
- 10201 # 그래이까나 이 지비 이췌개 그케 이사를 완는디, 버교 오다난게 그 그 한 지비 새가가 글썄 여라흠싸리나 머견따는 새가가, 그기 그러케 이우집, 우리 바로 우리 지비서 부를, 끄리고 끄리구 갇썰판 마리여. {그러니까 이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사를 왔는데, ** 오다나니까 그 그 한 집에 새아기가 글썄 열아흠 살이나 먹었다는 새아기가, 그것이 그렇게 이웃집, 우리 바로 우리 집에서 불을, 끄리고 끄리고 갇썰판 말이여.}
- 10201 @ 으. {으.}

10201 # 이러케 검부리다 싸가지고 간썰. {이렇게 검불에다 쌓가지고 갔지.}

10201 @ 부르 검부레다 싸면 그 부리 다 부터쓸랑가? {불을 검불에다 쌓면 그 불이 다 붙었을랑가?}

10201 # 그걸 붙썰. {그것 붙지.}

10201 # 아 그렇게 그런 멍충이가 어딴썰. {아 그러니까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10201 @ 사비나 이렇 거로 해야지. {삽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10201 # 응, 그그케 싸가지고 가다가 글썰 바람이 부니까 혹 일어났단 말이여. {응, 그렇게 쌓가지고 가다가 글썰 바람이 부니까 혹 일어났단 말이여.}

10201 @ 어. {어.}

10201 # 그때 사멸 따린다. {그때 3월 달인데.}

10201 # 풍 이러낭개, 확 이러낭개 지 손모가지 디까바 광 놔빠릴판 마리여, 우리 지비 우리지비 거 검부리가 가뜨간디 거 검부리다 낚는디 거 얼마나 잘 타. {풍 일어나니까, 확 이러나니까 지 손모가지 델까 봐 콧 놓아버렸단 말이여, 우리 집에 우리 집에 그 검불이 가득한데 그 검불에다 놓았는데 그 얼마나 잘 타.}

10201 # 으런드른 다 일가고 업썰... {어른들은 다 일 가고 없지...}

10201 # 아이고 그래간꼬는 부리, 다 부라기 기양 몽땅 다 타뿌릴썰.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불이, 다 부락이 그냥 몽땅 다 타버렸지.}

10201 # 막 여기서 팍:: 사멸따린개 바람 차꾸 붙제, 그날도 척끄리 바람 부러싸트란 마리여. {막 여기서 팍 3월 달이니까 바람 자꾸 붙지, 그날도 펍 그렇게 바람 붙어쌓드란 마리여.}

10201 # 그러가지고는 바람 부러서 막 지비 썩 타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바람 불어서 막 집이 썩 타버리고...}

10201 @ 그때 겨론 해쓸때여 안 해쓸 때여? {그때 결혼했을 때여 안 했을 때여?}

10201 # 응? {응?}

10201 @ 그때 겨론 해쓸때여 안 해쓸 때여? {그때 결혼했을 때여 안 했을 때여?}

10201 # 그렇게 그때는 겨론 안 해썰찌 내가. {그러니까 그때는 결혼 한 했었지 내가.}

10201 @ 응. {응.}

10201 # 겨론 안 하고 그때 열두엿 서너살 너덜쌀 그러케 머거쓸 때여. {결혼 안 하고 그때 열두엿 서너 살 너덜 살 그렇게 먹었을 때여.}

10201 # 그렇게 그러케 인제 부리나, 부리나서 훌딱 다 기양 너 니 지비고 내 지비고 기양 다 다 탄, 타는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불이 나, 불이 나서 훌딱 다 그냥 너 니 집이고 내 집이고 그냥 다 다 탄, 탔는데.}

10201 # 봉남 봉남 사람드리 부락 불난 줄 알고 막:: 이르 내리 완판 마리여. {봉남 봉남 사람들이 부락 불 난 줄 알고 막 이리 내리 왔단 말이여.}

10201 @ 이 동네 사람드른 다 어디 가고, 동네 어른드른?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동네 어른들은?}

10201 # 동네 으런들도 더러는 지비 인 일찌만 일 못하게 생긴 사람 지비 인찌, 다 일하러 간담 마리어. {동네 어른들도 더러는 집에 있 있지만 일 못 하게 생긴 사람 집에 있지, 다 일하러 갔단 말이어.}

10201

10201 # 그리고 와가지고는 막 부릴 끄고, 물로 끄고서... {그리고 와가지고는 막 물을 끄고, 물로 그고서...}

10201 # 그리고는 그 그러 그러다낭개 기냥 그럭저럭 거그서 며티 살다가 애잉 여 그, 여기 영 조타고 여기 버덕도 널롭꼬 형개 여그서, 거그는 또 좀 술담 마리어. {그리고는 그 그러 그렇다나니까 그냥 그럭저럭 거기서 몇 해 살다가 애잉 여기, 여기 영 좋다고 여기 들도 넓 하니까 여기서, 그기는 또 좀 술담 말이야.}

10201 @ 손단 마리 무슨 마리어? {손단 말이 무슨 말이야?}

10201 # 작판 마리제. {작단 말이지.}

10201 @ 아! {아!}

10201 # 그레간꼬는 맨:: 낭구지, 그렇게로 여기 내려와서 산다구 여그다가 지불 쥔제. {그레 가지고는 맨 나무지,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서 산다고 여기다가 집을 지었지.}

10201 @ 그때에 그때 맨: 처메 그쫘그로 이사간쓸 때는 맨찌비나 일썬썬? {그때에 그때 맨 처음에 그 쪽으로 이사 갔을 때는 몇 집이나 있었어?}

10201 # 처:메 지비 간쓸 @ 응, # 지베 @ 소사서 무주로 맨처메 완쓸 때? {처음에 집이 갔을 @ 응, # 집에 @ 소사에서 무주로 맨 처음에 왔을 때?}

10201 # 지비 벨로 업썬썬. {집이 별로 없었지.}

10201 @ 그때는? {그때는?}

10201 # 응, 벨로 업꼬, 거그도 집, 지어가지고 와 이는 사라미 만치 인자 그때넌. {응, 별로 없고, 거기도 집, 지어가지고 와 있는 사람이 많지 이제 그때는.}

10201 # 그러케 해서. {그렇게 해서.}

10201 @ 이미 그 저 바까테 토성은 일썬꼬? {이미 그 저 바깥에 토성은 있었고?}

10201 # 토성, 야, 토성은 일썬꼬. {토성, 야, 토성은 있었고.}

10201 # 그레가지고는 토성아네 그러케 사는디, 맨지비 일뜨만. 맨집 되드만 한 여나무집 되는지 그러케 사람찌 머. {그레가지고는 토성 안에 그렇게 사는 데, 몇 집이 있더구먼. 몇 집 되더구먼 한 여남 집 되는지 그렇게 살았지 뭐.}

10201 # 그러니깐 그때는 경찰도 일꼬 경찰도 일꼬. @ 어디에? {그러니까 그때는 경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 어디에?}

10201 # 부라게. {부락에.}

10201 # 그 부락에 경찰도 저기 일제. {그 부락에 경찰도 저기 있지.}

10201 @ 자기덜 제빌로 형 거여? {자기들 자비로 한 거야?}

10201 # 영. {영.}

10201 @ 자기 절로? {자기 스스로?}

10201 # 경찰드리 거그 경찰들. {경찰들이 거기 경찰들.}

10201 # 저기 이사 완따 마리여, 그래간꼬는 경찰도 일제, 순사도 일제, @ 으. # 그러케 일제 일떠만. 그러니까는 저... {저기 이사 왔다 말이며, 그래 가지고는 경찰도 있지, 순사도 있지, @ 으. # 그렇게 있데 있더구먼. 그러니까 저...}

10201 # 거기 @ 순사는 일본 순사여? {거기 @ 순사는 일본 순사여?}

10201 # 일본 순사. {일본 순사.}

10201 @ 어!! {어!!}

10201 # 일본 순사 일본 순사드리 그러케 와서 일제. {일본 순사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와서 있지.}

10201 # 그래 거그서 인자 그러케 살다가는 그러케 부리 나가지고는 아무래도 또 그 일뜯디다가 안 질꼬 여그를 내리와, 여가가꼬 와서 지타낭개 한집 두집 지어서 요리 또 쌍 내리와 뿌릴써. {그래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불이 나가지고는 아무래도 또 그 있던 데다다 안 짓고 여기를 내려와, 여기 와 가지고 와서 짓다나니까 한 집 두 집 지어서 이리 또 짹 내려와 버렸어.}

10201 @ 근디 그 불났을 때에 다:: 지비 무슨 지비열써? {그런데 그 불났을 때에 다 집이 무슨 집이었어?}

10201 # 다 초갈찌비제. {다 초가집이지.}

10201 # 다 저기 새초지비고, @ 응. # 흑지비고. {다 저기 새초집이고, @ 응. # 흑집이다.}

10201 @ 그리머 잘: 타견네? {그러면 잘 타겠네?}

10201 # 잘 타지며, 불만 부트면 타뿌러. {잘 타지 뭐, 불만 붙으면 타버려.}

10201 # 그래간꼬 착착 내려안제. {그래가지고 착착 내려앉지.}

10201 # 다 탕개로 막. {다 타니까 막.}

10201 # 이 서까래도 막 짹 타제. 아이구. {이 서까래도 막 짹 타지, 아이구.}

10201 # 참 뽕난 세상 다 지꾸고 사라. {참 뽕난 세상 다 겪고 살아.}

10201 @ 그러지요 이? 다 지키고 사람써. {그렇지요 이? 다 겪고 살았어.}

10201 @ 애애애. {예예예.}

10201 # 흥흥 애이구! {흥흥 애이구!}

10201 @ 여그 와서는 맨처메 얼마 집써, 집 절써? {여기 와서는 맨 처음에 어디 에다 집 지어, 집 지었어?}

10201 # 여그 와서? {여기 와서?}

10201 @ 응. {응.}

10201 # 그렇게로 소사서 와 저 @ 아니, 지금 현재 이 자리로 # 여기? @ 완쓸 때... {그러니까 소사에서 와 저 @ 아니, 지금 현지 이 자리로 # 여기? @ 왔을 때...}

10201 # 저기 시방 저 뒤에 일써. {저기 시방 저 뒤에 있어.}

10201 @ 뒤에 그 집? {뒤에 그 집?}

10201 # 애, 그 헌집 일짜나? {예, 그 헌 집 있잖아?}

10201 @ 애애. {예예.}

10201 # 그게 우리 살던 지비여. 거다 집 절써. {그게 우리 살던 집이야. 거기다 집 지었어.}

10201 @ 그러, 그러면 거그 질 때 어머니 아버지도 계셨써? {그래, 그러면 거그 질 때 어머니 아버지도 계셨어?}

10201 # 야. {야.}

10201 @ 그먼 그 지불 어머니 아버지랑 가치 징 거여? {그러면 그 집을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진 거야?}

10201 # 가치 징 거여. @ 벽돌로? # 어머니 아버지랑 가치. {가치 진 거야. @ 벽돌로? #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10201 # 나 @ 흑벽돌로? {나 @ 흙벽돌로?}

10201 # 응? {응?}

10201 @ 흑벽돌로? # 야, 흑벽돌로. {흙벽돌로? # 야, 흙벽돌로.}

10201 # 흑또, 흐그로 그냥, 돌로 그르케 싸고 징기제. {흙도, 흙으로 그냥, 돌로 그렇게 쌓고 쟁이지.}

10201 # 아부지가 일쫘개로 그러제. @ 그때 동생드른?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 그때 동생들은?}

10201 # 동생드른 내 내 동생드링개 조금 두살씩 차라마리여, @ 애. # 그러니까 쪼끄만씩씩 헐찌머. {동생들은 내 내 동생들이니까 조금 두 살씩 차이로 말 이야, @ 예. # 그러니까 조그만씩 했지 뭐.}

10201 @ 동생들 이르문 머여? {동생들 이름은 뭐야?}

10201 # 히딩이, 히나미. {희동이, 희남이.}

10201 @ 히동이. {희동이.}

10201 # 히동이, 히나미. {희동이, 희남이.}

10201 @ 히동이가 위예고? {희동이가 위예고?}

10201 # 애, 히동이가 김시동이 김시나미. {예, 희동이가 김희동이 김희남이.}

10201 @ 어. {어.}

10201 @ 두살 다 두살... {두 살 다 두 살...}

10201 # 두살 차. {두 살 차.}

10201 @ 두살 차여? {두 살 차야?}

10201 # 그렇게 그때 한국 간떠이마는 그때는 일때. {그러니까 그때 한국 갔더니
만 그때는 있네.}

10201 @ 얼굴 봤써? {얼굴 봤어?}

10201 # 하먼. {아무렴.}

10201 @ 얼굴 봤써? {얼굴 봤어?}

10201 # 야, 그때는 얼굴, 가서 만내볼따 마리어. {야, 그때는 얼굴, 가서 만나봤다
말이여.}

10201 @ 그러면 그때 침: 만난 거네? {그러면 그때 처음 만난 것이네?}

10201 # 침 만날찌. {처음 만났지.}

10201 @ 그러면 뎨년마네 만남거여? {그러면 몇 년 만에 만난 것이야?}

10201 # 그렇게 그때 한::... {그러니까 그때 한...}

10201 @ 한 육십년마네 만난네? {한 60년 만에 만났네?}

10201 # 육십년마네 만넨똥가... {60년 만에 만났든가...}

10201 @ 한 사십. {한 40.}

10201 # 사십년만네 만날똥가 @ 사십오년, 육십년니 육십년마네 만나쓰실 너머
그만. {40년 만에 만났던가 @ 45년, 60년이 60년 만에 만났으실 넘어
그만.}

10201

10201 # 그때가 뎨년도에 간찌, 여그서? {그때가 몇 년도에 갔지, 여기서?}

10201 # 모르겄써 그냥. {모르겠어 그냥.}

10201 @ 이천, 이천년도에 가 가지 아날써? # 어느 도, 그거넨 잘 모르겄써.
{2000, 2000년도에 가 가지 안왔어? # 어느 도, 그것은 잘 모르겠어.}

10201 @ 한 오십 뎨 년, 육십년마네 만날겄네 이? {한 오십 몇 년, 60년 만에 만
났겄네 이?}

10201 # 그러네. {그러네.}

10201 @ 근테 열구리 열구리 보니까 알게, 알기와? {그런데 얼굴이 얼굴이 보니
까 알려, 알 수 있어?}

10201 # 하::. {하.}

10201 @ 알겄써? # 다 알기지 머. {알겄어? # 다 알 수 있지 뭐.}

10201 # 여기 일따가 그걸뜰 나간똥 마리어, 여그서 살다가. {여기 있다가 그것들
나갔단 말이야,여기서 살다가.}

10201 @ 그렇게. {그러니까.}

10201 # 애애. {예예.}

10201 @ 여그서 뎨살 때 나간써? {여기서 몇 살 때 나갔어?}

10201 # 열두살 때에, 열세살 때. {열두 살 때에, 열세 살 때.}

10201 @ 누가? {누가?}

10201 # 아, 동생더리. {아, 동생들이.}

10201 @ 어:: 그때는 할머니는 그먼 뎌, 시집, 시집 가고난 다메 그 사람들 나간
 썸? {어, 그때는 할머니는 그러면 몇, 시집, 시집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나갔어?}

10201 # 애. {예.}

10201 # 응 부무내드리 날 여워노코, 공개 자근아버지를 따라나간쥬. {응 부모네
 들이 날 여워 놓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를 따라 나갔지.}

10201 @ 음. {음.}

10201 # 자근아버지가 데비서 나가이꺼나. {작은아버지가 돌려 나가니까.}

10201 @ 음. {음.}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211 @ 그이자 거기 나가고 나서, 그인자 부모님 도라가시고나니까 계론해서도
 그먼 가치 거그서 그 저 바깥냥반허고 가치 사썸썸썸, 저 지베서? {그 이제
 거기 나가고 나서, 그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혼해서도 그러면
 같이 거기서 그 저 바깥냥반하고 같이 사썸썸썸, 저 집에서?}

10211 # 야, 가치 사랴썸썸. {야, 같이 살았지 뭐.}

10211 @ 그레 방이 이러케 두카니얼썸, 그때도. {그레 방이 이렇게 두 칸이었어,
 그때도.}

10211 # 두카니어. {두 칸이야.}

10211 # 두카닝개 그렇개 내가 멍청한간 암 멍청항가 바. {두 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멍청한가 안 멍청한가 봐.}

10211 # 자미 멍청하지? {잠이 멍청하지?}

10211 # 인제 아랫뽕으서는 인자 바벌 해서 먹꼬, 아래, 부모네드른 아랫뽕에서
 자고. {이제 아랫방에서는 이제 밥을 해서 먹고, 아래, 부모네들은 아랫방에
 서 자고.}

10211 @ 음. {음.}

10211 # 우리넌 우리 두리 올뽕으서 잔단 마리어. {우리는 우리 둘이 윗방에서 잔
 단 말이야.}

10211 # 그렇개로, 여그서 내가 꾸부리고 자면, 자부름 오면 기양 아무디나 썸 썸
 러져 자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꾸부리고 자면, 잠이 오면 그냥 아무데
 나 쓰 쓰러져 자지.}

10211 @ 음. {음.}

10211 # 아나 올라가는 가는, 가능 겐또 몰라이 이 멍충이가. {안아 올라가는 가
 는, 가능 것도 몰라 이 멍청이가.}

10211 @ 하하하. {하하하.}

10211 # 잠 멍충이라. {잠 멍청이라.}

10211 @ 하하하. {하하하.}

10211 # 하::! {하!}

10211 # 그때 계론해간꼬? {그때 결혼해가지고?}

10211 # 애, 그 겨론해가지고. {예, 그 결혼해가지고.}

10211 @ 허허허. {허허허.}

10211 # 그니까 머이 대? {그러니까 뭇이 돼?}

10211 @ 허허허. {허허허.}

10211 # 여러설사레 겨론항개. {열여섯 살에 결혼한 것이.}

10211 @ 아::. {아.}

10211 # 모른담 모르건뜨란 마리여. {모른단 모르겠드란 말이야.}

10211 @ 어. {어.}

10211 # 그 그런 멍충이지쓸 헛썬. {그 그런 멍청이 짓을 했어.}

10211 @ 허허허. {허허허.}

10211 # 애이구, 기가매켜. 아이구! {애이구, 기가 막혀. 아이구!}

10211 @ 그먼 여그 내려와서는 쫘 나사, 인자 살기가 쫘 나살써?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는 쫘 낳아, 이제 살기가 쫘 낳았어?}

10211 # 여그 여그 내려웅개 쪼끔 살기가 날떠란 마리여, 그 운부라기 일쓸 때만. {여기 여기 내려오니까 조금 살기가 낳더란 말이여, 그 윗 부락에 있을 때 보단.}

10211 # 이 바끼 휘::너이 깨운항개. {이 밖이 흰하니 깨운한 게.}

10211 @ 그먼 지금 거기는 아피 휘너지 아나, 아피 마켜 일써? {그러면 지금 거기는 앞이 흰하지 앓아, 앞이 막혀 있어?}

10211 # 여비 막, 낭구가 꺾: 찰, 설썰판 마리여. {옆이 막, 나무가 꺾 찼, 썰엇단 말이여.}

10211 @ 아::! 낭구 때무네? {아! 나무 때문에?}

10211 # 이:: 낭구 때무네. {응 나무 때문에.}

10211 @ 낭구 때무네 그러지? # 낭구 때미 그레. {나무 때문에 그러지? # 나무 때문에 그레.}

10211 @ 아, 지금가트먼 휘니 보이고 이? {아, 지금 같으면 흰히 보이고 이?}

10211 # 야. {야.}

10211 # 지금도 화:나이 보이지 머. {지금도 환히 보이지 뭐.}

10211 # 낭구가 우거 콕 우걸쓰니까나. {나무가 우거 콕 우거졌으니까.}

10211 # 질드리 내:나, 시방 저 저기시 얼마나 조와, 큰지리꼬. {길들이 내나, 시방 저 저것이 얼마나 좋아, 클 길이 있고.}

10211 # 그런디 @ 그먼 요리 쪽 가는 썬 위에 마을 가는 그 기리, 그 기리여? {그러нде @ 그러면 이리 쪽 가는 저 위에 마을 가는 그 길이, 그 길이야?}

10211 # 야: 그기요. {야 그것이요.}

10211 # 그 지리요. {그 길이요.}

10211 # 그 저네는 요로케 요 오솔지리지 머. {그 전에는 이렇게 이 오솔길이지 뭐.}

10211 @ 음. {음.}

10211 # 그렇게 그리 그런데로 땡기고. {그러니까 그리 그런 데로 다니고.}

10211 # 아 오지기 내가 살기 시르머는 영감하고 마미 업써간꼬 살기 시러서 두리 싸:덜 허고서는 막, 그, 거그서 살다가 막 들고 뛰얼따 마리어. {아 오직이 내가 살기 싫으면 영감하고 맘이 없어가지고 살기 싫어서 둘이 싸움을 하고 서는 막, 그, 거기서 살다가 막 들고 뛰었다 말이여.}

10211 # 또는 강에가 빠자죽, 저그 큰강이가 인짱습디여? {또는 강에가 빠져죽, 저기 큰 강이니까 있잖아요?}

10211 # 강으가 빠져죽겄따고. {강에 가 빠져죽겠다고.}

10211 @ 거기서 거기까지 언제까지 뛰어가, 그 먼데를? {거기서 거기까지 언제까지 뛰어가, 그 먼데를?}

10211 # 그 먼데를 글씨 그러케 그래서 그러케 막 여그 절반 뛰어내려오는디, 영가미 나그내가 막 그래도 남자가 더 빠르지, 나부다. {그 먼 데를 글씨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막 여기 절반 뛰어 내려오는데, 영감이 남편이 막 그래도 남자가 더 빠르지, 나보다.}

10211 @ 어. {어.}

10211 # 부째펜써유, 부째피 데비 간짜 아마. {불잡혀서요, 불잡혀 도리어 갔지 아마.}

10211 # 그레간꼬 이러케 사라. {그레 가지고 이렇게 살아.}

10211 @ 하하하. # 허허허. {하하하. # 허허허.}

10211 # 그라느면 주거쓸 채민디. @ 어::. # 에이! {그렇지 않으면 죽었을 참인데. @ 어. # 에이!}

10211 # 초매꺼진 다 이벌판 마리어. 초매쫄쩍. 초매 이부분, 입꼬 초매 디지버 쓰 먼 죽찌머. {치마까지 다 입었던 말이여. 치마 술. 치마 이 부분, 입고 치마 뒤집어쓰면 죽지 뭐.}

10211 # 그 초매 이거 물 꼭 차가지고, 까라안근단 마리어. {그 치마 이것 물 꼭 차가지고, 가라앉는단 말이여.}

10211 @ 일부러 초매 입꼬 뛰언써? {일부러 치마 입고 뛰었어?}

10211 # 하! 일부러 주굴라고, 초매를 입꼬 막 들고 땀찌. @ 근디 땀 싸리여, 그때가? {하! 일부러 죽으려고, 치마를 입고 막 들고 뛰었지. @ 그런데 몇 사리야, 그때가?}

10211 # 그렇게로 그때게 여려선쌀, 열일곱쌀. {그러니까 그때가 열여섯 살, 열일곱 살.}

10211 @ 겨론허고 나서 바로? {결혼하고 나서 바로?}

10211 # 야! {야!}

10211 @ 그 어리, 그 어린 어링 거시? {그 어리, 그 어린 어린 것이?}

10211 @ 하하하하. {하하하하.}

10211 # 애이고! {애이고!}

10211 @ 하이고! {하이고!}

10211 # 함버는 너무::도 요글해썬코 또 그래싸컬래 에이 작껌 내가 수머바야겐따,
그 그래가지고 어디가 수머는가면 지베 이 감자꾸리 일쏘, 지바네. {한번은
너무도 욱을 해썬고 또 그래썬길래 에이 잡것 숨어봐야쥔다, 그 그래가지고
어디가 숨었는가 하면 집에 이 감자굴이 있소, 집 안에.}

10211 @ 애앵. {예예.}

10211 # 정 정지에, 무나페. {정 부억에, 문 앞에.}

10211 # 거 감자꾸리 인는디 거 거 감자가 그 아네 드릴찌 머. {그 감자굴이 있는
데 그 그 감자가 그 안에 들어있지 뭐.}

10211 @ 음. {음.}

10211 # 그래 거그를 거기 드러가 수머뎌썬. 호호호. @ 허허허허. {그래 거기를
거기 들어가 숨었어, 호호호. @ 허허허허.}

10211 # 수머떠니 막 온디 차자대니드라 마리여. {숨었더니 막 온 데 찾아다니더
란 말이여?}

10211 # 그래 또 차자대닝기 썬 안조트란 마리여, 내 마으미 모질지 모태서 그래
서 여깁따고 막 과물 질러썬. {그래 또 찾아다니는 것이 썬 안 좋더라란 말이
여, 내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 있다고 막 고향을 질렀어.}

10211 @ 호호호호. {호호호호.}

10211 # 허까 막 때릴라고... {하니까 막 때리려고...}

10211 @ 하하하. {하하하.}

10211 # 음찌라기 이런디가서 수몽개 어트게 찬능가고 막 그냥, 그러고 요글
하더만, 헤헤 그런 시상, 그러케 사람썬. {음침하게 이런데 가서 숨으
니까 어떻게 찾는가 하고 막 그냥, 그리고 욱을 하더만, 헤헤 그런 세
상, 그렇게 살았어.}

10211 @ 허허허 # 아이고 내가! {허허허 # 아이고 내가!}

10211 @ 궁개 처리 업썬썬? {그러니까 철이 없었어?}

10211 # 처리 업썬 아먼, 그 무신 처리 일쏘. {철이 없지 암, 그 무슨 철이 있소.}

10211 # 열야선썬 머거서 처리 업는데. {열여섯 살 먹어서 철이 없는데.}

1.2.1. 제보자의 성장

10201 @ 흥흥흥. 놀기는 조아헐꼬? {흥흥흥. 놀기는 좋아했꼬?}

10201 # 놀기는 참 조아헐썬. {놀기는 참 좋아했지.}

10201 @ 그때도? {그때도?}

10201 # 애, 그렇게로 영가미 날 놀기 조아한다고 믿찌모탄다 모탄다 마리여. {예, 그러니까 영감이 나를 놀기 좋아한다고 믿지 못 한다 못 한다 말이여.}

10201 @ 음. {음.}

10201 # 믿찌 모태서. {믿지 못 해서.}

10201 # 어디서 어찌능간 해가지고. {어디서 어찌 하는가 해가지고.}

10201 # 내가 그럴 사라미간, 아니라고. {내가 그럴 사람이거나, 아니라고.}

10201 # ㅎㅎ. {ㅎㅎ.}

10201 @ ㅎㅎㅎ. 이거 그때는 고반는감만? {ㅎㅎㅎ. 이것 그때는 고왔는가봐?}

10201 @ 지금도 고바 얼굴리. {지금도 고와 얼굴이.}

10201 # 고은 각씨, 고은 각씨 계:속 그랜씨. 애애. {고은 각시, 고은 각시 계속 그랬어. 예예.}

10201 @ 절머쉴 때는 정말 고완겔씨. {쉴었을 때는 정말 고왔겠어.}

10201 # 애, 곱 곱쌍헐씨. {예, 곱 곱상했어.}

10201 @ 애. {예.}

10201 # 그렇게 고 고봉 각씨, 고봉 각씨 기양 그랜따고. {그러니까 그 고은 각시, 고은 각시 그냥 그랬다고.}

10201 @ 음::. {음.}

10201 # 어전 사리 쪽 빠징개 왈라. {이젠 살이 쪽 빠지니까 끝.}

10201 @ 지금도 그려, 지금도 고봐. {지금도 그래, 지금도 고와.}

10201 # 에이, 어트게 고바 쭈굴쭈굴한다. {에이, 어떻게 고와 쭈굴쭈굴한데.}

10201 @ 아이, 그리도 그도 나이로 나이로 따져야지 이? {아니, 그래도 그래도 나이로 나이로 따져야지 이?}

10201 # 히히히. {히히히.}

10201 @ 히히히. {히히히.}

10201 # 아아, 재미따. {아아, 재미있다.}

10201 @ 자, 인자, 그리고나서 그때, 그때 그 엔나레 글머는 자 바깥냥바는 바깥에서 일허고, 일헐 때, 이른 안 헐씨?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 그때 그 옛날에 그러면은 자 바깥양반은 바깥에서 일하고, 일 할 때, 일은 안 했어?}

10201 # 받? {받?}

10201 @ 응. {응.}

10201 # 왜 이를 안 햐. {왜 일을 안 해.}

10201 # 새끼를 몬 나타낭개 계속 이래, 따라다니며 이랜찌 머, 계:속. {새끼를 못 낳다 나니까 계속 일해, 따라다니며 일 했지 뭐, 계속.}

10201 # 짐매로 가면 짐매고, 놈매로 가면 놈매고, 그저 머 하러 가면 머 계속 다 해. {김매러 가면 김매고, 논매러 가면 논매고, 그저 뭐 하러 가면 뭐 계속 다 해.}

10201 # 내가 정말 손,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머이라고 허는 마리 "에이구 야야! 새끼도 업썩개 니가 여기 일로써 파늘치고 이르 늘꼐따." 이런 소리를 다 허더란 마리어. {내가 정말 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말이 "에이구 야야! 새끼도 없으니까 여기 일로써 판을 치고 이렇게 늘꼐다." 이런 소리를 다 하더란 말이여.}

10201 @ 음. {음.}

10201 # 일로 능는다고. {일로 늑는다고.}

10201 # 그르더니 아닝가나, 이를 이날 이쩍찌 일로 늘거. {그르더니 아닝가나, 일을 이날 이때까지 일로 늑어.}

10201 # 아이구 일로 늘꼐썩. {아이고 일로 늑었어.}

10201 # 야! 기가 매키지. {야! 기가 막히지.}

10201 @ 그에 그러니까 일 안흔 사라몬 빨리 죽찌, 히히. {그 그러니까 일 안 한 사람은 빨리 죽지, 히히.}

10201 @ 일허능 거시 운동이지 며. {일하는 것이 운동이지 뭐.}

10201 # 응, 그렇게 그렇게비여. {응, 그러니까 그러는가 봐.}

10201 # 그래서 이러케 오래 사능가봐, 운동을 해싸서.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는 가 봐, 운동을 하여썰서.}

10201 @ 허허허. {허허허.}

10201 # @ 하하하. {하하하.}

10201 @ 그::: {그.}

10201 # 아이구! {아이구!}

10201 @ 아버지 형제가는 뎜 명, 메시열썩? {아버지 형제간은 몇 명, 몇이었어?}

10201 # 아부지 형지가니 업찌며, 업썩. {아버지 형제간이 없지 뭐, 없어.}

10201 @ 그면 그 # 어터게 돼야서 그러케 호 혼자, 혼잔지 모르겐썩. {그러면 그 # 어떻게 돼서 그렇게 호 혼자, 혼자인지 모르겠어.}

10201 @ 그면 그 조카드른 누구여, 저 조카드른? {그러면 그 조카들은 누구야, 저 조카들은?}

10201 @ 데리고 살안뎜 조카드른 누구냐고? {데리고 살앗던 조카들은 누구냐고?}

10201 @ 그 아들로 바다드린 조카는 볼래 그 그 누구, 누군데 바다드렐썩? {그 아들로 받아들인 조카는 본래 그 그 누구, 누군데 받아들었어?}

10201 @ 크나부지나 며 자그나부지 그런 사람 아들 아니여?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그런 사람 아들 아니야?}

10201 # 크나 자그나부지 아들, 자그나부지. {큰아 작은아버지 아들, 작은아버지.}

10201 @ 자그나부지는 # 자그나부지는 여그 이 부라그서 부락썰질 헐따고. {작은 아버지는 # 작은아버지는 여기 이 부락에서 부락장질 했다고.}

10201 @ 자그나부지가 궁개 뎜 명 일썰꾸만. {작은아버지가 그러니까 몇 명 있었구먼.}

10201 # 애. {예.}

10201 @ 그 친 자그나부지여? {그 친 작은아버지야?}

10201 # 친 자그나부지제, 친 자그나부지. {친 작은아버지지, 친 작은아버지.}

10201 @ 항국 간 자그나부지가 일꼬. {한국 간 작은아버지가 있고.}

10201 # 애:, 자근 자그나부지가 시방 항구그로 @ 간찌? # 테베 갑판 마리어.
{예, 작은 작은아버지가 시방 한국으로 @ 갔지? # 다시 갔단 말이어.}

10201 @ 어. {어.}

10201 # 그래 가 가덜 데리고 간지. {그래 가 개들 데리고 갔지.}

10201 @ 그러니까 그 자근아버지가 갈 때에 그 동생들 두리 데리고 간꼬. {그러
니까 그 작은아버지가 갈 때 그 동생들 둘이 데리고 갔고.}

10201 # 어. {어.}

10201 @ 그먼 자그나부지도 아들뜰또 데리고 간건꼬만. {그러면 작은아버지도 아
들들도 데리고 갔겠구먼.}

10201 # 아덜도, 아들도 두리 서잉가 서이 데리고. {아들도, 아들도 둘이 서인가
서이 데리고.}

10201 @ 그먼 그때 가덜뜰또 얼굴 아라? {그러면 그때 개들도 얼굴 알아?}

10201 # 응, 아러, 다 알려. {응, 알아, 다 알려.}

10201 @ 지난 버네 가서 만날써? {지난 번에 가서 만났어?}

10201 # 그래 가, 강개로 글씨 그러케 아리드란 마리어. {그래 가, 가니까 글씨 그
렇게 알 수 있더라 말이어.}

10201 @ 가들도? {개들도?}

10201 # 응. {응.}

10201 @ 응:. {응.}

10201 @ 그래 자그나부지는 도라가설꼬 이? {그래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10201 # 달 도라가설제머. {당 돌아가셨지 뭐.}

10201 # 자그나부지랑 자근어머니랑 싹 도라가시고 아덜만 일떠만. {작은아버지랑
작은어머니랑 싹 돌아가시고 아들만 있더구먼.}

10201 @ 음. {음.}

10201 @ 그 아들드른 잘 살덩가요? {그 아들들은 잘 살던가요?}

10201 # 다 갠찬케 사러. {다 괜찮게 살아.}

10201 # 근디 그 항구게서도 무quel, 묵 아라, 묵? {그런데 그 한국에서도 묵을, 묵
알아, 묵?}

10201 @ 응. {응.}

10201 # 매물묵? {매밀묵?}

10201 @ 어어. {어어.}

10201 # 그거 하 하고 일떠라고, 울 동생대건. {그것 하 하고 있더라고, 우리 동생
댁은.}

10201 @ 음::. {음.}

10201 # 동생더런 다 죽꼬. {동생들은 다 죽고.}

10201 @ 아들뜨른? {아들들은?}

10201 # 응, 아들 아들네들. {응, 아들 아들네들.}

10201 @ 응, 친동생드리 주건따고? {응, 친동생들이 죽었다고?}

10201 # 친동생 두리, @ 응. # 저기 머여, 응 안주건따, 안죽꼬 일따. {친동생 둘이, @ 응. # 저기 뭐야, 응 안 죽었다, 안 죽고 있다.}

10201 # 그렇게 그 도, 가드른 심바람 하고, @ 음. # 심바람하고 그케 저기 무가난데 심바람하드만. {그러니까 그 도, 개들은 심부름 하고, @ 음. # 심부름 하고 그렇게 저기 목 하는데 심부름 하드구먼.}

10201 # 그렇게 막 무카니 크:드만. {그러니까 막 목 칸이 크더구먼.}

10201 # 거 식또 목칸, 목 이러케 간따논는 데, 잡떼는 시워::나고 어티게 냉장고릴 맨드러난는지. {그 식도 목 칸, 목 이렇게 갖다 놓는 데, ** 데는 시원하고 어떻게 냉장고를 만들어 났는지.}

10201 @ 그러케 헐껌찌 뭐. {그렇게 했겠지 뭐.}

10201 # 응? {응?}

10201 @ 그러케 헐껌찌. {그렇게 했겠지.}

10201 # 그랜는디 @ 공장이 커? {그랬는데 @ 공장이 커?}

10201 # 커::. {커.}

10201 @ 오오. 잘 살견꾸만. {오오. 잘 살겠구먼.}

10201 # 갠찬케 사라. {괜찮게 살아.}

10201 @ 그먼 인자 그 자그나부지는 데리고 간꼬, # 데리고 간꼬, @ 그러면 또 자그나부지가 일쩔꾸만? {그러면 이제 그 작은아버지는 데리고 갔고, # 데리고 갔고, @ 그러면 또 작은아버지가 있었구먼?}

10201 # 아 업써, 자그나부지 하나뿐니여. {아 없어, 작은아버지 하나뿐이야.}

10201 @ 그먼 여기 여 여 여기 인는, 아들뜰 그먼 아들뜨를 멘명을 여기 냉기노코 간써? {그러면 여기 여 여 여기 있는, 아들들 그러면 아들들을 몇 명을 여기 남겨놓고 갔어?}

10201 # 그 자그나부지 아들뜨리? {그 작은아버지 아들들이?}

10201 # 아니, 업써 다 다 가고, 다 데리고 가고. {아니, 없어 다 다 가고, 다 데리고 가고.}

10206 @ 그먼 그렇게 나는 지금 데리고 인는 조카가, 지금 데리고 # 그거? @ 인는 조카가 누구 누구 조카난 마리여?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데리고 있는 조카가, 지금 데리고 # 그것? @ 있는 조카가 누구 누구 조카난 말이여?}

10206 # 지금 데리고 인는 이 시지베 @ 아::! # 시지베 조카여, 저거 저기 저 암 쪼게두 애나 주깁써.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시집의 @ 아! # 시집의 조카여,

저것 저기 저 아무 쪽에도 참말로 죽겠어.}

10206 @ 아:! 시지베 조카라고? # 하! {아! 시집의 조카라고? # 하!}

10206 @ 나는 나는 친조카라고. {나는 나는 친조카라고.}

10206 # 아니여. {아니야.}

10206 @ 음. {음.}

10206 # 시지베 조카여. {시집의 조카야.}

10206 @ 그먼 시지베 형제는 몇 명이얼씨? {그러면 시집의 형지는 몇 명이었어?}

10206 @ 그 저저저 바깥냥바네 아버, 남편네 형 형제가는 메시얼씨? {그 저저저 바깥양반네 아버, 남편의 형제간은 몇이었어?}

10206 # 공개 형제간, 하, 둘 둘. {그러니까 형제간, 하, 둘 둘.}

10206 @ 아드리 두리얼씨? # 어. {아들이 둘이었어? # 어.}

10206 @ 그며는 그며는 크나드리얼꼬 이? {그러면 그러면 큰아들이었고 이?}

10206 # 어. {어.}

10206 @ 그먼 이젠 큰 자그나드레 그 아들뜨리여? # 애. {그러면 이제 그 작은아들의 그 아달들이야? # 예.}

10206 @ 그때 내가 완쓸 때에, 찌조게 학교서 학교에서 살고 인썸짜나? {그때 내가 왔을 때에, 저쪽에 학교서 학교에서 살고 있었잖아?}

10206 # 야. {야.}

10206 @ 지난 버네는 그때 학교에서 살고 인썸뎀 그 아들, 학교서 살고 인썸 때 그 아들 마리여, 그 아드론 그먼 이 사람네 형이여? {지난번에는 그때 학교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들, 학교어 살고 있을 때 그 아들 말이야, 그 아들은 그러면 이 사람네 형이야?}

10206 @ 내가 엔나레 완쓸 때 찌 학교서 살고 인썸짜나? {내가 옛날에 왔을 때 저 학교서 살고 있었잖아?}

10206 # 학교, 학교서 사란는데 잉? {학교, 학교서 살았는데 잉?}

10206 @ 응. {응.}

10206 @ 그때는 누구랑 사란씨? {그때는 누구랑 살았어?}

10206 # 그때 영감, 그때 영가마고 가치 사란찌. {그때 영감, 그때 영감하고 같이 살았지.}

10206 # 우리 영감. {우리 영감.}

10206 @ 그래요? {그래요?}

10206 # 응. {응.}

10206 @ 언제 도라가셴까니, 뎡년 뎡년 돼서 도라가신지가? {언제 돌아가셨까니, 몇 년 몇 년 돼서 댜어 돌아가신 지가?}

10206 # 도라가신지:: 십구년차 나는가? {돌아가신지 19년 차 나는가?}

10206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6 # 응, 구년차 나능가비여. {응, 9년 차 나는가봐.}

10206 @ 아, 그래애? {아, 그래?}

10206 @ 그때 그먼 그 손자드리 와 인썸구만? {그때 그러면 그 손자들이 와 있었구먼?}

10206 # 손자드리 와 인썸찌. {손자들이 와 있었지.}

10206 @ 아::!! {아!}

10206 @ 그머는 그 아, 그 영감니문 뎡쌀때 도라가썸찌? {그러면은 그 아, 그 영감님은 몇 살 때 돌아가셨어?}

10206 # 우리 영감? {우리 영감?}

10206 @ 응, 뎡쌀까지 살고? {응, 몇 살까지 살고?}

10206 # 인자 공개로 @ 한 칠썸까지 사람꼐네? {이제 그러니까 @ 한 70까지 살았겠네?}

10206 # 뉘여, 여란살 차요. {뉘여, 열한 살 차요.}

10206 @ 응, 여란살 차여? {응, 영한 살 차야?}

10206 # 어, 나하고. {어, 나하고.}

10206 @ 그먼 한 팔썸 가까이 사람네? {그러면 한 80가까이 살았네?}

10206 # 그렇게로 팔썸 못 돼서 사망뎡찌. {그러니까 80 못 돼서 사망됐어.}

10206 @ 칠썸분 너먼꼬잉? {70은 넘었고 이?}

10206 # 칠썸분 너먼꼬. {칠십은 넘었고.}

10206 # 공개 그 모르꼐찌 뎡쌀레 사망뎡는지. @ 그러니까 그때로 보며는 여기 사람들로 보면 오래 사썸그만. {그러니까 그 모르꼐어 몇 살에 사망됐는지. @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 여기 사람들로 보면 오래 사썸구먼.}

10206 # 응, 오래 사람찌. {응, 오래 살았어.}

10206 @ 그때까지 일 일 잘하썸썸썸요? {그때까지 일 일 잘하썸썸썸요?}

10206 # 나, 잘 했찌 머. {야, 잘 했지 뉘.}

10206 # 그렇게로 그저 배 안꼐코 그양 머글만치 먹꼬 사람찌. {그러니까 그저 배 안 꼐고 그냥 먹을 만큼 먹고 살았지.}

10206 # 이를 자꾸 잘 형개. {일을 자꾸 잘 하니까.}

10206 # 하이고! {하이고!}

10201 @ 그:: 엔나레 여그서 형명난썸 때에 형명난썸 때는 그 막 그 대대, 대, 여그도 대대가 인썸찌? {그 옛날에 여기서 혁명 났을 때에 혁명 났을 때는 그 막 그 대대, 대, 여기도 대대가 있었어?}

10201 @ 집철크, 집철크로 바배머견썸? {집체로, 집체로 밥해먹었어?}

10201 # 아니. {아니.}

10201 @ 여그는 집체 업썸찌? {여기는 집체 없었어?}

10201 # 업썸찌 다 집체로 밥 아내머견썸. {없었어 다 집체로 밥 안 해 먹었어.}

10201 @ 어:. {어.}

10201 # 안 해 머견썸. {안 해 먹었어.}

10201 @ 여그는 꼴짜기라서 그랜나? {여기는 꼴짜기라서 그랜나?}

10201 # 아이. {아니.}

10201 # 어, 집체로 바불 해서 노나쥘따. {어, 집체로 밥을 해서 나누어주었다.}

10201 # 내가 자몬, 이러케 밥, 어더먹꼬 어드로 땡김서 그 생각 파딱 나네. {내가 잘 못, 이렇게 밥, 얻어먹고 얻으러 다니면서 그 생각 퍼뜩 나네.}

10201 @ 그먼 집체로 바발 때 어 어느 지베서 헐써? {그러면 집체로 밥할 때 어 어느 집에서 했어?}

10201 # 업써절찌 머, 지비. {없어졌지 뭐, 집이.}

10201 @ 큰 지비 일썌써? {큰 집이 있었어?}

10201 # 응. {응.}

10201 @ 그먼 그때애 집체로 바발 때는 누가 헐써, 바불? {그러면 그때애 집체로 밥할 때는 누가 했어, 밥을?}

10201 # 모르겄써 누가 헐는지. {모르겠어 누가 했는지.}

10201 @ 그때 할머니는 밥 안 헐써? {그때 할머니는 밥 안 했어?}

10201 # 아이, 나는 안 헐써. {아니, 나는 안 했어.}

10201 @ 그 페넨건네 밥, 밥 안 해먹꼬? {그 편했겠네 밥, 밥 안 해먹고?}

10201 # 응? {응?}

10201 @ 밥 안 해 머거서 편헐겄써? {밥 안 해 먹어서 편했겠어?}

10201 # 편헐찌 페, 페. {편했지 페, 페.}

10201 # 그렇게 이 이를 마니 헐찌 머. {그러니까 이 일을 많이 했지 뭐.}

10201 # 반니를 마니 하지 그러거 안 형개. {밭일을 많이 하지 그런 것 안 하니까.}

10201 @ 아:! {아!}

10201 # 그러 거 한 사라몬 그래도 괜차나 그노리서 해먹꼬 해썰개. {그런 것 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그늘에서 해먹고 했으니까.}

10201 # 그리나 바바기 에이고! {그러나 밥하기 에이고!}

10201 @ 그러케 마는 바바면... {그렇게 많은 밥하면...}

10201 # 이, 이라고 말지 밥... {이, 일하고 말지 밥...}

10201 @ 그러치 이? {그렇지 이?}

10201 # 응. {응.}

10201 # 바바기 더 심드러. {밥하기 더 힘들어.}

10201 @ 그먼 그때 바분 녁넹헐써? {그러면 그때 밥은 녁넹했어?}

10201 # 녁넹헐쎸. {냁냁했지.}

10201 # 괜차나. {괜찮아.}

10201 # 어더먹고 할만 항개. {얻어먹고 할만 하니까.}

10201 # 노나주드마, 크 바불 해서. {나누어 주더만, 큰 밥을 해서.}

10201 @ 그먼 그때 자기, 자기 꺼 무슨 재사니 일써? {그러면 그때 자기, 자기 것 무슨 재산이 있어?}

10201 # 재산? {재산?}

10201 @ 응. {응.}

10201 @ 자기 땅, 자기 집 이런 거 일써? {자기 땅, 자기 집 이런 것 있어?}

10201 # 자기 지분 일쥌. {자기 집은 있지.}

10201 @ 자기 땅은 업꼬? {자기 땅은 없고?}

10201 # 자기 땅 그저 쪼끔씩 일궁기 일쥌, 일궁기. {자기 땅 그저 조금씩 일궁 것이 있지, 일궁 것이.}

10201 @ 나머지 점부다 전체 집체 꺼꼬 잉? {나머지 전부다 전체 집체 것 이고 이?}

10201 # 애, 그렇건 집체꺼고. {예, 그런 것은 집체 것이고.}

10201 @ 근데 그때에 그러케 일 할 때에 일 자란 사람도 일꼬, 모던 사람도 일 쥌?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일 할 때에 일 잘한 사람도 있고, 못 한 사람도 있지?}

10201 # 응, 그럼 게우른 사라문 이를 잘 안 하고. {응, 그럼 게으른 사람은 일을 잘 안 하고.}

10201 @ 그러면 어트게 헐써 그런 사람드른, 똑가치 그래도 이케 나놔줘 시꿔니 랑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했어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그래도 이렇게 나누어 줘 식권이랑 이런 것?}

10201 # 똑가치 안 나놔줘, 쪼개 차이 일께 노나줘. {똑같이 안 나누어줘, 조금 차이 있게 나누어줘.}

10201 @ 그래요? {그래요?}

10201 # 응, 차이 일께. {응, 차이 있게.}

10201 @ 그면 인자 할머니는 그때 그면 쯔 쯔 비싸게 바달써?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그때 그러면 쯔 쯔 비싸게 받았어?}

10201 # 우분낭 그저 그러케 그냥 먹꼬 살만치, 아버지가 일 자령개로. {*** 그저 그렇게 그냥 먹고 살만큼, 아버지가 일 잘 하니까.}

10201 @ 음. {음.}

10201 # 아이고, 사라온 니 생각하면 머슬 머슬 어트게 헐평고 시꿔. {아이고, 살아온 일 생각하면 뭇을 뭇을 어떻게 했단고 싶어.}

1.4. 의생활

1.4.1. 삼베의 길쌈

10411 @ 제일, 제일 사라오면서 제일 해보고 시꿔편 이리 머여? {제일, 제일 살아오면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일이 뭐야?}

10411 @ 사라오면서? {살아오면서?}

10411 # 제일 해보고 시폰 이리 저 노머 베를 쫓 함번 짜받쓰면 조컨써.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이 저 놈의 베를 좀 한 번 짜봤으면 좋겠어.}

10411 @ 그랜써요? {그랬어요?}

10411 # 응. {응.}

10411 @ 왜? {왜?}

10411 # 몰러 그러케 그거 그거해서 형거치야 한다 마리어 영? @ 애. # 베나능기? {몰라 그렇게 그것 그것해서 형겅 한다 말이야 영? @ 예. # 베 나는 것?}

10411 @ 애애. {예예.}

10411 # 그거 쩌 하능기 그러케 붐뜨라고. {그것 저 하는 것 그렇게 부럽더라고.}

10411 @ 아::! {아!}

10404 # 그러이까나 아 그노무거쫓 어치케 해서, 짜바 해받쓰면 조컨따. {그러니까 아 그놈의 것 좀 어떻게 해서, 짜봐 해봤으면 좋겠다.}

10404 # 그랜는디 날과 가치 사물 싱귀가지고 @ 응응. # 삼씨 바다서 사물 싱귀가지고. {그랬는데 날과 같이 삼을 심거 가지고 @ 응응. # 삼씨 받아서 삼을 심거 가지고.}

10404 # 여그 사람드리 사물 심거쫓개 삼씨를 바단판 마리어 그러케, 사물 싱귀가꼬 고노멸 쩌서, 깎떼기를 빼킨다 마리어. {여기 사람들이 삼을 심었으니까 삼씨를 받았단 말이여 그렇게, 삼을 심거 가지고 그놈을 쩌서, 껍질을 벗킨다 말이여.}

10404 # 그래 빨 빼겨서, 돌물레라고 그 쿵:: 게 인찌머. @ 음::. {그래 빨 벗겨서, 돌물레라고 그 큰 게 있지 뭐. @ 음.}

10404 # 이러케 뽕뽕 도라가며 돌궁개. {이렇게 빙빙 돌아가며 돌리니까.}

10404 @ 음. {음.}

10404 # 그래 그 사물 삼는다능 거는 어트게 하능건, 이서가지구 이러케 여그다 해서 인는다 마리 @ 인는다능 거시 삼는다는 마리어잉? # 야. {그래 그 삼을 삼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은, 이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 해서 잇는다 말이 @ 잇는다는 것이 삼는다는 말이여 이? # 야.}

10404 # 이는다능 기 삼는다고 힐써. {잇는다는 것이 삼는다고 했어.}

10404 # 그래 그래간꼬 거그다 돌 돌물레 @ 잠깐만 잠깐만 그먼, 먼저 먼저 사멸 사멸 키워서 사멸 베서 이? {그래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돌 돌물레 @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먼저 먼저 삼을 삼을 키워서 삼을 베서 이?}

10404 # 응. {응.}

10404 # 비어서, @ 벼서 어떡케 쩌? {베서, @ 베서 어떻게 쩌?}

10404 @ 이런 소테다가? {이런 술에다가?}

10404 # 소테다가 안 찌지. {술에다가 안 찌지.}

10404 # 삼 부릴 해노코 부레다가 저기 머여 그렇길 아 사물 찌지아내, 사멸...
{삼 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저기 뒀여 그런 것을 아 삼을 찌지 않아, 삼을...}

10404 @ 찌야 베게지. {찌야 벗겨지.}

10404 # 이러케 조금 무레다 당과 @ 예. # 당구면 그노미 좀 잘못된다 마리여.
{이렇게 조금 물에다 담귀 @ 예. # 담그면 그놈이 좀 잘 못된다 말이여.}

10404 # 그럴 때 건져서 건져서 빼끼지 뒀. {그럴 때 건져서 건져서 벗기지 뒀.}

10404 @ 아앙. {아앙.}

10404 # 빼끼면 영 잘 뺏기져. {벗기면 영 잘 벌겨져.}

10404 @ 아::! {아!}

10404 # 껌떼기 헐렁헐렁 그러고는 거 삼때를 샌타야치 @ 응음. # 삼때가. {껌떼기 헐렁헐렁 그러고는 그 삼대를 새하얇지 @ 응음. # 삼대가.}

10404 @ 음음. {음음.}

10404 # 그래 그거 빼끼간꼬 그러케 쪽쪽 찌저서는... {그래 그것 벗겨가지고 그렇게 쪽쪽 찢어서는...}

10404 @ 그면 그 찢끼 저네 어떠케 찌저? {그러면 그 찢기 전에 어떻게 찢어?}

10404 @ 그냥 무조건 찌저? {그냥 무조건 찢어?}

10404 # 이놈 그르케 이러케 질지? @ 예. {이놈 그렇게 이렇게 길지?}

10404 # 이러케나 돼지? {이렇게나 되지?}

10404 @ 애. # 키가. {예. # 키가.}

10404 @ 애. {예.}

10404 # 그러면 인자 그노를 이러케 짹짹 찢는단 마리여. {그러면 이제 그놈을 이렇게 짹짹 찢는단 말이여.}

10404 @ 예. {예.}

10404 # 그래가지구 어디다 어떠케 하느가면 그, 이 나스로 처메 빈 자리를 @ 예. # 이 이런 토피 인썰, 이런 데 덤는 토비. {그래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느가 하면 그, 이 낮으로 처음에 벤 자리를 @ 예. # 이 이런 톱이 있어, 이런 데 덮는 톱이.}

10404 @ 음. {음.}

10404 # 그 노무로 이러케 대가리를 이러케 이러케 톱, 톱찌 머. {그 놈으로 이렇게 대가리를 이렇게 이렇게 톱, 톱지 뒀.}

10404 @ 음음. {음음.}

10404 # 톱푸머는 그 껌떼기가 다 빼껴지고 아내 새타연 실만 남는다 마리여. {툰으면 그 껌떼기가 다 벗겨지고 안에 새하얀 실만 남는다 말이여.}

10404 @ 아아. {아아.}

10404 # 그러면 인자 고놈 쫄쫄 찜가지고서 @ 고 노물 쪽 또 일리리 또 쪼개?
 {그러면 이제 그놈 쫄쫄 찜가지고서 @ 그 놈을 쪽 또 일일이 또 쪼개.}

10404 # 쪼이 찜야. {쪽 찜야.}

10404 @ 애. {예.}

10404 # 쪽쪽 찜가지고서는 그 노물 이서서, @ 예. # 이 다, 다리 대고 이서야
 혀, 그 노물 이러케. {쪽쪽 찜가지고서는 그 놈을 이어서, @ 예. # 이 다,
 다리 대고 이어야 해, 그 놈을 이렇게.}

10404 @ 그면 그걸 인자 막 이빨로 인자 이러케 인자 # 아이. @ 쪼개? {그러면
 그걸 이제 막 이빨로 이제 이렇게 이제 # 아니. @ 쪼개?}

10404 # 아이. {아니.}

10404 @ 그면? {그러면?}

10404 # 그러케 해간꼬는 그러케 이스머는 지다::나치 머.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령게 이으면 기다랗지 뭐.}

10404 @ 음음. {음음.}

10404 # 그러면 그걸 이러케 감는다 돌물레다 또 쪼끄만 돌물레다 감는다 마리어.
 {그러면 그것 이렇게 감는데 돌물레에다 또 조그만 돌물레에다 감는다 말이
 여.}

10404 @ 음음. {음음.}

10404 # 그래 가마 가지고는 그다메 큰:: 돌물레다가 감, 이러케 감찌. {그래 감아
 가지고는 그 다음에 큰 돌물레에다가 감, 이렇게 감지.}

10404 @ 음. {음.}

10404 # 그래서 그걸 인자 이런 가매다가 찜.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가매에다
 찜.}

10404 @ 음, 물 너코? {음, 물 넣고?}

10404 # 무를 붙꼬 @ 애. # 찜다 마리어, 그러면 그 노미 그냥 좀 익찌 머. {물을
 붓고 @ 예. # 찜단 말이여, 그러면 그 놈이 그냥 좀 익지 뭐.}

10404 # 그럼 인자 그 노물 이러케 돌물레다 저 다 자스 자수머는 거가 다 갱기
 제. {그럼 이제 그 놈을 이렇게 돌물레에다 다 자스 자으면 거기에가 다 감
 기지.}

10404 @ 음. {음.}

10404 # 그래가지고는 그놈 저기 머여 또 그런 이런 이런 지다::만 그런 그런디
 일써. {그래가지고는 그놈 저기 뭐야 또 그런 이런 이런 기다란 그런 그런
 데 있어.}

10404 # 거그다가 팔, 감, 감찌. {거기에다가 팔, 감, 감지.}

10404 @ 그면 왁자갑따 하면서 가마? {그러면 왔다갔다 하면서 감아?}

10404 # 어, 가마 이르케 다. {어, 감아 이렇게 다.}

10404 # 그래가지고는 거기 찜기 머여... {그래가지고는 거기 저기 뭐야...}

10404 # 시를 나라 또. {실을 날아 또.}

10404 @ 그걸 나 나른다고 그러지? {그걸 나 나른다고 그러지?}

10404 # 응. {응.}

10404 @ 진디다 완따갸따 허겔써잉? {긴 데에다 왔다갔다 하겠어 이?}

10404 # 나라. {날아.}

10404 @ 그면 거그다가 풀 메겨 안 메겨? {그러면 거기에다가 풀 먹여 안 먹여?}

10404 # 그렇게 그건 나라 나라가지고 @ 애. # 그 놈 인자 저기, 푸럴 쪼끔 인자 아조 쟈게 쏘 쭈 쭈지 말고 약간 쏘가지고는 그러면 그리야 그노미 빠 쪼끔 빠빠히다 마리어. {그러니까 그것은 날아 날아가지고 @ 예. # 그 놈 이제 저기, 풀을 조금 이제 아주 세게 솔 수 쭈지 말고 약간 쭈어가지고는 그러면 그래야 그 놈이 빠 조금 빠빠하다 말이어.}

10404 @ 어. {어.}

10404 # 그래가지고는 찌기 저 도투마리다가 감썰. {그래가지고는 저기 저 도투마리에다가 감지.}

10404 # 도투마리다가 감는다 마리어. {도투마리에다가 감는다 말이어.}

10404 @ 엄. {엄.}

10404 # 그래서 그거 그거를 베를 짜지 머. {그래서 그것 그것을 베를 자지 뭐.}

10404 @ 도투마리다 가물 때애 도투마리다 가물 때애, 요르케 요르케 가물 때, 실 안 영키라고 요로케 댄, 대나무를 요러케 대지? {도투마리에다 감을 때애 도투마리에다 감을 때애, 이렇게 이렇게 감을 때, 실 안 영키라고 이렇게 댄, 대나무를 이렇게 대지?}

10404 # 어. {어.}

10404 # 그 대나무를 머라고 머라고 그러? {그 대나무를 뭐라고 뭐라고 그래?}

10404 # 대나무. {대나무.}

10404 @ 그걸 # 대나 @ 그걸 잉 잉앗때라고 그래? {그걸 # 대나 @ 그걸 잉 잉앗대라고 그래?}

10404 # 잉어때. {잉앗대.}

10404 @ 어. {어.}

10404 # 잉어때. {잉앗대.}

10404 @ 잉어때잉? {잉앗대 이?}

10404 # 응. {응.}

10404 @ 응 잉어때다 그 창창 가마 인자 잉, 계속? {응 잉앗대에다 그 창창 감아 이제 이, 계속?}

10404 @ 응, 그러케 해가지고 # 해가지고, @ 실찌로 그면 베를 짜받써? {응, 그렇게 해가지고 # 해가지고, @ 실제로 그러면 베를 짜봤어?}

10404 # 응? {응?}

10404 @ 베를 짜받써? {베를 짜봤어?}

10404 # 어, 그래서 내가 베를 짜봤제. {어, 그래서 내가 베를 짜봤지.}

10404 @ 호호 허허허. {호호 허허허.}

10404 # 애, 나더는 북, 부기 또 인제 @ 어. # 이러케. {예, 나드는 북, 북이 또 있지 @ 어. # 이렇게.}

10404 @ 그러면 여기다가 이러케 # 배틀. @ 배트레다가 요로케 시를 이러케 일니리 쪽쪽쪽 이러케 하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 배틀. @ 배틀에다가 이렇게 실을 이렇게 일일이 쪽쪽쪽 이렇게 하지요?}

10404 # 야. {야.}

10404 @ 그거슬 나른다고 그래? {그것을 나른다고 그래?}

10404 # 야. {야.}

10404 # 나, 나 그거슨 나릉게 아니라 저그 @ 아 거그서 나라가지고 잉? {나, 나 그것은 나르는 게 아니라 저기 @ 아 거기서 날아가지고 이?}

10404 @ 요기 요긴따가 요로케 # 한테. @ 요고 요고 치는 거를 뭐라고 그러지?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 한 데. @ 이것 이것 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10404 # 바디, 바디. {바디, 바디.}

10404 @ 영, 바디에다 일니리 시를 하나씩 다 켈꺼 아니여? {영, 바디에다 일일이 실을 하나씩 다 켈 것 아니야?}

10404 # 야, 다 께여 께여서 그러케. {야, 다 께여 께여서 그렇게.}

10404 @ 께여서 여그다가 딱 인제 쫌매는 거여? {께여서 여기다가 딱 이제 잡아매는 거야?}

10404 # 야. {야.}

10404 @ 여그다 @ 팍. # 요로케 요로케 요로케 나무에다 매? {여기다 @ 팍. #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무에다 매?}

10404 # 나무에다가. {나무에다가.}

10404 @ 여가 나무가 일써? {여기가 나무가 있어?}

10404 # 야. {야.}

10404 @ 그먼 나무에다 일니리 시를 하나씩 다:: 이러케 인자 여그다 쫌매능 거여? {그러면 나무에다 일일이 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 잡아매는 거야?}

10404 # 아니. {아니.}

10404 @ 여기 # 거 배터리다가 이케 감는, 배틀 또 일써 요로케 크게 요로케 넘쪽:경기. {여기 # 그 배틀에다가 이렇게 감는, 배틀 또 있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넘죽한 것.}

10404 @ 어::. {어..}

10404 # 그 넘쪽흔디다가 @ 다 가마 시를? # 가마. {그 넓적한 데다가 @ 다 감아 실을? # 감아.}

10404 @ 아:. {아.}

10404 # 그래가지고 그러케 짜는디, 잘 모르겠네 어떠케 땀뻘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짜는데, 잘 모르겠네 어떻게 땀뻘가.}

10404 @ 공개 짜기는 째썬잉? {그러니까 짜기는 째어 이?}

10404 # 짜기는 째는디 머 어트게 땀는지. {짜기는 째는데 땀 어떻게 땀는지.}

10404 @ 그땀 이러케 한 번 허고, 또 발 이러케 하고, 이러케 너코 # 어. @ 바디 너코, 이러케 허고, # 어. @ 또 이러케 너코 또 # 또 이르케 너코. # 또 이케.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고 # 어. @ 바디 넣고, 이렇게 하고, # 어. @ 또 이렇게 넣고 또 # 또 이렇게 넣고. # 또 이렇게.}

10404 @ 이제 함번 하고 함번 하고, 함번 하고 함번 하고 그러능 거여? {이제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그러는 거야?}

10404 # 그림. {그림.}

10404 @ 한두 번 이러케 하고 이러케 허면 안돼야? {한두 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10404 # 발로 이러케 하능 거 일꼬, 이러케 하능, 자버댕기고, 또 이러케 하면 또 @ 공개 인자 # 열리고. {발로 이렇게 하는 것 있고, 이렇게 하는, 잡아당기고, 또 이렇게 하면 또 @ 그러니까 이제 # 열리고.}

10404 @ 열리고 다치고 인자 이러케 이러케 하지 이? {열리고 다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이?}

10404 @ 그거슬 발로, 바로 일너리 하고 하면서 하면 이러케 하면서 이러케 보내고, 이러케 하면서 이러케 보내능 거여? {그것을 발로, 발로 일일이 하고 하면서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10404 # 그러 그때. {그래 그때.}

10404 @ 마닐 잘모더면 어떠케 돼야? {만일 잘 못하면 어떻게 돼?}

10404 # 어? {어?}

10404 @ 잘모더면 여기가 인자 뭘 문제가 생기는가? {잘 못하면 여기가 이제 뭘 문제가 생기는가?}

10404 # 그렇게로... {그러니까...}

10404 # 그걸 잘 못 짜머는 @ 음. # 구녀기 생긴다고. {그것 잘 못 짜면 @ 음. # 구멍이 생긴다고.}

10404 @ 아아. {아아.}

10404 # 초입. {초입.}

10404 @ 아. {아.}

10404 # 그렇게 잘 해야제. {그러니까 잘 해야지.}

10404 @ 그 제 갑불 못 받겄네? {그 제 값을 못 받겄네?}

10404 # 이. {이.}

10404 @ 그 해받더니 어찌? {그 해봤더니 어찌?}

10404 # 그저 그러치 머 어떠기는. {그저 그렇지 뭐 어떻기는.}

10404 @ ㅎㅎㅎ 그때 배 한 피리며는 # 배 한피리며는 비쌀끼여. @ 제법 갑씨
나가지 아날씨? {ㅎㅎㅎ 그때 배 한 필이면 # 배 한 필이면 비쌀 거야. @
제법 값이 나가지 않았어?}

10404 # 엉? {엉?}

10404 @ 제법 비싸지 아날냐고? {제법 비싸지 않았냐고?}

10404 # 글썄 비쌌다고. {글썄 비쌌다고.}

10404 @ 어. {어.}

10404 # 근디 얼마씩 허는지는 몰라. {그런데 얼마씩 하는지는 몰라.}

10404 # 파라 먹찌 아날썅개. {팔아먹지 않았으니까.}

10404 @ 아::! {아!}

10404 # 쪼끔씩 해서 그저 식꾸들 오시나 허고 그랜제. @ 음::. {조금씩 해서 그
저 식구들 옷이나 하고 그랬지.}

10404 # 그렇게로 그때 식꾸가 어머니 아버지 일꼬 또 @ 씨어머니 씨아버지? {그
러니까 그때 식구가 어머니 아버지 있고 또 @ 시어머니 시아버지?}

10404 # 동생덜 둘, @ 어. # 내. {동생들 둘, @ 어. # 내.}

10404 # 그러케 친정 일쓸 때 그렇거또 쪼끔 해받제. {그렇게 친정 있을 때 그런
것도 조금 해받지.}

10404 @ 아::! # 시지받쓸 @ 친정 일쓸 때. # 시집 와서는 안헤 아네 몰라. {아!
시집왔을 @ 친정 있을 때. # 시집와서는 안 해 안 해 몰라.}

10404 # 안 헐써. {안 했어.}

10404 # 친정 일쓸 때 그러케. {친정 있을 때 그렇게.}

10404 # 친정부모들 그리 하이까나 보와 보고서리 그러케 헐써. {친정 부모들 그
리 하니까 보아 보고서 그렇게 했지.}

10404 @ 결구근 남쪼게서 온 사람들만 헐찌 알고 북쪽 사람드른 잘 몰란능감네
이? {결국은 남쪽에서 온 사람들만 할지 알고 북쪽 사람들은 잘 몰랐는가보
네 이?}

10404 # 몰라 어뜨케 하는지 모르오.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오.}

10404 @ 아::! {아!}

10404 # 어찌 되엿든지 남조선 사람드른 그거 안다 마리어. {어찌 되었던지 남조
선 사람들은 그것 안다 말이어.}

1.2. 일생 의례

1.2.1. 제보자의 성장

10201 # 하자고. {하자고.}

10201 @ 지금 아니 이자, 지금 지금 이제 하능 거여 지금. {지금 아니 이자, 지금
지금 이제 하는 것이야 지금.}

10201 # 지금 하는 거여? {지금 하는 거야?}

10201 @ 어, 이러케 하능 거여. 이런 이야기를 좀 이런 이야기를 마니 좀 듣고 갈
라고.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좀 이런 야기를 많이 좀 듣고
가려고.}

10201 아:!! {아!}

10201 @ 인자. {이제.}

10201 # 그런 애기 드를끼 일써. {그런 이야기 들을 것 있어.}

10201 @ 인제 왜냐면 왜냐면 인제 인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머니 도라가시고나
면 해줄 사라미 업써. {이제 왜냐면 왜냐면 이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해줄 사람이 없어.}

10201 # 이런 이야기를, 이러케 와서 어터케 살고 어터케 사란는가, 그런 거슬 누
구, 누구한테 물어보건써, 응?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와서 어떻게 살고 어
떻게 살았는가, 그런 것을 누구,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응?}

10201 # 인자 북 북쪼서네서 온 사람들바께 엄넌데. {이제 북 북조선에서 온 사
람들 밖에 없는데.}

10201 # 응. {응.}

10201 # 남선, 남쪼게서 온 사람드른 거으 다 도라가썰찌, 인자. {남선,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지, 이제.}

10201 # 야, 다 도라간쪼. {야, 다 돌아갔소.}

10201 @ 인 혼자 나만짜나, 지금. {이 혼자 남았잖아, 지금.}

10201 # 내 혼자 나만써. {내 혼자 남았어.}

10201 @ 그러니까 지금 보물단지라니까. 하하하하. {그러니까 지금 보물단지라니
까. 하하하하.}

10201 # 내가 하하하 야! 어찌 그래서 내가 사람쫘개 이러케 완찌. {내가 하하하
야! 어찌 그래서 내가 살았으니까 이렇게 왔지.}

10201 @ 난 인자 인제 걱쟁허고 완따니까. {나는 이제 이제 걱정하고 왔다니까.}

10201 # 음, 엄능가::? {음, 없는가?}

10201 @ 어. {어.}

10201 # 인능가? {있는가?}

10201 @ 흑씨라도 또 치매라도 걸려간꼬 또 또, 아무 기억또 모더고 그러면 어티

게 허나 하고 걱정허고 완는디, 이러케 건강하게 인쥬개 내가 얼마나 조은지 몰라 지금, 하하하. {혹시라도 또 치매라도 걸려 가지고 또 또, 아무 기억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왔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하하하.}

10201 # 아이그! {아이그!}

1.3. 생업 활동

1.3.2. 밭농사

10315 @ 바테, 혹시 밭 반농사할 때 반농사할 때, 반농사할 때, 콩밭또 매? {밭에, 혹시 밭 밭농사할 때 밭농사할 때, 밭농사할 때, 콩밭도 매?}

10315 # 콩밭또 지습 매냐고? {콩밭도 김 매냐고?}

10315 # 지습, 그저네는 콩밭또 매고 강냉이밭또 매고 그 전은 또 패기도 싱귀따 마리어. {김, 그전에는 콩밭도 매고 강냉이밭도 매고 그 전은 또 팔도 심켰다 말이어.}

10315 @ 음음음. {음음음.}

10315 # 패기밭또 매고 머이나 다:: 호맹이간꼬 덩김서 맨찌. {팔도 매고 뭐나 다 호미 갖고 다니면서 땀지.}

10315 @ 그먼 남자드른 바슬 안 매? {그러면 남자들은 말을 안 매?}

10315 # 남자드리 더 켜게 매지 남자들. @ 그러, 남자들도? {남자들이 더 켜게 매지 남자들. @ 그래, 남자들도?}

10315 # 남자드른 막 하이구 남자들 싸라댕길라면 영 바빠죽겄찌 머. {남자들은 막 하이구 남자들 따라다니려면 영 바빠 죽겠지 뭐.}

10315 # 남자들 @ 그래요? {남자들 @ 그래요?}

10315 # 어, 가치 가채 발매면, 고랑고랑 차지해가지고 한 고랑씩 찬지해간꼬 맨단 마리어. {어, 같이 같이 밭 매면, 고랑고랑 차지해가지고 한 고랑씩 자지해가지고 맨단 말이어.}

10315 @ 아::. {아.}

10315 # 그르문 남자드른 기우니 싱개 팔씨미 싱개로 빨리 매지머. {그러면 남자들은 기운이 세니까 팔 힘이 세니까 빨리 매지 뭐.}

10315 @ 어. {어.}

10315 # 그러면 우리는 뒤편러져서 뒤에서 매고. {그러면 우리는 뒤편러져서 뒤에서 매고.}

10315 @ 그먼 남자드른 멀로 매? {그러면 남자들은 멀로 매?}

10315 @ 팍찌로 매? # 호매이로 @ 호미로 똑가치? {괭이로 매? # 호미로 @ 호

미로 꼭같이?}

10315 # 하아, 똑, 가 그렇게로 우리는 호미짜루 좀 찰뜰게 해가지고 매고, 남자드
른 호매이를 지:러. 여그 오늘또 누가 어디 뭐하러 간따 오는지 호미 메고
오드만. {하아, 똑, 가 그러니까 우리는 호미자루 좀 찰뜰게 해가지고 매고,
남자들은 호미를 길어. 여기 오늘도 누가 어디 뭐하러 갔다 오는지 호미 메
고 오더만.}

10315 # 호미로 매, 맨넌지. {호미로 매, 땀는지.}

10315 @ 그먼 안저서 매, 서서 매? {그러면 앉아서 매, 서서 매?}

10315 # 서서 매야지. {서서 매야지.}

10315 @ 아::, 그먼 # 서서 매. {아, 그러면 # 서서 매.}

10315 @ 그먼 내나 꼭찌 그만, 꼭찌가치 생겼꼬만. {그러면 내나 팽이구먼, 팽이
같이 생겼구먼.}

10315 # 궁개 요로케 생겨가지고 갱 거시 호미여?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긴 것이 호미야?}

10315 # 호미가 요로케 생겼꼬던. {호미가 이렇게 생겼거든.}

10315 @ 애. {예.}

10315 # 요로케. {이렇게.}

10315 @ 그래간꼬 기리가 자리가 얼마내? {그래가지고 길이가 자루가 얼마해?}

10315 # 요놈 요쪽, 요로케 생겼찌. {이놈 이쪽, 이렇게 생겼지.}

10315 @ 그럴치. # 요로케 꼬부리노면 이러케 맨다고. {그렇지. #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 이렇게 맨다고.}

10315 @ 궁개 자리가 # 자리는 나무 짜리지. {그러니까 자루가 # 자루는 나무 자
루지.}

10315 @ 나무 # 나무 자리여. @ 짜리가 얼마큼 돼? {나무 # 나무 자루야. @ 자
루가 얼마큼 돼?}

10315 # 요만큼 된다 마리, 그리고 남자들 꺼는 지러. {이만큼 된다 말이, 그리고
남자들 것은 길어.}

10315 @ 남자들 서서 매능 거여, 이러케? # 야, 서서 매 막, 멍개 질고. {남자들
서서 매는 거야, 이렇게? # 야, 서서 매 막, 매니까 질고.}

10315 # 우리도 서서 매지마는, 매니까 그거는 징개로 이 뒤로 자꾸 나간다 마리
여 @ 음: # 궁개, 우리는 좀 찰뜰꼬, 찰뜰게 해가지고 매고. {우리도 서서
매지만은, 매니까 그것은 기르니까 이 뒤로 자꾸 나간다 말이여 @ 음. #
그러니까, 우리는 좀 찰고, 찰고 해가지고 매고.}

10315 # 그러케 매고 사람써, 그렇게. {그렇게 매고 살았어, 그러니까.}

10315 @ 우리는 우리느은:, 우리는 지심 땀 때 다 안자서 매거든... {우리는 우리
는 우리는 김 땀 때 다 앉아서 매거든...}

10315 # 안자서? {앉아서?}

10315 @ 애, 이러케 끌고, 남자드른 주로 바순 암 매고, 남자드른 놈 매고. {예, 이렇게 그리고, 남자들은 주로 발은 안 매고, 남자들은 논매고.}

10315 @ 여자드리 바슬 때. {여자들이 발을 때.}

10315 # 아: 그럼, @ 어, 항구건 # 항구근. {아 그럼, @ 어, 한국은 # 한국은.}

10315 @ 바시, 노니 훨씬 마느니까. # 아 바순 쪼, @ 쪼끄미고. # 쪼끄미지 거그넌. {발이, 노니 훨씬 많으니까. # 아 발은 조, @ 조금이고. # 조금이지 거기는.}

10315 @ 애. {예.}

10315 # 그러고 노니 만치. {그리고 노이 많지.}

10315 @ 애. {예.}

10315 # 논농사를 마니 하지. {논농사를 많이 하지.}

10315 @ 음. {음.}

10315 # 그렇게 또 노는 또 그 무리니까 완따간따하기도 바쁘지. {그러니까 또 노는 또 그 물이니까 왔다갔다 하기도 바쁘지.}

10315 # 그럼. {그럼.}

10315 @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케 매는데 여기는 남자들또 바슬 매능구만.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매는데 여기는 남자들도 발을 매는구먼.}

10315 # 야, 바슬 남자들또 지금 다 매야, 안 돼야. {야, 발을 남자들도 지금 다 매야, 안 돼.}

10315 # 남자들또 땡김서 발 매야. {남자들도 다니면서 발 매야.}

10315 @ 그먼 한 고랑을 마타서 쭉:: 가면 여기, 여기서 가면 그 사람드른 가면 쉬고 일겄네, 다 매고? {그러면 한 고랑을 말아서 쭉 가면 여기, 여기서 가면 그 사람들은 가면 쉬고 있겄네, 다 매고?}

10315 # 아니 이, 고랑 고랑 기양 도라지고 도라지고 그러지야. {아니 이, 고랑 고랑 그냥 돌아지고 돌아지고 그러지.}

10315 # 인자 쉼 시가니 되머는 다: 가치 쉬제. {이제 쉼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쉬지.}

10315 # 매다가도 그냥, 매다가도, 덜 매편지 한 고랑, 덜 맨편지 다 맨편지 기양 다 쉬어. {매다가도 그냥, 매다가도, 덜 땡던지 한 고랑, 덜 땡던지 다 땡던지 그냥 다 쉬어.}

10315 @ 음::. {음.}

10315 # 쉼 시가니 되머는. {쉼 시간이 되면.}

10315 @ 그먼 누가 빨리 해는지 알겄네, 잉? {그러면 누가 빨리 했는지 알겄네, 이?}

10315 # 누가 누가 게으름피우고 누가 잘 하능가 알겄쎄. {누가 누가 게으름 피우고 누가 잘 하는가 알겄어.}

10315 # 그럼, 허허허. {그럼, 허허허.}

10315 @ 그리고 대충대충 맨능가도 또 잘 맨능가도 알고 이? {그리고 대충대충 맨능가도 또 잘 맨능가도 알고 이?}

10315 # 야, 거칠거칠 맨능가 깨끄시 매능가 그걸또 다 알지 머. {야, 거칠거칠 맨능가 깨끗이 매능가 그것도 다 알지 뭐.}

10315 # 누가 어디 스고, 누가 어디 스능 걸 다 알제. @ 아니까. {누가 어디 서고, 누가 어디 서는 것 다 알지. @ 아니까.}

10315 @ 어어어, 한 고랑씩 쪽 허고 가니까 이? {어어어, 한 고랑씩 쪽 하고 가니까 이?}

10315 # 한 고랑 그러케 타고 땡깡개로. {한 고랑 그렇게 타고 다니니까.}

10315 @ 그머는 할머니는 중간쯤 따라감쎄요, 잘헌퍼네 속캐쎄? {그러면은 할머니는 중간쯤 따라갔어요, 잘 한 편에 속했어?}

10315 # 아, 나도 잘 맨다고 헐쎄. {아, 나도 잘 맨다고 했어.}

10315 @ 여자들 소개서는 이? {여자들 속에서는 이?}

10315 # 여자들 소개서는 잘 맨찌머. {여자들 속에서는 잘 땡지 뭐.}

10315 @ 남자들한테는 안 돼고 이? {남자들한테는 안 되고 이?}

10315 # 아, 남자들한테는 안 돼야. @ 어::. # 안 돼야. {아, 남자들한테는 안 돼. @ 어. # 안 돼.}

10315 @ 히미 팔려서 이? {힘이 달려서 이?}

10315 # 어. {어.}

10315 @ 받또 남자드리 땡꾸나아! {받또 남자들이 땡구나!}

10315 # 땡쎄 남자드리. {땡어 남자들이.}

10315 # 남자드리 안 매고 돼가디 @ 허허허. # 매야지. {남자들이 안 매고 되가니 @ 허허허. # 매야지.}

10315 @ 하하하 # 허허. {하하하 # 허허.}

10315 # 남자들 머 그거 노능 꿀 보겐쎄, 남들또 시캐 머거야지. {남자들 뭐 그것논은 꿀 보겠어, 남들도 시켜 먹어야지.}

10315 @ 그먼 그때 그때 그런 닐 할 때, 혹시 거기다 색꺼리로 술도 가꼬가고 막 그러케 한잔씩 머꼬 허고 그래, 일할 때? {그러면 그때 그때 그런 일 할 때, 혹시 거기다 새참으로 술도 가지고 가고 막 그렇게 한잔씩 먹고 하고 그래, 일할 때?}

10315 # 일할 때? {일할 때?}

10315 @ 애. {예.}

10315 # 이쓰면 새꺼리 이쓰면 가져가서 새빔또 먹꼬 @ 음. # 업쓰면 말고. {있으면 새참 있으면 가져가서 새참도 먹고 @ 음. # 없으면 말고.}

10315 # 저 여그서 어디가 바시 마능가면 저:: 건넌, 건내 찐 이짜나? @ 애. # 저 아페. {저 여기서 어디가 밭이 많은가 하면 저 건너, 건너 산 있잖아? @ 예. # 저 앞에.}

10315 @ 애. {예.}

10315 # 거기 바시 만치 머. {거기 밭이 많지 뭐.}

10315 @ 아:!! {아!}

10315 # 그저네, @ 그래서 지금 지, 지, 이 지비 차 타고 그리 완따간따 하면서 저 어디 멀리 간다고 그러더니 그리 가는가, 썸 압싼? {그전에, @ 그래서 지금 지, 지, 이 집이 차타고 그리 왔다갔다 하면서 저 어디 멀리 간다고 그러더니 그리 가는가, 저 앞산?}

10315 @ 요 압쩍 마리여, 우리가 지금 자고 인는 집? {이 앞집 말이야, 우리가 지금 자고 있는 집?}

10315 # 그 지비 그 머 반 바출 허로 가는데 @ 어. # 차타고 허로 간다고 @ 어. # 그러데. {그 집이 그 뭐 밭 밭을 하러 가는데 @ 어. # 차타고 하러 간다고 @ 어. # 그러데.}

10315 # 오려, 거기. {웁아, 거기.}

10315 # 거그로 도서 땡기고 또 저 우애도 일꼬. {거기로도 다니고 또 저 위에도 있고.}

10315 @ 그 그먼 거까지 거러가? {그 그러면 거기까지 걸어가?}

10315 # 거러가야지. {걸어가야지.}

10315 # 그저네는 거기 창 거러땡긴썸. {그전에는 거기 항상 걸어 다녔어.}

10315 # 썸 아더리 저 그렇게 정맥끼덜 이쓰면 막, 막 띠어서 와가지고는 저 저설 미기고 가고. {저 아들이 저 그러니까 정맥기들 있으면 막, 막 뛰어서 와가지고는 저 젓을 먹이고 가고.}

10315 @ 아! {아!}

10315 # 또 전 미기, 먹꼬가서 점미긴만한 집 아드리 일쓰면 억꼬땡김서 전 땡기 미 미기고. {또 젓 먹이, 먹고 가서 젓 먹일만한 집 아들이 있으면 업고 다니면서 젓 다니며 먹이고.}

10315 # 애이고 그 산... {애이고 그 산...}

10315 @ 여자드리 고생이 마나 잉? # 마나. {여자들이 고생이 많아 이? # 많아.}

10315 @ 남자보다 이? 그럼 응 고생이 만나. {남자보다 이? 그럼 응 고생이 많아.}

10315 @ 그 지비 오면 바베야돼고 이? {그 집에 오면 밥해야 되고 이?}

10315 # 또 지비 오면 그리도 남자드른 거그 간따 오면 머 할 일 일썤썤? {또 집에 오면 그래도 남자들은 거기 갔다 오면 뭐 할 일 있었어?}

10315 # 쉬엄 썸 썰꼬 안자 칭 해해해해 썸 썰꼬 안자찌마는 여자드른 오면 또 무스그 채소바좌... {야지 머 또 바불 해야지 머 무럴 기러야지... {수염 썸 썰고 앉아 칭 해해해해 썸 썰고 앉아있지만 여자들은 오면 또 무엇을 채소 밭...}}

10315 @ 무른 남자드리 안 기러줘? {물은 남자들이 안 길어줘?}

10315 # 앙 기러줘. {안 길어줘.}
 10315 # 여자드리 기 기러야지. {여자들이 기 길어야지.}
 10315 @ 아 공개 남자드리 문제그만. {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문제구먼.}
 10315 # 남자드리 문제여. {남자들이 문제야.}
 10315 @ ㅎㅎㅎㅎ # 큰문제라 마리여. @ 어. # 허허허. {ㅎㅎㅎㅎ # 큰 문제라
 말이야. @ 어. # 허허허.}

1.3 생업 활동^[CN_MJ_44]

1.3.3. 생활 도구

10323 @ 아니 어쩐다고? # 물쿤단 마리여. {아니 어쩐다고? 물쿤다 말이야.}
 10323 @ 더웁단 마리여. {덥단 말이야.}
 10323 # 어 더버 물쿤다고 @ 아 물 물키운다고? # 물키운담 마리여. {어 더워 물
 쿤다고 @ 아 물 물 키운다고? # 물 키운단 말이야.}
 10323 @ 아:! {아!}
 10323 # 물쿤단 마리? {물 키운단 말이?}
 10323 @ 아까 저 메고 다니는거 저게 머지? {아까 저 메고 다니는 것 저게 뭐
 지?}
 10323 # 베캉. {베캉.}
 10323 @ 베캉? {베캉?}
 10323 @ 베캉이 한 저 한중마리여? {베캉이 한 저 한죽말이야?}
 10323 # 한중말. {한죽말.}
 10323 @ 베캉, 캉? {베캉, 캉?}
 10323 # 베캉. {베캉.}
 10323 @ 소네 들고 일썬편 거슨 치고 이, 키고 이? # 어 치. {손에 들고 았었던
 것은 키고 이, 키고 이? # 어 키.}
 10323 @ 치? {치?}
 10323 # 그러고 이르케 쓰댕기는 캉자. {그리고 이렇게 쓰고 다니는 캉자.}
 10323 @ 캉자? {캉자?}
 10323 # 응. {응.}
 10323 @ 아 소네다 들고 인능게? # 야, 거 꼭 쪼기 일짜나? @ 어어어. # 그거는
 캉자. @ 캉자. {아 손에다 들고 있는 게? # 야, 그 꼭 쪼기 있잖아? @ 어
 어어. # 그것은 캉자. @ 캉자.}
 10323 @ 그다메 똥그랑거슨? {그다음에 똥그란 것은?}
 10323 @ 삼태기는 어똥거여? {삼태기는 어떤 것야?}

10323 # 삼태기는 요록 오로케 생강계 삼태기고. @ 삼태기는 업꼬 아까 거기에 #
 응 업써. {삼태기는 이렇 이렇게 생긴 것이 삼태기고. @ 삼태기는 없고 아
 까 거기에 # 응 없어.}

10323 # 그렇거슨 저건 거저 저게 머잉가 모르겠써, 영 모르겠써. {그런 것은 저
 건 그저 저게 뭐인가 모르겠어, 영 모르겠어.}

10323 @ 광주리라고 앙그레 광주리? {광주리라고 안 그래 광주리?}

10323 # 광주리는 이러케 크:게 트러 아께 광주리 여기 @ 큼겨. # 광주리 인썸짜
 나, 그제 광주리. {광주리는 이렇게 크게 틀어 아까 광주리 여기 @ 큰 것.
 # 광주리 있었잖아, 그제 광주리.}

10323 # 똥쏘, 똥써. {똥어, 똥어.}

1.5. 식생활

1.5.1. 호박나물 요리

10503 @ 자 그러면 인자 우리자, 음식 해머근 이애기좀 해봐. {자 그러면 이제 우
 리 자, 음식 해 먹는 이야기 좀 해봐.}

10503 @ 음식, 음식 자. {음식, 음식 자.}

10503 @ 호바근 어트게 해머거, 호박 채는? {호박은 어떻게 해 먹어, 호박 나물은?}

10503 # 호바근 딱톡:: 썬러가지고 거기다가 뭇 연능가면 새비를 연는다고. {호박
 은 톱톡 썰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뭇 넣는가 하면 새우를 넣는다고.}

10503 @ 음음. {음음..}

10503 # 새비 아러? @ 음. # 새비. @ 알지. # 어. {새우 알아? @ 음. # 새우.
 @ 알지. # 어.}

10503 # 그 새비에따 가치 이르케 달달 복, 지름 먼저 여코. {그 새우에다 같이
 이렇게 달달 복, 기름 먼저 넣고.}

10503 @ 음. {음.}

10503 # 지름 다른 여네 @ 음. # 다른 여네 @ 지르뭇 다른 여네 너야대? {기름
 달은 후에 @ 음. # 달은 후에 @ 기름을 달은 후에 너어야 돼?}

10503 # 다 그럼 이르케 막 지글지글지글 끄를 때, 그때가서 이러케 여코서는 막
 뒤적거리고, @ 음. 그다메 무ړ 벼꼬, @ 무를 부서야돼? # 물분꼬 @ 음.
 # 물도 쪼끔 부서야제. {다 그럼 이렇게 막 지글지글지글 끓을 때, 그때 가
 서 이렇게 넣고서는 막 뒤적거리고, @ 음. 그 다음에 물을 붓고, @ 물을
 부어야 돼? # 물 붓고 @ 음. # 물도 조금 부어야지.}

10503 # 그 호바게서 무리 쪼끔 나온담 마려, 그레 무를 분꼬, 거그다가 또 양니뭇
 헐라뭇 파이, 마늘 그러케 쏘라서. {그 호박에서 물이 조금 나온단 말이야,

그래 물을 붓고, 거기에다가 또 양념을 하려면 파, 마늘 그렇게 썰어서.}

10503 # 인자 거이 머 다 이거썰 때 그거여서 두적꺼리서 퍼내. {이제 거의 뭐 다 이것을 때 그것 넣어서 뒤적거려서 퍼내.}

10503 # 그래서 노코. {그래서 놓고.}

10503 @ 그거또 채처럼 써러 호바글? {그것도 채처럼 썰어 호박을?}

10503 # 호바근 채침 아니 그냥 이러케 납짱납작 썰제. {호박은 채처럼 아니 그냥 이렇게 납작납작 썰지.}

10503 # 납짱납작 쏘라도 되고, 채김치 하자나 @ 음음. # 채김치 허능거 처럼 이러케, 이러케 써와 쏘론, 그렇게 거그 그런데다 쏘라면, 우리는 이러케 칼로 안썰라. {납작납작 썰어도 되고, 채김치 하잖아 @ 음음. # 채김치 하는 것 처럼 이렇게, 이렇게 썰어 썰은, 그러니까 거기 그런데다 썰려면, 우리는 이렇게 칼로 안 썰어.}

10503 @ 음. {음.}

10503 # 채칼 인쑈. @ 음. # 이러케 하능기, 이러케 밀머는 딱 그 채김치 담능거 맵기로 그러케 나오는 채칼 인꺼등. {채칼 있소. @ 음. #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밀면 딱 그 채김치 담는 것 가티 그렇게 나오는 채칼 있거든.}

10503 @ 음. {음.}

10503 # 그래 그놈 가지고 거그다 미러서, 이르케 한담 마리여. {그래 그놈 가지고 거기다 밀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10503 @ 그며는 여기는, 여기서 그때 새비는 어디서 두루와?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그때 새우는 어디서 들어와?}

10503 # 새비 어이서 드러오는지, 북쪽서네서 두로는지 어디서 두로는지 그거는 모르젠디, 송강 가면 일땀 마리오. {새우 어디서 들어어는지, 북조선에서 들어오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송강 가면 있단 말이요.}

10503 @ 아:! {아!}

10503 # 그래 그저 누네 띠우먼 싸오지, 누네 안띠우먼 방버범꼬 누네 띠우먼. {그래 그저 눈에 띄면 사오지, 눈에 안 띄면 방법 없고 눈에 띄면.}

10503 # 나는 그 새비를 조아한담 마리여. {나는 그 새우를 좋아한단 말이야.}

10503 @ 응. {응.}

10503 # 그리고 조서네서 향구게서 살다냥개 그러케 짬반차늘 조아하제. {그리고 조선에서 한국에서 살다가 그렇게 짬반찬을 좋아하지.}

10503 @ 응응. {응응.}

10503 # 그렇걸 머그먼, 머거나서. {그런 것을 먹으면, 먹어 봐서.}

10503 @ 그 짬 반차니라고 하는 거슨 생서를 말해? {그 짬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을 말해?}

10503 # 짬반차는 짜:게 이러케 절귀농걸 짬반차이라 하능거여. {짬반찬은 짜게 이렇게 절귀놓은 것을 짬반찬이라 하는 거야.}

10503 # 야 소금쳐서 이케 절귀농걸 짬반찬이라 허제. {야 소금 쳐서 이렇게 절귀
놓은 것을 짬반찬이라 하지.}

10503 # 그건 또 거저 고기는 생서니라고 하제. {그건 또 거저 고기는 생선이라고
하지.}

10503 @ 아! 거저 고기에다가 # 거저 고기에다가 @ 소그무로 # 소그무로 절구
는, 절군 고기에다가 두가지라 마리여. {아! 그저 고기에다가 # 그저 고기에
다가 @ 소금으로 # 소금으로 절구는, 절군 고기에다가 두 가지라 말이야.}

1.2. 일생 의례

1.2.1. 한국의 바닷가 생활

10201 # 그래 내 조서네서 그 바다에서 사람따 마리오 내가. {그래 내 조선에서
그 바다에서 살았다 말ियो 내가.}

10201 @ 음. {음.}

10201 # 열 열두살때, 열두살때 열시살때 바다에서 사란는디, 그 바다에 가머는
벨:기 다 인찌앙꼰씨요, 항구게는? {열 열두 살 때, 열두 살 때 열세 살 때
바다에서 살았는데, 그 바다에 가면 별게 다 있지 않겠어요, 한국에는?}

10201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01 # 우렁도 일제, 이런 쪼그만씩 현 고기도 일제, 다사래도 일제... {우렁도 있
지, 이런 쪼그만씩 한 고기도 있지, 다슬기도 있지...}

10201 # 다사래는 어디가 부텅, 부능가면 이런 큰 도레. {다슬기는 어디가 붙어,
붙는가 하면 이런 클 돌에.}

10201 @ 영. {영.}

10201 # 큰 도레가 이러케 분는다 마리오. @ 음엄. {큰 돌에가 이렇게 붙는다 말
ियो. @ 음엄.}

10201 # 그럼 그노멸 쪽쪽쪽쪽 찌저, 띠어가지고서 가지고 와서 쌀마서 쪽쪽 빼먹
찌 머. {그럼 그놈을 쪽쪽쪽쪽 찢어, 떼어가지고 가서 와서 삶아서 쪽쪽 빼
먹지 뭐.}

10201 @ 국 그 무른 머허고? {국 그 물은 뭐하고?}

10201 # 응? 그 무른 더제. {응? 그 물은 던져.}

10201 # 더저 더러봉개 더러버서 더지고, 그 아네검만 이궁개, 이궁개 쪽쪽 빠진
담 마리여 이러케. {던져 더러우니까 더러워서 던지고, 그 안에 것만 익으
니까, 익으니까 쪽쪽 빠진단 말이여 이렇게.}

10201 # 그럼 저기 머여 꼬쟁이로 이케 빼서 먹찌머. {그럼 저기 뭐야 꼬챙이로
이렇게 빼서 먹지 뭐.}

10201 # 그거 그 쪼끄마니서 하든 생가기 이르케 나이까나 이얘기 하지. {그것 그 조그만해서 하던 생각이 이렇게 나니까 이야기 하지.}

10201 @ 응. {응.}

10201 # 그래 해바나서. {그래 해봐나서.}

10201 @ 음. {음.}

10201 # 그래가지고 그거 잘못담 크일나. {그래가지고 그것 잘 못 하면 큰일 나.}

10201 @ 왜? {왜?}

10201 # 조새 친담마리여 조새쳐. {조수 친단 말이야 조수 처.}

10201 # 조새치능기 머잉가면... {조수 치는 게 무엇인가 하면...}

10201 # 조, 이르케 무리 쭈러들고, @ 음. # 어쩔 때 콧:: @ 늘구고 음음음 # 온담 마리오. {조, 이렇게 물이 줄어들고, @ 음. # 어쩔 때 콧 @ 늘리고 음음음 # 온단 말이요.}

10201 @ 음. {음.}

10201 # 그럴때 그렇거 알고 드러가야제 모르고 드러가면 그 아이되오. {그럴 때 그런 것 알고 들어가야지 모르고 들어가면 그 아니 되오.}

10201 @ 음. {음.}

10201 # 잘모더면 무레 빠지건네? {잘 못하면 물에 빠지겠네?}

10201 # 그: 빠지면 그만 그만 죽찌머 깎 무리 지풍개, @ 음. # 몬나옹개. {그 빠지면 그만 그만 죽지 뭐 깊 물이 깊으니까, @ 음. # 못 나오니까.}

10201 # 그러케 생계땀 바리여. {그렇게 생겼단 말이여.}

10201 @ 그먼 조개가통거또 마이 켜써, # 응? @ 조개가통거또 캐? {그러면 조개 같은 것도 많이 켜어, # 응? @ 조개 같은 것도 캐?}

10201 # 그렇개 조개는 그 바다에 일써 조개를 따로 또, 짹짹 버러지지 왜 이비. @ 음음음. {그러니까 조개는 그 바다에 있어 조개를 따로 또, 짹짹 벌러지지 왜 입이.}

10201 # 그렇거또 마이 죽꼬. {그런 것도 많이 줍고.}

10201 @ 그때는 그렇겉 마난건네? {그때는 그런 것 많았겠네?}

10201 # 마넛썰썰. {많았었어.}

10201 @ 지그문 하도 마니 자부니까 벨로 업썰. {지금은 하도 많이 잡으니까 별로 없어.}

10201 # 어, 그때는 그르케 잡는 사라미 그케 만치 안코, 그러니깐 그게, 바다는 늘롭 늘롭썰, 지그머는 업썰게여. {어, 그때는 그렇게 잡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고, 그러니깐 그게, 바다는 늘롭 넓지, 지금은 없을 거야.}

10201 @ 하도 마니 자부니까 사람드리 # 차꾸 자바내서. {하도 많이 잡으니까 사람들이 # 자꾸 잡아내서.}

10201 @ 사라문 망코... {사람은 많고...}

10201 # 응. {응.}

10201 @ 엔나렌 차도 업썩 # 인구는 만체 헤헤 그렇거는 짝찌 항개. {옛날에는 차도 없으 # 인구는 많지 헤헤 그런 것은 적지 하니까.}

10201 @ 엔나레는 또 육찌 싸람드리 거기 가기가 힘드런는디 요즘 차가 조으니까 누구나 가니까. {옛날에는 또 육지 사람들이 거기 가기가 힘들었는데 요즘 차가 좋으니까 누구나 가니까.}

10201 # 으, 그래 지그먼 차가 마낭개, 차타고 땡겨서 그거 한담 마리오. {으, 그래 지금은 차가 많으니까, 차타고 다녀서 그것 한단 말이요.}

10201 @ 그먼 꼬때, 여기는 새비저슨 업견네, 그러면? {그러면 그때, 여기는 새우젓은 없겠네, 그러면?}

10201 # 새비절? {새우젓?}

10201 @ 으. {으.}

10201 # 업썩. {없어.}

10201 # 그 항구게는 새비절 일제? @ 그러체. # 그거, 바다에 새비절 일썩. {그 한국에는 새우젓 있지? @ 그렇지. # 그거, 바다에 새우젓 있어.}

10201 # 근디 여그년 장마당으 가서 싸와야. {그런데 여기는 장에 가서 사와야.}

10201 # 근디 그노무 거시 어디서, 북쪼서네서 @ 북쪼서너고 # 두로능거 꺼테, 아매 내 생가게는. {그런데 그놈의 것이 어디서, 북조선에서 @ 북조선하고 # 들어오는 것 같아, 아마 내 생각에는.}

10201 @ 그러거찌 # 그러능개비여. {그러겠지 # 그러는 가봐.}

10201 # 그 새비를 줌, 난 새비 영 조아하지머. {그 새우를 줌, 난 새우 영 좋아하지 뭐.}

10201 # 새비를 여먼 마신탄 마리오 @ 그러치 호바게다 새비가 어울리지. # 호바게가 호바게다 새비 여먼 열매나 마신퓌. {새우를 넣으면 맛있단 말이여 @ 그렇지 호박에다 새우가 어울리지. # 호박에가 호박에다 새우 넣으면 열매나 맛있소.}

10201 @ 그러치. {그렇지.}

1.5. 식생활

1.5.1. 오이나물 요리

10503 @ 자 호방 요리는 그러케 헤먹꼬, 자 그머는 오이는 어트게 헤머거 오이? {자 호박 요리는 그렇게 헤먹고, 자 그러면 오이는 어떻게 헤먹어 오이?}

10503 # 오이년, 이케 푹푹푹 쏘라가지고, 요만썩 허니 쏘라가지고, 버물러 먹찌. 양념 여코 버물러 먹꼬. {오이는, 이렇게 푹푹푹 썰어가지고, 이만썩 하게 썰어가지고, 버물러 먹지. 양념 넣고 버물러 먹고.}

10503 # 또 냉국 해머글라먼 @ 응. # 냉국 아라? 냉국 해머글라먼 채칼로 축축
추머는 딱 요로케 요로케 칼로 채가치 인능검맹이로 그러케 쏘라진담 마
리요. {또 냉국 해먹으려면 @ 응. # 냉국 알아? 냉국 해먹으려면 채칼로
축축 추면 딱 이렇게 이렇게 칼로 채같이 있는 것같이 그렇게 썰어진단
말이요.}

10503 @ 그러체. {그렇지.}

10503 # 그러면 그놈 인자 냉국 푸러머거. {그러면 그놈 이제 냉국 풀어먹어.}

10503 # 냉국해서 푸러머거, 추엄 쪼끔, 초도 쪼끔 여코, 우슈도 쪼끔 여코. {냉국
해서 풀어먹어, 추엄 조금, 초도 조금 넣고, 맛내기도 조금 넣고.}

10503 # 우슈라가면 모를 꺼야. {우슈라고 하면 물을 거야.}

10503 @ 만내기? {맛내기?}

10503 # 만내기. {맛내기.}

10503 # 그거또 쪼끔 여코 그래서, 꼬치까리 쪼끔 여코, 그래서 거그다 밤마라 무
그면 거저 시워나이 조치. {그것도 조금 넣고 그래서, 고추가루 조금 넣고,
그래서 거기에다 밥 말아 먹으면 그저 시원하니 좋지.}

10503 @ 거따가 그면 간장도 너, 장도? {거기에다 그러면 간장도 너, 장도?}

10503 # 간장도 여코, 간장 마이 여면 시커멓치. {간장도 넣고, 간장 많이 넣으면
시커멓지.}

10503 @ 그며는 가늘 멀로 마쳐? {그러면은 간을 뭇로 맞춰?}

10503 # 소곰. {소금.}

10503 # 소곰 이썩개 소곰 여코 머거보면 쪼끔 싱거면, 간장 쪼끔 떨구머는 색까
리 조치머. {소금 있으니까 소금 넣고 먹어보면 조금 싱거우면, 간장 조금
떨구면 색깔이 좋지 뒬.}

1.5.1. 결절이

10503 @ 그다메 또 주로 해명은 반차니 머여? {그 다음에 또 주로 해먹는 반찬이
뽕야?}

10503 # 그다메 해명능기 상추도 저리고, 배차도 김치 담꼬, 쌀마서 무치도 먹꼬...
{그 다음에 해먹는 것이 상추도 절이고, 배추도 김치 담고, 삶아서 무쳐도
먹고...}

10503 @ 뽕? {뽕?}

10503 # 배차르. {배추로.}

10503 # 삶아서, 가매다 삶아서 무체 명는담 마리오, 이케 양념 다:: 여가지고. {삶
아서, 가마에다 삶아서 무쳐 먹는단 말이요, 이렇게 양념 다 넣어가지고.}

10503 @ 요즈메, 요즘 배차를? # 야! {요즘에, 요즘 배추를? # 야!}

10503 # 시방 배종네집 배차 가뜩하자나, @ 응응응. # 그거 뽀바가지고는 이케 무체도 먹꼬. {시방 백종네 집 배추 가뜩하잖아, @ 응응응. # 그것 뽀바가지고는 이렇게 무체도 먹고.}

10503 # 파이도, 파이고 심 마이 싱귀가꼬, 파이 알지? {파도, 파도 심 많이 심어가지고, 파 알지?}

10503 @ 네. {네.}

10503 # 마이 싱귀가지고 그놈 뽀바서, 동사메 머글라면 따드마가지고는 절군다 마리오, 소구메다. 그냥 아무거또 안여코. {많이 심어가지고 그놈 뽀바서, 겨울에 먹으려면 다듬어가지고 절군다 말ियो, 소금에다, 그냥 아무것도 안넣고.}

10503 # 그래 노머는 그놈 동사메 꺼내다가 채에다 여서 보까먹꼬, {그래 놓으면 그놈 겨울에 꺼내다가 채에다 넣어서 볶아먹고.}

10503 # 쩌 그놈만 보끌라면 또 그놈만 꺼내다 보까먹꼬. {저 그놈만 볶으려면 또 그놈만 꺼내다 볶아먹고.}

10503 # 이러케 허고 먹 먹꼬... {이렇게 하고 먹 먹고...}

10503 @ 그머는 짜니까 좀 그먼 울거내 무레다가? {그러면은 짜니까 좀 그러면 우려내 물에다가?}

10503 # 그미 탄, 안 울구고 마침마케 절구지 머, 지내 짜게 절구지 말고, 동사밍개. {그러면 탄, 안 우리고 마침 맞게 절구지 뭐, 아주 짜게 절구지 말고, 겨울이니까.}

10503 @ 그러치. {그렇지.}

10503 # 시구릅찌 안치 머. {시지 않지 뭐.}

10503 # 그래가지고는 거그다가 인제 먼 고기 거통거또 여코, 대지고기도 여코, 그래가지고는 보까먹찌머. {그래가지고는 거기에다가가 이제 뿔 고기 같은 것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그래가지고는 볶아먹지 뭐.}

10503 @ 어제 여기 할머니가 헐평거, 그 머슴둘레는 어트게 해머거 그러케 해가지고? {어제 여기 할머니가 했던 것, 그 민들레는 어떻게 해먹어 그렇게 해가지고?}

10503 # 그러케 해가꼬 말려서어, 말려가지고 쌀마서 @ 응 # 대:지고기에 여서 가치 복 뽀까. {그렇게 해가지고 말려서, 말려가지고 삶아서 @ 응 # 돼지고기에 넣어서 같이 볶 볶아.}

10503 @ 그먼 그건 국까통진 안 끄려먹꼬? # 아니. 구건 아내야. {그러면 그것은 국같은 것 안 끓여 먹고? # 아니, 국은 안 해.}

10503 @ 그렇건 머그먼 왜 마시 이상해? {그런 것은 먹으면 왜 맛이 이상해?}

10503 # 안::좋아 구건 아녀 기양 보까먹, 보کم채 해. {안 좋아 국은 안해 그냥 볶아먹, 볶음채 해.}

10503 @ 아:: 보کم채 할 때 머거? {아 볶음채 할 때 먹어?}

10503 @ 그냥 그냥 말려 말려봐 이? {그냥 그냥 말려 말려봐 이?}

10503 # 으. {으.}

10503 # 말려나따가 @ 그 말려나따가 그거슬 그 채 할 때는 불려야돼 무레다가?
{말려났다가 @ 그 말려났다가 그것을 그 채 할 때는 불려야돼 물에다가?}

10503 # 불귀서 조금 실쩍 찜찌머. {불려서 조금 슬쩍 삶지 뭐.}

10503 # 쌀마 기양. {삶아 그냥.}

10503 @ 지금 그 살짝 쌀마서 너 너런짜나? # 응 쌀마, 쌀마 너런쓰면 그냥 하지
불귀따가 그냥 그냥 볶꼬. {지금 그 살짝 삶아서 너 널었잖아? # 을 삶아,
쌀마 널었으면 그냥 하지 불렸다가 그냥 그냥 볶고.}

10503 # 그렇게로 조름 조림하지머. {그러니까 조림 조림하지 뭐.}

10503 @ 아 조림. {아 조림.}

10503 # 응. {응.}

10503 # 대지 저림 만, 쇠 소고기 일쓰면 소제림 하고, 그러케 조림해. {돼지 줄임
만, 쇠 소고기 있으면 소 줄임 하고, 그렇게 조림 해.}

10503 @ 그먼 계란허고도 해도 되건네 달걀하고, 달걀 조리멸 때 너도? # 아이
안조아. {그러면 계란하고도 해도 돼겠네 달걀하고, 달걀 조림 할 때 넣어
도? # 아니 안 좋아.}

10503 @ 그레, 소고기나 돼지고지 할 때? # 애, 그게는 조채. {그레, 소고기나 돼
지고지 할 때? # 예, 그것은 좋지.}

10503 # 달가른 그저 염지에다나 파에다나 @ 음. # 쏘라서, 깨가지고 한테 범 버
물러가꼬, 그걸 지르무다가 이러케 채하지머. {달걀은 그저 염지에다나 파
에다나 @ 음. # 썰어서, 깨가지고 함께 범 버무려가지고, 그것을 기름에다
가 이렇게 채하지 뭐.}

10503 # 지르무다가 짜한담 마리여, 그래먼 이그머는 그기 벨마시여 갠차나. {기
름에다가 볶는다 말이며, 그러면 익으면 그것이 별 맛이야 괜찮아.}

10503 # 중구게서는 그러케 그러거를 그러케 저러케 그저 그러케 해 먹꼬 살지.
{중국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을 그렇게 저렇게 그저 그렇게 해 먹고 살지.}

1.5.3. 중국의 음식 문화

10523 @ 여기가 음 여기 음식기 조선 음식게 비해서 어떻게 가테? {여기가 음 여
기 음식이 조선 음식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

10523 # 여기 음식기? {여기 음식이?}

10523 @ 응. {응.}

10523 # 한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보다?}

10523 @ 응. {응.}

10523 # 마시쭈 트기여. {맛이 쭈 특이해.}

10523 @ 그레? {그레?}

10523 # 마시쭈 트기해. {맛이 쭈 특이해.}

10523 # 내 쪼그마니서 머거바 머거바나서 항국 음시기 더 마싹찌 머. {내 쪼그만 해서 먹어 봐 먹어 봐놔서 한국 음식이 더 맛있지 뭐.}

10523 @ 여기 한족뜨른 어때? {여기 한족들은 어때?}

10523 # 한:족뜨른 뉘나 개나 머 아::무꺼나 해서 명는다고. {한족들은 뉘지나 개나 뭐 아무것이나 해서 먹는다고.}

10523 @ 어. {어.}

10523 # 근디 이 사람드른 나무를 암머거 @ 그레? # 나무를 암머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물을 안 먹어 @ 그레? # 나물을 안 먹어.}

10523 # 주로 그저 무신 꺾기 가통거 이렇거 잘먹찌, @ 어. # 나무른 그러케 암머거. {주로 그저 무슨 고기 같은 것 이런 것 잘 먹지, @ 어. # 나물은 그렇게 안 먹어.}

10523 @ 그먼 여기 한조근 밥 밥패서 머거요? {그러면 여기 한족은 밥 밥해서 먹어요?}

10523 # 바배서 머거, 바벌 해서. {밥해서 먹어, 밥을 해서.}

10523 @ 그 월래 한족뜨른 밥뽀다는 그머 빵가통거 먹찌 안나? {그 원래 한족들은 밥보다는 그것 빵같은 것 먹지 않나?}

10523 # 빵, @ 응. # 밀까리 인짜나, 밀가루 빵얼 자래먹제. {빵, @ 응. # 밀가루 있잖아, 밀가루 빵을 잘 해먹지.}

10523 # 이 사람덜또 시방 지금 저 그러케 빵을 잘혀. {이 사람들도 시방 지금 저 그렇게 빵을 잘 해.}

10523 # 근디 우리는 빵얼 혈찌 몰른담 마리어. {그런데 우리는 빵을 할 줄 모른단 말이어.}

10523 @ 지베서 빵을 해? {집에서 빵을 해?}

10523 # 지비서, 지베서 이러케 무를 버무레 날따 이런데다 쉬킨담 마리어.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물을 버무려 놔다가 이런 데다 쉬게한단 말이어.}

10523 # 그러고 또 쉬 그 쉬 @ 쉬킨다고? # 쉬켜. {그리고 또 쉬 그 쉬 @ 쉬킨다고? # 쉬게 해.}

10523 @ 어::. {어.}

10523 # 슈 쉬둔담 마리어 응? @ 예 응. {슈 쉬게 둔단 말이어 응? @ 예 응.}

10523 # 그레가꼬 거그다가 그 쉬운 그런 쉬운 저기 머여, 업써지는 그런 또 그리 일땀 마리오, 새타::난 쯔쌀가통기. {그레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쉰 그런 쉰 저기 뭐야, 없어지는 그런 또 그것이 있단 말ियो.}

10523 # 그거 이케 가치 여그되면 이러케 뿌러나지. {그것 이렇게 같이 넣게 되면 이렇게 붙어나지.}

10523 @ 음. {음.}

10523 # 그럼 그거 여케되던 이러케 뿌러난담 마리어 @ 예예예. # 다 쉬여가지고는 @ 예예예. # 그럼 그다음 치대서 이케 빵얼 찌제 머. {그럼 그것 넓게 되던 이렇게 불어난단 말이여 @ 예예예. # 다 쉬여가지고는 @ 예예예. # 그러면 그 다음에 치대서 이렇게 빵을 찌지 뭐.}

10523 # 만두를 찢담 마리어. {만두를 찢단 말이여.}

10523 # 그래서 먹꼬. {그래서 먹고.}

10523 @ 그먼 만두 머글 때는 이 사람드른 그 반차는 멀로 머거, 주로? {그러면 만두 먹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 반찬은 뭘로 먹어, 주로?}

10523 # 그렇게 주로 만찬 머, 자기 먹꼬 시푼 건때로 그냥 해서 그러케 먹제, 구기랑 그렇건 끄레 머글찌 몰라. {그러니까 주로 반찬 머, 자기 먹고 싶은 것 대로 그냥 해서 그렇게 먹지, 국이랑 그런 것 끓여 먹을 줄 몰라.}

10523 @ 그먼 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음식글 머그먼 # 조선 음식 머그먼 @ 마신파구려? # 마신파구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음식을 먹으면 # 조선 음식 먹으면 @ 맛있다고 그래? # 맛있다고 그래.}

10523 @ 어:: 그레요! {어 그래요!}

10523 # 마신파굼서 환장하고 멍는디 머. {맛있다고 하면서 환장하고 먹는데 뭐.}

10523 @ 김치도 먹꼬? {김치도 먹고?}

10523 # 짐치도 먹꼬. {김치도 먹고.}

10523 # 짐치렐 어트게 담는간 헐디 머. {김치를 어떻게 담는가 하는데 뭐.}

10523 # 그 사람들 짐치 다마머글찌를 모른다 마리어. {그 사람들 김치 담아먹을 줄을 모른다 말이여.}

10523 # 짐치를 멀로 담능가고 그러케 무러보는디 머. {김치를 뭘로 담는가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뭐.}

10523 # 아 짐치를 배차로 담찌 멀로 다마, 하하하. {아 김치를 배추로 담지 뭘로 담아, 하하하.}

10523 @ 가드른 머 배 배차 농사가통건 안 안 아네? # 배차 농사 해 하제. {개들은 뭘 배 배추 농사같은 것은 안 안 안해? # 배추 농사 해 하지.}

10523 # 하는디는 그저 그건 이르게 쏘라서 채나 @ 아! # 지르미다 차꼬 보까서 묵제 머. {하는데 그거 그것 이렇게 썰어서 채나 @ 아! # 기름에다 자꾸 볶아서 먹지 뭐.}

1.5.1. 감자 요리

10503 @ 자 인자 그러코, 그다메 감자는 어트게 머거 감자?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감자는 어떻게 먹어 감자?}

10503 # 감자는 까까서 으, 여기 씨라지 쌀마서 거그다가 쏘라서 가치 국또 끄려
 먹꼬 으, 그다메 맨 감자만 감자만 해가꼬 풀꼬치 이렇거 인짜나 @ 애 #
 꼬치 푸릉거? @ 응. # 그렇걸 쏘라서 가치 따가서 그러케서 먹지 머 감자
 는. {감자는 깎아서 으, 여기 시래기 삶아서 거기에다가 썰어서 같이 국도
 끓여먹고 으, 그 다음에 맨 감자만 감자만 해가지고 풋고추 이런 것 있잖아
 @ 예 # 고추 푸른 것? @ 응. # 그런 것 썰어서 같이 뒤어서 그렇게 해서
 먹지 뭐 감자는.}

10503 @ 그냥 감자만 찌서도 먹꼬? {그냥 감자만 찌서도 먹고?}

10503 # 감자 기양 기양 잘게 무릉거는 기양 찌머는 막 툭툭 처진다고 부:여케,
 그냥 까:서 먹찌머, @ 음. # 기양. {감자 그냥 그냥 잘게 물은 것은 기능
 찌면 막 툭툭 처진다고 부영게, 그냥 까서 먹지 뭐, @ 음. # 그냥.}

10503 # 밥 업써도 일업쑈 그, 그거만 쌀무면... {밥 없어도 괜찮소 그, 그것만 삶
 으면...}

10503 @ 그럴때 감자를 무레다가 당귀서 쌀마, 지무로 찌? {그럴 때 감자를 물에
 다가 담가서 삶아, 김으로 찌?}

10503 # 그양 다리다 노코 찌야제. {그냥 다리에다 놓고 찌야지.}

10503 @ 그머는 싱겁찌 아너? {그러면 싱겁지 않아?}

10503 # 저기 머이 무리다 여면 마시업써, 무리다 여면 그 툭툭 터지능건 무르쟁
 가 내가 왜 그릉개 다리다 노코 무뤼에다 노코 찌야제. {저기 뭇이 물에다
 넣으면 맛이 없어, 물에다 넣으면 그 툭툭 터지는 것은 무르게 되지 않은가
 내가 왜 그러니까 다리에다 놓고 물 위에다 놓고 찌야지.}

10503 @ 음. {음.}

10503 @ 그면 좀 싱겁겐네? {그러면 좀 싱겁겠네?}

10503 # 싱거버 그래도 채하고 머그면 아무 일 업써. {싱거워 그래도 채하고 먹으
 면 아무 일 없어.}

10503 @ 음. {음.}

10503 # 그저 척척 갈라지지 머 그게, 툭툭 처지멘서. {그저 척척 갈라지지 뭐 그
 것이, 툭툭 처지멘서.}

10503 # 잘 여몽거는 툭툭 터지고, 안 여몽거는 또 무리 찌::하니 그러케 생겐꼬
 그려. {잘 여문 것은 툭툭 터지고, 안 여문 것은 또 물이 찌하니 그렇게 생
 겼고 그래.}

10503 @ 음. {음.}

10503 @ 우리는 주로 그걸 가따가 쌀마먹꺼든. {우리는 주로 그것을 갖다가 삶아
 먹거든.}

10503 # 감자르? {감자를?}

10503 @ 감자를 그 속, 그 무레다가 소구멸 타가지고? {감자를 그 속, 그 물에다
 가 소금을 타가지고?}

10503 # 어:!! {어!}
 10503 @ 그러케 찰마머거 # 그러케 찰마머거? @ 응. 그먼 강가너지. {그렇게 삶아먹어 # 그렇게 삶아먹어? @ 응. 그러면 간간하지.}
 10503 # 응. {응.}
 10503 @ 감자가 소구메... # 그레. {감자는 소금에... # 그레.}
 10503 # 가꾸 @ 드러강개. # 땡개. {가지고 # 들어가니까. # 대니까.}
 10503 @ 근디 여그는 그냥 찌머는 찌머는 # 찌서 머거 그냥 @ 찌머는 소그미 안 배드러가자나, # 안 배드러가 기양 기양 먹제. {그런데 여기는 그냥 찌먹는 찌면 # 찌서 먹어 그냥 @ 찌면 소금이 안 배들어가잖아, # 안 배들어가 그냥 그냥 먹지.}

1.5.1. 고구마 요리

10503 # 그러고 고구마 고구마 일짜나?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 있잖아?}
 10503 @ 예, 여그 고구마 일써? {예, 여기 고구마 있어?}
 10503 # 여그 파능거 일써. {여기 파는 것 있어.}
 10503 @ 음. {음.}
 10503 # 파능거. {파는 것.}
 10503 # 어이서 그처럼 관내서나 오는지 어이서 오는지 @ 관내서 오걸찌 이? # 어, 그런디서 오녕가 그냥 장마당어 가면 고구마 일찌 이만씩 형게. {어디서 그처럼 관내에서난 오는 지 어디서 오는지 @ 관내에서 오겠진 이? # 어, 그런데서 오는가 그냥 장에 가면 고구마 있지 이만씩 한 것이.}
 10503 # 그놈 머 가좌 찰마 머글만 하데 그거또, @ 음. # 고구마도. {그놈 뭐 가지고 와 삶아 먹을만 하데 그것도, @ 음. # 고구마도.}
 10503 @ 달지? {달지?}
 10503 # 달달항기. {달달한 것이.}
 10503 # 그거는 정말 마싹써, 여른 여는 감자보다. {그것은 정말 맛있어, 이런 이런 감자보다.}

1.5.1. 고기반찬

10510 @ 자 그러케 하고, 그다메 고기채는 주로 먼머 헤머거?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기채는 주로 뭇뭇 해먹어?}
 10510 # 고기채는 칼치, 칼치 알지 칼치? {고기채는 갈치, 갈치 알지 갈치?}
 10510 # 멥태, 그다메 저기 저 아이구 이름 모르겔따 그기... {멥태, 그 다음에 저

기 저 아이구 이름 모르겠다 그것이...}

10510 # 이만썩 형기 @ 고등어? # 고등어. {이만썩 한 것 @ 고등어? # 고등어.}

10510 # 그러거 @ 그러건만 주로 두루와요? # 그러거 싸다가 먹찌 그걸또. {그런 것 @ 그런 것만 주로 들어와요? # 그런 것 사다가 먹지 그것도.}

10510 @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소고기는 어뜨게 머거?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소고기는 어떻게 먹어?}

10510 # 돼지 궁개 돼지고기 소고기 가따가 국또 꼬리먹꼬, 또 이르게 기양 달달 달달 북까서도 먹꼬. {돼지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갖다가 국도 끓여먹고, 또 이렇게 그냥 달달달달 북아서도 먹고.}

10510 # 소고기는 또 물불꼬 폭썩 고아서, 난 소고기를 대다이 조아한담 마리어, 폭썩 과가꼬, 소고기 무레다 마라머그먼 참 마신히 머. {소고기는 또 물 붓고 폭썩 고아서, 난 소고기를 대단이 좋아한단 말이여, 폭썩 고아가지고, 소고기 물에다 말아먹으면 참 맛있지 뭐.}

10510 @ 침 너머가네. # 얌 어? @ 침 너머가. # 야미 내가꼬, @ 허허허허 # 그 허허허 불그::롬허니 무리 그러체 소고기 쌀무머는. {침 넘어가네. # 얌 어? @ 침 넘어가. # 곰국 내가지고, @ 허허허허 # 그 허허허 불그스름하니 물이 그렇지 소고기 삶으면.}

10510 # 그럼 거그다가 밤 마라서 머그먼 {그럼 거기에다가 밥 말아서 먹으면...}

10510 # 후탁 훌쩍 잘너머가지 머, @ 허허허허허. {후탁 훌쩍 잘 넘어가지 뭐.}

10510 # 에이구 미친 사람 올체? {에이구 미친 사람 옳지?}

10510 @ 왜? {왜?}

10510 # 아하하하 그러건 조하하게? {아하하하 그런 것 좋아하게?}

10510 @ 아이지. {아니지.}

10510 # 하하하하. {하하하하.}

10510 # 아니여, @ 고기가 항그니 # 심미, 사لامي 싱미대로 간담 마리어. {아니야, @ 고기가 한 근이 # 성미, 사람이 성미대로 간단 말이여.}

10510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510 # 응, 머 먹꼬 시푸먼 머 먹꼬, 머 묵꼬 시푸먼 머 묵꼬. {응, 뭐 먹고 싶으면 뭐 먹고, 뭐 먹고 싶으면 뭐 먹고.}

10510 @ 근데 소고기 항그네 얼마씩가? {그런데 소고기 한 근에 얼마씩 가?}

10510 # 소고기 항그네:: 비싸 지금. {소고기 한 근에 비싸 지금.}

10510 @ 소고기가 비싸 돼지고기가 비싸? {소고기가 비싸 돼지고기가 비싸?}

10510 # 소고기가 더 빌싸, 소고기가. {소고기가 더 비싸, 소고기가.}

10510 @ 마니 차이나? {많이 차이나?}

10510 # 소고 소고 그저 쫄끔 차이제. {소고 소고 그저 조금 차이지.}

10510 # 소고 돼지고기는 돼지는 마이 지루이까 @ 음. # 근데 소년 쫄 드물다 마리어 엽따 마리어, 귀해 @ 음. # 소가. {소고 돼지고기는 돼지는 많이 키우

니까 @ 음. # 그런데 소는 좀 드물다 말이여 없다 말이여, 귀해 @ 음 # 소가.}

10510 # 오늘또 소 세바리 실코 가드만. {오늘도 소 세 마리 싣고 가더구먼.}

10510 @ 아! 아까 글드만. {아! 아까 그렇더구먼.}

10510 # 클며는 그 한 항그네 항그네 # 항그네 @ 한 뽕씨번 가? {그러면 그 한 근에 한 근에 # 한 근에 @ 한 몇 십 원 가?}

10510 # 항그네 항그네? {한 근에 한 근에?}

10510 @ 응. {응.}

10510 # 배권 아니... {백원 아니...}

10510 @ 배권니면 너무 비싸고, 한 시비원 시버니나 시보원 가? # 십, 내가 시번 쪼리 한다능기 배권니라 하능거 바. {백 원이면 너무 비싸고, 한 십이 원 십 원이나 십오 원 가? 십, 내가 십 원 소리 한다는 것이 백 원이라 하는 것 봐.}

10510 # 십, 십 사면. {십, 십삼 원.}

10510 @ 십사면? {십삼 원?}

10510 # 응. {응.}

10510 @ 돼지고기는 한 시빌원 # 시빌원 시비원 그러메 하지. {돼지고기는 한 십 일원 # 십일원 십이원 그렇게 하지.}

10510 @ 벨 차이가 엄네이, 되지고기허고? # 야. @ 소고기허고? {벨 차이가 없네 이, 돼지고기하고? # 야. @ 소고기하고?}

10510 # 벨 차이 업써. {벨 차이 없어.}

10510 # 그른디 마슨 소고기가, 내가 조아항개 그렇가 소고기가 더 마싹써 나는. @ 되지고기가 더 마싹파는 사람도 일찌이? {그러네 맛은 소고기가,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가 소고기가 더 맛있어 나는. @!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는 사람도 있지 이?}

10510 # 대지고기 그건 또 조아하는 사람도 그기 더 마싹파가고. {돼지고기 그것 또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이 더 맛있다고 하고.}

10510 @ 그러치. {그렇지.}

10510 # 다 자기 소지리지 머. {다 자기 소질이지 뭐.}

10510 @ 응, 그리치. {응 그렇지.}

1.5.1. 콩나물

10503 @ 자, 콩은 주로 머헤머거 콩? {자, 콩은 주로 뭐 해먹어 콩?}

10503 # 콩은? {콩은?}

10503 # 콩나물 질귀서 먹꼬 으. {콩나물 질러서 먹고 으.}

10503 @ 여그서도 질귀머거? {여기서도 질러서 먹어?}

10503 # 콩나무를? @ 응. # 하먼. {콩나물을? @ 응. # 아무렴.}

10503 # 나는 동사메 기앵 콩나물, 콩 이쓰면 콩나물 질귀명는다. {나는 겨울에 그냥 콩나물, 콩 있으면 콩나물 질러서 먹는데.}

10503 @ 콩나물 어트게 질귀? {콩나물 어떻게 질러?}

10503 # 그룽개 콩나물 동오 시루가 이룽개 일썌 @ 애애 # 콩나무썸. {그러니까 콩나물 동이 시루가 이렇게 있어 @ 예예 # 콩나물 시루.}

10503 # 그러고 구니기 이러케 빠꼼빠꼼 그 @ 뜰레 일썌? # 응, 그러고 여그 또 쪼끼 쪼끔 달련따고, 이 미테가.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빠꼼빠꼼 그 @ 뜰려 있지? # 응. 그리고 여기 또 조금 조금 달렸다고, 이 밑에가.}

10503 @ 응. {응.}

10503 # 그레 물주면 그 또 소래로 바더야 되야 @ 음음음. {그레 물주면 그 또 대양으로 받아야 돼 @ 음음음.}

10503 # 그레 그노무 차꼬 무렐 차꼬 자조 가려야지 안썌썌, 그르고 차꼬 주머는 콩나무리 썸는담 마리여. {그레 그놈을 자꾸 물을 자꾸 자주 갈아야지 안썌지, 그리고 자꾸 주면 콩나물이 썌는단 말이여.}

10503 @ 아! 그 네레온 무를 주면? {아! 그 내려온 물을 주면?}

10503 # 어, 그대로 기양 그거 가꼬 주면 못썌. {어, 그대로 그냥 그것 가지고 주면 못썌.}

10503 @ 음. {음.}

10503 # 그룽개 자주 그 한 사날마네 함번썌 가라애제 @ 음. # 그러캐서 질귀서... {그러니까 자꾸 그 한 사날만에 한 번썌 갈아야지 @ 음. # 그렇게 해서 질러서...}

10503 @ 그머는 쿡얼 어떠케 안쳐 거그다가? {그러면은 쿡을 어떻게 안쳐 거기다가?}

10503 @ 썌 빠저버리는데. {썌 빠저버리는데.}

10503 # 아 그룽개, 시루 밑꾸니기 이르게 인짜나아? @ 애애애. {아 그러니까, 시루 밑구멍이 이렇게 있잖아? @ 예예예.}

10503 # 그룽개 그 지푸라그로 이러케 트러서 @ 막꼬? # 시루뽀 시루:: @ 예예 # 멍이로 그러케 한담 마리여. {그러니까 그 짚으로 이렇게 틀어서 @ 막고? # 시룻번 시루 @ 예예 # 같이 그룽개 한단 말이여.}

10503 # 그 막꼬서는 그다 보나 이르게 얄분 보 이르게 쪽 깔지 @ 깔고 어, # 그레 깔고서는 그다메... {그 막고서는 거기다 보나 이렇게 얇은 보 이렇게 쪽 깔지 @ 깔고 어, # 그레 깔고서는 그 다음에...}

10503 @ 쿡만 너? {쿡만 넣어?}

10503 # 쿡만 느치머. {쿡만 넣지 뭐.}

10503 # 막 이자 느께 머글로면 마른 쿡, 마른 쿡 이제 썌 골라가지고, 아쿠가 이

쫘개 아쿠 아쿠는 안난다 마리어. {막 이제 늦게 먹을 놨은 마른 콩, 마른 콩 이제 썩 골라가지고, 아귀가 있으니까 아귀 아귀는 안 난나 말이어.}

10503 @ 아쿠가 무슨 마리어? {아귀가 무슨 말이야?}

10503 # 아쿠가 별거지 머궁기지. {아귀가 별레 먹은 것이지.}

10503 @ 아:!! {아!}

10503 @ 새캄 새캄허니 그렇거? {새캄 새까맣게 그런 것?}

10503 # 어? {어?}

10503 @ 새캄 새캄형거 그렇거? # 야. {새캄 새까만 것 그런 것? # 야.}

10503 # 그 별거지 머궁기 여 어떤 거는 이르게 인찌, 거 누네 농까레. {그 별레 먹은 것 이 어떤 것은 이렇게 있지, 그 눈에 눈깔에.}

10503 @ 음음. {음음.}

10503 # 그거 썩 골라내지 머, 그레 골라내가지고는, 이제 썩 시꺼서 미티다가 마른 콩 노코 @ 음. # 우에다 거 불궁코 논담 마리어. {그것 썩 골라내지 뭐, 그레 골라내가지고는, 이제 썩 씻어서 밑에다고 마른 콩 놓고 @ 음 # 위에다 그 불린 콩 논는단 말이어.}

10503 # 뽕:군다 마리어 하렌썩, 오늘 당구먼 내일 건지야제. {불린다 말이어 하룻 저녁, 오늘 담그면 내일 건져야지.}

10503 @ 어어어. {어어어.}

10503 # 그레 다 뿌르머는 @ 응. # 그러케 한티다가 인자 우에다가 그노면 또 썩 제노코. {그레 다 부르면 @ 응. # 그렇게 한 곳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그 놓으면 또 건져 놓고.}

10503 @ 아:!! {아!}

10503 # 그레가꼬... {그레가지고...}

10503 # 무를 주서 키우면 잘 크지머. {물을 주어서 키우면 잘 크지 뭐.}

10503 # 그레 그노면 뽕바가지고는 가내다가 시워:너이 @ 으으 # 소금만 여서 양념해서 머그면 호츠. {그레 그 놨을 뽕아가지고는 간해서 시원하니 @ 으으 # 소금만 넣어서 양념해서 먹으면 좋지.}

10503 @ 음음음. {음음음.}

10503 # 호츠. {좋지.}

10503 @ 호츠. {좋지.}

10503 @ 자 그러면, 마른 콩하고 불군 콩하고 너니까 서로 이케 차가 나간네? {자 그러면, 마른 콩하고 불린 콩하고 넣으니까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겠네?}

10503 # 차가 나지머. {차이가 나지 뭐.}

10503 # 그렇게 불궁콩 마룻콩언 오래오래 인따가 싸걸 트서 올라오고 @ 음. # 그거 올라온 어 어가네는 저 불군코넨 빨리 질른담 마리어. {그러니까 불린 콩 마른 콩은 오래오래 있다가 썩을 터서 올라오고 @ 음. # 그것 올라온

어 어간에는 저 불린 콩은 빨리 자란단 말이여.}

10503 @ 음음음. {음음음.}

10503 # 싸기 인차 튼담 마리여 그거. {싸이 바로 튼단 말이여 그것.}

10503 # 한 사날새면 튼담 마리여. {한 사날새면 튼단 말이여.}

10503 @ 그래요? {그래요?}

10503 # 어 @ 그먼 메치리면 머거 대개? {어 @ 그러면 며칠이면 먹어 대개?}

10503 # 그러니까나 거저 한:: 한 여르리면 @ 여르리면 머거? # 응. {그러니까
그저 한 한 열흘이면 @ 열흘이면 먹어? # 응.}

10503 @ 그머는 한 시루 한 두개 가따노코 허머는 그냥 계속 머글 쭈 이견네이?
{그러면은 한 시루 한 두개 갖다 놓고 하면 그냥 계속 먹을 수 있겠네 이?}

10503 # 그럼 계속 머글 쭈 일제. {그럼 계속 먹을 수 있지.}

10503 @ 조금씩만 이러케 뽀바가꼬. # 그렇게 그 물주기 시끄러워. {조금씩만 이
렇게 뽀바가지고, # 그러니까 그 물주기 어려워.}

10503 @ 하루에 뽀뽀씩 줘? {하루에 몇 번씩 줘?}

10503 # 저나게도 한 서너, 이러나면 한 서너쪽씩 이러나서 그 쪽씩 일어날때마다
물 주야돼 저나게도. {저녁에도 한 서서, 일어나면 한 서너 번씩 일어나서
그 번씩 일어날 때마다 물 주어야 돼 저녁에도.}

10503 @ 나제도? # 그러자너면, 미꾸너게 @ 애. # 그 탈 나자나. {낮에도? # 그
렇지 않으면, 밑구렁에 # 예. # 그 털 나잖아.}

10503 @ 애? {예?}

10503 # 그누미 낙 물 안 주면 막 텃쭈:룩허담 마리여. {그 놈이 낙 물 안 주면
막 텃쭈:룩하단 말이여.}

10503 @ 아::! {아!}

10503 # 그러니까 그거 따두마 내고 나면 머 시퍼서 아이 지우지 머. {그러니까
그것 다듬어 내고 나면 뭐 헤퍼서 아니 지우지 뭐.}

10503 @ 아, 무를 마니주면 잘쪽잘쪽허게? {아, 물을 많이 주면 잘쪽잘쪽허게?}

10503 # 야! {야!}

10503 # 무를 마니 주면 영 고::게 잘 자라지머. {물을 많이 주면 영 곱게 잘 자라
지 뭐.}

10503 @ 그머는 하루에 뽀뽀씩 주능거여?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주는 거야?}

10503 # 하루도 하메 한 대:여설뽀씨근 줘야되야. {하루에도 아마 한 대여섯 번씩
은 주어야 돼.}

10503 @ 음. {음.}

10503 # 한나자레 한 서너번씩 주고. {한 나절에 한 서너 번씩 주고.}

10503 # 서너번씩 주고, 그렇게 어떤 때는 그건 봐노코 일하로 가머는 @ 애. #
털보가 되야버려. {서너 번씩 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것은 봐놓고 일
하러 가면 @ 예. # 털보가 돼버려.}

10503 @ 아::! {아!}

10503 # 허허허. {허허허.}

10503 @ 그냥 먹기는 그먼 힘들겠구나야? {그냥 먹기는 그러면 힘들겠구나?}

10503 # 심:드러어. {힘들어.}

10503 @ 우리처럼 나제는 안주고 바메만 무를 주며는 털보가 되건네이? {우리처럼 낮에는 안 주고 밤에만 물을 주면 털보가 되겠네 이?}

10503 # 털보가 되야. {털보가 돼.}

10503 # 털보가 되야빠려. {털보가 돼버려.}

10503 @ 그먼 그 터를 머그면 안돼? {그러면 그 털을 먹으면 안 돼?}

10503 # 아이, 몸머거. {아니, 못 먹어.}

10503 @ 그래. {그래.}

10503 # 씹씹하담 마리여. {씹씹하담 말이여.}

10503 @ 아! 그거슨? {아! 그것은?}

10503 @ 그그 # 그 털보는. @ 그래요? {그그 # 그 털보는, @ 그래요?}

10503 @ 음. {음.}

10503 @ 가는 털? {가는 털?}

10503 # 몰라 우리는 그 머거보면 씹씹하데 그거 글씨. {몰라 우리는 그 먹어보면 씹씹하데 그것 글씨.}

10503 @ 음. {음.}

10503 # 그래가꼬 그걸 인자, 조깨 실쩍 찢아서 달기 일쓰면 달기 주면 달기가 다 머거버리제. {그래가지고 그것 이제, 조금 슬쩍 삶아서 닭이 있으면 닭 주면 닭이 다 먹어버리지.}

10503 @ 음. {음.}

10503 # 다 주서 머거빠리제 머. {다 주어 먹어버리지 뭐.}

10503 @ 음. {음.}

10503 @ 달, 달 달기 일쓰니까, 모든 거슨 다 달기주며는 다 먹뜨만 # 하. {달, 달 닭이 있으니까, 모든 것은 다 닭 주면 다 먹더구먼 # 하.}

10503 # 달기 그저 머 몸명능기 업써. 심지어 빠대기 그거또 질쭈정거는 몸머거도 빠대, @ 예 # 요령거또 다 주서머거빠리지며. {닭이 그저 뭐 못 먹는 것이 없어, 심지어 빠다귀 그것도 길쭉한 것은 못 먹어도 빠다귀, @ 예 # 이런 것도 다 주어 먹어버리지 뭐.}

10503 # 달기가 달기 배때기가 아매 소화 잘되능개비여, @ 응. # 그러길래 그러케 잘먹찌. {닭이 닭이 배가 아매 소화 잘 되는가 봐, @ 응. # 그렇기에 그렇게 잘 먹지.}

10503 # 먹꼬도 그러케 안죽꼬. {먹고도 그렇게 안 죽고.}

10503 # 딱 네마리 인능기 우리, 그렇게로 밤먹따가 맥끼시러 어쩔때 밤 마라노코도 먹따가 맥끼 시르면 아이구 몸먹꼴따, 그거 어트가겐쏘, 달기라도 주며

는 명는다 마리오. {딱 네 마리 있는 것이 우리, 그러니까 밥 먹다가 먹기 싫어 어쩔 때 밥 말아놓고도 먹다가 먹기 싫으면 아이구 못 먹겠다, 그것 어떻게 하겠소, 닭이라도 주면 먹는단 말ियो.}

10503 # 그렇게 달기를 조금씩 미기야제. {그러니까 닭을 조금씩 먹여야지.}

10503 @ 음. {음.}

10503 # 허망에 그거 बे기시르케 내빼리겄쏘, 그 허:여니, 다 그러케 아깝게. {허망에 그것 보기싫게 내버리겠소, 그 하얗게, 다 그렇게 아깝게.}

10503 @ 어. {어.}

10503 # 그리 @ 그냥 뿌려주면 그냥 다 와서 # 응 뿌려 뿌려 밭씨 그릇가꼬 나가면, 어 그렇거 주능간 해가꼬, 보고 함마리 보고 오머는 다 쫓아오지 머. {그리 @ 그냥 뿌려주면 그냥 다 와서 # 응 뿌려 뿌려 밭씨 그릇 가지고 나가면, 어 그런 것 주는가 해가지고, 보고 한 마리 보고 오면 다 쫓아오지 뭐.}

10503 # 부르지 아나도. {부르지 않아도.}

1.3. 생업 활동

1.3.4. 닭 키우기

10327 @ 그 다근 지금 여기서 자바머글라면 함마리에 얼마정도 주면 사? {그 닭은 지금 여기서 잡아먹으려면 한 마리에 얼마 정도 주면 사?}

10327 @ 한 한 오시번 # 심메된 할까요. @ 한 오시번 쥐? {한 한 오십 원 # 십 몇 원 할 거요.}

10327 # 응, 한 한 심메된 할꺼라고 @ 닥 함마리에? # 어. {응, 한 한 십 몇 원 할 거라고 @ 닭 한 마리에? # 어.}

10327 @ 지베서 키운 닥또? {집에서 키운 닭도?}

10327 # 키운 닥, 그러케 한 그러케 할꺼야 공개. {키운 닭, 그렇게 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10327 @ 어. {어.}

10327 @ 그 사람드리 잘 팔라고 안치? # 앎파 어 앎 @ 알래머글라고 이? {그 사람들이 잘 팔려고 양지? # 안 파 어 안 @ 알 내 먹으려고 이?}

10327 # 어, 저:: 아페 양기장 일쏘, @ 응. # 저 아페. {어, 저 앞에 양계장 있소, @ 응. # 저 앞에.}

10327 # 거:기는 양기장에는 전:치 그 달기만 키우지며, 근디 그 달기가 마시업씨 @ 마시 업찌요. # 마시 업씨. {거기는 양계장에는 전체 그 닭만 키우지 뭐, 그런데 그 닭이 맛이 없어 @ 맛이 없지요. # 맛이 없어.}

10327 # 지비서 키웁점만 마시 없써. @ 그러니까. {집에서 키운 것보다 맛이 없어. @ 그러니까.}

10327 @ 지비서 키운 다글 자버머거야지 마시일찌 # 그럼. {집에서 키운 닭은 잡아먹어야지 맛이 있지 # 그럼.}

10327 @ 토종닭 # 근디 내가 쪼끔 절무머는 시방 저 안는 아 차꾸 안는다 마리오. {토종닭 # 그런데 내가 조금 젊으면 시방 저 안는 아 자꾸 안는다 말어요.}

10327 # 아늘라고 드러 안는담 마리오 꺽꺽거리고. @ 응. {안으려고 들어 안는단 말ियो 꺽꺽걸이고. @ 응.}

10327 # 내 오늘또 시방 두마리 쪼차내고 완는디 @ 그렇게. {내 오늘도 시방 두마리 쫓아내고 왔는데 @ 그러니까.}

10327 # 내가 쪼끔만 절무먼 그거 깨우전는데, @ 음 하 깨워 한 열마리만. {내가 쪼끔만 젊으면 그것 깨우겠는데, @ 음 하 깨워 한 열 마리만.}

10327 # 깨와서 그 무다게 @ 자바 머거 낸너네. # 아이구. {깨워서 그 무엇 하게 @ 잡아먹어 내년에. # 아이구.}

10327 # 나 내년까지 살겠는지 @ 아이고 내가 볼때는 아푸로 멘년 더 사실꺼 가테 # 하까? @ 그럼. {나 내년까지 살겠는지 @ 아이고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 # 할까? @ 그럼.}

10327 # 깨우까 쪼끔? @ 깨워:: 멤마리만 {깨울까 조금? @ 깨워 몇 마리만.}

10327 @ 한 열개 너노며는 # 한 여나무개만 깨, 열때깨만 깨와도, 한 이시개 엉기자나 @ 예. # 달가럴? {한 열 개 넣어놓으면 # 한 여남 개만 깨, 열댓개만 깨워도, 한 이십 개 안기잖아 @ 예. # 달갈을.}

10327 @ 응. {응.}

10327 # 그러면 거그서도 한 대::개씩 너덜개씩 @ 안나와? # 잘못핑기 일쏘, 고라. {그러면 거기서도 한 댓 개씩 너덜 개씩 @ 안 나와? # 잘 못 된 것이 있소, 골아.}

10327 # 그저 혼 이르게 혼드르머는 다 골려 고라서 흔들흔들하지머. {그저 혼 이렇게 흔들면 다 골려 골아서 흔들흔들하지 뭐.}

10327 # 다 깐너네 네리가 네리고, 뺑아리를 네리고 나머지 보머년 고랄째. {다 깐 연에 내려가 내리고, 병아리를 내리고 나머지 보며는 골았지.}

10327 # 그 고른 달 가서 쌀마머거도 괜차나. {그 골은 달 가서 삶아먹어도 괜찮아.}

10327 @ 그레? {그래?}

10327 # 응. {응.}

10327 @ 고른 달갈 # 곤 달갈 여 쌀마머거도 @ 냄새 안나? {골은 달갈 # 곤 달갈 여 삶아먹어도 @ 냄새 안 나?}

10327 # 아이 일업써 냄새 안나. {아니 괜찮아 냄새 안 나.}

10327 @ 그래요? {그래요?}

10327 # 야, 허허허. {야, 허허허.}

10327 @ 나는 계란 요로케 오래두면 이러케 우리도 지금 다기 다기 인끄든 두마리. {나는 계란 이렇게 오래 두면 이렇게 우리도 지금 닭이 닭이 있거든 두마리.}

10327 @ 큰닥 두마리에다가 뽕아리를 누가 쥐가지고 한 열뚜마리 정도 돼, # 어. @ 뽕아리가. {큰 닭 두 마리에다가 병아리를 누가 쥐가지고 한 열두 마리 정도 돼, # 어. @ 병아리가.}

10327 @ 인자 인자 지금 나 올때 한 요마네쓰니까 지금 가면 제법 킁컨네. {이제 이제 지금 나 올 때 한 이만했으니까 지금 가면 제법 컸젠네.}

10327 # 어, 그럼 잠깐 @ 잠깐 크더만 # 굴 굴거져 뽕아리가. {어, 그럼 잠깐 @ 잠깐 크드만 # 굴 굴어져 병아리가.}

10327 @ 근데 이제 그 야:를 두개씩 하루에 나는데, 어쩔 때는 하나 나고 어쩔 때는 두개 나고... # 어 그럼. @ 두마리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알을 두개씩 하루에 나는데, 어쩔 때는 하나 낳고 어쩔 때는 두 개 낳고...}

10327 @ 근데 어떨 때 보며는 오래 오래 뒹거슨 이러케 끌라갈라면 이러케 # 쿨렁쿨렁허 @ 예 예 @ 그면 그러거 다 버리는데.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오래 오래 된 것은 이렇게 끌라 가려면 이렇게 # 쿨렁쿨렁 해 @ 예 예 @ 그러면 그런 것 다 버리는데.}

10327 # 야:이! 무널 다 찐, 난 다 찐마 머거. {아이! 문을 다 찐, 난 다 삶아 먹어.}

10327 # 찐마바 일업쑈. {삶아 봐 괜찮아.}

10327 @ 그래요? {그래요?}

10327 # 응. {응.}

10327 @ 냄새 안나? {냄새 안 나?}

10327 # 냄새 그러케 쿨룬내 그러케 안나. {냄새 그렇게 구린내 그렇게 안 나.}

10327 # 어, 당 메기능구나. {어, 닭 먹이는구나.}

10327 @ 나도 지금 이러케 시고레 집지코 사라요. {나도 지금 이렇게 시골에 집 짓고 살아요.}

10327 # 아! 시고레 일쑤, 그러면 당 미기지, 메기제. {아! 시골에 있어, 그러면 닭 먹이지, 먹이지.}

10327 # 그럼 저기 도시는 아이 데지, @ 안 되지 응. # 도시는 몸 미기지 @ 전주 바로 여페. {그럼 저기 도시는 아니 되지, @ 안 되지 응. # 도시는 못 먹이지 @ 전주 바로 옆에.}

10327 # 그럼 무슨그 미기요? {그럼 무엇을 먹이오?}

10327 @ 사료 사다가. {사료 사다가.}

10327 # 싸다가? {사다가?}

10327 @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파는 사료가 인싸 조은 사료가.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파는 사료가 있어 좋은 사료가.}

10327 # 어. {어.}

10327 @ 저 그 옥씨 이렇걸로 만든 사료. {저 그 옥수수 이런 것으로 만든 사료.}

10327 # 어:: 그거 그런 닥싸료가 또 따로 인싸, 그거 석꺼서 이르케... {어 그것 그런 닭 사료가 또 따로 있소, 그것 섞어서 이렇게...}

10327 @ 여기야 우리 밥까통거 남꼬 이러면 인자 다 가따 닥 주고. {여기야 우리 밥 같은 것 남고 이러면 이제 다 갖다 닭 주고.}

10327 # 하 그리야제, 그런 짐승이 인싸야 머이 나무먼 @ 그렇게 음식기 # 그제 @ 음식물 쓰레기는 다 닥까다 줘. {하 그래야지, 그런 짐승이 있어야 무엇 이 남으면 @ 그러니까 음식이 # 그제 @ 음식물 쓰레기는 다 닭 갖다 줘.}

10327 # 아 그러면 조체 @ 머든지 # 그건 그리야 혀. @ 머든지 다 먹뜨라고. {아 그러면 좋지 @ 뭐든지 # 그건 그래야 해. @ 뭐든지 다 먹더라고.}

10327 # 어 머이나 다:: 머거 다기, 암명웅기 업써. {어 뭇이나 다 먹어 닭이, 안 먹는 것이 없어.}

10327 @ 뽕따구도 다 먹꼬, 생선 뽕따구 이렇거또 # 아 하담세 풀도 다 멍넌디 머. {뽕다귀도 다 먹고, 생선 뽕다귀 이런 것도 # 아 하다못해 풀도 다 먹는데 뭘.}

10327 # 상추도 잘먹제. {상추도 잘 먹지.}

10327 @ 응. {응.}

10327 @ 아 인자 그렇거또 인자 바테서 풀가통거 뽕부먼 가따 주고. {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밭에서 풀 같은 것 뽑으면 갖다 주고.}

10327 # 어. {어.}

10327 @ 근디 푸를 머그면 야가 그 노란자가 아주 지네지드만 색까리 # 예. {그런데 풀을 먹으면 야가 그 노란 자위가 아주 진해지드구먼 색깔이 # 예.}

10327 # 조아, 풀 머기면 조아. {좋아, 풀 먹이면 좋아.}

10327 @ 풀 떼기면 으? {풀 먹이면 으?}

10327 @ 궁개 그 맴마리 깨봐 그먼 한 며칠마네 깨? # 깨야보까 한 @ 그래요. # 열싸호리면, 저 수무사호리 되야 나와. {그러니까 그 몇 마리 깨봐 그러면 한 며칠만에 깨? # 깨 볼까 한 @ 그래요. # 열사홀이면, 저 스무사홀이 되어야 나와.}

10327 @ 그래요? {그래요?}

10327 # 수무사홀마네 나와. {스무사홀만에 나와.}

10327 @ 근데 저걸뜨리 저걸뜨리, 나는 저걸 잘 모르겄써, 그냥 지가 깔라고 저러케 해? {그런데 저것들이 저것들이, 나는 저것을 잘 모르겠어, 그냥 지가 까려고 저렇게 해?}

10327 @ 그냥 무조건 저렇게 크러와서 안자? {그냥 무조건 저렇게 들어와서 앉아?}

10327 # 응, 막 그냥 쪼차넬라고 소닐가따 이르게 가면 막 이걸 막 카:카 쫄넌디
 머 막 안 나갈라고. {응, 막 느냥 쫓아내려고 손을 갖다 이렇게 가면 마 이
 것을 막 카카 쫓는데 뭐 막 안 나가려고.}

10327 @ 알도 업쓰면서? {알도 없으면서?}

10327 # 알도 업쓰면서. {알도 없으면서.}

10327 @ 어:: # 그냥 오늘 찌녀게 줘야 데거써. {어 # 그냥 오늘 저녁에 줘봐
 야 되겠어.}

10327 @ 근데 근데 집 그 지베다가는 계란 달걀 안 되지, 장파기 업썰썰개. {그런
 데 그런데 집 그 집에다가는 계란 달걀 안 되지, 장닭이 없었으니까.}

10327 # 어 우리 달가른 안되야 @ 응. # 장닭 업씨 저러케 나ونغ개 아이. {어 우
 리 달걀은 안 돼 @ 응. # 장닭 없이 저렇게 낳은 것이니까 아니.}

10327 @ 그먼 다른 지베서 사야거꼬만. {그러면 다른 집에서 사야겠구먼.}

10327 # 싸야 된디 에이 앵기지마. {사야 되는데 에이 안기지 마.}

10327 # 싸야 @ 달걀 하나에 얼마짜기여? {사야 @ 달걀 하나에 얼마짜이야?}

10327 # 하나에 십전. {하나에 십전.}

10327 @ 십전? {십전?}

10327 # 십전씩 합떼, 아니 어 십전씩 할끼야. {십전씩 합떼, 아니 어 십전씩 할
 거야.}

10327 @ 음::. {음.}

10327 # 십전짜기여. @ 그먼 한 이뤘니머는 한 열개 사건꼬만. {십전짜이야. @
 그러면 한 일원이면 한 열 개 사겠구먼.}

10327 # 아이 십전씩 하등가... {아니 십전씩 하등가...}

10327 # 아이 모르건네 얼마씩 하등가, 이웬. {아니 모르겠네 얼마씩 하등가, 일
 원.}

10327 # 아! 하나레 이웬 이뤘니다, @ 이웬씩 가건찌. # 이웬 넘는다 이웬 십전씩
 한다. {아! 한 알에 일원 일원이다, @ 일원씩 가겠지. # 일원 넘는다 일원
 십전씩 한다.}

10327 @ 일원 십전씩 가건찌 # 이웬 @ 그먼 이웬이면 계라니 열개라고. # 그려.
 {일원십전씩 가겠지 # 일원 @ 그러면 일원이면 계란이 열 개라고. # 그래.}

10327 # 이웬십전씩 간다. {일원십전씩 간다.}

10327 @ 그먼 한 시버니머는 한 열개 사건꼬만, 시비뤘니먼. {그러면 한 십 원이
 면 할 열 개 사겠구먼, 십일 원이면.}

10327 # 십 어 시비뤘니먼 그려체. {십 어 십일 원이면 그렇지.}

10327 @ 한 열개만 사가꼬 딱 키우지 머. {한 열 개만 사가지고 딱 키우지 뭐.}

10327 @ 그먼 바로 따로 사료를 줘, 닥? {그러면 바로 따로 사료를 줘, 닭?}

10327 # 다간체 무슨 모, 머기를 따로 줘, 모이 가통거? {닭에게 무슨 모, 먹이를
 따로 줘, 모이 같은 것?}

10327 # 아이, 기양 지가 네레와서... {아니, 그냥 지가 내려와서...}

10327 @ 다른 집또, 다른 집또 그냥 다: 사료 아무것또 안줘? {다른 집도, 다른 집도 그냥 다 사료 아무것도 안 줘?}

10327 # 안줘 기양 강냉이 일쫓개 강냉이만 던져주지머, 강냉이만. {안 줘 그냥 강냉이 있으니까 강냉이만 던져주지 뭐, 강냉이만.}

10327 @ 그러치 강냉이 사료가 조치. {그렇지 강냉이 사료가 좋지.}

10327 # 강::냉이면 조, 제이리지 머, 막 환, 건저 강냉이 던져주면 머 환장하는디 머. {강냉이면 제일이지 뭐, 막 환, 그 이제 강냉이 던져주면 뭐 환장하는데 뭐.}

10327 @ 지네가 싹 저 캐머거? {저희가 싹 저 캐 먹어?}

10327 # 어? {어?}

10327 @ 지네가 다 캐머거 그냥 싹, 싹을 줘 아니면 # 가따가 기양 주서 멍는다 마리어 그냥. {저희가 다 캐 먹어 그냥 싹, 싹을 줘 아니면 # 갖다가 그냥 주어먹는다 말이야 그냥.}

10327 # 싹: 주면 머 아이구 이게 어디서 난능가 하능거. {싹 주면 뭐 아이구 이게 어디서 났는가 하는 것.}

10327 @ 허허허 # 허허허. {허허허 # 허허허.}

10327 # 어디서 이렇기 난능가 하메 머거. {어디서 이런 것이 났는가 하며 먹어.}

10327 @ 기사니는 왜 양키워 게사니는? {거위는 왜 안 키워 거위는?}

10327 # 아 내 함번 게사니 키웠따가, 하이! 그거 영 귀찬트라고, 그리서 양 키워. @ 왜 왜? {아 내 한 번 거위 키웠다가, 하이! 그것 영 귀찮더라고, 그래서 안 키워. @ 왜 왜?}

10327 @ 거 알도 아무데나 나? {그 알도 아무데나 나?}

10327 # 암디나 안나 그거또 이르게 난는디가, 난는디를 해주면 곡곡 그 자리다가 나체. {아무데나 안 나 그것도 이렇게 낳는 데가, 낳는 데를 해주면 꼭꼭 그 자리에다가 낳지.}

10327 @ 어:! {어!}

10327 # 그런데 모시 마이 무거 밥통이 쿵개. {그런데 모이 많이 먹어 밥통이 크니까.}

10327 # 모가지가 막 이러케 질자나 그거는 @ 애애. # 그리가고 밥통이 이러케 크다고. {목아지가 막 이렇게 길잖아 그것은 @ 예예. # 그래가지고 밥통이 이렇게 크다고.}

10327 @ 어. {어.}

10327 # 그렇게 마:이 먹찌 머. {그러니까 많이 먹지 뭐.}

10327 # 함번 키웠따가 그냥 업썰빠릴써. {한 번 키웠다가 그냥 없애버렸어.}

10327 # 차꼬 너무 머거서. {자꾸 너무 먹어서.}

10327 # 내가 어디서 그러케 곡씨기 일써어 그러케 퍼 미기겐써? {내가 어디서 그렇게 곡식이 있어서 그렇게 퍼 먹이겠어?}

10327 # 아, 순자한테서 쪼끔씩 어더다 미기능게. {아, 순자한테서 조금씩 얻어다 머기는 게.}

10327 @ 그 아른, 계사니 아른 크지요? {그 알은, 거위 알은 크지요?}

10327 # 이만:씩 하. {이만씩 해.}

10327 @ 더 마싹써? {더 맛있어?}

10327 # 몰라 마싹년지 엄는지 나 그렇거, 무쓰게서 암머공개. {몰라 맛있는지 없는지 나 그런 것, 머쓱해서 안 먹으니까.}

10327 @ 아:! {아!}

10327 # 달가른 조아하는디 그 그렇거는... {달걀은 좋아하는데 그 그런 것은...}

10327 @ 주로 그먼 한족뜨리 마니 키워? # 한:족뜨리 머 마이. {주로 그러면 한족들이 많이 키워? 한족들이 뭐 많이.}

10327 @ 계사니 아른 조아해? {거위 알을 좋아해?}

10327 # 계사이 오리, 오리는 쫌 작제. {거위 오리, 오리는 쫌 작지.}

10327 # 그러케 키운다고, 여그서 우리 지비서 자꼬 오리 그레케 자꼬.. {그렇게 키운다고, 여기서 우리 집에서 자꾸 오리 그렇게 자고...}

10327 @ 도라맹기는 거시 오리여 계사니여? {돌아다니는 것이 오리야 거위야?}

10327 # 오리여 그건 세마리 도라맹기능게 @ 예, 그거 오리여? # 오리여. {우리야 그것은 세 마리 돌아다니는 것이 @ 예, 그것 오리야? # 오리야.}

10327 @ 나는 그거 계사닌지 아란네. {나는 그것 거위인지 알았는데.}

10327 # 아이 계사니 누가지가 이러케 길다고. {아니 거위 모가지가 이렇게 길다고.}

10327 @ 더 커 계사니는? {더 커 거위는?}

10327 # 크고, 모가지가 이러케 지:러. {크고, 모가지가 이렇게 길어.}

10327 @ 음. {음.}

10327 # 황새 모가지라더이 황새 모가지만치나 질다고. {황새 모가지라더니 황새 모가지만큼이나 길다고.}

10327 @ 여그 여 세마리 도라맹기는 겐뜨른 그건 # 그거는 @ 오리여? # 오리여. {여기 여 세 마리 돌아다니는 것들은 그건 # 그것은 @ 오리야? # 오리야.}

10327 @ 아:! {아!}

10327 @ 난 그 계사닌지 아란네. {나는 그 거위인지 알았는데.}

10327 # 그기 우리 뒤흔 오리. {그것이 우리 뒤흔 오리.}

10327 @ 자 인자 그러케 하고 머글 꺼슨. {자 이게 그렇게 하고 먹을 것은.}

10327 # 다 머겔써. {다 먹었어.}

10327 @ 다 머겔써 인제. {다 먹었어 이제.}

10327 @ 허허허. {허허허.}

10327 # 머 앙그려. {뭐 안 그래.}

10327 @ 다근 어트게 자버? # 앙 그러면, 앙 그리면 호랭이여. @ 호랭이여 마저 허허허. {닭은 어떻게 잡아? # 안 그러면, 안 그러면 호랑이야. @ 호랑이야}

맞아 허허허.}

10327 @ 아니 그으 그:: 머야 달근 어떠케 자바머거? {아니 그 그 뭐야 닭은 어떻게 잡아먹어?}

10327 # 달기는 모가지 여그 이기 칼로 쓱 끄르면 피가 망 나와. {닭은 모가지 여기 여기 칼로 쓱 끊으면 피가 막 나와.}

10327 @ 어::! {어!}

10327 # 그렇게 산 다근, 쥐기지 말고 산 다그로 모가지를 이러케 비야대, 여기 귀때기 인는디럴. {그러니까 산 닭은, 죽이지 말고 산 닭으로 모가지를 이렇게 베어야 돼, 여기 귀때기 있는 데를.}

10327 @ 아::! {아!}

10327 # 그러케 핀줄기 일써 여기 여기에 @ 보면? # 야. {그렇게 핏줄기 있어 여기 여기에 @ 보면? # 야.}

10327 # 그럼 그노멸 이러케 칼로 쪽 비머넌 @ 음. # 거그서 피 나온다 마리어. {그럼 그놈을 이렇게 칼로 쪽 베면 @ 음. # 거기서 피 나온다 말이여.}

10327 # 피 안, 피 안: 빼고 기양 자부면... 보기가 좀 서거푸지머. {피 안, 피 안 빼고 그냥 잡으면... 보기가 좀 서글프지 뭐.}

10327 @ 그래요? {그래요?}

10327 # 얘. {예.}

10327 # 그래 그놈 피도 짹 사바랄 대고 다 받는다 마리어. {그래 그놈 피도 짹 사발을 대고 다 받는다 말이여.}

10327 # 바드먼 어떤 때는 쫓:끄만 봉지 일짜너 @ 애. # 그런 봉지 밤:봉지쫓 나오는데, 큰 다건. {받으면 어떤 때는 조그만 봉지 있잖아 @ 예. # 그런 봉지 반 봉지쫓 나오는데, 큰 닭은.}

10327 # 그래 그거 바다노코 나. {그래 그것 받아놓고 나.}

10327 # 인자 그다메 @ 아니 그면 피 빠지면 그냥 주거? {이제 그 다음에 @ 아니 그러면 피 빠지면 그냥 죽어?}

10327 # 으 피 빠지면, 예 그면 안 주거 모가지 비트러야. {으 피 빠지면, 예 그러면 안 죽어 모가지 비틀어야.}

10327 @ 피 빼고나서 모가지를 또 비트러야 돼? # 예 모가지 비트러야지. {피 빼고 나서 모가지를 또 비틀어야 돼? # 예 모가지 비틀어야지.}

10327 # 모가지 비트러가지고 일쓰면 숨 못쉴아가서 중는다 마리어.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있으면 숨 못쉬어서 죽는다 말이여.}

10327 @ 음. {음.}

10327 # 그럴때 물 펄펄 끄리가지고는 거그다가 미러여체, 거그다 지버연는다 마리어. {그럴 때 물 펄펄 끓여가지고는 거기에다가 밀어 넣지, 거기에다 집어넣는다 말이여.}

10327 # 지버여서 췌꺼리면, 사리 익찌. {집어넣어서 주억거리면, 살이 익지.}

10327 # 그래 사리 이그먼 그다메 타겐 터리 뽀부먼 물물물 나온다고. {그래 살이
익으면 그 다음에 ** 털이 뽑으면 물물물 나온다고.}

10327 # 그리고는 훌딱 빼, 닥 빼끼내고서는 자바. {그리고는 훌딱 빼, 닭 벗겨내
고서는 잡아.}

10327 # 그러고 속 거 허파 @ 음. # 그럼 속 빼내빼리고 @ 허파는 암머거? # 암
머거 여 양짜게 허파 어파 일썤. {그리고 속 그 허파 @ 음. # 그러면 속
빼내버리고 @ 허파는 안 먹어? # 안 먹어 여 양쪽에 허파 허파 있어.}

10327 @ 음. {음.}

10327 # 거 꼬끔씩 주루저레. @ 그러체 어. {그 조금씩 누릿끼리. @ 그렇지 어.}

10327 # 그건 짹 빼버리고 @ 가:는 먹꼬? # 어? @ 가:는 먹꼬? {그것은 짹 빼버
리고 @ 간은 먹고? # 어? @ 간은 먹고?}

10327 # 가:는 먹꼬. {간은 먹고.}

10327 # 가는 먹, 조아하는 사라먼 간 조아하는데, 나는 가는 암머거. {간은 먹,
좋아하는 사람은 간 좋아하는데, 나는 간은 안 먹어.}

10327 @ 그다메 그 똥쩍도 요 먹꼬? {그 다음에 그 모이주머니도 요 먹고?}

10327 # 똥쩍, 똥쩍 대다니 마신는데, 그 똥쩍또 그 똥 드른 껌떼기 또하나 두 껌
떼기라 마리오. {모이주머니, 모이주머니 대단히 맛이 있는데, 그 모이주머
니도 그 똥 들은 껌떼기 또 하난 두 껌떼기라 말ियो.}

10327 # 그놈 껌딱 빼게서 내빼리고. {그놈 껌딱 벗겨서 내버리고.}

10327 # 근데, 위가 나쁘고 언치고 그러거 그 이게 머여 똥쩍 그 껌껌떼기 @ 음,
노라능거? # 여 노랑거 그거 빠셔서 머그먼 영 조쏘. {그런데, 위가 나쁘고
언치고 그런 것 그 이게 뭐야 모래주머니 그 껌 껌떼기 @ 음, 노란 것? #
이 노란 것 그것 부셔서 먹으면 영 좋소.}

10327 @ 그럼 그걸 어뜨케 어뜨게 빠셔서 머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부
셔서 먹어?}

10327 @ 말려가꼬? {말려가지고?}

10327 # 말리 바짝 마르기 저느 인자 바짝 마르먼 바삭바삭, 절구 인짜느 짜그만
절구 여그, 무주는 쪼끄만 절구가 일썤 요마냥게. {말려 바짝 마르기 전에
이제 바짝 마르먼 바삭바삭, 절구 있잖아 자그만 절구 여기, 무주는 조그만
절구가 있어 이만한 게.}

10327 @ 쇠때로 똥썤? {쇠로 똥어?}

10327 # 그래가지고는 거그다 빠셔서 기냥 무레다가 먹찌머. {그래가지고는 거기
다 부셔서 그냥 물에다가 먹지 뭐.}

10327 # 이러케 툭 터러여코 물마시먼 다 너머가지머. {이렇게 툭 털어 넣고 물마
시먼 다 넘어가지 뭐.}

10327 # 그러케 머그먼 영 조쏘 그게, 위에도 조코. {그렇게 먹으면 영 좋소 그게,
위에도 좋고.}

10327 @ 그 냄새나니까 다시 잘 싼꼬 이? {그 냄새 나니까 다시 잘 씻고 이?}

10327 # 어? {어?}

10327 @ 잘 시처가꼬 이? {잘 씻어가지고 이?}

10327 # 이 잘, 공개 시츠면 또 똥내는 머가 안 난다, 그래 싹 시처가지고는 그러
케 해서 여러개 해서 머그면 참 조은디. {이 잘, 그러니까 씻으면 또 똥내
는 뭐가 안 난다, 그래 싹 씻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개 해서 먹으면
참 좋은데.}

10327 # 달기를 마니 양키웅개 인자 머... {닭을 많이 안 키우니까 이제 뭐...}

10327 @ 마니 키울 때는 절물 때는 멘마리까지 키웠써? {많이 키울 때는 젊을 때
는 몇 마리까지 키웠어?}

10327 # 아 한 삼십마리씩 키웠제. {아 한 삼십 마리씩 기웠지.}

10327 @ 그 삼십마리 키우면... {그 삼십 마리 키우면...}

10327 # 삼십마리 키우면 만날 자바묵꼬 그저... {삼십 마리 키우면 만날 잡아먹고
그저...}

10327 @ 자바먹고 알 내먹꼬 이? {잡아먹고 알 내먹고 이?}

10327 # 알래먹꼬. {알 내먹고.}

10327 @ 그머는 # 장파기 마느면 장딱 게:속 자바묵꼬... {그러면 # 장닭이 많으
면 장닭 계속 잡아먹고...}

10327 @ 그러면 대개 삼십마리 쟁도를 깨워 보메? {그러면 대개 삼십 마리 정도
를 깨워 봄에?}

10327 # 깨워, 삼십마리도 너머 깨울 때 일써, 근디 차꼬 업써진담 마리여. {깨워,
삼십 마리도 넘어 깨울 때 있어, 그런데 자꾸 없어진단 말이여?}

10327 @ 왜? {왜?}

10327 # 키우머는 차꾸 제절로 어디가 중년지 어쩐지 차꼬 업써지지 머. {키우면
자꾸 저절로 어디가 죽는지 어쩐지 자꾸 없어지지 뭐.}

10327 @ 누가 자버가? {누가 잡아가?}

10327 # 자바가지 아네, 그거 천상 너무 닥 참 잡쭈거는 잡는 버를 업써. {잡아가
지 않아, 그것 천상 너무 닭 참 잡수는 것은 잡는 버릇 없어.}

10327 # 그렇게 제절로 어디가 썩어지고 어디가 재피고, 또 우리 거 지비 이러케
신장농개로 거기 나가면 차에 깔리고 그런다 마리오. 그래서 죽꾸 업써지고
그래. {그러니까 저절로 어디가 썩어지고 어디가 잡히고, 또 우리 그 집이
이렇게 신작로이니까 거기 나가면 차에 깔리고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죽고
없어지고 그래.}

10327 @ 대개 그 저 지베 울타리 아네서만 사라 이걸뜨리? {대개 그 저 집에 울
타리 안에서만 살아 이것들이?}

10327 # 예. {예.}

10327 @ 다른 지부로 양가고? # 안나 양가, 그러케 안나가. {다른 집으로 안 가

소? 안 가 안 가, 그렇게 안 나가.}

10327 @ 그래요? {그래요?}

10327 # 야. {야.}

10327 @ 그거또 자 자기지비 인네 이? {그것도 자 자기 집이 있네 이.}

10327 # 응. {응.}

10327 @ 자기 지비 인자 아능잡네? {자기 집이 이제 아는가봐?}

10327 # 야 알지며, 다 알지며. {야 알지 뭐, 다 알지 뭐.}

10327 # 가따가도 어디 나갔다가도 부루, 구구::하고 부루면 짹 오지며. {갔다가도 어디 나갔다가도 부루, 구구하고 부루면 짹 다 오지 뭐.}

10327 @ 우리 당만 와 그먼 자기 당만, 막 다른 다근 안 오고? # 아:와 너무닥 안 와. {우리 닭만 와 그러면 자기 닭만, 막 다른 닭은 안 오고? # 안 와 남의 닭 안 와?}

10327 @ 그러? {그래?}

10327 # 어, 우리 당만 와. {어, 우리 닭만 와.}

10327 @ 그먼 그걸뜨리 인쓰면, 그냥 막 상추 이런 걸뜨른 다 뜨더머거버릴꺼 아녀? {그러면 그것들이 있으면, 그냥 막 상추 이런 것들은 다 뜯어먹어버릴 것 아니야?}

10327 # 그렇게로 바트 천상 몬뜨러가게, 바테 드러가면 안되야. {그러니까 밭에 천생 못 들어가지, 밭에 들어가면 안 돼.}

10327 # 이제도 막 내가 문널고 멀 쪼끔 약쪼 먹꼬 물쪼 마실라고 드러간따가 무늘 여러날떠니 또 함마리 드와가지고, 그 상추고 그 나물 뜨더머글라고. {이제도 막 내가 문 열고 뭘 조금 약 쪼 먹고 물 쪼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문을 열어놔더니 또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 그 상추고 그 나물 뜯어먹으려고.}

10327 @ 음. {음.}

10327 # 막 나릴 쪼차 드로능걸 막 쪼차내빠려. {막 나를 쫓아 들어오는 것을 막 쫓아내버려.}

10327 # 딱 두마리 안능게, 두마리 또 안는다고 드러안저 지라려. @ 허허허허허. {딱 두 마리 안는 게, 두 마리 또 안는다고 들어왔아 지랄 해.}

10327 @ 그게 무조건 지가 이제 아늘 때가 되면 지가 그러케 알아서 그러케 딱 아늘라고 그러케 안능고만? # 응, 아녀. {그게 무조건 지가 이제 안을 때가 되면 지가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딱 안으려고 그렇게 안는구먼? # 응, 안아.}

10327 # 암, 지가 그러케 아미라도 양 양꼬 시퍼 그러케 양꼬시풍개 양깼찌. @ 음:. {암, 지가 그렇게 아무라도 안 안고 싶어 그렇게 안고 싶으니까 안짚지.}

10327 # 그런 그러거는 달기 인자 알, 소개 달가리 업써. {그런 그런 것은 닭이 이제 알, 속에 달걀이 없어.}

10327 @ 아:!! {야!}

10327 # 그저 그요기가 거저, 머 머꺼통가 몰라. {그저 그 여기가 그저, 뭐 무엇 같은가 몰라.}

10327 # 문지거치 그러케 똥골똥걸::형게, 자자::형게 짹 배긴찌 머. {먼지 같이 그렇게 동글동글 하니까, 자잘한 것이 짹 박혀 있지 뭐.}

10327 @ 그게 알 알되능거지 월래. {그게 알 알 되는 것이지 원래.}

10327 # 알돼 알 알 베인다고. {알 돼 알 알 박힌다고.}

10327 @ 응. {응.}

10327 # 알찌번 또 투석투석 투덜 하. {알집은 또 투들 투들 투들해.}

10327 @ 어. {어.}

10327 # 알찌번 거기 용마 요만치 나와가꼬 알집 인능기. {알집은 거기 이만 이만 큼 나와 가지고 알집 있는 게.}

10327 @ 음, 근데 인자 지금 저러케 아늘라고 영건뜨런 아리업써, 알 안나? {음, 그런데 이제 지금 저렇게 안으려고 하는 것들은 알이 없어, 알 안 나?}

10327 # 알 안나, 알 안나, 웬 그기 까란저야 @ 어. # 알난채. {알 안 나, 알 안 나, 왜 그게 가라앉아야 @ 어. # 알 낱지?}

10327 @ 그먼 저 메치리나 가 저러케 저러케? {그러면 저 며칠이나 가 저렇게 저렇게?}

10327 # 어? {어?}

10327 @ 저러케 두면 메치리나 가냐고? {저렇게 두면 며칠이나 가냐고?}

10327 # 메치리나 가능가? {며칠이나 가는가?}

10327 @ 어, 한 이시빌간 이써야 대? {어, 한 이십 일간 있어야 돼.}

10327 @ 아를, 아를 안너줘도 저러케 # 으 아이 이 저기 인지 차꾸 쫓아내면 아난자. {알을, 알을 안 넣어줘도 저렇게 # 으 아니 이 저기 이제 차꾸 쫓아내면 안 앓아.}

10327 @ 야:. {아.}

10327 # 차꾸 쫓아내면, 아 처으메는 다라맨때써, 너무: 지라래서. {차꾸 쫓아내면, 아 처음에는 달아맸었어, 너무 지랄해서.}

10327 # 그린떠니 버릇 떠러져 이제. {그랬더니 버릇 떨어져 이제.}

10327 # 그러고 참무리다가 @ 으. # 대가리를 까끌로 @ 허허허. # 짹 정귀따가 @ 어. # 내노케 되면 안 아나. {그리고 찬 물에다가 @ 으. # 대가리를 거꾸로 @ 허허허. # 짹 잠겼다가 @ 어. # 내놓게 되면 안 안아?}

10327 @ 그래요? {그래요?}

10327 # 응. {응.}

10327 @ 어::! {어!}

10327 # 한 서너번 그러케하면 안 아나. {한 서너 번 그렇게 하면 안 안아?}

10327 @ 그냥 함번만 폭 지버너따가 빼? {그냥 한 번만 폭 집어넣었다가 빼?}

10327 # 빼야, 함번 막 폭 지버너따가 빼따가 세버넌 그러케 하머는 안 아나. {빼

야, 한 번 막 폭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세 번은 그렇게 하면 안 안아.}

10327 @ 사밀만? {삼일만?}

10327 # 응, 사밀만. {응, 삼일만?}

10327 @ 허허허. {허허허.}

10327 @ 그 우끼네 # 그러 @ 으. {그 웃기네 # 그래 @ 으.}

10327 # 그렇걸 저렇걸 다 아는 사라마여 내가. {그런 것 저런 것 다 아는 사람이 야 내가.}

10327 @ 나 지난버너 다글, 다기 함번 아난쎄. {나 지난번에 닭을, 닭이 한 번 안 왔어.}

10327 @ 근테 다기 여기서 안꼬 인는데, 다른 다기 차꼬 아를 거따가 # 거따 날 라고머는 애 마가줘야혀. {그런데 닭이 여기서 안고 있는데, 다른 닭이 자꾸 알을 거기에다가 # 거기에다가 나려고 하면 예 막아줘야 해.}

10327 @ 그렇게 다른 닭또 차꼬 거그서 아를 더 날라구러드만 거기다가 이? # 어. {그러니까 다른 닭도 자꾸 거기서 알을 더 넣으려고 그렇더구먼 거기에 다가 이? # 어.}

10327 @ 일부러 거기 가서 나테. {일부러 거기 가서 낳테.}

10327 # 그럼 제 나텐 자리다가 날라그렌꼴쎄. {그럼 제 낳던 자리에다가 나려고 그랬쎄지.}

10327 # 지 나텐 자리다가 쫘 날라구려. {제 낳던 자리에다가 쫘 나려고 그래.}

10327 @ 음. {음.}

10327 # 어먼데 가서 안날라구혀. {다른데 가서 안 나려고 해.}

10327 # 지 나텐 자렇게 거가서 난는다 마리어. {제 낳던 자리이니까 거기에 가서 낳는다 말이어.}

10327 @ 으::. {으.}

10327 # 알제, 지 나텐 자리 쫘... @ 글고 야가 막 아를 나노면 막 다: 꼬지버서 막 가따가 품떠만 이? {알지, 제 낳던 자리 쫘... @ 그리고 애가 막 알을 낳아놓으면 막 다 꼬집어서 막 갖다가 품더구만 이?}

10327 # 아이고! 아리 여기 이만치 양가서 궁구러가 이쓰면 막:: 이런디 며. {아이고! 알이 여기 이만큼 안 가서 굴러가 있으면 막 이런데 뭐.}

10327 @ 어. {어.}

10327 # 그리가고 썩따 푸머빠려. {그래가지고 썩 다 품어버려.}

10327 @ 썩따 푸머버리드만. # 어, 썩따 푸머버려. {썩 다 품어버리더구먼. # 어, 썩 다 품어버려.}

10327 @ 궁렇게 너무나 마나가지고 이거시 막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 그 지내 지내 나 지내 마나면 또 빠져나오지 며.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 이 막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 그 너무 너무 나 너무 많으면 또 빠져나오 지 뭐.}

10327 # 그렇게 알마게 주제. {그러니까 알맞게 주지.}

10327 # 한 서릉개나. {한 서른 개나.}

10327 @ 서릉개까지도 # 서릉개까지도 난 쥐받씨. {설흔 개까지도 # 서른 개까지도 나 쥐받어.}

10327 @ 그러케도 푸머요? # 다기 크머는 서릉개도 앙길쭉 일씨. {그렇게도 품어요? # 답이 크면 서른 개도 안길 수 있어.}

10327 @ 그레요? {그레요?}

10327 # 어. {어.}

10327 @ 음::! {음!}

10327 @ 그러쿠나! {그렇구나!}

10327 @ 제일 조용건 한 열때개가 제일 조콘네? # 응. {제일 좋은 것은 한 열댓개가 제일 좋겠네? # 응.}

10327 # 저 조용거는 저제 열때개 수무개. {저 좋은 것은 저 열댓 개 스무 개.}

10327 @ 응. {응.}

10327 # 수무 개, 이러케 서룬 항개 항개나 그러케 저 수물:: 아홉개나. {스무 개, 이렇게 서룬한 개 서룬한 개 한 개나 그렇게 저 스물아홉 개나.}

10327 # 또 난 짱 짱마취서 아냉겨. {또 난 짹 짹 맞춰서 안 안겨.}

10327 @ 아:. {아.}

10327 # 요로케 수물 항개나. {이렇게 스물한 개나.}

10327 @ 응, 고로케 마추고 # 야 그러케만돼. {응, 그렇게 맞추고 # 야 그렇게 해야만 돼.}

10327 # 그러케하 주제, 이러케 짱 마취서 아이 @ 왜? # 아이 앵겨. @ 왜? {그렇게 해주지, 이렇게 짹 맞춰서 아니 @ 왜? # 안니 안 겨. @ 왜?}

10327 # 어찌 나쁘더라고 그러케 앵깁개. {어찌 나쁘더라고 그렇게 안기니까.}

10327 @ 그레요? 음::! {그레요? 으!}

10327 @ 또 그거또 그렇거시 인네? {또 그것도 그런것이 있네?}

10327 # 헤헤헤헤. {헤헤헤헤.}

10327 @ 다근 그러코. {답은 그렇고.}

1.5. 식생활

1.5.1. 토마토 키우기

10502 @ 그다메 인자 주로 주로 멍능거시 인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주로 먹는 것이 이제.}

10502 @ 주로 멍능거시 다른 다른 채가 주로 머가 이쓰까 인자? {주로 먹는 것이 다른 다른 채가 주로 뭐가 있을까 이제?}

10502 @ 도마도는 여그 잘 돼? {토마토는 여기 잘 돼?}

10502 # 도마도? {토마토?}

10502 @ 애. {애.}

10502 # 나 도마도 우리 지비 싱귀날짜나 @ 음. # 잘되지 머. {나 토마토 우리 집에 심귀놔잖아 @ 음. # 잘 되지 뭐.}

10502 @ 난 왜, 왜 그게 도마도가 안되나 모르겄써. # 어? {난 왜, 왜 그것이 토마토가 안 되나 모르겠어. # 어?}

10502 @ 난 도마도가 안되드라고 # 도마도가 안 되야? {난 토마토가 안 되더라고 # 토마토가 안 돼?}

10502 @ 음. {음.}

10502 # 잘 안달려? {잘 안 달려?}

10502 @ 음. {음.}

10502 @ 아니 달린디 막 다, # 다 떨어져? @ 예. {아니 달리는데 막 다, # 다 떨어져? @ 예.}

10502 @ 떨어져고, 막 터지고. {떨어지고, 막 터지고.}

10502 # 어 그럼 그 병이 가, 병이 가서 그려. {어 그럼 그 병이 가, 병이 가서 그 래.}

10502 @ 으 농야글 아나니까. {응 농약을 안 하니까.}

10502 # 어, 야글 안 칭개. {어, 약을 안 치니까.}

10502 @ 음. {음.}

10502 # 거그서 야글 쳐야. {거기서 약을 쳐야.}

10502 @ 근디 약 안치고 머글라고... # 약 안쳐야제 @ 나와서 나와서 사는데, 약 처가꼬 머그먼 머... {그런데 약 안 치고 먹으려고... 약 안 처야지 @ 나와서 나와서 사는데, 약 처가지고 먹으면 뭐...}

10502 # 약 처서는 못써, 약 처서 머그머는. {약 처서는 못써, 약 처서 먹으면.}

10502 # 우리 지금 고 까지도 싱귀날써. {우리 지금 그 까지도 심귀놔어.}

10502 # 자 그 압찌비는 까지를 싱관떠니 까지도 죽꼬 머 먼또 죽꼬, 도마또 죽꼬 다 중년다고 그렇게 무슨. {자 그 앞집에는 가지를 심꿔더니 까지도 죽고 뭐 뿔도 죽고, 토마토도 죽고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10502 # 그 땅이 그러케 나쁜지, 우리 우리꼐 보더니 아우 이거는 썩썩하니 잘 사라꾸만, 이제 우리 우리꺼는 이러케 주건능가비 공개, 중년다고. {그 땅이 그렇게 나쁜지, 우리 우리 것을 보더니 아우 이것은 썩썩하세 잘 살았구먼, 이제 우리 우리 것은 이렇게 죽었는가봐 그러니까, 죽는다고.}

10502 # 차꼬 왕기 어디서 어더다 왕게노면 또 죽꼬 죽꼬 한다공개로, 아께 와서 그리구서 간써. {자꾸 옮겨 어디서 얻어다 옮겨놓으면 또 죽고 죽고 한다고 하니까, 아까 와서 그렇게 하고 갔어.}

1.5.1. 가지나물

10503 @ 그면 까지는 주로 머헤머거요? {그러면 가지는 주로 뭐 해서 먹어요?}

10503 # 까지, 순대. {가지, 순대.}

10503 @ 까지로 순대 헤머거? {가지로 순대 해먹어?}

10503 # 까지도 순대 헤머거. {가지도 순대 해먹어.}

10503 @ 음. {음.}

10503 # 까지 그저 그렇게 하능가 하면, 까지를 이러케 찌가지고 어, 이러케 약간 조물조물 해서, 그렇게 아직 터지지 안케 찌지머 찢 때. {가지 그저 그러니까 하는가 하면, 가지를 이렇게 찌가지고 어, 이렇게 약간 조물조물 해서, 그러니까 아직 터지지 않게 찌지 뭐 찢 때.}

10503 # 그레 깎때기 두껍찌 머 그기. {그레 꺾테기 두껍지 뭐 그것이.}

10503 # 그러각 고노멸 이러케 소걸 짹 빼나지머. {그레가지고 그놈을 이렇게 속을 짹 빼내지 뭐.}

10503 @ 음. {음.}

10503 # 그 주머르면 짹 빠지면 요리 이러케 게완다 마리어. {그 주머르면 짹 빠지면 이리 이렇게 게운다 말이어.}

10503 # 그럼 거기다 인자 저 바:벌 해서 양니멸 허고, 다 이러케 지르므다 보따 더가지고... {그럼 거기다 이제 저 밥을 해서 양념을 하고, 다 이렇게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10503 @ 그대 그때 아네다 닌는 거슨 주로 먼먼 너? {그때 그때 안에다 넣는 것은 주로 뭇 뭇 넣?}

10503 # 그렇게로 아네다가 @ 응. # 밥 여코 @ 응. # 나물 쪼 쪼끔 여코, 저기 머여 그런 나무리 그렇게 배차가통거 그렇거 해서 쪼끔 너코, 대지고기 인썸 그거또 쪼끔 쏘라 여코, 다 다디여야지 머. {그러니까 안에다가 @ 응. # 밥 넣고 @ 응. # 나물 조 조금 넣고, 저기 뭐야 그런 나물이 그러니까 배추 같은 것 그런 것 해서 조금 넣고, 돼지고기 있으면 그것도 조금 썰어 넣고, 다 다져 넣어야지 뭐.}

10503 @ 다저가꼬 이? # 다제 여야제. {다저가지고 이? # 다져 넣어야지.}

10503 # 그레야 보드랍제. {그레야 부드럽지.}

10503 # 그러케 해가꼬, 또 마늘 여코, 파이 여코, 그래서 꿩꿩 여치머.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마늘 넣고, 파 넣고, 그래서 꺾꺾 넣지 뭐.}

10503 @ 그저설 보까, 북 보까서 여 그냥 여, 썬겔로 여? {그것을 볶아, 북 볶아서 넣어 그냥 넣어, 생 것으로 넣어?}

10503 # 보까 여야제, 지르미다 보까서. {볶아 넣어야지, 그림에다 볶아서.}

10503 @ 음. {음.}

10503 # 지르므다 살살 보까가꼬. {기름에다 살살 볶아가지고.}

10503 @ 그거설 다 너, 써꺼서 보까 이? {그것을 다 넣, 섞어서 볶아 이.}

10503 # 다 서꺼 @ 그먼 고기도 다 이켜 # 다 익찌 머 고기랑. {다 섞어 @ 그러면 고기도 다 익혀 # 다 익지 뭐 고기랑.}

10503 @ 이켜서 년담 마리여 이? {익혀서 넣는단 말이여 이?}

10503 # 이켜서 여야지 그거 기양 그러케 하며, 고기가 잘 안 익찌 머. {익혀서 넣어야지 그것 그냥 그렇게 하면, 고기가 잘 안 익지 뭐.}

10503 @ 음음음. {음음음.}

10503 # 그래서 그케 해서 미려여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밀어 넣어서.}

10503 @ 거먼 가늘 미리 마취가꼬? {그러면 간을 미리 맞춰가지고?}

10503 # 가넌 쌍 마추제. {간은 짹 맞추지.}

10503 # 그레 그걸 다 한티다가 너가지고 머거보머는 간이 맞꾸나. {그레 그것을 다 한 곳에다가 넣어가지고 먹어보면 간이 맞구나.}

10503 # 그럼 인자 여, 미려여서 @ 음. # 이리 가마에다 찌지 머. {그럼 이제 여, 밀어 넣어서 @ 음. # 이리 가마에다 찌지 뭐.}

10503 @ 음. {음.}

10503 # 그레가꼬 이르게 이르게 써르먼 마신편. {그레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썰면 맛있지.}

10503 @ 음. {음.}

10503 @ 자 그먼 가지는 가지 순대도 하고 또 다 아닐 때는? {자 그러면 가지는 가지 순대도 하고 또 다 아닐 때는?}

10503 # 가지 순대도 하고, @ 그먼 가지 쪽 빼낸 거슨 머헤, 순대헐라고 가지 속 빼낸거슨? {가지 순대도 하고, @ 그러면 가지 속 빼낸 것은 뭐 해, 순대하려고 가지 속 빼낸 것은?}

10503 @ 버려? {버려?}

10503 # 속 속 빼낸거 먹 먹찌머. {속 속 빼낸 것 먹 먹지 뭐.}

10503 # 머거도 되고 버려도 되고, 월래는 버리지 머. {먹어도 되고 버려도 되고, 원래는 버리지 뭐.}

10503 # 그리고 가지 채 해먹꼬. {그리고 가지 채 해먹고.}

10503 @ 어떻게 채 해머거? # 지르메다 쏘라서 @ 음. {음.} # 이러케 짹짹 쏘라가지고, 기름으다 다까먹찌 양념 여코. {어떻게 채 해먹어? # 기름에다 썰어서 @ 음. # 이렇게 길쭉길쭉 썰어가지고, 기름에다 뒤어먹지 양념 넣고}

10503 # 그러케 그러케 먹찌머. {그렇게 그렇게 먹지 뭐.}

10503 @ 그 그거슬 찌가지고 찌지고 무쳐먹기도 해요? {그 그것을 찌가지고 찌지기 무쳐먹기도 해요?}

10503 # 어 찌가지고 쭈::쭈 찌서, 찌서 이러케 무쳐서 먹꼬. {어 찌가지고 쭈쭈 찢어서, 찢어서 이렇게 무쳐서 먹고.}

10503 @ 그때 무칠 때는 먼 너? {그때 무칠 때는 무엇 넣?}

10503 # 그 양념 여야지 그거또, 그거또 마늘 여코, 파이 여코, 만내기 여코, 꼬치
까리다가 {그 양념 넣어야지 그것도, 그것도 마늘 넣고, 파 넣고, 만내기 넣
고, 고춧가루에다가.}

1.5.3. 간장, 된장

10520 @ 그며는 그냥 간장이 마신쓰며는 대부분 마신겐네 이? {그러면은 그냥 간
장이 맛있으면 대부분 맛있겠네 이?}

10520 # 간장만 마신쓰면 간장 쪼끔썰 여서 다 마신찌머. {간장만 맛있으면 산장
조금씩 넣어서 다 맛있지 뭐.}

10520 # 근디 간쟁이 마시 업써. {그런데 간장이 맛이 없어?}

10520 @ 왜? {왜?}

10520 # 싸다 멍는 간쟁인개. {사다 먹는 간장이니까.}

10520 @ 아::! {아!}

10520 # 지비서 허는 간장 아인개 @ 우리는 간장 헐끄든, 그냥 마신써. @ 지비
서 하지 안는다 마리어. @ 우리 지비서 헐써 지난버네 함번. # 어! @ 두번
인가 그래서 간장이 마신써. {집에서 하는 간장 아니니까 @ 우리는 간장
했거든, 그냥 맛있어. @ 집에서 하지 안는다 말이어. @ 우리 집에서 했어
지난번에 한 번. # 어! @ 두 번인가 그래서 간장이 맛있어.}

10520 @ 된장은 함번 더 # 자주 벨 찌우면 더 마신쏘. {된장은 한 번 더 # 자주
벨 쪼이면 더 맛있소.}

10520 @ 어떠케? # 간장. {어떻게? # 간장.}

10520 # 장뚝 장뚝 업써? @ 인써. {장뚝 장뚝 없어? @ 있어.}

10520 @ 그 자꾸 # 그 장뚝 @ 쪼라들자나? # 어, 장또그다 안 내놔? {그 자꾸 #
그 장뚝 @ 줄어들잖아? # 어, 장뚝에다 안 내놔?}

10520 @ 나린데 내날따가 냉장고다 너 널써. 너무나 쪼라드러가꼬. {*밖에다 내놔
다가 냉장고에다 너 너었어, 너무나 줄어들어가지고.}

10520 # 아:: 그래! {아 그래!}

10520 @ 그 쪼라들지 아너? {그 줄어들지 않아?}

10520 # 쪼라, 베치 쫄지머 @ 예. # 쪼라드러. {줄어, 별에 줄지 뭐 @ 예. # 줄
어들어.}

10520 @ 그 쪼라드러도 일업써? {그 줄어들어도 괜찮아?}

10520 # 일업찌머. {괜찮아.}

10520 # 조 쪼라드능거 머 쪼끔 쪼라들지 마이 안쪼라들지 머 그러케. {조 줄어드
는 것은 뭐 조금 줄어들지 많이 안 줄어들지 뭐 그렇게.}

10520 @ 그래요? {그래요?}

10520 # 응. {응.}

10520 @ 아::! {아!}

1.5.3. 간장 담그기

10520 @ 그며는 간장을 어트게 다마 여기는? {그러면은 간장을 어떻게 담아 여기는?}

10520 # 그렇게 간장 메주 콩, 메주 썬 썬가지고서 그건 떠와서 @ 응. # 그다메 띄우, 다 뜯너네 인자 이러케. {그러니까 간장 메주 콩, 메주 썬 썬가지고서 그것 띄워서 @ 응. # 그 다음에 띄우, 다 뜯 연에 이제 이렇게.}

10520 # 짜개서 @ 음. # 도가지다 여쿠 물부서 소금 여코 @ 음. # 그러케 하며는 간장이 빨거 저기 시커머케 나온다 마리어 그면. @ 그러치. {짜개서 @ 음. # 독에다 넣고 물 무어 소금 넣고 @ 음. # 그렇게 하면은 간장이 별정 저기 시커멓게 나온다 말이여 그러면. @ 그렇지.}

10520 # 메주가 잘 떠야되야. {메주가 잘 떠야 돼.}

10520 @ 음음음. {음음음.}

10520 # 메주가. {메주가.}

10520 @ 음. {음.}

10520 # 그 시커머케 되면 인자 그놈 메주 건지내고 @ 음. # 그다메 보이다가 이러케 거그 찌끄레기 @ 음. # 찌끄기 안 드러가게 보이다가 이캐서 떠가지고는 가매서 다리야지. {그 시커멓게 되면 이제 그놈 메주 건져내고 @ 음. # 그 다음에 보에다가 이렇게 거기 찌꺼기 @ 음. # 찌꺼기 안 들어가게 보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는 가마에서 달여야지.}

10520 @ 아::! {아!}

10520 # 가매다. {가마에다.}

10520 @ 가매다 안 다리며는 간장이 마시 업써? {가마에다 안 달이면 간장이 맛이 없어?}

10520 # 아이, 거저 그래도 다리야 조아. {아니, 그저 그래도 달여야 좋아.}

10520 @ 그래요? {그래요.}

10520 # 응. {응.}

10520 @ 우리 지난버네 안 다려끄던. {우리 지난번에 안 다렸거든.}

10520 # 저그서 기양 떠멍는거또 갠차나, 베틀다 떼우능건. @ 음 베틀다. # 항구게서는 그러케 안 쪼리제. {저기서 그냥 떠먹는 것도 괜찮아, 별에다 띄우는 것. @ 음 별에다. #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줄이지.}

10520 @ 음, 쪼리기 # 아이, @ 쪼리기도 해. # 쪼리기도 허지만 해도 @ 지난번 # 가년 @ 쪼릴라고 헐떠니 # 그노멀 기양 떠멍넌 거또 일땀 마리어, 만땀 마리어. {음, 줄이기 # 아니, @ 줄이기도 해. # 줄이기도 하지만 해도 @

지난번 # 깨는 @ 줄이려고 했더니 # 그놈을 그냥 떠먹는 것도 있단 말이여, 땀단 말이여.}

10520 # 내 쪼그마내서 보머넌. {내 조그만해서 보면.}

10520 @ 글차 그러면 인자 고로케 하고, 그 그 거더넌 메주는 머해?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그 걸어넌 메주는 뭐해?}

10520 # 된장, 된장 맨드러노면 그노미 얼마나 마신타고 또. {된장, 된장 만들어놓으면 그놈이 얼마나 맛있다고 또.}

10520 @ 음. {음.}

10520 # 된장, 된장쪽 된장쪽 끄리고. {된장, 된장국 된장국 끓이고.}

10520 @ 그러면 결국근 그 메주가 조아야만... {그러면 결국은 그 메주가 좋아야만...}

10520 # 메주는 메주가 잘 떠야 되야. {메주는 메주가 잘 떠야 돼.}

10520 @ 그거이 잘 떠야만 장도 마신킷 되장도 마신킷 글건네 이? # 그럼. {그것이 잘 떠야만 장도 맛있고 된장도 맛있고 그렇겠네 이? # 그럼.}

10520 # 메주가 잘 떠야 되야. {메주가 잘 떠야 돼.}

10520 @ 그 메주 잘 떼능 거슨 어트게 어트게 잘 떠저? # 아이 그거 저절로 뜨능 건 어트게해 방법 업써. {그 메주 잘 띄우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잘 떠저? 아니 그것 저절로 뜨는 것 어떻게 해 방법 없어.}

10520 @ 방법 업써? # 응. {방법 없어? # 응.}

10520 # 그 그래노면 저절로 공개 절 덤능가 머, 몬 덤능가 그개 일제. {그 그래놓으면 저절로 그러니까 저것을 덮는가 뭐, 못 덮는가 그것이 있지.}

10520 # 말려서 인자 착착 쟁인다 마리오. {말려서 이제 착착 쟁인다 말이요.}

10520 @ 응. {응.}

10520 # 쟁이 놔야제 쟁이노코 이르케. {쟁여 놓아야지 쟁여놓고 이렇게.}

10520 # 저 소캐 포대기 @ 응. # 그노멸 탁 더퍼노면 잘 뜬담말이여. {조 솜 포대기 @ 응. # 그놈을 탁 덮어놓으면 잘 뜬단 말이여.}

10520 @ 응. {응.}

10520 @ 그거시 안 안 따뜨더머는 # 아이 저 @ 안뜨능가? # 땀 고려쌈 짜저 훈지미 일써야 그뇌미 잘 뜬다고, 훈지미 나야. {그것이 안 안 따듯하면 # 아니 저 @ 안 뜨는가? # 땀 그렇게 쌈 짜서 훈김이 있어야 그놈이 잘 뜬다고, 훈김이 나야.}

10520 # 차가부면 안떠. {차가우면 안 떠.}

1.5.3. 고추장 담그기

10520 @ 꼬추장은 어트게 만들고? {고추장은 어떻게 만들고?}

10520 # 꼬치장언 인자 거그따가 메주 깔기 메주 찌어서 @ 음. # 채로 추제, 꼬

치장얼 맨드는게. {고추장은 이제 거기에다가 메주 가루 메주 찌어서 @
음. # 채로 치지, 고추장은 만드는 게.}

10520 @ 그러면 똑까튼 메주여? {그러면 똑같은 메주야?}

10520 # 똑까튼 메주지 머, 그건 그 메주 가꼬, @ 예 그메주 가꼬 # 빠시서 채로
치제. {똑같은 메주지 뭐, 그것 그 메주 갖고, @ 예 그 메주 갖고 # 부셔서
채로 치지.}

10520 @ 음. {음.}

10520 # 채로 @ 갈그 내 # 갈구 내지머. {채로 @ 가루 내 # 가루 내지 뭐.}

10520 @ 어. {어.}

10520 # 그래 그 갈구 내가지고는 거그다 꼬치까리 머 꼬치까루를 궁개 고:게 빠
시야지 가늘개. @ 음::. {그래 그 가루 내 가지고는 거기다 고춧가루 뭐 고
춧가루를 그러니까 곱게 부셔야지 가늘게. @ 음.}

10520 # 그래가지고 소금 여서 가너지 버물른 거지. {그래가지고 소금 넣어서 간
하지 버무린 것이지.}

10520 @ 찹쌀로 # 주글 꼬리야지. @ 찹쌀로 주글 꼬레서? {찹쌀로 # 죽을 끓여
야지. @ 찹쌀로 죽을 끓여서?}

10520 # 찹쌀로 주글 꼬리서 멀거케 꼬리야지. {찹쌀로 죽을 끓여서 멀정게 끓여
야지.}

10520 @ 아 멀거케 꼬레요? # 아, 멀거케 꼬리가지고는 그 무리다가 버무린다 말
이여. {아 멀정게 끓여요? # 아, 멀정게 끓여가지고는 그 물에다가 버무린
다 말이여.}

10520 # 거기 저기 메주까리제 꼬치까리제 @ 소금 # 소금이다가 그리 한티다 버
물러가지고 다마노면 지절로 마시 드 들지 머. {거기 저기 메줏가루지 고춧
가루지 @ 소금 # 소금이다가 그렇게 함께 버무려가지고 담아놓으면 저절
로 맛이 드 들지 뭐.}

10520 @ 음. {음.}

10520 # 그러케 하지머. {그렇게 하지 뭐.}

10520 @ 꼬추장은 오래 뒤도 갠차나? {고추장은 오래 뒤도 괜찮아?}

10520 # 오래 뒤도 일업써. {오래 뒤도 괜찮아.}

10520 # 감만 마즈면 오래: 뒤도 일업써. {간만 맞으면 오래 뒤도 괜찮아.}

10520 @ 바까테다가 # 응. @ 장또게다가? # 배갈 장뚝따 오래 놔뒤도 일업써 고
치장언. {바깥에다가 # 응. @ 장독에다가? # 바깥 장독에다 오래 놔뒤도
괜찮아 고추장은?}

10520 @ 꼭 다 다 다 쪼라드러가꼬 꼭 업써질껀 가터. {꼭 다 다 다 좋아들어가
지고 꼭 없어질 것 같아.}

10520 # 아::니, 안 업써저. {아니, 안 없어져.}

10520 @ 응::. {응.}

10520 @ 그 헛헛 난데다 놔야대 이, # 응. # 장또걸 이? {그 헛헛 난 데다 놔야 돼 이, # 응. # 장독을 이?}

10520 # 헛헛 난디다가, 벤난디다. {헛헛 난 데다가, 헛헛 난 데다.}

10520 # 그렇게로 헛헛 아난 안나게 할라면 또 머 그런 보, 큰 보 일쓰면 보로 더 푸번 또 갠찬치 머. {그러니까 헛헛 안 안 나게 하려면 또 뭐 그런 보, 큰 보 있으면 보로 덮으면 또 괜찮지 뭐.}

10520 @ 자! 인자 고추장까지 다 헛꼬... {자! 이제 고추장까지 다 헛고...}

10520 # 고추장까지 다헛꼬... {고추장까지 다 헛고...}

1.9. 특수 지역 조사

1.9.2. 고기잡이

10904 @ 여기서는 여기서는 혹씨 뭐 찌 강으로 고기자비 가통거 양가? {여기서는 여기서는 혹씨 뭐 저 강으로 고기잡이 같은 것 안 가.}

10904 # 고기재비 땡기지머 땡기는디 머 고기가 업썩개 안 땡겨. {고기잡이 다니 지 뭐 다니는데 뭐 고기가 없으니까 안 다녀.}

10904 @ 고기가 업씨 여기가? # 업씨 약질해싸, 그저니는 고기가 먼터이마넌. {고기가 없어 여기가? # 없어 약질해싸서, 그전에는 고기가 많더니만.}

10904 # 나도 그래서 그저니 우리도 고기재비 헛썩썩. {나도 그래서 그전에 우리 도 고기잡이 헛었어.}

10904 @ 뭇로? {뭇로?}

10904 # 반지. {반지?}

10904 @ 반지가 머여? {반지가 뭐야?}

10904 # 반지도 모르내? {반지도 모른가?}

10904 @ 응. {응.}

10904 # 거물로 저 시방 아니 저 그 생깁게... {그물로 거 시방 아니 저 그 생깁 것이...}

10904 # 모고징 일짜나 @ 애. # 모고장 @ 애애애 # 그러케 생깁겔로 반지를 맨 든담 마리며, 양짜게 이러케 쥐개 나무로. {모기장 있잖아 @ 예. # 모기장 @ 예예예 # 그렇게 생깁 것으로 반지를 만든다 말이며, 양쪽에 이렇게 손 잡이 나무로.}

10904 @ 예. {예.}

10904 # 이러케 그 반 인제 그 모고장 가통거 이르게 낭구에다 이러케 감찌 머. {이렇게 그 반 이제 그 모기장 같은 것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감지 뭐.}

10904 @ 응. {응.}

10904 # 응 그래가꼬는 이마:이 널롭께 {응 그래가지고는 이만하게 넓지.}

10904 # 그렇게로 여 여기는 조끔 좁꼬, @ 응. # 반지 널롭꼬, 여기는 조끔 솔고
 @ 응. # 그러니까 가꼬 땡김서. {그러니까 여 여기는 조금 좁고, @ 응 # 반지 넓고, 여기는 조금 좁고 @ 응. #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10904 @ 아:!! {아!}

10904 # 어 @ 요로케 밀고 땡겨? {어 @ 이렇게 밀고 다녀?}

10904 # 그래 그 그놈 가지고 이러:케 고기 인는 눈치가 나면 그놈 이러케 미 민담 마려 @ 음음. # 그럼 그리 짹 드러가지며. {그래 그 그놈 가지고 이렇게 고기 있는 눈치가 나면 그놈 이렇게 미 민담 말이여 @ 음음. # 그럼 그리 짹 들어가지 뭐.}

10904 @ 음음. {음음.}

10904 # 그래 재비 고기재비 허고 @ 아:!! {그래 잡이 고기잡이 하고 @ 아!}

10904 # 또 어트개 하능가면 @ 그걸 반지라구레?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 그것을 반지라고 해?}

10904 # 반지. {반지.}

10904 # 반지. {반지.}

10904 @ 그먼 이러케 동그람 아페가 똥그람허건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앞에 가 동그란 하겠네?}

10904 # 야, 아 아피 이러케 @ 네모저? # 요로케 생게찌며. {야, 아 앞이 이렇게 @ 네모 저? # 이렇게 생겼지 뭐.}

10904 # 아, 여그년 이러:케 생기고 어? {아, 여기는 이렇게 생기고 어?}

10904 @ 예. {예.}

10904 # 여그년 여편 요로케 생게따 마리며. {여기는 옆은 이렇게 생겼다 말이여.}

10904 # 그래가꼬 요케, 그러면 여그 쥐고, 그래가꼬 땡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여기 쥐고, 그래가지고 다니고.}

10904 # 그다메... {그 다음에...}

10904 @ 족때허고 쫘 달 따? 달라? {족대하고 쫘 달 달라? 달라?}

10904 # 반지나 족때나 향가질끼요, 향가지여. {반지나 족대나 한가지일 거요, 한가지야.}

10904 @ 족때는 양 양쪼게 남 나무에다가 이러케 그 저 그물헤가꼬 이러케 뜨 뜨 능거시 족때지? # 족때제. {족대는 양 양쪽에 남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저 그물 헤가지고 이렇게 뜨 뜨는 것이 족대지? # 족대지.}

10904 # 그러케 해서 뜨능게 족때고. {그렇게 해서 뜨는 것이 족때고.}

10904 @ 거르케 해서 자부머년 얼마나 자발썬 언나레는, 함번 나가며는? {그렇게 해서 잡으면 얼마나 잡았어 옛날에는, 한 번 나가면?}

10904 @ 한 함번 # 한 두 쥐 사발씩 자바오제. {한 한 번 # 한 두 쥐 사발씩 잡아오지.}

10904 @ 그러? {그래?}

10904 # 어. {어.}

10904 @ 그머는 # 근데 @ 반차니 되건네? {그러면은 # 근데 @ 반찬이 되겠네?}

10904 # 반차니 실큰 되제. {반찬이 실컷 되지.}

10904 # 근디 머를 또잡는가먼 @ 응. # 바께 그 단지 일짜나 @ 애. # 큰 단지? @ 애. # 그렇기 자근 단지 요마:난 단지 키가 요마나제. {그런데 뭐를 또 잡는가 하면 @ 응. # 밖에 그 단지 있잖아 @ 예. # 큰 단지? @ 예. # 그런 것이 작은 단지 이만한 단지 키가 이만하지.}

10904 @ 애. {예.}

10904 # 그러면 거그다 장을 여 @ 애. # 된장. {그러면 거기다 장을 넣 @ 예. # 된장.}

10904 # 된장을 그 무 그 아네다 머릴 여코, 된장얼 너 여머는 여코서는 이케 강 여가리다가 가따 논는다 마리어. {된장을 그 무 그 안에다 뒷을 넣고, 된장을 넣 넣으면 넣고서는 이렇게 강 옆에다가 갖다 놓는다 말이어.}

10904 @ 강 강 강 아네다 이? {강 강 강 안에다 이?}

10904 # 예, 그 강 아네다가. {예, 그 강 안에다가.}

10904 # 근디 그저 넘쳐나지 양케 @ 응. # 안넌디다가 봐야제. {그런데 그저 넘쳐나지 양케 @ 응. # 안 넣은 데다가 봐야지.}

10904 # 그 무리 이러케 너머오:서 단지로 드러가지 양케. {그 물이 이렇게 넘어서 단지로 들어가지 양케.}

10904 @ 음. {음.}

10904 # 안넌 디다가 가따 노먼, 고기가 놀다가도 그 장:냄새 난다 마리어. @ 예. {안 넣은 데다가 갖다 놓으면, 고기가 놀다가도 그 장 냄새 난다 말이어. @ 예예.}

10904 # 그러면 그 단지 아느로 드러간다고. {그러면 그 단지 안으로 들어간다고.}

10904 @ 그래요? {그래요?}

10904 @ 아! 물쏘게다 안넌는데, 모가지를 물쏘게다 안 넌는데도? {아! 물속에다 안 넣었는데, 모가지를 물속에다 안 넣었는데도?}

10904 # 안 넌는데도 무리 이러케, 공개 이 이게 단지 모가지 아니여 @ 예. # 그러면 요로케 찰람찰람히 요만츠 온다마리요 @ 예예. # 무리 @ 예. # 이 위로 푹 안 올라오고. {안 넣었는데도 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게 단지 모가지 아니야 @ 예. # 그러면 이렇게 찰랑찰랑히 이만큼 온다 말이요 @ 예예. # 물이 @ 예. # 이 위로 푹 안 올라오고.}

10904 @ 예예. {예예.}

10904 # 그러케 하머는 그리 후뜩 뛰드러 간다고 그 장내 맡꼬. {그렇게 하면 그

리 훌쩍 뛰어 들어간다고 그 장 냄새 맡고.}

10904 @ 어::! {어!}

10904 # 그래서 또 더러 마니 자바 머건써, 절머쓸 때. {그래서 또 더러 많이 잡아먹었어, 젊었을 때.}

10904 @ 어::! {어!}

10904 # 근디 지그문 약찌럴 헤쌍개 강행 고기 업써. {그런데 지금은 약질을 해싸니까 강에 고기 없어.}

10904 # 여기가 아페 아페 강행 그러케 고기가 이쨌는다. {여기가 앞에 앞에 강에 그렇게 고기가 있었는데.}

10904 # 그러케 해서 자바먹코. {그렇게 해서 잡아먹고.}

10904 @ 어디나 다 약때미 문제그만 이 농약때무네. {어디나 다 약 때문에 문제구먼 이 농약 때문에.}

10904 # 약때미 문제여. {약 때문에 문제야.}

10904 # 야기 야글 차::꼬 처, 아! 그저니는 약절 아낭개 그러더니 지그먼 머 열러나면 약까지고 지랄덜 항개. {약이 약을 자꾸 처, 아! 그전에는 약 질 안하니까 그러더니 지금은 뭐 얼른하면 약 가지고 지랄들 하니까.}

10904 @ 그러니까 저 야글 제초제는 모메 안조은데 제초제를 그러케 막 꺼떠거먼 풀주긴다고 야글 그러케 허먼 어트케혀. {그러니까 저 약을 제초제는 몸에 안 좋은데 제초제를 그렇게 막 까딱하면 풀 죽인다고 약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10904 # 아먼. {암.}

10904 @ 어제 보니까 이 엽쩍또 마당에다도 그걸 치 치드만. {어제 보니까 이 옆집도 마당에다도 그걸 쳐 치더만.}

10904 # 어어, 그러케 약따 친다마리여. {어어, 그렇게 약 다 친다 말이여.}

10904 # 나 우리, 우리 저, 채전밭 저짜게 가넌디 @ 응. # 거기다 약칠라 가능거. {나 우리, 우리 저, 채소밭 저쪽에 가는데 @ 응. # 거기다 약 치려 가는 거야.}

10904 # 야 거그 약 쳐도 자그마이 처라 거그다 붕숭아랑 그러케 싱과난는디 죽꼬, 아래꺼또 곡식 주그메 어쩔라능가 형개 쪼끔 치다가 말드만. {야 거기 약 쳐도 조금만 처라 거기다 복숭아랑 그렇게 심어놔는데 죽고, 아래 것도 곡식 죽으면 어떻게 하려는가 하니까 조금 치다가 말더구먼.}

10904 @ 어:. # 약간씩 칠라고 @ 그 뒤에 찌베서? # 이, 아니. {어. @ 약간씩 치려고 @ 그 뒤에 집에서? #이, 아니.}

10904 # 우리 손자가. {우리 손자가.}

10904 @ 어, 가도 일도 허능구만. {어, 개도 일도 하는구먼.}

10904 # 허, 그러장코 장개가서 아더 아더리 시방 네사링가 다섯쌀 너먼는다. {허, 그렇지 앓고 장가가서 아들 아들이 시방 네 살인가 다섯 살 넘었는데.}

10904 @ 아::! 그 손자! 지베 와인는 그 애 말고? {아! 그 손자! 집에 와있는 그 애 말고?}

10904 # 그 그 그건 아무것도 혈찌 몰라. {그 그 그것 아무것도 할지 몰라.}

10904 # 이이구! {아이구!}

10904 @ 그 손자? # 아 시방 이러도 안낭거 보고 완는디 머. {그 손자? # 아 시방 일어도 안한 것 복고 왔는데 뭐.}

10904 @ 그 지난버네 여기 한 여기 지베 놀로 완뜨만. {그 지난번에 여기 한 여기 집에 놀러 왔더구먼.}

10904 # 어. {어.}

10904 @ 여그서 지금 이 금방 어디 사능잡뜨만. {여기서 지금 이 금방 어디 사는 가보더구먼.}

10904 # 여그 그 저그 뒤에 사라. {여기 그 저기 뒤에 살아.}

10904 @ 장가 간써? {장가 갔어?}

10904 # 아 그렇게 아가 네살무거 아드리. {아 그렇게 아기 네 살 먹어 아들이.}

10904 # 아들 네살 네살 다선싸랑가 그러케 먹꼬 시방 딸 또 석딸 난지가 한 석딸 되고 오류기 나써. {아들 네 살 네 살 다섯 살인가 그렇게 먹고 시방 딸 또 석 딸 낳은지 한 석 딸 되고 오류일 났어.}

10904 # 그래 내가 따른 따른 내 지방 오늘 애기 쪼 보로 가야건는데, 딸라따정개 어찌 존지 애이고 어 자랜따 오도비 일써야지. {그래 내가 딸은 딸은 내 시방 오늘 애기 조 보러 가야겠는데, 따라다니는 것이 어찌 좋은지 아이고 어 잘했다 오누이 있어야지.}

10904 @ 그럴치, 오누비 일쓰면. {그렇지, 오누이 있으면.}

10904 # 오누비 일쓰면 더 조아, 형지보당. {오누이 있으면 더 좋아, 형제보다.}

10904 @ 그 그 그 손자는 일 열씨미 허 허능거 가튼데 # 아이고 잘혀. {그 그 그 손자는 일 열심히 허 하는 것 같은데 @ 아이고 잘 해.}

10904 @ 그머는 인자 그 거그는 살마네? {그러면은 이제 그 거기는 살만해?}

10904 # 으? {으?}

10904 @ 그 사라면 살만 해? # 살만 햐. {그 사람은 살만 해? # 살만 해.}

10904 # 괜차나 일업쪼 그림찌 안치머, 뭐이. {괜찮아 괜찮아 그림지 않지 뭐, 뭐.}

10904 @ 그림판 마른 무슨 마리여? {그림판 말은 무슨 말이야?}

10904 # 그림따능기 아습판 마리제 예. {그림다는 것이 아습단 말이지 예.}

10904 # 머가 아수바 아이 하다 마리제. {뭐가 아쉬워 아니 하다 말이지.}

10904 # 다 이쫁개. {다 있으니까.}

1.3. 생업 활동

1.5.3. 옥수수 농사

- 10307 @ 그 노니 얼마나 대 놔받 놔바치? {그 노니 얼마 돼 논밭 논밭이?}
- 10307 # 그건 잘 모르겄씨 얼맨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얼만지.}
- 10307 @ 그면 엔나라 아버지가 지던 # 시방 저기 저 강냉이밭 저그 여그서 보면 저그 강냉이 보이자나 @ 응. # 그건 가들 바시라고. {그러면 옛날에 아버지가 지던 # 시방 저기 저 강냉이 밭 저그 여기서 보면 저기 강냉이 보이잖아 @ 응. # 그것 개들 밭이라고.}
- 10307 # 강냉이 잘: 되얏평만. {강냉이 잘 되었더구먼.}
- 10307 @ 그머는 그 어찌튼 그래도 한 한 한 두쌍 세쌍은 돼 땅이? {그러면은 그 어찌튼 그래도 한 한 한 두 쌍 세 쌍은 돼 땅이?}
- 10307 # 땅이 모두 해서 한 서넛쌍 되능가. {땅이 모두 해서 한 서너 쌍 되능가.}
- 10307 @ 여그 씨람들 대부분 다 그 정도 되능가? {여기 사람들 대부분 다 그 정도 되능가?}
- 10307 # 응, 응? {응, 응?}
- 10307 @ 여기 씨람드른 대부분 다 그 정도 그 정도 돼?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정도 그 정도 돼?}
- 10307 # 야, 그정도 되고, 어떤 사라문 더 되고, 더 마넌 사람 마이 허고. {야, 그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더 되고, 더 많은 사람 많이 하고.}
- 10307 # 녀쌍쫘 되넌 사람도 인넌디 며. {녀 쌍쫘 되는 사람도 있는데 뭐.}
- 10307 @ 녀쌍쫘 되면 요 아페도 한 # 여그 월래 일편 사람더리 그러케 만치. {녀 쌍쫘 되면 이 앞에도 한 # 여기 원래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 10307 @ 여기 우리 압집 그 나 나 자고 인는 그 집또 한 녀쌍 되능거 가튼데. {여기 우리 앞집 그 나 나 자고 있는 그 집도 한 녀 쌍 되는 것 같은데.}
- 10307 # 응, 그 지비도 그러케 될끼여, 그 지비도 마나. {응, 그 집도 그렇게 될 거여, 그 집도 많아..}
- 10307 @ 그면 녀쌍쫘도면 여기 이 동네서는 마능거여? {그러면 녀 쌍 쫘 정도면 여기 이 동네서는 많은 거여?}
- 10307 # 마:능거제. {많은 거지.}
- 10307 @ 옥씨가통거슨 한쌍에서 한쌍 시무면 옥쭤가 얼마나 나와? {옥수수 같은 것은 한 쌍에서 한 쌍 심으면 옥수수가 얼마나 나와?}
- 10307 # 그건 나 모르겄씨, 그러가는 잘 몰라 얼마 나오능가. {그건 나 모르겠어, 그런가는 잘 몰라 얼마 나오능가.}
- 10307 @ 그면 옥씨는, 나 옥씨 농사는 어트게 지능가 몰르겄씨. {그러면은 옥수수는, 나 옥수수 농사는 어떻게 짓는가 모르겠어.}

10307 @ 옥씨 농사좀 설명해줘바. {옥수수 농사 좀 설명해줘 봐.}

10307 # 아 옥씨 농사사 @ 으 그 강냉이? # 강냉이, 강냉이 농사사 그제 뽕로 땅 받까리 하고서는 @ 응. # 이러케 구덩이를 째찌로 판담 마리여. {아 옥수수 농사야 @ 으 그 강냉이? # 강냉이, 강냉이 농사야 그제 뽕로 땅 받같이 하고서는 @ 응. # 이렇게 구덩이를 팽이로 판단 말이여.}

10307 @ 예. {예.}

10307 # 구덩이는 째찌로 파고 어느 정도 시무면 되거따 하고 째찌로 파제. {구덩이는 팽이로 파고 어느 정도 심으면 되겠다 하고 팽이로 파지.}

10307 @ 예예. {예예.}

10307 # 그러케 그러케 파노코는 강냉이를 메개쌍 년능가면 두개년 또 잘못되면 안똥개 세개씩... @ 음, 다 또가 세개쌍만 너? # 어 새개씩. {그렇게 그렇게 파놓고는 옥수수를 몇 개씩 넣는가 하면, 두개는 또 잘 못되면 안 되니까 세 개씩... @ 음, 다 똑같이 세 개씩만 넣어? # 응 세 개씩.}

10307 # 또 어떻게는 두개도 드러갈 쭈도 일제, 근디 하나는 안되지머. {또 어떤 것은 두 개도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는 안 되지 뭐.}

10307 # 하나는 잘못되면 그만 땅이 빈담마리여. @ 음음. {하나는 잘 못되면 그만 땅이 빈단 말이여. @ 음음.}

10307 # 그렇게 그러케 싱귀씨 싱귀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머 바슬 매능가 머슬 하능가 그제... {그러니까 그렇게 심어서 심어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받을 매능가 뒷을 하는가 그제...}

10307 @ 자 인자 싱귀씨, 그먼 인자 야가 야가 인자 싸기 날씨 이? {자 이제 심었어, 그러면 이제 야가 야기 이제 째이 났어 이?}

10307 # 싱귀씨. {심렸어.}

10307 @ 싸기 웬만큼 나면, 마냐게 세개나 두개나 나면 어트게 해? {째이 웬만큼 나면, 만약에 세 개나 두 개나 나면 어떻게 해?}

10307 # 속까내야제. {숙아내야지.}

10307 @ 어 안중결 소까내 이? {어 안 좋은 것을 숙아내 이?}

10307 # 어. {어.}

10307 @ 그리고 항개만 냉겨? # 한 한줄씩 비와노치 머. {그리고 한 개만 남겨? # 한 한 줄씩 비워놓지 뭐.}

10307 # 소까내야제 한줄씩 싱귀 싱귀나야제 또 그러케 나면 올 옥씨 이삭 잘 안 달린다 마리여. {숙아내야지 한 줄씩 심귀 심귀놔야지 또 그렇게 나면 올 옥수수 이삭 잘 안 달린다 말이여.}

10307 @ 자 그먼 하나가 인자 나왈씨 그머는 하나가 쪽 크면 옥씨가 뽕개 열려? {자 그러면 하나가 이제 나왔어 그러면은 하나가 쪽 크면 옥수수가 몇 개 열려?}

10307 # 항개. {한 개.}

10307 @ 월래? {원래?}

10307 # 한 대에 딱 항개쌍 여러. {한 대에 딱 한 개씩 열어.}

10307 # 그러고 어떻게던 병시킨 두개 열고. {그리고 어떤 것은 병신은 두 개 열고.}

10307 @ 그려? {그래?}

10307 # 어. {어.}

10307 @ 어::! {어!}

10307 # 그저 부 병시니 두개 여는디, @ 어. # 하나는 안여문다고, 잘 안너무러. {그저 부 병신이 두 개 여는데, @ 어. # 하나는 안 여문다고, 잘 안 여물어.}

10307 @ 두개 열면 하나를 따 따내줘야젠네? {두 개 열면 하나는 따 따내줘야겠네?}

10307 # 그거슨 내비두지머, 안 따내주지 머. {그것은 내버려두지 뭐, 안 따내주지 뭐.}

10307 # 일 업찌머 온 월래 하나 달린디는 똑또기 달린담 마리어 거그넌. {괜찮지 뭐 온 원래 하나 달린 데는 똑똑히 달린단 말이여 거기는.}

10307 @ 음. {음.}

10307 # 그렇게 그 후에 달링거는 쫘 @ 우리나라 나는 해받떠니 막 메깨씩 달링 거 갠텐데. {그러니까 그 후에 달린 것은 쫘 @ 우리나라 나는 해보았더니 막 몇 개씩 달린 것 같던데.}

10307 # 부실하담 마리오. {부실하단 말이요.}

10307 @ 우리는 맨깨씩 달링걸 가테. # 아 그래요 어 여그넌 두개씩 달려. {우리는 몇 개씩 달린 것 같아. # 아 그래요 어 여기는 두 개씩 달려.}

10307 @ 항개씩 무조건 이? {한 개씩 무조건 이?}

10307 # 어. {어.}

10307 @ 그먼 항개씩 달려 그래가꼬 다 이그면 어트게 어트게 허면 이근지 아라? {그러면 한 개씩 달려 그래가지고 다 익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익은지 알아?}

10307 # 시에미 썩 꼬시룬다 마리어, 저 썩 다 업써진다 마리어. {수염이 썩 그을린다 말이여, 저 썩 다 없어진다 말이여.}

10307 @ 어:. {어.}

10307 # 빨가케 시커머케. {빨강케 시커멓게.}

10307 @ 어. {어.}

10307 # 시에미 월래는 빨가케 나오지 @ 음. # 그러면 인자 그노미 웅가니 되머는 꺾따 마리어 쉬여미 @ 음. # 그러고는 이파리가 썩 마르제. {수염이 원래는 빨강케 나오지 @ 음. # 그러면 이제 그놈이 웬만큼 되면 꺾다 말이여 수염이 @ 음. # 그러고는 잎이 썩 마르지.}

10307 @ 음. {음.}

10307 # 그러면 다 되야꾸나 하고 막 가실하제. {그러면 다 되었구나 하고 막 가실하지.}

10307 @ 그먼 가서 이러케 일리리 인자 그점만 따는거여 옥씨만? {그러면 가서 이렇게 일일이 이제 그것만 따는 거야 옥수수만?}

10307 # 가실헌다 마리여. {가실한다 말이여.}

10307 @ 다 나무를 베? # 다 그... {다 나무를 베? # 다 그...}

10307 # 옥씨 낭구를 다 베재껴 @ 음음. # 무듬 무듬 무듬 무제노체 머. {옥수수 나무를 다 베졌겨 @ 음음. # 무듬 무듬 무듬 무저 놓지 뭐.}

10307 @ 음. {음.}

10307 # 그럼 인자 그거 가서 안자서 까:. {그럼 이제 그것 가서 앉아서 까.}

10307 @ 일리리 사람드리 까능거여 그거? # 어, 사لامي 일리리 까야 되야. {일일이 사람들이 까는 거야 그거? # 어, 사람이 일일이 까야 돼.}

10307 # 아 그거머 이리 마나: 그노무거 @ 그거 이리 만컨네 이? {아 그거 뭐 일이 많아 그놈의 것 @ 그거 일이 많겠네 이?}

10307 # 마나 그리, 일리리 까가지고넌... {많아 그 일이, 일일이 까가지고는...}

10307 # 실코 와서넌 또 창꼬에다 또 너난따가 마르면 또 그놈 기계로, 이러케 돌리는, 그저네는 또 이러케 미는 강냉이 기계가 다 요로케 요로케 인넌디, 요 꼬쟁이가 쇠꼬쟁이가 일따 마리오. {싣고 와서는 또 창고에서 또 넣어놓았다가 마르면 또 그놈 기계로, 이렇게 돌리는, 그전에는 또 이렇게 미는 강냉이 기계가 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꼬챙이가 쇠꼬챙이가 있다 말이요.}

10307 @ 애. {예.}

10307 # 근노무로 이러케 따지 그렇게 썸드러. {그놈으로 이렇게 따지 그러니까 힘들어.}

10307 @ 음. {음.}

10307 # 그렇게 지그먼 그저 거그다가 여 여노, 기계다 여코 이르케 돌리기만 허면 막 강냉이가 줄줄줄줄 나오제, 강냉이 알만.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거기다가 너 넣어, 기계에다 넣고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막 강냉이가 줄줄줄줄 나오지, 강냉이 알만.}

10307 @ 음. {음.}

10307 # 송치는 우에로 손꼬, 강냉이 아른 미트로 떠러지고. {송치는 위로 솟고, 강냉이 알은 밑으로 떨어지고.}

10307 # 그러케 따. {그렇게 따.}

10307 @ 그먼 인자 그러케 해서 # 그르맨 시방은 농사질 해머거도 참 조타 그거여.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 그러면 시방은 농사질 해먹어도 참 좋다 그거여.}

10307 @ 그먼 인자 그러케 해서 그 강냉이는 다 그먼 누가 사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강냉이는 다 그러면 누가 사가?}

10307 # 인자 누가 사갈싸람 이쓰면 사고, 그라너면 쪼끔씩 하년 지븐, 그 자기 또 찢어서 해먹기도 하고. {이제 누가 사갈 사람 있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하는 집은, 그 자기 또 찢어서 해먹기도 하고.}

10307 # 또 짐승 일쓰면 짐승도 미기고 그러지며. {또 짐승 있으면 짐승도 먹이고 그러지 뭐.}

10307 @ 그며는 전부다 찰강냉이만 시머? {그러면은 전부다 찰강냉이만 심어?}

10307 # 찰강냉이만 시무면 안되야. {찰강냉이만 심으면 안 돼.}

10307 # 짐승 미길랑개 메강냉이도 시머야제, 메강냉이도, 짐승을 미길랑개. {짐승 먹이려니까 메강냉이도 심어야지, 메강냉이도, 짐승을 먹이려니까.}

10307 # 찰강냉이는 열매씩 안 시머, 찰강냉이는 쪼끔씩 심그제. {찰강냉이는 열매씩 안 심어, 찰강냉이는 조금씩 심지.}

10307 @ 어:. {어.}

10307 # 그러고는 메강냉이 마이 싱구제. {그리고는 메강냉이 많이 심지.}

10307 @ 음. {음.}

10307 @ 메강냉이 마니 심꼬, 그먼 메강냉이는 주로 곡씩 메게 머야 짐승 메길라고 허능거여? # 짐승 미길라고. {메강냉이 많이 심고, 그러면 메강냉이는 주로 곡식 먹여 뭐야 짐승 먹이려고 하는 거야? # 짐승 먹이려고.}

10307 # 짐승 미길라고, 사람 머글, 사라미 마이 머글라고 하능기 아니라, 짐승 미길라고 이러케 파라먹기도 하고. {짐승 먹이려고, 사람 먹을, 사람이 많이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먹이려고 이렇게 팔아먹기도 하고.}

10307 @ 그먼 파라머그먼 나는, 그 메강냉이를 파라머그먼 그 메강냉이로 갈그, 그 가루 가루 내가지고 그걸로 머 해머거 그먼? {그러면 팔아먹으면 나는, 그 메강냉이를 팔아먹으면 그 메강냉이로 가루, 그 가루 가루 내가지고 그걸로 뭐 해먹어 그러먼?}

10307 @ 그 저 한족뜨리 옥 옥 옥 그 강냉이로 머야 머 떡또 해먹꼬 막 그런다 메? {그 저 한족들이 옥 옥 옥 그 강냉이로 뭐야 뭐 떡도 해먹고 막 그런다 머?}

10307 @ 빵가통거 만드러 먹꼬 @ 빵, 빵 해먹찌. {빵 같은 것 만들어 먹고 @ 빵, 빵 해먹지.}

10307 @ 그럴때 찰강냉이로 만드러, 메강냉이로 만드러? # 메강냉이로. {그럴 때 찰강냉이로 만들어, 메강냉이로 만들어?}

10307 @ 그 아 한족뜰 메강냉이로 # 메강냉이로 해머거. {그 아 한족뜰 메강냉이로 # 메강냉이로 해먹어.}

10307 # 찰 한족떠런 찰강냉이 잘 안시머. {찰 한족들은 찰강냉이 잘 안 심어.}

10307 @ 아:! # 잘 안시머. {아! # 잘 안 심어.}

10307 @ 그뎐 메강냉이를 머거 # 마이 메강냉이를 주로 마니 시머 묵제. {그러면 메강냉이를 먹어 # 많이 메강냉이를 주로 많이 심어 먹지.}

10307 @ 지베서 메강냉이로 해서 먹꼬 그 사람드른? # 음. {집에서 메강냉이로 해서 먹고 그 사람들은? # 음.}

10307 @ 그걸로, 그걸로 빵 만드러서 머거? # 빵 만드러서 먹제 머. {그것으로, 그것으로 빵 만들어서 먹어? # 빵 만들어서 먹지 뭐.}

10307 # 강냉이 갈기, 갈기 내가지고. {강냉이 가루, 가루 내가지고.}

10307 # 빵이라고 만투 @ 만투 으? # 만투. {빵이라고 만두 @ 만두 으? # 만두.}

10307 @ 고곧 노라너고 # 여그서는 만투라고 @ 만투 만투라고. # 그 한중마른. {그것 노랑고 # 여기서는 만두라고 @ 만두 만두라고. # 그 한죽말은.}

10307 @ 응 만투라고 그러지? # 만투. {응 만두라고 그러지? # 만두.}

10307 # 우리 조선 싸람드런 빵이라고 하지. {우리 조선 사람들은 빵이라고 하지.}

10307 @ 그머는 그건 그 만, 그 만투는 노란 허건네? {그러면은 그것 그 만, 그 만두는 노랑겠네?}

10307 # 노 노로꼬:음, 야간 노로꼬롬 햐. {노 노리끼리, 약간 노리끼리 해.}

10307 @ 마싹써? {맛있어?}

10307 @ 마싹써? # 어 마싹어 갠차나. {맛있어? # 어 맛있어 괜찮아.}

10307 # 그사람덜 잘해머거. {그 사람들 잘 해먹어.}

10307 # 머 어더, 어더머그뎐 머글만 햐. {무 얻어, 얻어먹으면 먹을만 해.}

10307 @ 그뎐 인자 그 그 옥씨때는 머해? {그러면 이제 그 그 옥수숫대는 뭐해?}

10307 # 옥씨때 소 소 일쓰면 소 미기고. {옥수숫대 소 소 있으면 소 먹이고.}

10307 @ 아! 옥씨때를 소가 머거? # 어. {아! 옥수숫대를 소가 먹어? # 어.}

10307 @ 빼쌍 말란는데? {바싹 말랐는데?}

10307 # 말란ندي 그 이파리 @ 애. # 이파리 뜨더 먹꼬, 우에 또 우에는 쫄 보드 랍따 마리오. @ 애. # 이 중간쪼면. {말랐는데 그 이파리 @ 예. # 이파리 뜯어먹고, 위에 또 위에는 쫄 부드럽다 말ियो. @ 예. # 이 중간쫄.}

10307 @ 음. {음.}

10307 # 그놈 또 다 뜨더먹꼬, 저 우뜨므 막 뜨더먹꼬 감, 뿌렝이 저 대 억썰거는 이 일써 내가 차꼬 발바 땡기지만. {그놈 또 다 뜯어먹고, 저 윗 단 막 뜯어먹고 감, 뿌리 저 대 억센 것은 이 있어 내가 자꾸 밟아 다니지만.}

10307 # 그놈 그럼 그놈 말려서 때고. {그놈 그럼 그놈 말려서 때고.}

10307 # 말리면 때기도 혀, 그. {말리면 때기도 해, 그.}

10307 @ 불때고 이? # 어. {불때고 이? # 어.}

10307 @ 그... {그..?}

10307 # 그러고 안땡라먼 가따 차내빼리고. {그리고 안 때려면 갖다 쳐내버리고.}

10307 @ 그 송치로 가꼬 불때드만 이? {그 송치로 갖고 불 때더구먼 이?}

10307 # 강냉이 송치? {강냉이 송치?}

10307 @ 응. {응.}

10307 # 그거는 거짐만 거지 그마니지머. {그것은 거지반 거지 그만이지 뭐.}

10307 # 말려서 때면 참 잘타. {말려서 때면 참 잘 타.}

10307 @ 음. {음.}

10307 # 불땀도 일꼬. {불땀도 있고.}

10307 @ 불땀도 일써? # 응. {불땀도 있어? # 응.}

10307 @ 우리 집 집 뽀니까 다 그걸 가따가 때드만. {우리 집 집 보니까 다 그것을 갖다가 때더구먼.}

10307 # 야, 다 때요. {야, 다 때요.}

10307 @ 그면 그건까지면 웬마느며는 한겨울 나건네? {그러면 그것까지만 웬만하면 한 겨울 나겠네?}

10307 # 그거까지고 예징간하면 한겨울 반절 나 나가지머. {그것 가지고 어지간하면 한 겨울 반절나 나가지 뭐.}

10307 @ 장작 업써도 이? {장작 없어도 이?}

10307 # 낭기 업써도. {나무 없어도.}

10307 # 그렇게 낭기가 그놈 때면 낭기가 남째 머. {그러니까 나무가 그놈 때면 나무가 남지 뭐.}

10307 # 낭구 에이 낭구는 어느만치 해야 때건넌데 허고 가서 하자나, 그러면 인자 그노무 낭구가 그걸 때다나면 나마. {나무 에이 나무는 어느 정도 해야 때졌는데 하고 가서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놈의 나무가 그것 때다보면 남아.}

10307 # 나무면 그저 그 조치 머. {남으면 그저 그 좋지 뭐.}

10307 # 나, 아이고! 장녀네 그리서 그마:나면 시미 종개로 그 나무가리 일짜나, 그걸 다 제:날랴따고. {나, 아이고! 작년에 그래서 그만하면 힘이 좋으니까 그 나무 가리 있잖아, 그것 다 지어 날랐다고?}

10307 @ 어디서? {어디서?}

10307 # 헤서 사네서.

10307 @ 얻 여그서 어디로 와서? {어 여기서 어디로 와서?}

10307 # 저 사네 가서. {저 산에 가서.}

10307 @ 아:!! {아!}

10307 # 저기 가 가차분 사네 가서, 찌거서는 질머지고 오고... {저기 가 가까운 산에 가서, 찍어서 짊어지고 오고...}

10307 # 기양 그래 그래서 그러케 마이 땡써 해다놓게 내가. {그냥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많이 땡어, 해다 놓은 게 내가.}

10307 @ 오래는 함번도 못갠써?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어?}

10307 # 하이고 오래년 거저 땡기기도 힘드려 죽건는다 머 안돼 인자. {하이고 올
해는 거저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안 돼 이제.}

10307 @ 그먼 인자 오레 그 나무 낭구 다 때면 인자 어트게 해 인자. {그러면 이
제 올해 그 나무 나무 다 때면 이제 어떻게 해 이제.}

10307 # 인자 어트게 사걸찌머. {이제 어떻게 사겠지 뭐.}

10307 # 싸 싸 때야지 머, 그 어트게 시방 그 낭구 쟁에날짜나 @ 음음음. # 그건
또 싸옹기요. {사 사 때야지 뭐, 그 어떻게 시방 그 나무 쟁여놓았잖아 @
음음음. # 그것도 사온 것이예요.}

10307 # 돈주고 싸 나무깎슨 @ 나무깎슨 나무깎슨 비싸? @ 나무깎씨 비쌀끼요,
몰러 얼마씨기나 한지. {돈 주고 사 나무 값은 @ 나무 값은 나무 값은 비
싸? @ 나무 값이 비쌀 게예요, 몰라 얼마씩이나 하는지.}

10307 # 그 내가 그거를 머 가나다나니. {그 내가 그것을 뭐 간하다 나니.}

10307 @ 그먼 누가 혀 그거슬? {그러면 누가 해 그것을?}

10307 # 그 우리 손자가 그러케 싸다, 싸다 중거 그저니. {그 우리 손자가 그렇게
사다, 사다준 것 그전에.}

10307 @ 지금 여기 저 뒤에 살고 인는 그 손자가? {지금 여기 저 뒤에 살고 있는
그 손자가?}

10307 # 응. {응.}

10307 # 그기 우리 시방 나 가치 인는 저기 머 땅을 시방 가가 좀 다룬다 마리오.
{그것이 우리 시방 나 같이 있는 저기 뭐 땅을 시방 개가 좀 다룬다 말이
요.}

10307 @ 아! # 가가 다룬다 마리오, 그 땅얼, 자 땅얼. {아! 개가 다룬다 말ियो,
그 땅을, 재 땅을.}

10307 @ 음음음. {음음음.}

10307 # 저 병신 누버가 인는 사람 @ 응. # 땅얼. {저 병신 누워있는 사람 @ 응.
땅을.}

10307 # 그렇게 어찌걸써 해 줘야제. {그러니까 어찌 하겠어 해 줘야지.}

10307 # 그렇게 그거시 낭구도 싸다주고 그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무도 사
다주고 그 거리고.}

10307 @ 그 노늘 부체 머그니까 거그서 # 응. @ 식약또 대주고 그러능그만. {그
논을 부쳐 먹으니까 거기서 # 응. @ 식량도 대주고 그러는구먼.}

10307 # 그럼, 그거 부체 머궁개 그 부쳐머근 죄로 쿠해야지 어찌저씨. {그럼, 그
것 부쳐 먹으니까 그 부쳐 먹은 죄로 수고해야지 어찌하겠어.}

10307 # 에그! 이러케 사라. {에그! 이렇게 살아.}

10307 @ 월래 그러케, 월래 그러케 부치 부쳐도 얼마씩 다 세를 바들꺼 아니여?
{원래 그렇게, 원래 그렇게 부쳐 부쳐도 얼마씩 다 세를 받을 것 아니야?}

10307 @ 다른 사람한테 줘도? {다른 사람한테 줘도?}

10307 # 그 그래 받찌머, 세 받찌 머. {그 그래 받지 뭐, 세 받지 뭐.}

10307 # 몰라 얼마씩이나 받는지는 몰라. {몰라 얼마씩이나 받는지는 몰라.}

10307 # 함쌔에, 한 쌍에 얼마씩 받넌지는 몰라도 그러케 거저는 안주지 머 공으로는 공꼬스로는. {한 쌍에, 한 쌍에 얼마씩 받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거저는 안 주지 뭐 공으로는 공것으로는.}

10307 @ 그며는 지금 여기 그 저 가치 살고 인는 그 손자, 가는 가는 학빠는 지네 어머니가 대줘?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저 같이 살고 있는 그 손자, 가는 가는 학비는 자기 어머니가 대줘?}

10307 # 저네 어머니가 대주 대주갠찌 난 그건 잘 모르갠써. {저희 어머니가 대주 대주갠찌 난 그건 잘 모르갠져.}

10307 # 아무래도 에미가 항국 가쌍개, 이호늘 허고 항구글 가쌍개로 대주갠찌 머. {아무래도 어미가 한국 갔으니까, 이혼을 하고 한국을 갔으니까 대주갠찌 뭐.}

10307 @ 지네 아버지는 돈 한푼도 업 업겔까만. {자기 아버지는 돈 한 푼도 업 없겔구먼.}

10307 # 업찌 머. {업지 뭐.}

10307 # 그저 저런 국가에서 병시니라고 @ 음. # 저기 머여 쪼끔씩 내려오는 모애. {그저 저런 국가에서 병신이라고 @ 음. # 저기 뭐야 조금씩 내려오는 모양이야.}

10307 # 그저 그 그놈 가꼬 담배 싸먹꼬 술 싸먹고. {그저 그 그놈 갖고 담배 사먹고 술 사먹고.}

10307 @ 그리 누워서도 술도 머거? {그래 누워서도 술도 먹어?}

10307 # 호이고 수른 영 바메 밤쫓에도 이러나서 멍 멍는다고. {아이고 술은 영 밤에 밤중에도 일어나서 먹 먹는다고.}

10307 # 그래 내가 지와메서 자기 시러 떨그덕 떨그덕 허니, 코 골치, 이 갈치 막 그런 소리가 다 디킨다 마리오. {그래 내가 집에 와서 자기 싫어 덜그럭덜그럭하니, 코 골지, 이 갈지 막 그런 소리가 다 들린다 말ियो.}

10307 # 그래 내 여르매는 기양 한디서 잔다 마리오. {그래 내 여름에는 그냥 한테서 잔다 말ियो.}

10307 # 한디 자니까 영 시상 퍼나지 머. {한테 자니까 영 세상 편하지 뭐.}

10307 # 허허허 아이고! 저 남조서너는 나리 대:다니 뜨시자너? {허허허 아이고! 저 남조선에는 날이 대단히 뜨시잖아?}

10307 @ 응. {응.}

10307 # 그러니까 거런 마당으서 자도 하무 일업짜나. {그러니까 그런 마당에서 자도 아무 일 없잖아.}

10307 # 근디 여그넌 무리를 해노코 그러케 자야, 바람 두롱개. {그런데 여기는 무리를 해놓고 그렇게 자야, 바람 들어오니까.}

10307 @ 응. {응.}
 10307 # 바라미 차담 마리어 여기년. {바람이 차단 말이여 여기는.}
 10307 @ 응. {응.}
 10307 # 그렇게 그러캐서 뭉꼬 장개 어뜬 때는 거그도 더버 불만 지나게 때노머는
 가매서 훈지미 낭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자니까 어떤 때는 거기도
 더워 불만 저녁에 때놓으면 가마에서 훈김이 나니까.}
 10307 @ 아:!! {아!}

1.3.3. 집안 살림 도구

10323 @ 거 가매를 거따가 거 거르셴뜨만. {그 가마를 거기에다가 거 거셨더구먼.}
 10323 # 거런찌머. {걸었지 뭐.}
 10323 @ 일부러 거따 거르싱거여? # 그럼. {일부러 거기에다 걸으신 것이야? #
 그럼.}
 10323 # 내가 땅 가매 무점 거그서 저 머 해머글라먼 거그서 해멍는다고, 내가 내
 절로 거런찌. {내가 땅 가마 ** 거기서 저 뭐 해먹으려면 거기서 해먹는다
 고, 내가 내 스스로 걸었어..}
 10323 @ 음. {음.}
 10323 @ 흐그로 해가꼬 이러케 딱 이? {흠으로 해갓고 이렇게 딱 이?}
 10323 # 응. {응.}
 10323 # 돌 싸코 헐 싸코, 또 돌 싸코 흑 싸코 그레가지고는 그러케 해날떠니마
 년, 저 시방 부새를 또 하도 부새가 야타싸 내구는지 해서, 또 저그 내 동
 무한테 부새가 이따가걸레, 그 일쓰면 좀 쥐 헐떠니 오늘 가따 주더만, 그
 래서 그놈 또 올레 노코, 더 올레 노코 인자 막 지나게 때보면 쪼끔 내구리
 들탈란지. {돌 쌓고 헛 쌓고, 또 돌 쌓고 흙 쌓고 그레가지고는 그렇게 해
 났더니만, 저 시방 굴뚝 또 굴뚝이 얹아 불이 내는가 해서, 또 저기 내 동
 무에게 굴뚝이 있다고 하길레, 그 있으면 좀 쥐 했더니 오늘 갓다 주더구
 먼, 그래서 그놈 또 올려놓고, 더 올려놓고 이제 막 저녁에 때보면 조금 연
 기가 들런지.}
 10323 @ 음:!. {음.}
 10323 # 그레 그 그러구 사라. {그레 그 그렇게 살아.}
 10323 @ 근데 # 아이고! @ 여그 여 이런 이런 쇠는 머 무슨 쇠라구레? {근데 @
 아이고! @ 으기 여 이런 이런 쇠는 뭐 무슨 쇠라고 그레?}
 10323 # 쥘때. {쇠.}
 10323 @ 쥘때 근데 이거 말고 하야년 솜또 인찌? {쇠 그런데 이것 말고 하얀 솜
 도 있지?}

10323 # 하:연 낙까매? {하얀 납가마?}

10323 @ 어. {어.}

10323 # 응 낙까매다고 허지 @ 그 낙까매라구레? # 응. {응 납가마라고 하지 @ 그 납가마라고 그래? # 응.}

10323 # 이 지비 일뜨만 @ 예. # 낙까매. @ 어튼 거시 조아? {이 집이 있더구먼 @ 예. # 납가마. @ 어떤 것이 좋아?}

10323 @ 소티? {술이?}

10323 # 이르게 조치며 @ 이게 조아? # 하먼. {이렇게 좋지 뭐 @ 이게 좋아? # 압.}

10323 @ 그먼 이거슬 가따가 이러케 반질반질 이러케 이러케 이러케 유니 나자나?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반질반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윤이 나잖아?}

10323 # 응. {응.}

10323 @ 유니 날라면 차꾸 씨 써서 저러케 땡겨여? # 응, 차꾸 따까싸야혀. {윤이 나려면 자꾸 씨 써서 저렇게 된 것이야? # 응, 자꾸 닦아싸야 해.}

10323 # 차꾸 따까쌍개 저러케 된다고. {자꾸 닦아싸니까 저렇게 된다고.}

10323 @ 아:!! {아!}

10323 @ 안 쓰면 저러케 안돼? {안 쓰면 저렇게 안 돼?}

10323 # 안되야. {안 돼.}

10323 # 안 쓰머는 머여 쇠나지 머 쇠, 쇠가 나가지고 얼럭떨럭 얼럭떨럭 그런담 마리여. {안 쓰면 뭐야 쇠 나지 뭐 소, 쇠가 나가지고 얼룩덜룩 얼룩덜룩 그런담 말이여.}

10323 @ 음. {음.}

10323 @ 근디 머 기름 발르능거 아니고 맨날 물로만 땅능거야? # 응, 지름 아이 발라도 되오, 지름 아이 발라. {그런데 뭐 기름 바르는 것 아니고 맨날 물로만 닦는 거야? # 응, 기름 아니 발라도 되오, 기름 아니 발라.}

10323 # 지름 발르면 또 윤끼 나자나. {기름 바르면 또 윤기 나잖아.}

10323 @ 애. {예.}

10323 # 그런디 여그서는 지름 암 바르고 기양 차꾸 따까서 저러케 쓴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기름 안 바르고 그냥 자꾸 닦아서 저렇게 쓴다고.}

10323 @ 아:!! {아!}

10323 # 차꾸 따끄면, 어떤 사람 게우른 사라면 저건 윤끼 안나지며. {자꾸 닦으면,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은 저것 윤기 안 나지 뭐.}

10323 # 더덕더덕하이 그러케 그러케 생긴제. {더덕더덕하니 그렇게 그렇게 생겼지.}

10323 # 깔끄만 사라미래야 이케 윤기나게 딱제. {깔끔한 사람이라야 이렇게 윤기나게 닦지.}

10323 @ 저거 하나 걸면 뎀녀니라써? {저것 하나 걸면 몇 년이라 써?}

10323 # 주굴 때까지 쓰제. {죽을 때까지 쓰지.}

10323 @ 그래요? {그래요?}

10323 # 그럼 저거이 전딘다고. {그럼 저것이 전딘다고.}

10323 @ 안다라저? {안 달라져?}

10323 # 아이, 일업써. {아니, 괜찮아.}

10323 # 썬때가 나뿌면 나뿌면 구녀기 나제. {쇠가 나쁘면 나쁘면 구멍이 나지.}

10323 @ 그래요. {그래요.}

10323 # 구니기 나면 그거는 또 몰쓰는 **기여. {구멍이 나면 그것은 또 못 쓰는 **이야.}

10323 # 그리고 뎀쟁이가 뎀기자나 뎀쟁이. @ 으. {그리고 뎀장이가 다니잖아 뎀장이. @ 으.}

10323 # 그리서 오머는 때:먼 일업꼬, 때우지 머. {그래서 오면 때면 괜찮고, 때우지 뭐.}

10323 @ 그게 계:속 써야지만 오래 쓰건꼬만 이? {그것이 계속 써야지만 오래 쓰겠구먼 이?}

10323 # 이, 계속 써야 되야. {이, 계속 써야 돼.}

10323 @ 그 매일매일 물도 꼬리고 # 으: 퍼내고 딱꼬 수세미로 딱꼬 그저... {그 매일매일 물도 끓이고 # 으 퍼내고 닭고 수세미로 닭고 그저...}

10323 @ 그면 이걸저걸 가따 다해, 머던지 다? # 머:이던지 다하제. {그러면 이것 저것 갖다 다 해, 뭐든지 다? # 뭐든지 다 하지.}

10323 @ 밥또 저따 허고, 국또 저따 허고 이... {밥도 저기다 하고, 국도 저기다 하고 이...}

10323 # 국또 꼬려고 채도 하고 벨걸 다:: 여그다 하지머. {국도 끓이고 채도 하고 별 것 다 여기다 하지 뭐.}

10323 @ 채 붓는 붓는 거슨 여그다 모더지? {채 볶는 볶는 것은 여기다 못 하지?}

10323 # 봉년 거는 짜그만 바, 쪼꼬만 가맨따가 보까도 되야. {볶는 것은 조그만 바, 조그만 가마에다가 볶아도 돼.}

10323 # 이 지비는 저 저그 땅 가매가 일췌개 거그다가 하면 되걸뜨만. {이 집에 는 저 저기 땅 가마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면 되겠더구먼.}

10323 @ 음. {음.}

10323 # 세개나 거러 날뜬데. {세 개나 걸어놓았던데.}

10323 @ 음. {음.}

10323 @ 그러케 # 그 원칭 더부먼 거그다 또 해먹꼬, 인치 지비치 더부머는. {그렇게 # 그 위낙 다우면 거기다 또 해먹고, 이제 집에 더우면.}

10323 # 그러라고 이르게 거러날써.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걸어놓았어.}

10323 @ 열한시가 거의 다돼가네 # 열씨 열씨 안되야꼬만. {열한 시가 거의 다
되어가네 # 열 시 열 시 안 되었구먼.}

10323 @ 어? {어?}

10323 # 열씨 아직 안됐는데. {열 시 아직 안 됐는데.}

10323 @ 열한시가 # 아 열한시 가깝따. {열한 시가 # 아 열한 시 가깝다.}

10323 @ 예, 열씨 오십뿐. # 내 농꾸녀기 농꾸녀기 그케 생겐씨. {예, 열 시 오십
분. # 내 눈구멍이 눈구멍이 그렇게 생겼어.}

10323 @ 헤헤, 쪼꼬만 더 이야기 해야, 힘들지요? # 어. {헤헤, 조그만 더 이야기
해야, 힘들지요? # 어.}

10323 # 쪼꼬만 더 이야기 하 어, @ 힘드려? {조그만 더 이야기 해 어, # 힘들
어?}

10323 # 아니 일업씨. {아니 괜찮아.}

10323 @ 어. {어.}

1.4. 의생활 : 의복 만들기

1.4.3. 의복 만들기

10419 @ 자, 인자 명는 거슨 그러코. # 그러코. {자, 이제 먹는 것은 그렇고. # 그
렇고.}

10419 @ 자, 입는 거슨 입는 거슨 어트케 해 해 입꼬 사람씨? {자, 입는 것은 입
는 것은 어떻게 해 해 입고 살았어?}

10419 # 입는 거선 @ 그 잠깐만 명능거슬가따가 먹썩이라고 허고, # 먹썩이라고
하고, @ 임능거슬 입썩이라고 그렌씨? # 그기 입썩이지머, 이게 입썩이지
머. {입는 것은 @ 그 잠깐만 먹는 것을 갖다가 먹성이라고 하고, # 먹성이
라고 하고, @ 입는 것을 입성이라고 그렸어? # 그것이 입성이지 뭐, 이게
입성이지 뭐.}

10419 @ 입썩이란 말 씨? # 어. {입성이란 말 씨? # 어.}

10419 # 입썩이지 머. {입성이지 뭐.}

10419 @ 그면 입썩은 어트케 허고 사람씨? {그러면 입성은 어떻게 하고 살았어?}

10419 @ 내가 지금 이러케 마라면 마리 되지? # 애. @ 입썩은 어트케 허고 사란
냐? 그머는 마리 # 어트케 어트케 허고 사란능가? @ 응. {내가 지금 이러
게 말하면 말이 되지? # 예. @ 입성은 어떻게 하고 살았냐? 그러면은 말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 응.}

10419 # 아 어트케 하고 사란겐씨. {아 어떻게 하고 살았겠어.}

10419 # 광 그저니는 광모길씨? {광 그전에는 광목 있지.}

10419 @ 응. {응.}

10419 # 광목 아라? {광목 알아?}

10419 @ 음음. {음음.}

10419 # 새타얀 광목 이쓰문 새타얀 광목 싸다가, 말가서, 오설 맨드러서, @ 음음 음. # 입째, 왜 맨드러 입꼬. {새하얀 광목 있으면 새하얀 광목 사다가, 말아서, 옷을 만들어서, @ 음음음. # 입지, 왜 만들어 입고.}

10419 # 그다메 또 이런 끝천 이쓰면 또 끝천 입꼬시푸면 또 끝천 싸다가 @ 음. # 얼룩덜룩한 끝천 또 입째, 그걸 싸다가 또 말가서 그러케 입... {그 다음에 또 이런 꽃 천 있으면 또 꽃 천 입고 싶으면 또 꽃 천 사다가 @ 음. # 얼룩덜룩한 꽃 천 또 있지, 그것 사다가 또 말아서 그렇게 입...}

10419 # 또 약게 이 이폴 이불라머는 강모건 쯤 두껍제. {또 얇게 이 입을 입으려면 광목은 쯤 두껍지.}

10419 # 약게 이불라면, 그렇게 광모건 그저 늘그니드리 마니 입제 머. {얇게 입으려면, 그러니까 광목은 그저 늙은이들이 많이 입지 뭐.}

10419 @ 아:! {아!}

10419 # 늘그니드리 절문 사람드른 그러케 안 입꼬. {늙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입고.}

10419 # 그러케 내가 이, 해서 이 이벌따 마리어, 입쌍얼. {그렇게 내가 이, 해서 이 입었다 말이며, 입성을.}

10419 # 동사메는 뵤서널 맨드러 시너야제. {겨울에는 버선을 만들어 신어야지.}

10419 # 보손 알지? {버선 알지?}

10419 @ 애. {예.}

10419 @ 다 만드러 시넌써? {다 만들어 신었어?}

10419 # 다만, 내 절로 맨드러 시넌제. {다만, 내 스스로 만들어 신었지.}

10419 # 근디 지그면 그렇걸 안하이까 뻔만 일쓰면 맨든다 마리어 그거.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본만 있으면 만든다 말이며 그거.}

10419 # 뽀네다 대고 비어서, 그저 마손 일쓰면 모소네다 들들들들 박꼬. {본에다 대고 베서, 그저 재봉틀 있으면 재봉틀에다 들들들들 박고.}

10419 # 마손 일도 나 모손 일도 더러 했지 그런디 아 불라다 낭개 다 타빠릴찌 그러케. {재봉틀 일도 나 재봉틀 일도 더러 했지 그런데 아 불났다 나니까 다 타버렸지 그렇게.}

10419 @ 그 그때는 마소니 일썬써? # 야. {그 그때는 재봉틀이 있었어? # 야.}

10419 @ 마소니 비싸지 아날써 그때? {재봉틀이 비싸지 않았어 그때?}

10419 # 그러케 암비싸. {그렇게 안 비싸.}

10419 # 마선따 하면 빠르다 마리어, 소느다 나능거보다. {재봉틀에다 하면 빠르다 말이며, 손에다 하는 것보다.}

10419 # 드르르하면 다 바가지능거 머. {드르르하면 다 밖아지는 거 뭐.}

10419 @ 허기야 마소니 인쓰니까 온사는 도니 안드러가건네 이? {하기야 재봉틀이 있으니까 옷 사는 돈이 안 들어가겠네 이?}

10419 # 응. {응.}

10419 @ 온 사는 도니 더드러가건네, 마선니 오시 훨씬 비싼찌 이? # 어. {옷 사는 돈이 더 들어가겠네, 재봉틀이 옷이 훨씬 비쌌지 이? 어.}

1.8. 전통놀이

1.8.2. 전통놀이 : 윙카박수

10805 @ 그리고, 공개 동네 사람드리 놀때, 놀 노 놀로 다니고 막 그럴때 할머니는 주로 머하고 노란써? {그리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 때, 놀 노 놀러 다니고 막 그럴 때 할머니는 주로 뭐하고 놀았어?}

10805 @ 절물때부터 어트게 노란능가 함번 이야기 해뵈바. # 어트게 노란깁써:: {젊을 때부터 어떻게 놀았는가 한 번 이야기 해줘봐. # 어떻게 놀았겠어...}

10805 # 너무 기부니 조머년 추물 추고:: @ 허허허 # 노래도 자랑개 노래도 하고, 허허허. {너무 기분이 좋으면 춤을 추고 @ 허허허 # 노래도 잘 하니까 노래도 하고, 허허허.}

10805 # 윙카박수도 하고. {윙카박수도 하고.}

10805 @ 윙카박스가 머여? {윙카박스가 뭐야?}

10805 # 윙카박수, 이르게 박쭈 착착 치자나? {윙카박수, 이렇게 박수 착착 치잖아?}

10805 @ 애. {애.}

10805 # 그렇진 내가 인자 윙카박수하는 대로 박쭈를 착착 쳐준다 마리어. @ 아! 사람드리. {그런 것은 내가 이제 윙카박수하는 대로 박수를 착착 쳐준다 말이여. @ 아! 사람들이.}

10805 # 어? 사람드리 가뜰 모여가꼬 @ 아:!! # 그 윙카박쭈라고 그려? # 윙카박쭈라구려. {어? 사람들이 가뜰 모여가지고 @ 아! # 그 윙카박수라고 그래? # 윙카박수라 그래.}

10805 # 어트게 하능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805 @ 아 그럴때마다 박쭈를 치능거여? {아 그럴 때마다 박수를 치는 거여?}

10805 # 으, 이르게 하면 이르게 할때마다 친다 마리어. {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때마다 친다 말이여.}

10805 @ 애. {애.}

10805 @ 그먼 빨리 움지기면 빨리 치건네? # 응. {그러면 빨리 움직이면 빨리 치겠네? @ 응.}

10805 # 이러케 내가 빨리 움직이면 빨리치고, 늘 늘 느지게 움직이면 늑 줄 늘게
치고, 느게 치고. {이렇게 내가 빨리 움직이면 빨리 치고, 늘 늘 늦게 움직
이면 늦 줄 늘게 치고, 늦게 치고.}

10805 # 늘게 치능게 아니라. {늘게 치는 것이 아니라.}

10805 # 그러케 허고 노란찌. {그렇게 하고 놀았지.}

10805 @ 그먼 그거슨 자란 사람더른 자러고, 모던 사람더른 모더고 그러건네 이?
무덕 모더고 **. {그러면 그것은 잘 한 사람들은 잘 하고, 못 한 사람들
은 못 하고 그러겠네 이? # 못 하고 못 하고**.}

10805 @ 그거시 아까 이야기 해뜬 # 나는 @ 예. # 내가 놀기럴 조아항개 @ 예.
벨건 다 배와가지고 그러케 해따 마리어.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 나
는 @ 예. # 내가 놀기를 좋아하니까 @ 예. # 별 것 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다 말이여.}

10805 @ 윙카박쑈는 춤 춤가치 막 추면서 허능거여? # 야, 윙카박쑈는 그리끄
춤, 이 이르게 하고 예 이르게 하고, 벨진 다하지며. {윙카박쑈는 춤 춤 같
이 막 추면서 하는 거여? # 야, 윙카박쑈는 그렇게 춤, 이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 별 짓 다 하지 뭐.}

10805 @ 으으으. {으으으.}

10805 # 그런다 마리어. {그런다 말이여.}

10805 @ 공개 그거슬 좀 예쁘게 해야지 좀 보기가 조커꾸만. # 예쁘 예쁘게 해야
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예쁘게 해야지 좀 보기가 좋겠구먼. # 예
쁘 예쁘게 해야지 그러니까.}

10805 # 예 이러케 하면 파라푸다고. {예 이렇게 하면 팔 아프다고.}

10805 # 그거슨 하하하하. {그것은 하하하하.}

10805 # 다 주건쑈, @ 어? # 다 주건따고 인자. {다 죽었어, @ 어? # 다 죽었다
고 이제.}

10805 @ 허허허. {허허허.}

1.8.2. 전통놀이 : 마작

10805 @ 자:! 친 동무들끼리 모이면 머헤, 동무들끼리 모이면? {자! 친 동무들끼
리 모이면 뭐 해, 동무들끼리 모이면?}

10805 # 동무들끼리 모이며닌:: 니가 머 지비서 머설 해머건냐? 너는 지비서 머설
해머건냐::? {동무들끼리 모이면 네가 뭐 집에서 무엇을 해먹겠냐? 너는 집
에서 무엇을 해먹겠냐?}

10805 # 머이나 다:: 항개 서로 서로 무러 무러보지, 무러보면 나는 머머머 해 머
건쑈, 머머머머 해서 머건쑈. 그리고 얘기하고 놀지, 이야기하고 논담 마리

여. {무엇이나 다 하니까 서로 서로 물어 물어보지, 물어보면 나는 뭐뭐뭐
해 먹겠소, 뭐뭐뭐뭐해서 먹겠소. 그리고 얘기하고 놀지, 이야기하고 논다
말이여.}

10805 @ 음. {음.}

10805 @ 여기는 화토는 안 찰써? {여기는 화투는 안 찼어?}

10805 # 화토? {화투?}

10805 @ 응. {응.}

10805 @ 화토 업썸썸? {화투 없었어?}

10805 # 화토 일찌, 화토 지방 우리 지비도 인넌데. {화투 있지, 화투 시방 우리
집에도 있는데.}

10805 # 화토 치기도 가하고, 마장얼 세게 논다고, 마장얼. {화투 치기도 가하고,
마작을 세게 논다고, 마작을.}

10805 # 윤노리도 하고, 그런디 지금 싸람더른 윤노리 잘 안 하. {웃놀이도 하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웃놀이 잘 안 해.}

10805 # 우리 그저네 시방 이 내 또래더리 윤노리 잘하제. {우리 그전에 시방 이
내 또래들이 웃놀이 잘 하지.}

10805 # 마장얼 놀면 재밌썸? {마작을 놀면 재미있어?}

10805 # 마장 놀면 재밌썸. {마작 놀면 재미있어.}

10805 # 재밌따고 딴 재미, 거 줄 줄로하면 저 사람드리 돈 막 날 잘 다 주, 다 주
고. {재미있다고 딴 재미, 그 줄 줄로 하면 저 사람들이 돈 막 날 잘 다 주,
다 주고.}

10805 # 그렇게 지밋썸 머. {그러니까 재미있지 뭐.}

10805 # 저 지머는 기부이 상하고. {저 지면 기분이 상하고.}

10805 @ 화토보다 재밌썸? {화투보다 재미있어?}

10805 # 하토보다 재밌썸. {화투보다 재미있어.}

10805 @ 그레 마장이. {그레 마작이.}

10805 # 마장이. {마작이.}

10805 # 동삼바치면 기양 마장 노라, 알릴 업썸개. {겨울 닥치면 그냥 마작 놀아,
할 일 없으니까.}

10805 @ 그래요? {그래요?}

10805 # 어, 동삼 ***. {어, 겨울 ***.}

10805 @ 그면 인자 머 음식, 음식 가따가 # 음식. @ 해노코? # 해노코, 먹꼬.
{그러면 이제 뭐 음식, 음식 갖다가 # 음식. @ 해놓고? # 해놓고, 먹고.}

10805 # 안 또 해기 시르면 아나고. {안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10805 # 어뜬때는 또 싸다가도 먹꼬. {어떤 때는 또 사다가도 먹고.}

10805 @ 그면 인자 집찌비마다 모다?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모여?}

10805 # 은? {응?}

10805 @ 집집마다 인자 모다? {집집마다 이제 모여?}

10805 # 집집마다 모두능가? {집집마다 모이는가?}

10805 @ 응. {응.}

10805 # 그렇게 노 동무드른 다 모두지며. {그러니까 노 동무들은 다 모이지 뭐.}

10805 # 집집마동 모두능게 아니라, 사람 딱 너이 돼야 논다 마리어 그노무거.
{집집마다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 딱 넷이 돼야 논다 말이여 그놈의 것.}

10805 # 그레 인자 구경하고 시품 너허기 시러서, 구경하고 시푸면 저테 안저서
구경이나 하고, 그러치 머. {그레 이제 구경하고 싶으면 너 하가 싫어서, 구
경하고 싶으면 곁에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그렇지 뭐.}

10805 @ 그냥 그 시간 간질 모르건네? {그냥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10805 # 시간 가는지 몰라 모루고 노, 안자 정시니 업판데, 거그 돈 탄 재미, 허허
허. {시간 가는지 몰라 모루고 노, 앉아 정신이 없다는데, 거기 돈 탄 재미,
허허허.}

10805 @ 그건또 쯔 실러기 조으며는 잘 탄 사라미 일꼬, 몬 탄 사라미 일꼬 그
려? {그것도 쯔 실력이 좋으면 잘 탄 사람이 있고, 못 탄 사람이 있고 그
래?}

10805 # 실레기 조용게 아니라 재수가 일써야허, 으 자개 아페 재수가 일쓰면 잘
두룬다고. {실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재수가 있어야 해, 으 자기 앞에 재수
가 있으면 잘 들어온다고.}

10805 @ 잘 두루와야 따능구만? {잘 들어와야 따는구먼?}

10805 # 그럼, 잘 두루와야 따제. {그럼, 잘 들어와야 따지.}

10805 # 쯔또 쯔 아이 되고 꼬시 일써야제, 꼬시 업쓰면... {꽃도 쯔 아니 되고 꽃
이 있어야지, 꽃이 없으면...}

10805 # 이기 꼬시 업씨 이게노머는 도니 쯔꼬매, 쯔끔배기 업씨. {이것이 꽃이
없이 이겨놓으면 돈이 조금 해, 조금밖에 없어.}

10805 @ 아! {아!}

10805 # 꼬시 일쓰야 꼬시 일쓰야 만치. {꽃이 있어야 꽃이 있어야 많지.}

10805 @ 꼬시 일쓰면서 이게야 이제 도늘 마이 따능거여? {꽃이 있으면서 이겨야
이제 돈을 많이 따는 거야?}

10805 @ 그니까 함번 이기면 얼마가 아니고, 함파네서도 마니 딸수도 일꼬 적게
딸수도 일꼬 그레? # 야. {그러니까 한 번 이기면 얼마가 아니고, 한 판에
서도 많이 딸 수도 있고 적게 딸 수도 있고 그레? # 야.}

10805 # 마이 딸쭈도 일꼬, 적게 딸쭈도 일꼬. {많이 딸 수도 있고, 적게 딸 수도
있고.}

10805 @ 그 마장쯔 배울라고 그렘떠니 몸빼우건네. {그 마작도 배우려고 그랬더
니 못 배우겠네.}

10805 # 아:이 몸빼와. {아니 못 배워.}

10805 @ 그래? {그래?}

10805 # 으. {으.}

10805 @ 한나절 가꼬는 몸빼와? # 안되야. {안 나절 가지고는 못 배워? # 안 돼.}

10805 @ 그래? {그래?}

10805 # 몸빼왜. {못 배워.}

10805 @ 오래: 해야돼? {오래 해야 돼?}

10805 # 머시 머신지 모르디 어르게 배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배워.}

10805 # 오래오래 구경을 허고 오래오래 일써야 그다메 배우, 배와지제, @ 음::.
암배와저. {오래오래 구경을 하고 오래오래 있어야 그 다음에 배우, 배워
지지, @ 음. # 안 배워저.}

10805 @ 매일매일 노라야 되건끄만 이? {매일매일 놀아야 되겠구먼 이?}

10805 @ 호호호. {호호호.}

10805 # 그 글씨도 이런 글씨가 아니지 머, 하너로 다 그놈 써놔서. {그 글씨도
이런 글씨가 아니지 뭐, 한어로 다 그놈 써놔서.}

10805 @ 글씨는 알지머 우리는. {글씨는 알지 뭐 우리는.}

10805 # 하너로. {한어로.}

10805 @ 자! 오느른 여기까지 쫘 오저는 하고... # 하고, 놀... {자! 오늘은 여기까
지 쫘 어전은 하고... # 하고, 놀...}

제 2 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뽕모고만, 뽕모
20102	이삭	나락, 나라기 생긴단 말여
20103	볍씨	베씨
20104	못자리	모:자리, 모자리다가
20105	모판	모판, 그걸 모파니라고 하지, 모파~이라고 하고
20106	쟁기	쟁기, 쟁기라고 그러
20107	보습	보습, 보습, 보습, 보소시 깨절따
20108	벧	베시
20108-0-1	-이	베시 참 조으네
20109	극쟁이	깍쟁이
20110	써레	쓰:리
20111	번지	번지
20112	모내기	모심군다 그러, 아이고 모심구느만
20113	흙덩어리	덤벙이, 덤벙이 진다구려제, 흑뽕벙이라구
20114	고무래	당그래
20114-1	고무래(곡식)	당그래지
20114-2	고무래(재)	자근당그래, 쨌땅그래, 부석땅그래
20114-3	고무래(흙)	당그래라 그러지
20114-4	고무래(미는 것)	밀:때라고 하고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당그래라고 하고
20115	쇠스랑	소시랑
20116	곡괭이	꼭괭이, 꼭괭~이
20117	괭이	꼭짜, 괭이라고도 혀, 말마구까니라고도
20118	삽	사:비구만
20119	호미	호:맹이
20120	농기구	농기계, 농기구
20121	김	지심
20122	김매다	지심맨다, 지심맨다고 그러
20123	애벌 매다	초벌매고

20123-1	두벌 매다	두벌매고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벌매고
20124	논둑	뚜기, 뚜
20124-1	논두렁	논뚜기라고 그러
20125	밭둑	지경
20126	밭두둑	두루근, 받뚜둑
20127	밭꼬랑	꼬랑, 박꼬랑, 박꼬랑이라고하제
20128	밭이랑	×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받꼬랑얼 파, 받꼬랑 파네
20128-2	이랑밟기	×
20129	보리	보리, 보리바비
20129-1	가을보리	×
20129-2	봄보리	×
20130	보리쌀	보리바비, 버리싸리
20131	가을갈이	×
20132	감부기	감부기, 감부기
20133	두엄	두엄, 두엄짜리라고 하고
20134	거름	거름, 거름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베 타작, 버리타작, 베 타작, 가실헌다고 하지
20202	벧단	벧단
20202-1	벧단	자근벧단
20202-2	벧단	×
20202-3	벧단	큰베단
20203	가리	벧무지, 벧무지, 벧무지 헤쳐야지, 무지를, 벧까리
20204	가리다	쟁인다, 벧까리 쟁에야지
20205	벧가리	벧까리
20206	날가리	벧나까리
20207	타작	타작, 탈곡, 타작
20208	벼훑이	×
20208-1	그네	훑태
20209	개상	개상질
20209-1	자리개	
20209-2	자리개질	개상질한다고
20210	도리깨	도리깨
20210-1	도리괏장부	도리괏대

20210-2 도리꺾열
 20210-3 도리꺾꼭지
 20211 벗짚
 20211-0-1 -을

 20211-0-2 -에
 20212 새 꺾기
 20213 쪽정이
 20214 티
 20215 까끄라기
 20216 풍구
 20217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20219 흉년
 20220 머슴
 20221 낚
 20221-0-1 -을
 20222 품앗이
 20223 품삯
 20223-0-1 -으로

도리꺾여리지
 도리꺾꼭찌
 지푸락, 뽕짚
 뽕찌비라고도 허고, 뽕짚,
 뽕찌블 가져와
 베찌베 불난따고
 새끼
 쪽쟁이요
 티:드러간다
 꺼끄락, 꺼끄러근, 까끄래기라구려
 풍구질, 풍구여
 수박짚, 차메막
 허새비
 승녀니라고하고
 머심
 일꾼얻어와라, 노버그
 노벌 어더서
 품파리꾼이라고, 푸마시
 쌍일이지
 품쌈바다가지고, 품쌈기 비쌈다고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2 디딜방아

 20303 방앗공이
 20304 방아확
 20305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20307 절구

 20308 절구통
 20309 절굿공이
 20310 절구질
 20311 겨
 20312 보릿겨
 20313 왕겨
 20314 쌀겨
 20315 검불

가마~이다 다머서
 발바~이다 찌야지, 발방애다,
 발방애, 발방아
 방아꼬, 방아꼬, 방아고
 독, 방아화기여, 화기라고
 물레방아
 연자방아
 도구통, 확도근(돌로 만든 것),
 확또기그만(돌로 만든 절구), 차독
 도구통, 절구통도 항가지고
 도구때, 절구때
 도구때질
 제가 나오지, 제라고 하지, 제:
 버리꺾때기, 보린제고
 왕제라고 허고
 보드란제, 몽근제도 되고, 쌀제고
 검불, 검부지기,

20316 껌질

검부지기라고 하능겨
베:껌떼기, 처껌떼기라구허지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씨기지

20402 찹쌀

찰:베로, 찹쌀로

20403 맵쌀

메:쌀로 하는 거여

20404 쌀보리

쌀버리넌, 메버리넌

20405 조

수수그만, 조:이

20406 차조

차좁쌀, 차조이

20407 메조

메좁쌀, 메조이

20408 좁쌀

좁싸리 나오지

20409 잘다

잘다

20410 조이삭

조리 이사기

20411 수수

쭈수모가지

20411-1 붉은색 수수

수수모가지, 수수고만

20411-2 장목수수

빈짜루수수라구 그런디

20411-3 찰수수

찰수수넌, 찰수수

20411-4 메수수

메수수

20412 수수깡

수수대라고 하지며, 수수때,
수수때기

20413 옥수수

강냉이그만, 옥쭈수, 옥씨, 옥씨지,
깡냉이이삭

20413-1 찰옥수수

찰깡냉이

20413-2 메옥수수

메깡냉이

20414 귀리

귀보리, 기보리, 귀보리

20415 메밀

메물

20416 콩

콩으로

20417 콩깍지

콩껌떼기, 콩깍찌라고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매:다는 집또 인찌마는, 다라매지,
다라매아

20420 띄우다

뜬단마려, 띄워야만

20421 곰팡이

북떼기 썩완따, 탕이 날따고,
곰팡이라구려, 곰팡날따, 곰팡이

20422 강낭콩

콩기름, 콩지름

20423 콩기름

꽤, 꽤여

20424 깨

창:꽤, 창꽤기름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들깨기름
구수:한 마시제, 구수하다고 그려

2.1.5. 채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1 나물(밭)_재료
20502-2 나물(밭)_반찬
20502-3 나물(들)_재료
20502-4 나물(들)_반찬
20502-5 나물(산)_재료
20502-6 나물(산)_반찬
20503 푸성귀
20504 다듬다
20505 반찬
20506 무
20507 썰다
20508 무청
20509 시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2 배추
20513 고갱이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20517 가지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20 감자
20521 우엉
20522 파
20523 고추
20524 시금치
20525 미나리
20526 부추

20527 상추
20528 마늘

채소라가지, 채소전
내물로(나물), 나물, 나물또
반나물
×
들라물
×
산나물 캐다가
산나물캐다가 무쳐 무쳐놔써
푸성가리는
따드마야지
반찬
무:시, 무꾸, 무끼, 무꾸
쏘라야지, 쏘라서
무시이파리, 무끼이파리라고도 허고
씨라지
무꾸말린채
짬다리
배차그만
배차꼬갱이라고도, 배차소기라고
오이그만
오이집치
오이소박
까:지
호박, 호바기그만
고고마, 이 고고마털 찌서
감자도
×
파이
꼬치도
시금치, 시금치
미나리, 미나리짱
술:, 정구지라고도 하고,
소:리라구 하지
상추는, 상추, 상추
마늘

20529	생강	생:강, 생강도
20530	냉이	나싱개
20531	달래	달롱개
20532	도라지	도라지, 그건 도라지제
20533	더덕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밥또
20602	찬밥	참밥, 시금바비라고 하고, 참바벌 마니 쓰제
20602-1	더운밥	따심바비고
20603	조밥	조이빠비라 하지, 좁쌀바비라고
20604	누룽지	까마치, 갸밥, 갸바비라고
20605	눌은밥	누룽밥, 누룽지
20606	송늱	송니미 되지
20607	뜨물	쌀무리라, 뜸물, 뜸물거치 생겔따
20608	김(蒸氣)	짐, 지:미 그러케 올라오자너
20609	갱죽(羹粥)	나물쭈
20610	싱겁다	싱그먼 마시엿찌머, 심시망게, 싱급찌
20611	국수	국씨, 밀까루 국씨제, 강냉이 국씨도 되고
20612	칼국수	칼맨, 칼면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기계국씨라구려, 틀국씨
20613	건더기	건디기라고
20613-1	국물	궁무리지머, 멀구기
20614	고명	꾸:미
20615	꾸미	꾸미지머 꾸미
20616	미역	미역, 미역또
20617	김(海苔)	짐:
20618	수제비	뜨디기쭈
20619	끼니	끄니, 끄니라구려
20620	미음	중무리라도 마시야지, 그게 미여미라구 그러지
20620-1	(미음을)끓이다/쭈다/삶다	끄리먹꼬
20621	엿기름	열찌름, 열찌름갈기

20622	식혜(食醯)	시:케도 해먹고
20623	식혜	×
20624	달다(甘)	달제, 달다:랑게, 담마스로 먹지
20625	가루	갈구가 되지, 쌀갈구
20625-0-1	-에	갈구에다, 갈구에다 부서서
20625-0-2	-을	갈기를 주물르먼
20625-0-3	-도	갈구도 업따고, 갈구가 만타
20626	밀가루	밀갈구, 밀갈구
20627	밀기울	밀깎떼기, 밀갈기 깎떼기, 밀찌우리라고 하지
20628	미숫가루	미숫갈구가 매나, 미숫가루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무리지, 간장, 간장을
20702	된장	된장
20703	고춧가루	꼬치까리
20704	고추장	꼬치장
20705	소금	소곰거치
20706	김치	김치를
20707	김장	김장한다고
20708	깍두기	깍뚜기, 깍뚜기김치
20709	나박김치	싱건지, 나박김치가
20710	담그다	김장 해야건는디, 김장을 해야건는디
20710-0-1	-고	김장을 허고 인따
20710-0-2	-어라	김장을 얼런 해야지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버물러지, 버물른다고
20713	버섯	버섯
20713-0-1	-이	버서시 인따
20714	콩나물	콩지름, 콩나물
20714-1	콩나물	콩나물채
20714-2	숙주(나물)	녹뚜나물
20715	두부	뚜부 아녀, 뚜부하지, 두부, 초두부
20716	비지	두부짱치, 비지, 비진디
20716-1	비지떡	×
20717	달걀	달까리구만
20718	가래떡	떡꼭때
20719	시루떡	시루떡

20720	송편	생:웬
20721	빚다	생웬 만든다 그러
20722	흰떡	×
20723	고물	콩까리가, 콩까리틀, 콩꼬물, 콩까리
20724	팔죽	판쪽, 동진판쪽
20725	새알심	새알, 새알죽
20726	백설기	백설기틀, 백설기고
20727	튀밥	튀밥
20728	술	술:, 빼:주, 피주
20729	막걸리	막걸리
20730	소주	쇠:주, 세:주라고하제, 빼주를
20731	부침개	적끔는거, 저기저머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막
20802	가마솥	가:매, 솥판지라고도 하고
20802-0-1	-을	가매 찢는다고
20802-0-2	-에	가매다가 밥 헐찌, 가매에다가 바배
20803	아궁이	부석짜, 부석짜
20803-0-1	-이	부석짜기 크고
20804	그을음	끄:시럼
20805	불쏘시개	불쏘시개, 뿌시렁낭기, 뿌시렁낭구가
20806	연기	내굴낭개, 영기가
20806-1	내(煙氣)	내:군다, 내굴
20807	그을리다	끄실러, 끄실러
20808	부지깻이	부진땅
20809	부삽	불삽
20810	넙다	시구럽제, 시구버, 시굴따구
20811	넙비	넙비아녀, 넙비구만
20812	그릇	박끄르시라고도
20812-0-1	-을	박끄르시 만타고
20813	뚜껑	뚜껑
20814	주발 뚜껑	녹끄럭뚜껑이라고
20815	사발 뚜껑	사발뚜껑이라고지
20816	술뚜껑	가매뚜껑
20817	밥주걱	밥쭈벅
20818	숟가락	수꾸락
20819	젓가락	저까락, 저까락, 저:리라고도 하고

20820 종지
 20821 보시기
 20822 똑배기
 20823 접시
 20824 조리
 20825 이남박
 20826 바가지
 20827 행주
 20828 행구다
 20829 설거지
 20830 개숫물
 20831 찌꺼기
 20832 화로
 20833 화룻불
 20834 부젓가락
 20834-0-1 -이
 20834-1 부손
 20835 다리쇠
 20836 석쇠
 20837 도시락
 20838 바구니
 20839 뒤주
 20840 찬합
 20841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종지
 보새기고, 보새기
 똑빼기, 똑빼기
 사라, 접씨는
 조리
 싸람박, 쌀함박또
 바가지
 행주
 행군다가지
 설거지한다구려
 꾸정무리라가지, 꾸정물
 찌끄레기
 화:리
 화린뿔
 불전까리지머
 불전칼 가서 찬아오니라
 ×
 ×
 적새
 벤또, 도시락
 바구리구만
 두지
 ×
 채칼가켜, 강판
 상:이그만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2 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5 감추다
 20906 흙
 20907 돌쩌귀
 20907-1 압짱
 20907-2 수짱

큼방이제, 암뽕
 베기지, 압뽕, 된뽕, 엽뽕, 베름뽕
 다라근, 다락, 다라기제
 벽짱
 감추지
 끌키맨내, 호미 생기지, 흙짜리
 돌쪽, 문뜰쪽
 ×
 ×

20908	미단이	미다지
20909	여단이	×
20910	덧문	배간문, 던무니라고도 허고
20911	열다	열:고 드러가야제
20912	문고리	문꼬리
20913	자물쇠	열쇠, 자물통
20914	감히다	방에 가챤따
20915	열쇠	열:쇠
20916	잠그다	채우지, 장군다
20917	구멍	몽꾸녀글 뜯부테지, 구녕날따구
20917-1	취구멍	취구녁 뜯벌따고
20918	찢다	찢:는다고
20919	구들	구들
20920	흙받기	흑판
20921	흙손	사부로
20922	흙칼	흑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나무흑카리라고 하고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쇠때흑카리라고
20923	바르다	올리부치지, 올리부치고, 바르제
20924	장판	장판, 까래, 노전갈개
20925	종이	종오
20926	도배	도배는, 도배지
20927	구석	구서기라고 하지
20928	굽도리	×
20929	깨끗하다	깨끄다제, 깨끄시해야 한다고
20930	문지방	문:턱, 문찌방은
20930-0-1 -에		문터게도 올라가지 말고
20931	틈	문썰가, 트:미나서
20932	가장자리	×
20933	가운데	복파니고, 함판도 되고, 가운데가 함파니여
20934	시렁	실:경
20935	살강	살강이
20936	선반	섬바니다구려, 첨바니라구, 첨반
20937	서랍	빼다지는, 빼다지
20938	경대	경:대
20939	거울	색경, 색경이지
20940	걸다	박꼬
20941	호룽	등잔, 호:룽, 등잔심지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우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21002	기와	기와, 기와
21003	기와집	기와집
21004	수키와	×
21005	암키와	×
21006	대들보	대들뽀
21007	서까래	썩:까래
21008	추녀	×
21009	처마	처:매, 처매미치라고, 처매끝
21010	오두막	오도막찌베
21011	초가집	새초찌비지, 초가집
21012	이영	×
21012-0-1	-에서	×
21013	용마름	용마름, 용마름 쓰고
21014	기스락	초매끄시라고
21015	낙숫물	처매무리라하지
21015-1	기스락물	썩:근무리라, 지스랑무리제
21016	사당다리	사당따리, 사당따리 해노코
21017	용마루	용말기
21018	토방	토방미티, 토방이라고허지
21019	댕돌	디디개라 하지, 지지개
21019-1	섬돌	디디개, 디디개지머
21020	마루	마루짱, 마루짱
21020-0-1	-에	마루짱에 올라감따
21021	뒹마루	×
21022	기둥	지둥
21023	주춧돌	지둥미티돌, 미틔돌
21023-0-1	-을	×
21024	굴뚝	구새, 구새통이라고, 구새통

2.3.3. 마당

21101	뜰	뜨리라 하지
21102	마당	마:당
21103	넓다	넙따
21103-0-1	-어서	넙버서

21104	넓히다	널:피야지
21105	곳간	두지, 고까네다가, 고까니여
21106	외양간	외:양간, 외:양간
21107	마구간	마:구간, 소마우까니라고
21108	광	고방에(사람이 자는 방), 창꼬다
21109	헛간	그 허까니다, 그게 허까니지, 허까는
21110	쓰레기	찌끄리기, 찌끄리그르, 씨레기는
21111	장독대	장팡이, 장:팡, 장또기라고하지
21112	장독 뚜껑	×
21113	변소	치깐
21113-1	똥장군	오줌통, 똥장군
21114	울타리	울타리, 울타리
21115	담	담:
21115-0-1	-에	다:메 올라간따구
21115-0-2	-도	담:도 무너지고
21116	사립문	싸립문, 싸리무니라고, 댐:문
21117	뒤꼐	뒤란, 뒤라니고, 뒤란 박
21117-0-1	-에서	뒤아네서 놀고 인따
21118	바깥	배까시제
21118-0-1	-에	배까테
21119	모퉁이	모테~이
21120	모서리	구비, 구비라고하지, 모서리지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부라기지, 동네라구두, 동네라고, 마으리라고
21202	윗마을	노푼동네, 아랫똥네, 운똥네
21203	이웃	이운, 이운찌비라고, 이운싸람
21203-0-1	-이	이운찌비
21203-0-2	-에	이우세 산다고
21204	마을가다	마실가, 마실간다
21205	우물	우:물
21206	두름박	두름박, 두름박쩔
21207	샘(泉)	새:암, 시암, 시야메
21208	가(邊)	마룬까상, 시암가상
21208-0-1	-을	시암가상가서
21208-0-2	-에	받까상, 받까상에 푸리만치
21209	물지게	물찌게

21210	가게	쏘:매전
21211	싸다	눅따 구러지, 싸다고도 해
21212	비싸다	비싸다
21213	홍정	홍정해보자
21214	거간꾼(중매인)	×
21215	잔돈	잔도니라고
21216	에누리	×
21217	거스름돈	거시름돈
21218	거스르다	×
21219	꾸다(借)	꾼다
21219-0-1	-어야	꿔:야제
21220	구두쇠	각쟁이, 돌각쟁이라구, 돌각쟁이
21221	말기다	매께노코
21222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또느로
21223	덤	×
21224	몫	내 목씨
21224-0-1	-을	내 목씨도 인꼬만, 내 목씨가서 바다와
21225	빚	비시지, 빚또 만타
21225-0-1	-을	비설 마니결찌
21225-0-2	-에	비시 마니
21226	이자(利子)	이:자, 이자돈
21227	심부름	심바라멸, 심바라미다구려
21228	두름	두루비라고도, 한드름, 한두름
21228-1	축	×
21228-2	쾌	×
21228-3	접	×
21228-4	쌈	한쌈
21228-5	두름	×
21228-6	단/못	한다발, 한다발, 두다발
21228-7	단/못	한무꿈, 두무꿈
21228-8	툇	×
21228-9	모습	한주머기라고, 한주머기라고, 함모습
21229	컬레	항커리
21230	마지기	함마지기가, 한짐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한쌍인디
21231	꾸러미	한줄
21232	그루	한대, 두대
21233	포기	함포기, 두포기
21234	저울	저우레다 뜨제, 저우레다가,

21235 자루(包袋)
 21235-0-1 -을
 21235-0-2 -에
 21236 하나
 21236-1 한 개
 21236-2 한 되
 21236-3 한 말
 21237 둘
 21237-1 두 개
 21237-2 두 되
 21237-3 두 말
 21238 셋
 21238-1 세 개
 21238-2 세 되
 21238-3 세 말
 21239 넷
 21239-1 네 개
 21239-2 네 되
 21239-3 네 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 개
 21240-2 다섯 되
 21240-3 다섯 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 개
 21241-2 여섯 되
 21241-3 여섯 말
 21242 일곱
 21242-1 일곱 개
 21242-2 일곱 되
 21242-3 일곱 말
 21243 여덟
 21243-1 여덟 개
 21243-2 여덟 되
 21243-3 여덟 말
 21244 아홉
 21244-1 아홉 개
 21244-2 아홉 되
 21244-3 아홉 말
 21245 열

저울파네
 가마쓰, 잘기, 잘기, 잘루
 잘구털 마니쓰제
 잘루에다 담는다
 한나
 항개
 한되
 함:말
 두울
 두 개
 두:되
 두:말
 세엔
 세:개
 숙:되
 세:말
 네엔
 네:개
 늑:되
 네:말
 다선
 다선개
 다선되
 다선말
 여선
 여선개
 여선되
 여선말
 일곱
 일곱개
 일곱되
 일곱말
 야들
 야들개
 야들되
 야들말
 아홉
 아홉개
 아홉되
 아홉말
 열, 열:

21245-1	열 개	열개, 열개
21245-2	열 되	열:되, 열:되
21245-3	열 말	열:말, 열:말
21246	스물	스물
21246-1	스무 개	스무개
21246-2	스무 되	스무되
21246-3	스무 말	스무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 개	서른개
21247-2	서른 되	서른되
21247-3	서른 말	서른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 개	마흔개
21248-2	마흔 되	마흔되
21248-3	마흔 말	마흔말
21249	쉰	오십, 쉰
21249-1	쉰 개	오십개
21249-2	쉰 되	오십되
21249-3	쉰 말	오십말
21250	예순	육십, 예순
21250-1	예순 개	육십개
21250-2	예순 되	육십되
21250-3	예순 말	육십말
21251	일흔	칠십, 일흔
21251-1	일흔 개	칠십개
21251-2	일흔 되	칠십되
21251-3	일흔 말	칠십말
21252	여든	팔십, 야:든
21252-1	여든 개	팔십개
21252-2	여든 되	팔십되
21252-3	여든 말	팔십말
21253	아흔	구십, 아:흔
21253-1	아흔 개	구십개
21253-2	아흔 되	구십되
21253-3	아흔 말	구십말
21254	백	백
21254-1	백 개	백개
21254-2	백 되	백되
21254-3	백 말	백말
21255	이백	양배기라고 하지
21256	한들	한들

21256-1	한두 개	한두개
21256-2	한두 되	한두되
21256-3	한두 말	한두말
21257	두셋	
21257-1	두세 개	두시개
21257-2	두세 되	두시되
21257-3	두세 말	두세말
21258	두서넛	
21258-1	두서너 개	두서너개,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 되	두서너되, 두서너되
21258-3	두서너 말	두서너말
21259	서넛	
21259-1	서너 개	서너개
21259-2	서너 되	서너되
21259-3	서너 말	서너말
21260	네댓	
21260-1	네댓 개	너넨개, 니넨개
21260-2	네댓 되	너넨되
21260-3	네댓 말	너넨:말
21261	대여섯	
21261-1	대여섯 개	대여섯개, 대여섯개
21261-2	대여섯 되	대여섯되
21261-3	대여섯 말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21262-1	예닐곱 개	예닐곱개
21262-2	예닐곱 되	×
21262-3	예닐곱 말	×
21263	일여덟	
21263-1	일여덟 개	일여덟개
21263-2	일여덟 되	×
21263-3	일여덟 말	×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 개	×
21264-2	여덟아홉 되	×
21264-3	여덟아홉 말	×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 개	여나무개
21265-2	여남은 되	여나무되지
21265-3	여남은 말	여남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초매
21302	길이	기레기 재지, 지리가 질다
21303	저고리	저구리
21304	색동저고리	색동저구리제
21305	두령이	×
21306	무늬	무네, 무네저구리
21307	고쟁이	단소꼴, 고쟁이는
21308	바지	바지입어
21309	두루마기	두루매기
21310	의복	오션, 이보근, 이보기고, 우티라구려
21311	구겨지다	꾸게진다, 꾸게지능거는
21312	옷고름	옥꼬름, 옥꼬름
21313	단추	단초, 단초
21314	동정	동전
21315	겉	겹데기고
21315-0-1 -에		겹데기 무털다
21315-0-2 -을		겹출, 겹겹떼기
21316	홀옷	흔겹떼기라구그러
21317	겹옷	덜쩌구리, 덜쩌구리, 소캐우티
21318	잠방이	잠방구
21319	누더기	두덕두덕, 지분웁, 누데기웁
21320	거지	동낭아치, 거지라고도하지
21321	구결	비러가지고 땡기지, 구결, 구결허고
땡긴다고		
21322	조끼	췌끼
21323	내의	소고시라고, 내이
21324	껴입다	췌이버야제
21325	소매	소매, 소매끝
21326	주머니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개췌미, 개췌머니
21328	허리띠	허리끈, 허리띠가
21329	땡기	땡기췌리지 머, 땡기고리
21330	도포	×
21331	샷갓	샷갓
21331-0-1 -에		사까시그만
21332	고깔	꼬깔, 꼬깔모자

21333	사모	사모관대는
21334	유건	귀닐쓰고
21335	대님	댄님
21336	감발	×
21337	짚신	집씨기, 집씨기신
21338	미투리	×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
21339	나막신	나목깨
21340	설피(雪皮)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명지온
21401-1	명주실	멩지시럴
21402	목화	소캐가, 모콰도
21402-1	목화다래	다래, 모카다래
21403	무명	미영배지
21403-1	무명실	소캐시리지
21404	씨아	씨아시
21405	자새	자새, 자새
21406	물레	물레라고도 하지
21407	베	베:를 짜는디, 배:, 삼배
21408	질쌈	질쌈한다는게, 질쌈한다능기고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짚고리	반지끄리
21411	가위	가새
21411-0-1	-을	가새 가져오이라, 가새 가꼬 오이라
21411-0-2	-에	가새에서
21412	마르다(裁)	말근다고
21412-0-1	-고	말구고 인느디
21412-0-2	-어라	말가
21413	헝거치	헝거치, 흥거치, 흥거
21413-0-1	-을	흥거치를
21413-0-2	-에	흥거치 이쓰먼
21414	바늘	바늘허고, 바늘로 꼬맨다고
21415	꿰다	뀌어야
21415-0-1	-고	뀌는디
21415-0-2	-어라	빨리 꿰어라
21416	바느질	바너질 한다고 허지, 바너질
21417	채봉틀	마손니지, 자방치미라 헐써, 마손

21418	끈	끈, 끈쭙 가져오니라
21419	노끈	노끄니라고
21420	참바	바:, 바:라구려
21421	매듭	매드비라고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맨는다고
21422	보자기	보:, 보따리
21423	이불	이불 덮꼬
21424	솜	소캐
21425	포근하다	포고나지
21426	홀이불	항겹떼기
21427	겹이불	점니불
21427-1	솜이불	소캐이부리라고
21428	누비이불	뉘이비불, 누에이부리지, 누비이불
21429	베개	베:개
21430	베갯잇	베개온
21430-0-1	-에	베개오시라고
21431	목침	목침
21432	퇴침	퇴침, 퇴침도
21433	방석	자부동
21434	담요	담:뇨, 담뇨도
21435	빨래하다	시꺼야 한다, 시쳐야 한다고, 빨래질해야 되겜다, 빨래한다고
21436	빨랫방망이	빨랜빵맹이
21437	빨래터	또랑가제, 또랑에 가서
21438	빨랫줄	빨랜쥬
21439	다리미	다리미
21439-1	다림질	다리미지럴
21440	인두	윤:디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대미방맹이지
21442	다듬잇돌	다듬뚝, 다듬뚝
21443	다듬이질	다드미질한다고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나리지
21502	설	서:리지
21503	선달 그믐날	서:딸그믐, 서딸그믐날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올해, 금년, 올해
21505-0-1	-는	올해는
21505-1	작년	장녀니라고
21505-2	재작년	재장년
21505-3	내년	명녀니, 멍녀닐
21505-4	후년	후년해, 후년
21505-5	내후년	그후년, 내후년도 되고
21506	작은설	×
21507	웃	웃
21507-0-1	-을	유:설놓고 살지
21507-0-2	-에	유시라고
21507-1	웃놀이	유끼논다고, 윤:노리하자
21508	웃가락	유시라고그러
21508-1	도	되
21508-2	개	개:지
21508-3	결	컬, 컬
21508-4	웃	순
21508-5	모	모:
21509	단동	×
21509-1	외동무니	×
21509-2	두동무니	×
21509-3	석동무니	×
21509-4	넉동무니	×
21509-5	막동	×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르미구만
21510-1	삭망	×
21511	추석	추성멧저른
21512	망월	×
21513	취불놀이	×
21514	자치기	자때치기
21514-1	작은 막대	짜룬막때기
21514-2	긴 막대	긴:막때기고
21515	수수께끼	×
21516	호미씻이	세벌매기지 뭐
21517	뽕과리	깽매강가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새:뽕, 새빠벌 머거야지
21520	무당	무당언
21520-1	박수	×

21521	고수레	꼬시래
21521-1	고수레!	꼬시래 꼬시래 하면서
21522	점쟁이	점쟁이라
21523	상여(喪輿)	생이
21524	굴건	권
21525	제사	제사년
21526	제기	목끼그르글 마이 쓰지
21527	귀신	귀:시니
21528	도깨비	도채비, 도채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꼬삐
21602	굴레	코뚜래, 굴레가 되지
21603	명에	명:에
21604	길마	×
21605	부리망	망:, 망
21606	구유	구시
21607	작두	작뚜
21608	꿀	소:꿀 비로간다, 꿀:도 되고
21609	여물	여물, 소여물
21610	쇠죽	소죽
21611	쇠죽바가지	박빠가지
21612	수레	구루마, 술:기
21613	끝다	끝치
21613-0-1	-고	끝꼬간다, 끝코가지
21614	바퀴	바퀴, 구루마바키
21615	새끼(繩)	새:끼 끈는다
21615-1	새끼(김승의)	김승새끼
21616	망태기	망:태, 깔망태, 깔망태라구
21617	떡둥구미	큰바구미, 자근바구미
21618	거적	거적때기
21619	가마니	가마~이, 가마스
21619-1	가마니틀	가마~이트리라고
21620	돛자리	방석, 두리방석, 돛짜리
21621	자리틀	×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매다	자리는 절코
21622	왕골	왕골
21623	삼태기	소코리란 마려
21623-1	짚 삼태기	집쏘코리

21623-2	싸리 삼태기	산태미닌
21624	명석	덕썩, 명:석
21625	어레미	채
21625-1	고운채	가는채
21625-2	굵은채	굵근채
21626	대장장이	×
21627	대장간	야장까니라고 하지, 애장간
21628	풀무	풍구, 부석짜풍구
21629	모루	×
21630	모루채	망치
21631	갈퀴	갈쿠, 갈쿠
21632	집게	썩개
21633	장도리	몹빼기던가, 장도리는
21633-1	노루발	×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비지
21635	도끼	도:끼
21636	자루(柄)	도끼짜리
21636-0-1	-을	도끼자리릴 잡고 인따고, 도끼자루릴
21636-0-2	-에	도끼짜리에
21637	갈고리	까꾸레~이
21638	썰기	보조간다개야지, 보족, 썰기넌, 썰기지 머
21639	송곳	송:곧
21639-0-1	-에	송고세다가
21640	뽕죽하다	뽕:쪼가지
21641	숯돌	숯똥
21641-0-1	-에	숯또레다가
21642	맷돌	맷뜨리, 손맷똥, 맷똥, 맷똥손채비
21642-1	수쇠	×
21642-2	암쇠	×
21643	지게	지:개
21644	발채	바:지개
21645	지게 작대기	지게짜대기때
21646	막대기	막때기로
21647	몽둥이	몽:덩이지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빈찌락
21702	광주리	바구미, 광주리구만
21703	소쿠리	소쿠리 맨들지
21704	함지	함:지구만
21705	폴비	폴쏘리지머, 소리라 하는
21705-1	귀알	×
21706	독	단지다가
21706-0-1 -에		단지다 다마서
21707	물독	물판지, 물도가지라고도하고, 물판지, 물또기라고
21708	항아리	항:아리
21709	단지	단지, 장판지, 오지단지, 장판지, 단지다 담지
21710	물동이	물뚱오고만
21711	따리	따바리, 따바리 트러서
21712	옹기	옹기그르슬, 옹기장시 완따고
21713	표주박	손재비바가지
21714	키(箕)	치, 소보치
21715	떡살	×
21716	다식판	×
21717	시루	시:루
21717-0-1 -을		시루럴 가져와야제
21717-0-2 -에		시루이다가
21718	시룻밀	×
21718-0-1 -에		×
21719	시룻번	시루뻔
21720	부싯돌	차돌, 부싯돌, 차돌
21720-0-1 -을		부싯돌 가따드리라
21721	부시	×
21722	부싯깃	부싯짚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배대통
21725	담배설대	담배대:
21726	대통	담뱃때꼭찌
21727	물부리	빨:때
21728	담배쌈지	흥겹쭈먼지, 담배쌈지도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팔짱, 토시라가고
21731	벼루	먹통, 비루

21732	가락지	가락찌
21733	비너	비내
21734	참빋	비시로 빈제, 참:빈찢하고, 참:빈
21734-0-1	-을	참:비선
21734-0-2	-에	비세
21735	얼레빋	얼경빈, 얼근빈
21736	세숫대야	세수소래다, 세수소래에다가, 세순때양
21737	비누	비누, 빨랜빼누, 세순빼누
21738	도투마리	베:짜는 도투마리제
21739	활대	활때구만, 활때
21740	잉앗대	×
21741	부티	×
21742	도롱이	도렐이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마
21802	이마빼기	이마때기, 이마빠기라고
21803	눈자위	눈까상이
21804	검은자위	꺼멍창이고
21805	흰자위	힌창이고
21806	눈꺼풀	눈떠벅, 눈떠벅, 눈꺼풀
21807	거적눈	눈껌때기가 쳐절따, 거정누니제
21808	눈썹	눈써비고
21808-0-1	-이	눈써비 빠절꼬만
21809	속눈썹	눈초리고, 눈초리
21809-0-1	-이	눈초리가 길다고 그래야지
21810	눈두덩	눈뚜덩이지
21811	안경	앵:경도, 메가내
21812	안경집	메가내집, 앵경찌비라고
21813	돋보기	독뽕기고, 독까서 보인단마려
21814	주름살	주름
21814-0-1	-이	주름싸리 생겨
21815	엷되다	어레보인다고, 예:레보인다고
21816	수염	쉬:염, 쉬:염
21817	구레나룻	굴레쉬염

21817-0-1 -을	굴레쉬여물 까깁따
21818 코	코빼기, 코라고
21818-0-1 -이	코:가 크다
21819 콧수염	코:털
21820 코딱지	코딱찌
21821 콧구멍	콧꾸멍, 콧구멍
21821-0-1 -을	코꾸머글 마가야지
21821-0-2 -에서	코꾸녀게서 피가 나네
21822 콧물	콧물
21823 입술	입썰, 입쏘벌
21823-0-1 -에	입쏘버리지머
21824 다물다	다문다고
21825 어금니	아금니
21826 덧니	빠딩니
21827 휘파람	훤빠람
21828 침	춤받는다고, 추:미 막
21829 삼키다	생키고
21830 가래(痰)	가래
21831 빨다	배터야되지
21832 혀	세빠닥
21833 혓바늘	아리 설따구
21834 귓볼	귓빵울, 귓빵울, 귀둘레
21835 귀고리	귀거리
21835-1 귀걸이	×
21836 귀지	귓뺨, 귓뺨파내지
21837 귀이개	귀휘비개
21838 소리	소리가 들리지
21839 엇듣다	귀를 자울고 듣는다, 옆듣는다, 옆듣는다고
21840 귀청	귀창떠러진다고
21841 귀밑	귀미티지, 미틀
21841-0-1 -에	귀미티 점 입꾸나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지미지
21844 주근깨	주궁깨고
21845 턱	아래턱
21846 턱수염	아래턱수염 날따고
21847 뺨	뺨, 뺨때기, 뺨마자따고
21847-1 볼	볼토가지, 볼태기
21848 가름하다	잘조마다, 자로마다
21849 보조개	×

21850 머리카락
 21851 비듬
 21852 기계총
 21853 정수리
 21854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21856 가르마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21857 가마(旋毛)
 21857-1 가마(鼎)의 성조 · 음장
 21857-2 가마(轎)의 성조 · 음장
 21857-3 가마(窯)의 성조 · 음장
 21857-4 가마(가마니)의 성조 · 음장
 21858 뒤통수
 21859 뒷덜미
 21860 목
 21861 멍살

멀크락
 머린빼닐, 비:널
 ×
 골꼭때기라고
 번덜니마
 꼬시랑머리라고
 가름
 곱게 낸다
 가매
 박까매지
 가매, 가매
 가매다 안꼬
 가마니
 될때가리
 될똥미
 모가지지머, 모기라고 하지
 멍싸리, 멍싸리 잠는다

2.6.2. 상체

21901 어깨
 21902 밑치다
 21903 겨드랑
 21904 등
 21905 가슴
 21906 결리다
 21907 갈비뼈
 21908 허파
 21909 쓸개
 21910 콩팥
 21910-0-1 -에
 21910-0-2 -을
 21911 팔
 21912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21914 손톱
 21915 오른손
 21916 왼손
 21917 다르다

어깨뻥쭈기여, 어깨뻥쭈기
 민:다고, 미:런따
 자대미티, 자대밋
 등이고
 악까심배기, 악까시미라고
 절린다고 해
 갈빈때
 허패
 썰:개
 콩관
 콩파시라고
 콩파슨
 파:리제
 팔뚱뚱치, 팔뚱뚱치
 팔짱, 팔짱찌고 인따고
 손톱
 오른쪽손, 오린쪽손
 왼:쪽, 왼:쪽손도 되고, 왼:손
 따다, 달르다고, 따게하고,
 틀리게, 달르지

21917-0-1 -아서
 21917-1 틀리다
 21918 왼손잡이
 21919 엄지손가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1 가운데손가락
 21922 약손가락
 21923 새끼손가락
 21924 생인손
 21925 사마귀
 21926 손아귀
 21927 손목
 21928 뺨
 21929 허리
 21930 지팡이
 21931 옆구리
 21932 간지럽다
 21933 간지럼
 21934 잔허리
 21935 근육
 21936 배꼽
 21937 목물

달라서
 틀리게 헛따고
 왼:재비다
 엄지송꾸락
 둘째송꾸락
 세:째송꾸락, 가운데송꾸라기지
 네:째, 약송꼬라기라고, 약송꼬락
 다섯째, 새:끼송꾸락, 새:끼송까락
 생송꼬락알른다, 생송꼬락알른다
 사마귀, 꺼먹사마귀
 소나구가
 팔모기지, 손모기
 뺨
 허리고, 허리
 지팡이~이
 역꾸리
 간지럽따
 간지럼태운다
 ×
 그뉴기제
 배꼽
 등목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2 발가락
 22003 발바닥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6 고린내
 22007 굳은살
 22008 정강이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
 22011 회초리
 22012 무릎
 22012-0-1 -을
 22012-0-2 -에
 22013 오금

복송뼈, 복송뼈
 발꾸라기지머
 발빠닥
 발톱
 땀내나지, 땀내, 땀란 냄새난다고
 쿠룬내(땀냄새), 꼬랑내
 ×
 압쟁쟁이, 압땡쟁이
 종아리 때린다구
 장딴지, 장:딴지
 회차리로 때리지
 무릅, 물팍, 물파기라구
 무릅피지, 물팍다칠다
 무릎피 상처날따
 오곰재~이

22014	엉덩이	엉치
22015	궁둥이	궁덩이라고
22016	볼기	볼기지
22017	명	명:이 생기지
22018	명울	명어리, 명어리전찌
22019	가랑이	가랭이
22020	사이	이:쌔, 이쌔에 꺾긴다
22021	살	산찌치, 산찌치 아프네
22021-0-1	-이	산미티 부선따
22021-0-2	-을	산저틀 채와따
22022	사타구니	사타구니
22023	가래툫	망아리 안자서
22023-0-1	-을	×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밀)
22025	넓적다리	넙쩍따리(위), 넙쩍따리
22026	가부좌(跏趺坐)	발개고 안자따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개고 안잔네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감기가 걸려서, 고뿌리라고허고
22102	기침	지침
22103	채채기	채치기
22104	사레	사:레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사레들릴따고, 사레걸려
22105	딸꾹질	깍질
22106	트름	트름
22107	곰보	억똥빠기, 열건사라미라고, 곰보라고, 곰부딱찌라고
22108	천연두	×
22109	여드름	이드르미
22110	학질	한충난다고
22110-1	하루거리	×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
22111	홍역	호녁
22112	불거리	×
22113	땀띠	땀띠기
22114	두드리기	두디리기, 두디리기는
22115	버짐	버지문, 버짐

22115-1	마른버짐	×
22115-2	진버짐	×
22115-3	도장버짐	×
22116	문둥이	문둥이, 문둥이는
22116-1	문둥병	문둥이뽕이라고
22117	부스럼	부시름, 부시름뽕
22117-1	종기	종기 날따고
22118	고름	고리미 들얼찌
22119	곰기다	골만따고, 공깁따
22120	난쟁이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흘기눈, 흘기누니지
22122	언청이	째:보
22123	소경	눈봉사, 봉사, 눈봉사
22123-1	당달봉사	당달봉사, 당달봉사
22124	애꾸	눈병신, 찡:누니라고
22125	눈곱	눈썹찌기, 눈꼬비
22126	다래끼	눈다라치, 눈다라치
22126-1	다래끼	×
22126-2	다래끼	×
22127	절름발이	절룩빠기
22128	굽사등이	등썸싸
22129	귀머거리	귀머거리, 귀먹쟁이, 귀먹째~이
22130	말더듬이	말더드미
22131	병어리	버버리
22132	잠꾸러기	잠챙이, 잠충이
22133	졸리다	자울린다고, 자울린다고
22134	하품	하:품
22135	졸음	자부름 와서
22135-0-1	-을	자:물 몬짱게, 자:물 몬짱게,
		자부루물
22135-0-2	-에	자울리지
22136	잠꼬대	잠뜯 한다고, 잠꼬대라고,
		잠뜨시라고

2.7. 육아

22201	입덧	입똥, 입똥 날따고
22201-0-1	-을	애기서리도
22202	갓난아이	깐나내기

22203	어린아이	애기라구그러, 어리내
22204	경기(驚氣)하다	깜짝깜짝 놀랜싸서, 정끼한다고, 정끼
22205	눅히다	뉘피야지
22206	계집아이	가시나야, 지지배라고
22207	예쁘다	고:께 생겜따, 이쁘구나
22208	사내아이	아:새끼라고, 사내새끼라구두하고
22209	아우 타다	아:시타니라고
22209-1	아우보다	동생본다고, 동생받따고
22210	야위다	여:민담 마리지
22211	쌍둥이	쌍:똥이, 쌍똥이지
22212	오줌	오짐도 싸고
22213	똥	똥도 싸고
22214	기저귀	겔래를 채워줘, 겔래(다), 지저기(소)
22215	뉘다(排便)	쌔와야지, 누:인다고
22216	방귀	똥:뀐다, 방구뀐다고
22216-1	뀌다	똥뀐다
22217	구린내	똥쿠론내
22218	구리다	냄새가 쿠리다
22219	포대기	포대기고
22220	기지개	지지개가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지지개 쓴다고
22221	거짓말	거:짐말, 거:진말
22222	남부끄럽다	챙피시럽찌, 남부끄럽따고
22223	겹쟁이	겹쟁이
22224	불쌍하다	불쌍하게
22225	죄암죄암	지암지암
22226	곤지곤지	송곤송곤
22227	따로따로	따로따로따로따로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땡대땡대
22230	부라부라	들:깡:달:깡, 부:우:야 부:우:야
22231	걸음마	거림마:
22232	아장아장	쫓박쫓박 거리간다, 아장아장 거리간다
22233	넘어지다	뒤로 발똥 너머간다고
22234	곤두박질	어퍼지제, 내리쳐배킨다고, 쳐배킨다, 쳐바킨다
22235	안기다	앵기지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훤:디기, 훤:디기
22238	숨바꼭질	숨박꼭질하지머
22239	소꿉놀이	빠꼼새기라고
22240	사금파리	새금팔
22241	연	용:, 용:얼 띠운다
22241-1	방패연	×
22241-2	가오리연	×
22242	걸리다	걸렬찌, 걸러가지곤
22243	고누	×
22244	땅뺨기	×
22245	팽이	뽕:이, 뽕:이럴 친다
22246	딱지치기	딱찌치기
22247	구슬	×
22248	그네	군니 띠고, 굴레지머, 굴레뛰기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군디 띠고, 뛴다
22249	밀싰개	군니깎개, 굴래깎개
22250	굴렁쇠	도롱태
22251	굴리다	궁클리든, 궁쿨린다가제
22251-0-1	-고	궁쿨리고 땡인다
22251-0-2	-어야	궁쿨레서
22252	자전거	자중구, 자중구
22253	목말	몽매, 몽매태완따고
22254	말타기	×
22255	달음박질	뿔래기 참 잘한다고, 다름박찌리고
22256	썰매	썰:매지머, 썰매그만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썰:매탄다고
22256-2	송곳	×
22257	엄살	떼:쓴다고, 떼:지를 한다가고, 엄사리지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엄살 쓴다가제, 엄살 부린다그레
22258	부아	화:가 나가지고, 부애난다고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부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
22302	어머니	어머이지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니, 엄마
22303	할아버지	하라부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버이
22304	할머니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할:머이
22305	남편	남페니라고그래, 남퍼니라고
22305-1	남편(호칭)	자기, 영수아버지, 여보여보, 여보
22306	아내	내 여자라고 그래야지, 내 아내라고
22306-1	아내(호칭)	영수 엄마
22307	형	형니미라고, 형, 성:
22307-1	형(호칭)	형님, 성:
22308	아우	동생이라고
22308-1	아우(호칭)	×
22309	누나	누나, 누님
22309-1	누나(호칭)	누님누님, 누나누나
22310	누이	여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22310-1	누이(호칭)	×
22311	자식	자식뜨리
22312	맏아들	크나덜, 크나더리제(소), 마다드리라고, 마다드리라고(다)
22313	맏딸	큰딸(다), 맏딸도(소)
22314	막내	막똥이
22315	오빠	오빠
22315-1	오빠(호칭)	오빠:
22316	언니	언니가
22316-1	언니(호칭)	언니
22317	아비	애비 어디간냐, 영수애비 어디간냐
22317-1	아비(호칭)	야:는 어디간냐
22318	어미	각시 어디간냐
22318-1	어미(호칭)	영수에미야:
22319	손자	손자
22320	손녀	손녀고
22321	사위	싸오지
22321-1	사위(호칭)	영수애비야:
22322	외손자	외:손자
22323	외손녀	외:손녀
22324	꾸짖다	일깨와주지머, 야다늘 쳐야지
22324-0-1	-고	×
22324-1	나무라다	나무래지머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녀
22327	혼인	개로넌다고
22327-1	혼인식	게론식

22328	혼인 잔치	겨론잔치
22329	장가가다	장개간다고, 서방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집간다고
22330	혼숫감	×
22331	함	함:
22332	겹사돈	사두니되지, 겹싸둔
22333	새 색시	새:각씨라고
22333-1	새 색시(호칭)	각씨 각씨
22334	시아버지	시:아부지라고, 시아부지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부지, 아분니미라고
22335	시어머니	시어머니
22335-1	시어머니(호칭)	어머니
22336	비위	비우
22337	아주머니	시숙어르니라고
22337-1	아주머니(호칭)	아주번님
22338	서방님	시:애끼
22338-1	서방님(호칭)	시:애끼 시:애끼
22339	도련님	도린님
22339-1	도련님(호칭)	도린님
22340	형님	형니미지
22340-1	형님(호칭)	형님
22341	시누이	시:누, 시:누, 시누
22341-1	시누이(호칭)	시누
22341-2	아가씨	시누지머
22341-3	아가씨(호칭)	×
22342	올케	올키
22342-1	올케(호칭)	올케 올케
22343	매형	매부
22343-1	매형(호칭)	매부
22344	매제	매제라그려
22344-1	매제(호칭)	매제 매제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부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호칭)	둘째크나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호칭)	세째크나부지
22346	큰어머니	크님마라고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님마
22346-2	아버지 둘째 형의 아내(호칭)	자근크님마라고
22346-3	아버지 셋째 형의 아내(호칭)	세째크님마
22347	큰집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자그나부지, 자그나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그나부지
22349	작은어머니	자그넴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그넴마
22350	삼촌	시:애끼, 도린님, 도린님
22350-1	삼촌(호칭)	×
22351	아저씨	아자씨, 아자씨
22351-1	아저씨(호칭)	아자씨
22352	아주머니	아즈마이
22352-1	아주머니(호칭)	아즈마:이
22353	조카	조카가 되지
22354	조카딸	조카따리고
22355	고모	고무, 고무
22355-1	고모(호칭)	고모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
22357	고종	고중가니지지
22358	이모	이모되지
22358-1	이모(호칭)	이모이모
22359	이모부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
22360	이종	이종가니
22361	외삼촌	외삼춘
22361-1	외삼촌(호칭)	외삼춘
22362	외숙모	외:송무
22362-1	외숙모(호칭)	외송무
22363	외종	외중간, 외중간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라바이, 외하라부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
22365	외할머니	외할머이
22365-1	외할머니(호칭)	외할머이
22366	장인	장이니 되지
22366-1	장인(호칭)	장이느른
22367	장모	장모
22367-1	장모(호칭)	장몬님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처나미라고
22369	처남댁	처나무댁
22369-1	처남댁(호칭)	처남대기라
22370	홀아버	호래비라고
22371	홀어미	호리미
22372	계모	후덤마

22372-1	계부	후다부지
22373	아저씨	아자씨
22373-1	아저씨(호칭)	×
22374	아주머니	아즈마이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즈마이
22375	사나이	사나, 사나라고
22376	영감	영가미라고 하지, 영감
22376-1	할머니를 낮추어 말할 때(저 늙은 할망구)	할망구
22377	나이	나이
22377-0-1	-를	나이럴 먹지
22378	환갑	항가비, 회가비라고
22378-1	환갑잔치	항갑짚치
22379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
22402	민물고기	또랑고기, 민물꼬기라고
22403	피라미	쫑개새끼라고, 쫑개새끼, 버들개, 버들개
22404	지느러미	날개
22405	아가미	×
22406	창자	창시
22407	송사리	송아리
22408	헤엄	시엄침서 간다
22409	메기	메사기
22410	자라	×
22411	거북	거부기년,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꼬라지, 미꼬라지
22413	개구리	개:구리
22414	올챙이	올챙이고, 올챙~이
22415	두꺼비	뚜깨비, 뚜깨비여
22416	거머리	거마리지
22417	다슬기	다스래
22418	우렁이	우렁
22419	고둥	우렁이라구려, 우렁도
22420	달팽이	달팽인데

22421	새우	새비고, 새비
22421-1	새우(대)_민물	새비제
22421-2	새우(소)_민물	×
22421-3	새우(대)_바다	바다새비라가지, 바다새비
22421-4	새우(소)_바다	×
22422	새우젓	새비전
22422-0-1	-이	새비저시제
22423	가재	까:재
22424	갈치	칼:치지, 칼:치
22425	고등어	고등에
22426	가오리	×
22427	가자미	납찌, 가재미라고도 허지
22428	멸치	멜:치, 멜:칭가
22429	명태	멩:태는, 멩:태도
22429-1	동태	언:멩태라, 동태, 언동태
22429-2	황태	마른멩태라고
22429-3	노가리	노랑태
22429-4	북어	×
22429-5	생태	생:멩태지머
22430	조기	조구, 조고, 조구 업써
22431	도미	×
22432	뱀장어	뱀송개라 해, 뱀:장애
22433	낙시	낙씨고
22434	미끼	미끼:
22435	낙싯대	낙싯때
22436	얼레	자새
22437	조개	조개그만
22438	소라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거지가, 벌거지
22502	날벌레	날빨거지지
22503	파리	파:리, 파:리
22503-1	쉬파리	쉬:파린가, 쉬파리
22504	쉬슬다	쉬:쓰러놓는다, 쇠:쓰러
22505	가시	구디기
22506	진딧물	풀벌거지, 배차빨거지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
22507	잠자리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왕:치
22508-1	암컷	큰왕치
22508-2	수컷	땡개비
22509	메뚜기	메뚜기
22510	여치	연:치
22511	사마귀	사:마구
22512	벌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벌: 놔따고
22513	땅벌	땅뽕, 땡뽕
22514	나비	나:비고
22515	하루살이	하루사리
22516	풍뎅이	강구
22517	모기	모기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매:미
22520	개똥벌레	반딧뽕, 개똥벌레, 개똥벌레고
22521	반딧불	반딧불
22522	거미	거:미, 거무
22523	굼벵이	굼비지
22524	구더기	구더기
22525	노래기	×
22526	그리마	×
22527	지네	지네라고
22528	개미	개:미지, 개:미
22529	바구미	×
22530	진드기	진디기, 진디기
22531	벼룩	벼루기제
22532	이(蟲)	이:
22532-1	서캐	씨:개, 씨:개
22532-2	빈대	빈데, 빈대
22533	송충이	×
22534	귀뚜라미	뀌:뚜라미
22535	누에	누:에
22536	고치	누에꼬치
22537	번데기	누에뽕디기
22538	지렁이	지렁이 나오지
22539	회충(蛔蟲)	거시랑, 거시가
22540	소금쟁이	소곰쟁이, 소곰쟁이넌
22541	방개	방:구, 물뽕구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추기라고하지며
22602	암소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멤멤멤멤
22605	황소	순:쏘, 순:쏘, 황:소라고, 황:소
22606	길들이다	질디린다고
22606-1	소 모는 소리_앞으로 가라	짜: 짜:
22606-2	소 모는 소리_그 자리에 서라	와:
22606-3	소 모는 소리_오른쪽으로 돌아	이리
22606-4	소 모는 소리_왼쪽으로 돌아	자라
22606-5	소 모는 소리_뒤로 물러나라	물리서 물리서
22607	쇠고기	소:고기지, 소고기
22608	고기(肉)	고기를
22609	둘치	둘찌, 둘:쏘
22610	꼬리	꼬:리
22611	망아지	망아지라고 하지
22612	당나귀	당나구
22613	갈기	×
22614	돼지	돼:지그만
22614-1	멧돼지	멧돼지
22615	주둥이	주둥아리
22616	돼지 머리	돼지대가리라고, 뒤아지대가리
22617	돼지우리	돼지막
22617-1	오래오래	꿀꿀꿀꿀꿀
22618	개(犬)	개
22618-1	수캐	수캐
22618-2	암캐	앙캐
22619	강아지	강아지
22620	염소	염:소
22621	고양이	고냉이, 고앵이
22621-1	수고양이	순꼬앵이
22621-2	암고양이	앙꼬앵이
22622	토끼	토:끼
22623	거위(鵞)	게사니, 거우라고도허고
22624	암탉	달기, 암탉
22625	병아리	뺑아리
22626	모으다	모여든담마리여, 모여드러
22627	수탉	수탉
22627-0-1	-이	장타기 울면, 장따기 울면, 장타기

22628 벋(鷄冠)
 22629 부리
 22630 모이
 22630-0-1 -을
 22630-1 모이다
 22631 닭털
 22632 닭똥
 22633 어리
 22634 닭장
 22635 둥우리
 22636 날개
 22637 깃
 22637-0-1 -을

베실
 주딩이
 모시
 모시털
 모여드러, 모이고 인다
 닭털
 달기똥알싸제
 ×
 달기굴, 닭짱이고, 닭짱이제
 달기통아리, 달기통어리
 날개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을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무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9 꿩지
 22720 솔개
 22721 독수리
 22722 제비(燕)

호랭이, 버:미라고
 살가지
 여:수, 여:수
 쨌내비가, 쨌내비라고, 원:숭이라고
 사:심허고, 사심도
 놀가진가, 놀가지는
 놀가지가 만타
 놀가지털 자발따
 고순돈, 고순돈
 두지기, 두지기
 쪽:쨌비, 쪽찌비
 비얌
 도매비얌
 구렁이
 독썰라고
 새양쥐
 뽕:쨌지
 까꿀로
 다람쥐
 새:날라간다
 꿩:지
 수리개
 독쭈리, 독쭈리가
 제:비

22723	두루미	황새
22724	소쩍새	소쪽새, 소쩍새
22725	꿩	꿩:
22726	장끼	장:꿩
22727	까투리	양:꿩, 까투리
22727-1	꺼병이	×
22728	종달새	종달새가, 종달새
22729	빼꾸기	빼꼭새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
22732	올빼미	올빼미
22733	까치	까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22735	덧	돈:좌, 돈 논는다고, 채끼, 새돈
22735-0-1	-을	새도슬 논는다고, 새:도슬
22736	올가미	올개미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진달래꽃, 진달래꼬시지머
22802	철쭉꽃	×
22803	민들레	머심들래, 머심들래
22804	맨드라미	맨드래미꼬슬
22805	봉선화	봉숭아, 봉숭와
22806	파리	파리
22807	해바라기	해자바리, 해자바리
22808	꽃봉오리	꽃뽕오리 올라온다
22809	시들다	시들고인쎄, 시드러진따
22810	질경이	쥘갱이
22810-1	질경이(식물 이름)	쥘개~이
22810-2	질경이(식용(반찬) 이름)	쥘갱이반차니지
22811	빨기	빼비, 빼비나물, 빼비
22812	비름	비:름, 비름, 참비름
22813	쇠비름	쇠비름
22814	썩바귀	썩:나무리지, 썩나물
22815	고들빼기	×
22815-1	고들빼기(식물 이름)	×

22815-2	고들빼기(식용(반찬) 이름)	×
22816	고사리	고사리그만
22817	고비	소고비
22818	도깨비바늘	진두차리
22819	도꼬마리	도꾸마리넌, 그게 도꾸마리여
22820	억새	새:초
22821	갈대	가래, 갈때
22822	이끼	바위풀, 이끼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
22825	수세미	쭈:시미가, 쭈:세미
22826	덩굴	넙쿨
22827	덤불	덤불, 덤불
22827-1	가시덤불	가시덤풀, 까시덤풀
22828	잔디	잔디풀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솔:라무
22902	솔방울	솔빵울
22903	관솔	솔소까지, 관소리지, 관소까지라고
22904	솔가리	갈쿠나무
22905	그러모으다	꼭꼬인째, 끌거모아야
22906	뽕나무	뽕낭구
22907	오디	오두개
22908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참나무에가
22910	상수리	×
22911	옻	온나무, 온나무
22911-0-1 -으로		×
22912	버드나무	버들나무
22913	느티나무	정지나무
22914	그림자	그름자, 그림자
22914-1	그늘	그늘, 그늘
22915	숲	습:쏘건, 습
22915-0-1 -을		수벌 다
22915-0-2 -에		수피 지퍼서
22916	시원하다	씨워:너지며, 시워나지며
22917	절레	절그배, 절그배라고, 절레꼬신가
22918	쭉	쭉낭구가

22918-0-1 -에	치기, 치게 걸릴따고
22919 가지(枝)	아치, 아치 칭게지, 가지라고도 허야, 가지, 나뭇가지
22920 끝	끄트리
22920-0-1 -이	끄트리가 뿌러절찌
22920-0-2 -을	끄트리릴 찢란따
22920-0-3 -에	끄시제, 끄시제
22921 삭정이	삭따리
22921-1 삭정이를 판다/꺾다/하다	끄:너, 끄너야지
22922 나무	낭구
22922-0-1 -을	낭구를
22922-0-2 -에	낭구에 걸려서
22923 나무하다	낭구를 해와야지
22924 그루터기	끈트럭
22924-1 그루터기	강냉이꿀기, 수수꿀
22925 등걸	등거리라고하고, 등거리
22926 장작	장작
22927 패다	패능거
22928 부스러기	나무뿌시리기
22929 숯	숯:, 수끼
22929-0-1 -이	수시 만타고
22929-0-2 -을	수끼를
22929-0-3 -에	수끼에다가
22930 불잉걸	잉그럭뿔
22931 짝	씩:, 싸기제, 썩트능기고
22932 잎	이파리가, 이파리
22932-0-1 -을	낭구이파리 뜨더오라고
22932-1 잎사귀	한입씩, 입싸구
22933 가랑잎	단풍이파리
22934 뿌리	낭구뿌렁이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은
23002 돌배	짬:배, 돌뻘낭구, 돌:뻘
23003 복숭아	복썰아, 복숭아
23004 귤감	꼭:깎, 꼭깎
23005 홍시	홍수감
23006 고욤	기욤, 기욤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는, 자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
23011	석류	×
23012	모과	×
23013	과일	과실낭구
23014	꼭지	꼭:찌
23015	밤	바:미그만
23015-1	밤송이	밤송이라고 하는데, 까시바미라고
23015-2	꽃밤	폴뽕
23015-3	알밤	알뽕
23015-4	쌍동밤	두쪽뽕
23016	보너	×
23017	호두	×
23018	가래(秋子)	×
23019	개암	깨금
23020	머루	멀구
23021	다래	다래넌
23022	청미래덩굴	×
23023	으름	×
23024	참외	차:메
23025	딸기	딸기
23025-1	딸기(밭)_재배	집딸기
23025-2	딸기(밭)_야생	×
23025-3	딸기(들)_재배	×
23025-4	딸기(들)_야생	×
23025-5	딸기(산)_재배	까시딸기
23025-6	딸기(산)_야생	×
23026	뽕딸기	×
23027	마름(菱)	×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상:꼭때기
23102	기슭	삼미티, 상끼슬기, 상기슬기
23102-0-1	-에	삼미티다 진는다고

23103	꼴짜기	상꼬랑, 상꼴짜기라고
23104	메아리	메사니 올린다
23105	고함	소리치는게지, 콧:친다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콧:친다
23106	묘	뵈:, 뵈:똥
23107	뿔자리	뿔:짜리
23107-1	광중	굴 판다고그러
23108	구덩이	구덩이
23109	비탈	삼뻘탈, 비타리, 삼뻘탈
23110	가파르다	강카롭따
23111	언덕	산언덕, 언더기지
23112	낭떠러지	웅통개, 웅통개
23113	들(野)	들:
23113-0-1	-에	드레 나가서 일허지
23114	벌	벌:, 버덕
23115	갈람길	두갈래끼리지, 갈랴끼리라고
23116	헤어지다	헤어진다, 히어진다, 헤트러진다,
		히트러져
23117	바위	바우똥
23117-0-1	-을	바우똥덜 드런따
23117-0-2	-에	바우똥레 걸쳐안잔찌
23118	돌(石)	돌더리 인따
23118-0-1	-을	도리 만타
23118-0-2	-에	도레 마저찌
23119	자갈	짜갈, 자가리고
23120	모래	모래, 모래보다, 모래로
23120-0-1	-를	모래덜
23121	진흙	진흑
23121-1	찰흙	찰흑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무럴 마셔야
23202	거품	버큼, 버큼, 버큼
23203	개운하다	거뽀하다, 깨우나네,
		깨우나기도 하고
23204	도랑	또랑언, 도랑이라하지
23204-1	붓도랑	본또랑이 크지
23205	둑	뚜기라고 하지, 뚜기
23206	잠기다	쟁겔따

23207	개울	개우리는, 개우리지, 개우리
23208	내(川)	내까라고 그러
23209	미역 감다	시염치지, 시염치고
23210	발가숭이	피복쟁이들, 빨까빠싹따
23211	목욕하다	목강한다, 모욕하는거시나
23212	수채	수초
23213	개굴창	개굴챙이라고, 깨굴창
23214	시궁창	시금창
23215	웅덩이	웅덩이, 웅덩
23216	수렁	수렁꾸디기
23217	늪	진털(소), 느:븐(대)
23217-0-1 -에		느피, 느비라고
23218	배(船)	배타고 건네가
23219	나루터	×
23220	돛	×
23220-0-1 -에		×
23221	돛대	×
23222	돛배	×
23223	돛 줄	×
23224	돛줄	×
23225	거루	쪽:빠
23226	상앗대	족때
23227	개펄	×
23228	물	×
23228-0-1 -으로		×
23229	밀물	×
23230	썰물	×
23231	가라앉다	까란절따
23232	그물	그물
23233	해녀	×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복
23302	새벽밥	새복밥
23303	아침	아침, 아치메
23304	아침밥	아침밥
23305	점심	점심빠비고, 증:심때
23306	저녁	저낙, 지나기 먹찌
23307	설핏하다	×

23308	노을	노을 쓰능거
23308-0-1	-을	노을 보고 인따
23309	불구레하다	빨가치, 불구레하다
23310	해거름	해거르미라고, 해거르미
23311	땅거미	땅끄미, 땅끄미 드러
23312	봄	봄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버, 더버서, 더비가
23315	추위	춘:날씨, 추버서, 추비가
23316	가을	가을철, 가르리여
23316-0-1	-에	가으레
23317	겨울	동사미지, 겨울
23317-0-1	-에	동사메 마니 온다
23318	얼음	어리미 되지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넬:
23321	모래	모래
23322	글피	글패
23323	그글피	그글패
23324	어제	어지깨, 어지깨
23325	그저께	그즈께,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
23327	훗날	훈:나레
23328	하룻날	하룬날
23329	이튿날	이튼날
23330	사흘날	산:날
23331	나흘날	난:날
23332	닷셋날	단쎌날
23333	엿셋날	열쎌날
23334	이렛날	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야드랜날
23336	아흐렛날	아으랜날
23337	열흘날	여허리라고, 여혈나리라고
23338	하루	하루, 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살:
23341	나흘	나흘, 날:
23342	닷새	단쎌
23343	엿새	열쎌
23344	이레	이래
23345	여드레	야드래

23346	아흐레	아흐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한나잘
23348-1	반나절	반나자리라고, 반나잘
23349	그믐	그무미지, 그믐날
23349-1	그믐께	그믐쫘, 그믐께
23350	지금	지금 해라
23351	아직	아직 안 머견따
23352	이제	인재 멍는다
23353	이미	이미
23354	요즈음	요조메, 요즈메
23355	금방	이제곰방, 이제곰방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베치라가지
23401-0-1	-이	베치다가
23401-0-2	-을	베출 쪼고
23402	따스하다	따따다다, 따따타다
23403	아지랑이	아지랭이
23404	응달	그늘진디고, 음지
23405	양달	발근디라고, 양지
23406	비(雨)	비가온다구러지, 비온다
23407	가랑비	잠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실비
23409	안개	앙개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나기	쏘내기가, 소낙뻘
23413	갑자기	느다듭씨, 느다듭씨
23414	홍수	홍수, 홍수 곁따고
23415	번개	병개치지
23416	천둥	천둥
23417	벼락	베락친다고, 베락쳐서
23418	무섭다	무서워가꼬, 무서버서
23419	함박눈	함방눈, 함방누니여
23420	싸락눈	싸래기눈두
23421	발자국	발짝꼭
23422	진눈깨비	눔비(다), 진눈깨비라구(소)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23425 햇무리
 23426 달무리
 23427 둥글다
 23428 은하수
 23429 금성
 23430 가뭄
 23431 마르다
 23431-0-1 -어서
 23432 위
 23433 아래
 23434 왼쪽
 23435 오른쪽
 23436 결
 23436-0-1 -에
 23437 회오리바람
 23438 북풍
 23439 남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고두름, 고도름
 햄머리, 햄머리 선파
 달머리 스고
 똥고로코, 똥고래
 으나수
 썬뻔, 썬뻔
 가무리, 가물 드러서, 가물
 잘 마른다
 말라서
 우에라 하지, 우에, 우쪼개
 아래쪽, 아래
 왼쪽
 오른쪽
 내 저트로 오라
 할머니저티 와서
 돌개바람
 북풍
 남풍
 동풍
 서풍

제 3 편 음운

3.1. 음운 목록

3.1.1. 단모음

31001	테(輪)	테:
31001-0-1	-이/가	테가
31001-0-2	-보다	테:보다
31002	태(胎)	탤쭈리라그려, 테:
31002-0-1	-이/가	태가
31002-0-2	-보다	태보다
31003	떼(群)	짐송 떼가 만타
31003-0-1	-이/가	떼가
31003-0-2	-보다	떼드리
31004	때(時)	때가 도라왈따
31004-0-1	-이/가	때가 도라왈따
31004-0-2	-보다	때보다
31005	틀(機)	틀
31005-0-1	-이/가	트리 조쿠만
31005-0-2	-보다	틀보다
31006	털(毛)	털
31006-0-1	-이/가	터리 만타
31006-0-2	-보다	털보다
31007	글(文)	글
31007-0-1	-이/가	그:리라고, 그:리
31007-0-2	-보다	글보다
31008	컬(鬍)	컬
31008-0-1	-이/가	커:리
31008-0-2	-보다	컬:보다
31009	기(旗)	기:
31009-0-1	-이/가	기가 크다
31009-0-2	-보다	기보다
31010	귀(耳)	귀가
31010-0-1	-이/가	귀가 크다
31010-0-2	-보다	귀보다
31011	시(生時)	아침 시:
31011-0-1	-이/가	시:가 조체

31011-0-2 -보다
 31012 쉬(蠅卵)
 31012-0-1 -이/가
 31012-0-2 -보다
 31013 쇠(鐵)
 31013-0-1 -이/가
 31013-0-2 -보다
 31014 외:국(外國)
 31014-0-1 -이/가
 31014-0-2 -보다
 31015 왜국(倭國)
 31015-0-1 -이/가
 31015-0-2 -보다
 31016 쉬:다(休)
 31016-0-1 -이/가
 31016-0-2 -보다
 31017 쇠:다(철을~)
 31017-0-1 -이/가
 31017-0-2 -보다
 31018 베(布)
 31018-0-1 -이/가
 31018-0-2 -보다
 31019 배(船)
 31019-0-1 -이/가
 31019-0-2 -보다
 31020 배(腹)
 31020-0-1 -이/가
 31020-0-2 -보다
 31021 (떡)메
 31021-0-1 -이/가
 31021-0-2 -보다
 31022 매(鞭)
 31022-0-1 -이/가
 31022-0-2 -보다
 31023 메:다(擔)
 31023-0-1 -이/가
 31023-0-2 -보다
 31024 매:다(繫)
 31024-0-1 -이/가
 31024-0-2 -보다
 31025 떼:다(分離)

시:보다
 쉬:
 쉬:가
 쉬:보다
 쇠:
 쇠:가 강하다
 쇠보다
 외국
 외구기지
 외국뿐다
 왜:놈덜
 왜:놈드리라고
 왜:놈보다
 쉬:여, 안자서 쉬자
 쉬:야겔따
 쉬:어도 되지
 잘: 쉰다
 쇠아야겔다
 잘 쇠자
 베 찢다고
 베가 쏠타
 베보다
 배:
 배가
 배보다
 배:
 배가 아프지
 배보다
 메:
 메가 무겁다
 메보다
 매:
 매:가 꼬너져따
 매보다
 미:능거고
 메:야제
 메고
 매:
 매:야제
 매고 일다
 떼:다

31025-0-1 -이/가	떠어, 떠어
31025-0-2 -보다	떠얼따
31026 때:다(炊)	땡:다
31026-0-1 -이/가	땡따
31026-0-2 -보다	때:고 일따
31027 베:다(切斷)	비얼따
31027-0-1 -이/가	비어서
31027-0-2 -보다	비얼꼬
31028 배:다(孕胎)	뽀:따
31028-0-1 -이/가	뽕개
31028-0-2 -보다	배:쑤게
31029 세:다(算)	센:다
31029-0-1 -이/가	센:다
31029-0-2 -보다	세:고 일따
31030 새:다(漏泄)	샌:다
31030-0-1 -이/가	샌:다
31030-0-2 -보다	새:고일따
31031 뒤(後)	뒀
31031-0-1 -이/가	뒤에
31031-0-2 -보다	뒀쪽
31032 되(升)	되:라고
31032-0-1 -이/가	되가 커
31032-0-2 -보다	되보다 더 커
31033 재:(蟹)	쟁:가
31033-0-1 -이/가	게:가 크다
31033-0-2 -보다	게:보다
31034 개:(犬)	개:
31034-0-1 -이/가	개가 진는다
31034-0-2 -보다	개보다

3.1.2. 이중모음

31035 여럿(多)	여러멩이 일따고
31035-0-1 -이/가	여러신디
31035-0-2 -보다	여럿뽀다
31035-0-3 -을/를	여러슬
31036 물결(波)	물결
31036-0-1 -이/가	물지껴리지
31036-0-2 -보다	×
31036-0-3 -을/를	×

31037	예:의(禮儀)	예모가 바르다
31037-0-1	-이/가	×
31037-0-2	-보다	×
31037-0-3	-을/를	×
31038	계:획(計劃)	괴혹
31038-0-1	-이/가	×
31038-0-2	-보다	×
31038-0-3	-을/를	괴호글 잘 세운다
31039	규칙(規則)	귀촉
31039-0-1	-이/가	×
31039-0-2	-보다	×
31039-0-3	-을/를	귀추걸 잘 지킨다
31040	휴일(休日)	쉬싱날
31040-0-1	-이/가	×
31040-0-2	-보다	×
31040-0-3	-을/를	×
31041	교통(交通)	교통
31041-0-1	-이/가	×
31041-0-2	-보다	×
31041-0-3	-을/를	×
31042	효:자(孝子)	회:자
31042-0-1	-이/가	효자
31042-0-2	-보다	×
31042-0-3	-을/를	×
31043	웬일(何事)	웬닐로
31043-0-1	-이/가	×
31043-0-2	-보다	×
31043-0-3	-을/를	×
31044	궤:(짝)(櫃)	궤:짝, 궤:짝
31044-0-1	-이/가	궤:짜기다
31044-0-2	-보다	×
31044-0-3	-을/를	×
31045	왜란(倭亂)	왜:놈
31045-0-1	-이/가	×
31045-0-2	-보다	×
31045-0-3	-을/를	×
31046	헛대(鷄架)	훤때, 훤때
31046-0-1	-이/가	×
31046-0-2	-보다	×
31046-0-3	-을/를	×
31047	원망(怨望)	원망

31047-0-1 -이/가	×
31047-0-2 -보다	×
31047-0-3 -을/를	원망얼 해야지
31048 권:투(拳鬪)	곶투치기, 꺾:투
31048-0-1 -이/가	×
31048-0-2 -보다	×
31048-0-3 -을/를	×
31049 의논(議論)	으노니지
31049-0-1 -이/가	×
31049-0-2 -보다	×
31049-0-3 -을/를	×
31050 무늬(紋)	무니
31050-0-1 -이/가	무네
31050-0-2 -보다	×
31050-0-3 -을/를	×
31051 왕(王)	왕
31051-0-1 -이/가	왕이제, 왕이라고
31051-0-2 -보다	×
31051-0-3 -을/를	×
31052 과자(菓子)	과자
31052-0-1 -이/가	과잔게
31052-0-2 -보다	과자는
31052-0-3 -을/를	×

3.1.3. 장모음 · 성조

31053 일(一)	일, 일
31053-0-1 -이/가	이른 작찌
31053-0-2 -보다	일보다
31054 일:(事)	일: 잘한다고
31054-0-1 -이/가	이:라는게 심:드러
31054-0-2 -보다	일:도 잘한다고, 이:라고 인다, 일보다
31055 매(鞭)	매
31055-0-1 -이/가	매가 뿌러절따고, 매가
31055-0-2 -보다	매:보다, 매:보다
31056 매:(鷺)	나는 매:, 매:
31056-0-1 -이/가	매:가 내려왈찌
31056-0-2 -보다	×
31057 밤(夜)	밤

31057-0-1 -이/가
 31057-0-2 -보다
 31058 밤:(栗)
 31058-0-1 -이/가
 31058-0-2 -보다
 31059 눈:(眼)
 31059-0-1 -이/가
 31059-0-2 -보다
 31060 눈:(雪)
 31060-0-1 -이/가
 31060-0-2 -보다
 31061 말(馬)
 31061-0-1 -이/가
 31061-0-2 -보다
 31062 말(斗)
 31062-0-1 -이/가
 31062-0-2 -보다
 31063 말:(言)
 31063-0-1 -이/가
 31063-0-2 -보다
 31064 손(客)
 31064-0-1 -이/가
 31064-0-2 -보다
 31065 손(手)
 31065-0-1 -이/가
 31065-0-2 -보다
 31066 손:(孫)
 31066-0-1 -이/가
 31066-0-2 -보다
 31067 배(梨)
 31067-0-1 -이/가
 31067-0-2 -보다
 31068 배:(倍)
 31068-0-1 -이/가
 31068-0-2 -보다
 31069 벌(罰)
 31069-0-1 -이/가
 31069-0-2 -보다
 31070 벌:(蜂)
 31070-0-1 -이/가
 31070-0-2 -보다

바미 질다
 밤보다
 밤:
 바:미 만치
 밤:보다
 눈
 사람 누니고, 누:니 침침하지
 눈보다
 누닌데
 누:니 마니 내려
 눈:보다
 마리
 마리
 말보다
 말
 마:리 크지
 말:보다
 마른
 마:리 빨리
 말:보다
 손니미고
 손:니미 완쏘
 손보다, 손보다
 손
 소니 크다
 손보다
 소:니지
 소:니 귀히지
 손보다는
 배
 배가
 ×
 배가 더 만타
 배:가 만타
 배:릴 가지고
 벌, 버:릴 받는다
 버릴
 벌만 바다서
 벌:
 버:란테
 벌:만

31071 술(松)
 31071-0-1 -이/가
 31071-0-2 -보다
 31072 술:(刷)
 31072-0-1 -이/가
 31072-0-2 -보다
 31073 줄(鉉)
 31073-0-1 -이/가
 31073-0-2 -보다
 31074 줄:(연장)
 31074-0-1 -이/가
 31074-0-2 -보다
 31075 돌:(石)
 31075-0-1 -이/가
 31075-0-2 -보다
 31076 담(牆)
 31076-0-1 -이/가
 31076-0-2 -보다
 31077 담:(膽)
 31077-0-1 -이/가
 31077-0-2 -보다
 31078 들:(野)
 31078-0-1 -이/가
 31078-0-2 -보다
 31079 달-(縣)
 31079-0-1 -고
 31079-0-2 -더라
 31080 달-(甘)
 31080-0-1 -고
 31080-0-2 -더라
 31081 달:-(熱)
 31081-0-1 -고
 31081-0-2 -더라
 31082 갈-(換)
 31082-0-1 -고
 31082-0-2 -더라
 31083 갈-(磨)
 31083-0-1 -고
 31083-0-2 -더라
 31084 갈:-(耕)
 31084-0-1 -고

술:
 소:리지, 소:리 만치
 술도 만코
 풀썰
 술:로
 술:토 만코
 진:줄
 주리지
 줄:만 가파
 ×
 주리고
 줄:만 가꼬와라
 돌
 도:리 만타
 돌:보다
 담
 다미 노파
 담만 싸라
 ×
 ×
 ×
 들
 드:리 넘파
 들:보다
 달고 인다
 달고 인뜨라, 달고 인다
 달드라
 달다, 달다
 ×
 달드라
 다란따
 ×
 다란뜨라
 갈고
 갈고 인따
 갈드라
 ×
 갈고 인따
 갈드라
 ×
 갈고 인따

31084-0-2 -더라	갈:드라
31085 걷-(收)	거더드리야지
31085-0-1 -고	걷꼬인따
31085-0-2 -더라	걷뜨라
31086 걸:-(步)	빨리 걸른다
31086-0-1 -고	걷꼬인따
31086-0-2 -더라	빨리 걸트라
31087 적-(書)	적뜨라
31087-0-1 -고	적꼬 인뜨라
31087-0-2 -더라	그를 적뜨라
31088 적:-(小)	적:뜨라
31088-0-1 -고	적:꼬
31088-0-2 -더라	적뜨라

3.2. 음운 과정

3.2.1. 활용

32001 막-(防)[ㄱ]	
32001-0-1 -지	가로막찌
32001-0-2 -고	막꼬 인따
32001-0-3 -더라	막드라
32001-0-4 -으니까	마:궁개
32001-0-5 -아/어(-았/었다)	마갈따
32002 흐르-(流)[ㅡ]	흘러
32002-0-1 -지	흐르지
32002-0-2 -고	흘르고
32002-0-3 -더라	흐르드라
32002-0-4 -으니까	흐룽개
32002-0-5 -아/어(-았/었다)	흘린따
32003 오-(來)[ㅁ]	
32003-0-1 -지	오지
32003-0-2 -고	오고인따
32003-0-3 -더라	오드라
32003-0-4 -으니까	오잉개 존타
32003-0-5 -아/어(-았/었다)	왈따
32004 듣-(聞)[ㄷ변]	듣는다
32004-0-1 -지	듣찌
32004-0-2 -고	득꼬인찌

32004-0-3 -더라	잘 들뜨라
32004-0-4 -으니까	드룽개
32004-0-5 -아/어(-왔/었다)	드런써
32005 많:- (多)[냐]	개쭈가 만타
32005-0-1 -지	만치
32005-0-2 -고	망코
32005-0-3 -더라	만트라
32005-0-4 -으니까	마:능개
32005-0-5 -아/어(-왔/었다)	마난따
32006 말:- (任)[트]	
32006-0-1 -지	만찌
32006-0-2 -고	막꼬
32006-0-3 -더라	만뜨라
32006-0-4 -으니까	마툽개
32006-0-5 -아/어(-왔/었다)	마탄따
32007 알:- (知)[르]	
32007-0-1 -지	알:지
32007-0-2 -고	알:고
32007-0-3 -더라	알:드라
32007-0-4 -으니까	앙:개
32007-0-5 -아/어(-왔/었다)	아란따
32008 감:- (閉眼)[크]	
32008-0-1 -지	감찌
32008-0-2 -고	깡:꼬
32008-0-3 -더라	감뜨라
32008-0-4 -으니까	까뭉개
32008-0-5 -아/어(-왔/었다)	까만따
32009 벗:- (脫)[스]	버선티
32009-0-1 -지	벗:찌
32009-0-2 -고	벽꼬
32009-0-3 -더라	벗뜨라
32009-0-4 -으니까	버승개
32009-0-5 -아/어(-왔/었다)	버선티
32010 옴:- (可)[르]	올타
32010-0-1 -지	올치
32010-0-2 -고	올코
32010-0-3 -더라	올트라
32010-0-4 -으니까	오룽개
32010-0-5 -아/어(-왔/었다)	오란따
32011 입:- (着衣)[히]	
32011-0-1 -지	입:찌

32011-0-2 -고	입꼬
32011-0-3 -더라	입뜨라
32011-0-4 -으니까	이봉개
32011-0-5 -아/어(-았/었다)	이번뜨라
32012 바꾸-(換)[ㄱ]	
32012-0-1 -지	바꾸지
32012-0-2 -고	바꾸고
32012-0-3 -더라	바꾸드라
32012-0-4 -으니까	바꿨개
32012-0-5 -아/어(-았/었다)	바뀔따, 바꼈찌
32013 덮-(覆)[표]	
32013-0-1 -지	덮찌
32013-0-2 -고	덕꼬
32013-0-3 -더라	덱뜨라
32013-0-4 -으니까	더풍개
32013-0-5 -아/어(-았/었다)	더펼따
32014 묻:-(問)[ㄷ 변]	문는다
32014-0-1 -지	묻찌
32014-0-2 -고	묵꼬
32014-0-3 -더라	묻뜨라
32014-0-4 -으니까	무릉개
32014-0-5 -아/어(-았/었다)	무ړ따
32015 낫:-(癒)[ㅅ 변]	
32015-0-1 -지	낫:찌
32015-0-2 -고	낙:꼬
32015-0-3 -더라	낫:뜨라
32015-0-4 -으니까	나승개
32015-0-5 -아/어(-았/었다)	나살따, 나살찌
32016 닫-(閉)[ㄷ]	
32016-0-1 -지	닫찌
32016-0-2 -고	닥꼬
32016-0-3 -더라	닫뜨라
32016-0-4 -으니까	다등개
32016-0-5 -아/어(-았/었다)	다닫따
32017 쫓-(追)[ㅈ]	쫓는다
32017-0-1 -지	쫓찌
32017-0-2 -고	쪽꼬
32017-0-3 -더라	쫓뜨라
32017-0-4 -으니까	쫓층개
32017-0-5 -아/어(-았/었다)	쫓찰따
32018 베:-(枕)[ㄴ]	

32018-0-1 -지
 32018-0-2 -고
 32018-0-3 -더라
 32018-0-4 -으니까
 32018-0-5 -아/어(-았/었다)
 32019 깨:-(破)[ㄱ]
 32019-0-1 -지
 32019-0-2 -고
 32019-0-3 -더라
 32019-0-4 -으니까
 32019-0-5 -아/어(-았/었다)
 32020 피:-(伸)[ㅋ]
 32020-0-1 -지
 32020-0-2 -고
 32020-0-3 -더라
 32020-0-4 -으니까
 32020-0-5 -아/어(-았/었다)
 32021 밝:-(明)[ㄹ]
 32021-0-1 -지
 32021-0-2 -고
 32021-0-3 -더라
 32021-0-4 -으니까
 32021-0-5 -아/어(-았/었다)
 32022 삶:-(烹)[ㄹ]
 32022-0-1 -지
 32022-0-2 -고
 32022-0-3 -더라
 32022-0-4 -으니까
 32022-0-5 -아/어(-았/었다)
 32023 읊:-(吟)[ㄹ]
 32023-0-1 -지
 32023-0-2 -고
 32023-0-3 -더라
 32023-0-4 -으니까
 32023-0-5 -아/어(-았/었다)
 32024 밟:-(踏)[ㄹ]
 32024-0-1 -지
 32024-0-2 -고
 32024-0-3 -더라
 32024-0-4 -으니까
 32024-0-5 -아/어(-았/었다)

비:지
 비:고
 비드라
 빙개 줄타
 벤따
 깐다
 깨:지
 깨:고
 깨:드라
 깡:개, 깡:개
 깐따, 깐찌
 피어
 피지마라
 피고인따
 피드라
 핑개
 피얼따, 핀뜨라, 핀뜨라
 박따
 박찌
 박꼬
 박뜨라
 발궁개
 발갈따

 삼찌마라
 쌍꼬
 삼뜨라
 쌀몽개
 쌀만따

 ×
 ×
 ×
 ×
 ×
 밟:는다지
 밟찌마라, 밟:찌마라
 박꼬
 밟뜨라
 발봉개
 발만따

32025	하-(爲)[ㄴ 변]	
32025-0-1	-지	하지 안알따, 허지 안알따
32025-0-2	-고	허고 일따, 허고
32025-0-3	-더라	허드라
32025-0-4	-으니까	형개
32025-0-5	-아/어(-왔/었다)	헨써
32026	맺-(結)[ㅈ]	
32026-0-1	-지	맺찌
32026-0-2	-고	맺꼬인찌
32026-0-3	-더라	맺뜨라
32026-0-4	-으니까	매징개
32026-0-5	-아/어(-왔/었다)	매잔따
32027	없:-(無)[ㅁ]	
32027-0-1	-지	업찌
32027-0-2	-고	억꼬
32027-0-3	-더라	업뜨라, 업뜨라
32027-0-4	-으니까	업쫘개
32027-0-5	-아/어(-왔/었다)	업썸따
32028	앉-(坐)[ㄴ]	
32028-0-1	-지	안찌
32028-0-2	-고	앙꼬
32028-0-3	-더라	안뜨라
32028-0-4	-으니까	안징개
32028-0-5	-아/어(-왔/었다)	안잔따
32029	비비-(刮)[ㅣ]	
32029-0-1	-지	비빈다
32029-0-2	-고	비비지
32029-0-3	-더라	비비고
32029-0-4	-으니까	비비드라
32029-0-5	-아/어(-왔/었다)	비빙개
32030	끄-(消)[ㅡ]	
32030-0-1	-지	비빈찌, 비별따
32030-0-2	-고	끄지
32030-0-3	-더라	끄고 일찌
32030-0-4	-으니까	끄드라
32030-0-5	-아/어(-왔/었다)	꿈개
32031	꺾-(折)[ㄱ]	
32031-0-1	-지	꺾따
32031-0-2	-고	끈찌마라
32031-0-3	-더라	꿈꼬 일따
32031-0-4	-으니까	꿈뜨라
		끄능개

32031-0-5 -아/어(-왔/었다)	끄넌따
32032 신:-(履)[ㄴ]	
32032-0-1 -지	신:찌
32032-0-2 -고	싱꼬
32032-0-3 -더라	신프라
32032-0-4 -으니까	시능개 편해
32032-0-5 -아/어(-왔/었다)	시넌따
32033 보-(視)[ㄱ]	
32033-0-1 -지	보지
32033-0-2 -고	보고 인따
32033-0-3 -더라	보드라
32033-0-4 -으니까	봉:개
32033-0-5 -아/어(-왔/었다)	받:따
32034 추-(舞)[ㅈ]	
32034-0-1 -지	추지
32034-0-2 -고	추고 인찌, 추고
32034-0-3 -더라	추드라
32034-0-4 -으니까	충개
32034-0-5 -아/어(-왔/었다)	훨따
32035 피우-(吸煙)[ㅈ]	
32035-0-1 -지	피우지
32035-0-2 -고	피우고
32035-0-3 -더라	피우드라
32035-0-4 -으니까	피웅개
32035-0-5 -아/어(-왔/었다)	피완따
32036 서-(立)[ㅅ]	
32036-0-1 -지	스지말라
32036-0-2 -고	스고 인따
32036-0-3 -더라	서드라
32036-0-4 -으니까	승개 존타
32036-0-5 -아/어(-왔/었다)	섣따
32037 기-(匍腹)[ㅣ]	
32037-0-1 -지	긴다
32037-0-2 -고	기:지
32037-0-3 -더라	기고
32037-0-4 -으니까	기드라
32037-0-5 -아/어(-왔/었다)	강:개
32038 이-(戴)[ㅣ]	
32038-0-1 -지	기얼따
32038-0-2 -고	이지 마러라
32038-0-3 -더라	이고
	이드라

32038-0-4 -으니까	잉:개
32038-0-5 -아/어(-왔/었다)	이열따
32039 아니-(否)[ㅣ]	
32039-0-1 -지	아니지
32039-0-2 -고	아니고
32039-0-3 -더라	아니드라, 아니드라
32039-0-4 -으니까	아닝개
32039-0-5 -아/어(-왔/었다)	아닐따
32040 되-(升)[니]	
32040-0-1 -지	되지
32040-0-2 -고	되고
32040-0-3 -더라	되드라
32040-0-4 -으니까	똥개
32040-0-5 -아/어(-왔/었다)	땃:따, 되안따
32041 있-(有)[쓰]	
32041-0-1 -지	일찌
32041-0-2 -고	익꼬
32041-0-3 -더라	일뜨라
32041-0-4 -으니까	이썩개
32041-0-5 -아/어(-왔/었다)	일썩따
32042 놓-(放)[ㅎ]	
32042-0-1 -지	노치
32042-0-2 -고	노코
32042-0-3 -더라	노트라
32042-0-4 -으니까	농:개
32042-0-5 -아/어(-왔/었다)	노안따
32043 훔-(擄)[꺄]	
32043-0-1 -지	홀찌
32043-0-2 -고	홀꼬
32043-0-3 -더라	홀뜨라
32043-0-4 -으니까	홀툭개
32043-0-5 -아/어(-왔/었다)	홀툭따
32044 곱:-(麗)[ㄷ 변]	
32044-0-1 -지	곱:찌
32044-0-2 -고	곱꼬
32044-0-3 -더라	곱뜨라
32044-0-4 -으니까	고봉개
32044-0-5 -아/어(-왔/었다)	고완따
32045 쥐:-(握)[ㄱ]	
32045-0-1 -지	쥐:지
32045-0-2 -고	쥐:고

32045-0-3 -더라	취드라
32045-0-4 -으니까	칭:개
32045-0-5 -아/어(-왔/었다)	취얼따
32046 가-(-去)[卜]	
32046-0-1 -지	가지
32046-0-2 -고	가고
32046-0-3 -더라	가드라
32046-0-4 -으니까	강개
32046-0-5 -아/어(-왔/었다)	간따
32047 먹-(-食)	멍는다
32047-0-1 -{-지,-고,-더라}	잘 먹뜨라
320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뜨니
32048 뜯-(-摘)	뜨더야지
32048-0-1 -{-지,-고,-더라}	뜯꼬, 뜯찌
320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서
32049 같-(-如)	똑까트다
32049-0-1 -{-지,-고,-더라}	똑깁찌 안타
320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똑까테서
32050 얕-(-淺)	얕따
32050-0-1 -{-지,-고,-더라}	약꼬, 약꼬
320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타서
32051 흩-(-散)	
32051-0-1 -{-지,-고,-더라}	헤치지 마라
320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헤쳐질따
32052 날:-(-飛)	
32052-0-1 -{-지,-고,-더라}	날:고 일찌
320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라가지
32053 울:-(-泣)	
32053-0-1 -{-지,-고,-더라}	울지 마라
320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린따
32054 일:-(-洶)	
32054-0-1 -{-지,-고,-더라}	일:고 일따
320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이룬따
32055 얼:-(-凍)	
32055-0-1 -{-지,-고,-더라}	어린고, 얼:지 안알따
320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깡깡 어린따
32056 넘:-(-越)	너머갈따
32056-0-1 -{-지,-고,-더라}	넘찌 마라
320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57 숨:-(-隱)	
32057-0-1 -{-지,-고,-더라}	숨:찌 마라

3205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수먼따
32058 쉽:-(易)	
32058-0-1 -{-지,-고,-더라}	쉽:따
3205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쉬:위서
32059 눅:-(臥)	
32059-0-1 -{-지,-고,-더라}	눅찌마라
3205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누번따
32060 겁:-(縫)	
32060-0-1 -{-지,-고,-더라}	겁찌마라
3206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지버
32061 밍:-(憎)	
32061-0-1 -{-지,-고,-더라}	밍따
3206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운진만 하네
32062 높:-(高)	
32062-0-1 -{-지,-고,-더라}	노푸드라, 눅꼬
3206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노푼산, 노파서
32063 짓:-(作)	
32063-0-1 -{-지,-고,-더라}	진코인따
3206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지얼따
32064 붓:-(腫)	
32064-0-1 -{-지,-고,-더라}	북꼬, 붙찌, 붙:뜨라
3206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선따, 부서, 부선따
32065 웃:-(笑)	
32065-0-1 -{-지,-고,-더라}	잘 운꼬
3206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우승개
32066 짓:-(吠)	
32066-0-1 -{-지,-고,-더라}	진꼬 인따, 진찌
3206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지승개
32067 꽃:-(插)	
32067-0-1 -{-지,-고,-더라}	꿍뜨라
3206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꼬받다
32068 낳:-(産)	
32068-0-1 -{-지,-고,-더라}	애기를 나:뜨라
3206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나:따
32069 땅:-(?)	
32069-0-1 -{-지,-고,-더라}	따트라
3206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땅:개, 땅:개, 따:따
32070 끊:-(切)	
32070-0-1 -{-지,-고,-더라}	꿍코 인따
3207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넌따
32071 괜찮:-(無妨)	

32071-0-1 -{-지,-고,-더라}	팬찬트라
320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팬차나
32072 읽-(讀)	
32072-0-1 -{-지,-고,-더라}	익꼬인따
320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겼따
32073 땀:-(澀)	
32073-0-1 -{-지,-고,-더라}	땀따
320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떨버서
32074 옮:-(遷)	
32074-0-1 -{-지,-고,-더라}	옮넌다, 옮뜨라
320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마
32075 뚫:-(貫)	
32075-0-1 -{-지,-고,-더라}	뚫찌마라
320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뜰번따
32076 끓-(?)	
32076-0-1 -{-지,-고,-더라}	끓치마라
320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ړ넌따
32077 닳-(?, 연필 심이 ~)	
32077-0-1 -{-지,-고,-더라}	다스ړ넌따
320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스ړ넌찌머
32078 닳:-(煎, 솥에서 장이 ~)	
32078-0-1 -{-지,-고,-더라}	달트라
320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랴따고
32079 짜-(鹽)	
32079-0-1 -{-지,-고,-더라}	짜:드라
320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서
32080 말-(捲)	
32080-0-1 -{-지,-고,-더라}	말:드라, 말:드라
320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랴따
32081 쓰-(書)	
32081-0-1 -{-지,-고,-더라}	쓰드라, 쓰고 인따
320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따
32082 오르-(登)	
32082-0-1 -{-지,-고,-더라}	오르고 인찌
320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간다
32083 바쁘-(忙)	
32083-0-1 -{-지,-고,-더라}	바뿌드라
320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빠 죽겼따
32084 고프-(餓)	
32084-0-1 -{-지,-고,-더라}	배고푸고
320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푸다, 고파서 죽겼따

32085	쏘-(射)	
32085-0-1	-{ -지, -고, -더라 }	쏘:고 인따
32085-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쏘:아췌게
32086	꾸-(夢)	
32086-0-1	-{ -지, -고, -더라 }	뀨:다가지, 꺾:고 인췌
32086-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뀨얼따
32087	머무르-(留)	
32087-0-1	-{ -지, -고, -더라 }	머물고인따
32087-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머무런따
32088	다듬-(整)	
32088-0-1	-{ -지, -고, -더라 }	다듬꼬 인따
32088-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다드만따
32089	견디-(忍)	
32089-0-1	-{ -지, -고, -더라 }	전딘다
32089-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전덜따, 전덜췌
32090	마르-(裁)	
32090-0-1	-{ -지, -고, -더라 }	말그드라
32090-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말갈따
32091	끼-(烟鎖, 안개가 ~)	
32091-0-1	-{ -지, -고, -더라 }	췌뜨라
32091-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췌따, 췌서 안보인다
32092	마시-(飲)	
32092-0-1	-{ -지, -고, -더라 }	마시고 인따
32092-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마췌다
32093	췌:-(強)	
32093-0-1	-{ -지, -고, -더라 }	췌:드라
32093-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히미 췌:서
32094	포개-(重疊)	
32094-0-1	-{ -지, -고, -더라 }	포개고 인따
32094-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포갠따
32095	두드리-(敲)	
32095-0-1	-{ -지, -고, -더라 }	뚜딘다
32095-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뚜들고 인따
32096	켜-(點燈)	
32096-0-1	-{ -지, -고, -더라 }	키드라
32096-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키얼따, 키얼따
32097	췌:-(바람을)	
32097-0-1	-{ -지, -고, -더라 }	췌:고 인따
32097-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췌:알따
32098	쇠-(老)	
32098-0-1	-{ -지, -고, -더라 }	쇠알뜨라

3209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쇠:아서
32099 쉬:-(?, 밥이 ~)	
32099-0-1 -{-지,-고,-더라}	쉬:드라
3209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쉬엄뜨라
32100 회-(白)	
32100-0-1 -{-지,-고,-더라}	히드라
3210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빨리 히엄찌
32101 볶-(炒)	
32101-0-1 -{-지,-고,-더라}	복뜨라
3210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보까
32102 안:- (抱)	
32102-0-1 -{-지,-고,-더라}	앙꼬
3210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꼭 아날따
32103 묻-(埋)	
32103-0-1 -{-지,-고,-더라}	묵꼬 인뜨라, 묻찌마라
3210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무덜따
32104 불:- (吹)	
32104-0-1 -{-지,-고,-더라}	불:고 인따
3210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ړ따
32105 빨-(洗濯)	
32105-0-1 -{-지,-고,-더라}	빨고 인따
3210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빠랄따
32106 죽-(死)	
32106-0-1 -{-지,-고,-더라}	죽찌마라
3210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걸찌
32107 걸:- (步)	
32107-0-1 -{-지,-고,-더라}	걸른다
3210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걸트라, 걸치 마라
32108 가물-(旱)	
32108-0-1 -{-지,-고,-더라}	가물드라
3210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무러
32109 졸:- (睡)	
32109-0-1 -{-지,-고,-더라}	자울린다, 자울고 인따
3210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자올러서
32110 쓸-(掃)	
32110-0-1 -{-지,-고,-더라}	썬:다, 썬:고 인따
3211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씨ړ따
32111 감:- (捲)	
32111-0-1 -{-지,-고,-더라}	강:꼬 인따
3211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 가말따
32112 더듬-(摸)	

32112-0-1 -{-지,-고,-더라}
 321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3 굽:- (炙)
 32113-0-1 -{-지,-고,-더라}
 321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4 무겁- (重)
 32114-0-1 -{-지,-고,-더라}
 321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5 잇:- (連)
 32115-0-1 -{-지,-고,-더라}
 321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6 빗- (梳)
 32116-0-1 -{-지,-고,-더라}
 321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7 까맣- (黑)
 32117-0-1 -{-지,-고,-더라}
 321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8 넣- (入)
 32118-0-1 -{-지,-고,-더라}
 321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9 고:- (煮)
 32119-0-1 -{-지,-고,-더라}
 321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0 얹- (載)
 32120-0-1 -{-지,-고,-더라}
 321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1 귀찮- (?)
 32121-0-1 -{-지,-고,-더라}
 321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2 바르- (剔, 생선 뼈를~)
 32122-0-1 -{-지,-고,-더라}
 321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3 맑- (淸)
 32123-0-1 -{-지,-고,-더라}
 321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4 굵:- (濃)
 32124-0-1 -{-지,-고,-더라}
 321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5 굵:- (太)
 32125-0-1 -{-지,-고,-더라}
 321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듬는다, 더듬꼬 인파
 더드면파, 더드만파

 굶넌다, 굶꼬 인파
 구월파

 무겁파, 무겁뜨라
 무거바서

 익고 인파
 이섰파, 인뜨라

 빗뜨라, 빗꼬인파
 다 비섰파

 껌뜨라
 까맣타, 꺼머서 뵈기 싰타

 넣꼬인다, 넣치마라
 넣:파, 넣:파

 고꼬인뜨라
 고알파

 언:떠라
 언절파가지

 귀찬트라
 귀차내 죽겼파

 발라넌다
 발랄파

 막:파
 말가서

 곰:찌, 곰:뜨라
 골만파

 국:파, 국:뜨라
 굴거서 존타

32126	얇:- (薄)	
32126-0-1	-{-지, -고, -더라}	얇:따, 얇:뜨라
321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얇바서 조타
32127	쫘:- (? , 곡식을 절구에다 ~)	
32127-0-1	-{-지, -고, -더라}	쫘코인따
321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쫘얼따
32128	잃:- (失)	
32128-0-1	-{-지, -고, -더라}	일터라
321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런따
32129	활:- (?)	
32129-0-1	-{-지, -고, -더라}	할른다, 할트라
321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타먹찌
32130	짧:- (短)	
32130-0-1	-{-지, -고, -더라}	짧롭따
321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짧롭뜨라
32131	놀라:- (驚)	
32131-0-1	-{-지, -고, -더라}	놀래드라
321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랜찌
32132	자:- (宿)	
32132-0-1	-{-지, -고, -더라}	자고 인따
3213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자라
32133	못:하:- (不爲)	
32133-0-1	-{-지, -고, -더라}	모:단다, 모:다드라
3213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대서
32134	모르:- (不知)	
32134-0-1	-{-지, -고, -더라}	모루드라
3213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서
32135	아프:- (痛)	
32135-0-1	-{-지, -고, -더라}	아푸드라
3213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파서 실타
32136	크:- (大)	
32136-0-1	-{-지, -고, -더라}	크:고, 쿵:개
3213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커:서 조타
32137	꼬:- (索, 새끼를 ~)	
32137-0-1	-{-지, -고, -더라}	꼬꼬 인따
3213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꼰따
32138	쭈:- (造)	
32138-0-1	-{-지, -고, -더라}	쭈:고 인따, 쭈:얼따
3213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얼따
32139	맞추:- (組合)	
32139-0-1	-{-지, -고, -더라}	마추드라

3213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칠따
32140 테우-(?)	
32140-0-1 -{-지,-고,-더라}	테끼고 일따
3214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테깁따
32141 이:- (盖, 지붕을 ~)	
32141-0-1 -{-지,-고,-더라}	이:고 일뜨라
3214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열타
32142 갈기-(打)	
32142-0-1 -{-지,-고,-더라}	갈기드라
3214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갈깁따
32143 기다리-(待)	기다린다
32143-0-1 -{-지,-고,-더라}	기다르고 일따
3214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기달랄따
32144 세:- (算)	
32144-0-1 -{-지,-고,-더라}	세:고 일다
3214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센:다, 쎌:따
32145 빼-(拔)	
32145-0-1 -{-지,-고,-더라}	빼고 일따
3214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뺨다, 뺨따
32146 "켜-(引, 톱으로 ~)"	킨다
32146-0-1 -{-지,-고,-더라}	키고 일따
3214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컬따
32147 되:- (硬)	되:다
32147-0-1 -{-지,-고,-더라}	되:드라
3214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되:아서
32148 쉬:- (休)	쉴:다
32148-0-1 -{-지,-고,-더라}	쉬:고일따
3214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쉬얼따
32149 할퀴-(搔)	
32149-0-1 -{-지,-고,-더라}	헤비지마라, 헐퀸다, 헐퀴고
3214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헤뻐따, 헐퀘서, 헐켜서
32150 눈:- (?)	
32150-0-1 -{-지,-고,-더라}	누런뜨라
3215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눌치안는다
32151 깨닫-(覺)	
32151-0-1 -{-지,-고,-더라}	깨달치, 잘 깨닫트라
3215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깨다랄따
32152 마렵-(오줌이 ~)	
32152-0-1 -{-지,-고,-더라}	매리드라
3215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매리서 죽겔따, 매르붕개
32153 부끄럽-(恥)	

32153-0-1 -{-지,-고,-더라}	부끄럽찌, 부끄럽뜨라
321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러바서
32154 가깝-(近)	
32154-0-1 -{-지,-고,-더라}	가차께 인다, 가잡뜨라
321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차바서 조타
32155 깊-(深)	
32155-0-1 -{-지,-고,-더라}	집뜨라
321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퍼서
32156 긋:-(割)	
32156-0-1 -{-지,-고,-더라}	꺼지마라, 끄지마라
321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꼰따
32157 씻-(洗)	
32157-0-1 -{-지,-고,-더라}	신찌말라
321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촐따
32158 찡-(搗)	
32158-0-1 -{-지,-고,-더라}	찡치말라
321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얼따
32159 긁-(搔)	
32159-0-1 -{-지,-고,-더라}	×
321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가머겔따
32160 굶:-(飢)	
32160-0-1 -{-지,-고,-더라}	궁:꼬일따
321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머서
32161 닮:-(似)	
32161-0-1 -{-지,-고,-더라}	달맡뜨라
321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맡따
32162 싫-(厭)	
32162-0-1 -{-지,-고,-더라}	실타, 실트라
321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서
32163 쿡-(?, 달같이 ~)	
32163-0-1 -{-지,-고,-더라}	골트라
321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란네, 고란따
32164 붓:-(注)	
32164-0-1 -{-지,-고,-더라}	분뜨라, 북고
321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설따
32165 타-(乘)	
32165-0-1 -{-지,-고,-더라}	타고
321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탈따
32166 마르-(乾)	
32166-0-1 -{-지,-고,-더라}	말리드라
321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랄따

32167	쓰-(苦)	
32167-0-1	-{-지,-고,-더라}	쓰:드라
321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서
32168	슬프-(哀)	
32168-0-1	-{-지,-고,-더라}	슬푸드라
321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퍼서, 섭:맘마리여
32169	기쁘-(喜)	
32169-0-1	-{-지,-고,-더라}	기뿌드라
321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빠서
32170	쏘-(?, 별이 ~)	
32170-0-1	-{-지,-고,-더라}	쏘드라
321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알따
32171	주-(興)	
32171-0-1	-{-지,-고,-더라}	주고, 주지
321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어서, 줘:서
32172	키우-(育)	
32172-0-1	-{-지,-고,-더라}	키우고 일따
321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왈따
32173	가두-(囚)	
32173-0-1	-{-지,-고,-더라}	가두고
321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왈따
32174	부수-(碎)	
32174-0-1	-{-지,-고,-더라}	마수고 일뜨라
321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산따
32175	나누-(分)	
32175-0-1	-{-지,-고,-더라}	논짜
321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난따
32176	속이-(欺)	
32176-0-1	-{-지,-고,-더라}	쇠키드라
321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키운다, 소키왈따
32177	끼-(插)	
32177-0-1	-{-지,-고,-더라}	찌지, 찌다
321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얼따
32178	뛰-(跳)	
32178-0-1	-{-지,-고,-더라}	뛰고 일따
321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어간다
32179	괴:-(淳)	
32179-0-1	-{-지,-고,-더라}	괴:드라
321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괴알따, 괴:알따
32180	여위-(?)	
32180-0-1	-{-지,-고,-더라}	예벤뜨라

3218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여배서
32181 맵-(辛)	
32181-0-1 -{-지,-고,-더라}	맵뜨라
3218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매바서
32182 꺾:-(?)	
32182-0-1 -{-지,-고,-더라}	뀐다, 꺾드라
3218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뀌얼따
32183 고치-(改)	
32183-0-1 -{-지,-고,-더라}	고치고 인따
3218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철따
32184 실:-(載)	
32184-0-1 -{-지,-고,-더라}	실:치, 실코 인따
3218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ړ린따
32185 얻:-(得)	
32185-0-1 -{-지,-고,-더라}	어더먹뜨라, 어더먹꼬
3218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어드러왈찌
32186 빵-(粉碎)	
32186-0-1 -{-지,-고,-더라}	빠쉬고
3218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빠설따
32187 파랗-(碧)	
32187-0-1 -{-지,-고,-더라}	파랗치
3218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파:래서
32188 다르-(異)	
32188-0-1 -{-지,-고,-더라}	따:다
3218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서
32189 푸-(汲)	
32189-0-1 -{-지,-고,-더라}	푸고인따
3218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퓌따
32190 누-(尿)	
32190-0-1 -{-지,-고,-더라}	누:고 인따
3219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누얼따
32191 더:럽-(汚)	
32191-0-1 -{-지,-고,-더라}	더릅꼬
3219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더러워서
32192 거두-(收)	
32192-0-1 -{-지,-고,-더라}	거두고 인따
3219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거뒤:따
32193 끓-(沸)	
32193-0-1 -{-지,-고,-더라}	끓코인따
3219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ړ린따
32194 이기-(承)	

32194-0-1 -{-지,-고,-더라}	이기고 인따
3219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겐찌, 이겐따
32195 부시-(照)	
32195-0-1 -{-지,-고,-더라}	시구롭따
321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구러서
32196 자빠지-(後)	
32196-0-1 -{-지,-고,-더라}	자빠지드라
321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절따
32197 일으키-(使起)	
32197-0-1 -{-지,-고,-더라}	이르킨다, 일키고 일뜨라
321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르켄따
32198 당기-(引)	
32198-0-1 -{-지,-고,-더라}	자바댕기고 인따
321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바댕겐따
32199 버리-(捨)	
32199-0-1 -{-지,-고,-더라}	버리고 인따
321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런따
32200 훔치-(盜)	
32200-0-1 -{-지,-고,-더라}	훔치고 인따
322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첸따
32201 지-(負)	
32201-0-1 -{-지,-고,-더라}	지고 간다
322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절따
32202 외:- (暗誦)	
32202-0-1 -{-지,-고,-더라}	외고 인따
322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왈따
32203 사귀-(交)	
32203-0-1 -{-지,-고,-더라}	사귀고 인따
322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킨다, 사귀어야
32204 썩-(腐)	
32204-0-1 -{-지,-고,-더라}	썩뜨라
322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겸따
32205 질-(泥)	
32205-0-1 -{-지,-고,-더라}	질드라
322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런따
32206 까불-(箕)	
32206-0-1 -{-지,-고,-더라}	까불고 인따
322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란따
32207 드물-(稀)	
32207-0-1 -{-지,-고,-더라}	드물드라
322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런따

32208	줄:-(縮)	
32208-0-1	-{-지,-고,-더라}	줄:드라
322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리드런썬
32209	심:-(植)	
32209-0-1	-{-지,-고,-더라}	숭:꼬인따
322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몐따
32210	쓰다듬:-(撫)	
32210-0-1	-{-지,-고,-더라}	쓰다눔꼬인따
322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다느몐따
32211	샤:납:-(猛)	
32211-0-1	-{-지,-고,-더라}	샤:납뜨라
322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나바서
32212	가볍:-(輕)	
32212-0-1	-{-지,-고,-더라}	개봍따
322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봍뜨라
32213	젓:-(?)	
32213-0-1	-{-지,-고,-더라}	저:꼬 인따
322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서
32214	두껍:-(厚)	
32214-0-1	-{-지,-고,-더라}	두껍꼬, 두껍뜨라
322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서(소), 두꾸바서(다)
32215	무르:-(軟)	
32215-0-1	-{-지,-고,-더라}	무르드라
322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렁해서
32216	분지르:-(折)	
32216-0-1	-{-지,-고,-더라}	문대고 인따
322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문댄따
32217	배우:-(學)	
32217-0-1	-{-지,-고,-더라}	배운다
322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우고 인따
32218	다리:-(?)	
32218-0-1	-{-지,-고,-더라}	다리고 인따
322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려
32219	"후비:-(?, 귀를 ~)"	
32219-0-1	-{-지,-고,-더라}	헤비고 인따
322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헤벤편따
32220	아리:-(痛)	
32220-0-1	-{-지,-고,-더라}	애리드라
322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애:려서
32221	그리:-(畵)	
32221-0-1	-{-지,-고,-더라}	그리고인따

3222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 그럴따
32222 저리-(癡)	
32222-0-1 -{-지,-고,-더라}	저리드라
3222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저려서
32223 불리-(增)	
32223-0-1 -{-지,-고,-더라}	불구지
3222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불퀴가지고, 불퀸따
32224 뜨시-(溫)	
32224-0-1 -{-지,-고,-더라}	따시서, 뜨시다
3222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시더라, 뜨시서 조타, 뜨싱게 조트라
32225 끓이-(使沸)	끄린다
32225-0-1 -{-지,-고,-더라}	끌코일따, 끌트라
3222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렌따
32226 누비-(縫)	늬비야지
32226-0-1 -{-지,-고,-더라}	늬비고 일따
3222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늬빙개, 늬별따
32227 구기-(皺)	꾸기쳐
32227-0-1 -{-지,-고,-더라}	꾸기고 일따
3222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겐따
32228 비:-(空)	
32228-0-1 -{-지,-고,-더라}	비우드라
3222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왈따
32229 식히-(使冷)	시쿤다
32229-0-1 -{-지,-고,-더라}	시쿠고 일따
3222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퀸따
32230 매-(草)	매:
32230-0-1 -{-지,-고,-더라}	매:고일따
3223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맨:따
32231 매:-(結)	썸맨다
32231-0-1 -{-지,-고,-더라}	썸매고일따
3223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썸맨따
32232 뛰-(走)	똥다
32232-0-1 -{-지,-고,-더라}	뛰고 일따
3223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뛰얼따
32233 담:-(盛)	담는다
32233-0-1 -{-지,-고,-더라}	담꼬일따, 담뜨라
3223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믄따
32234 가렵-(?)	개렵따고
32234-0-1 -{-지,-고,-더라}	개렵찌안타
3223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려바

32235	때리-(打)	
32235-0-1	-{ -지, -고, -더라 }	때리드라
32235-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때릴따
32236	어둡-(暗)	어둡따
32236-0-1	-{ -지, -고, -더라 }	어둡뜨라
32236-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어두버서
32237	잡-(執)	
32237-0-1	-{ -지, -고, -더라 }	붙잡뜨라
32237-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붙짜벌따, 붙짜바서
32238	차-(蹴)	
32238-0-1	-{ -지, -고, -더라 }	차고인뜨라
32238-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찬따
32239	모자라-(不足)	
32239-0-1	-{ -지, -고, -더라 }	모지라지, 모지란다
32239-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모지래서
32240	부르-(呼)	
32240-0-1	-{ -지, -고, -더라 }	불루지머, 부루고일따
32240-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불런따, 부루지말라
32241	따르-(注)	
32241-0-1	-{ -지, -고, -더라 }	따르고일따
32241-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따랄따
32242	쪼:- (啄)	
32242-0-1	-{ -지, -고, -더라 }	쪼:꼬일따
32242-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쪼산따
32243	두-(置)	
32243-0-1	-{ -지, -고, -더라 }	둔다
32243-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두지말라
32244	시키-(使)	
32244-0-1	-{ -지, -고, -더라 }	뒤:떠니
32244-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시:켜
32245	지리-(漏, 오줌을 ~)	시:키고일따
32245-0-1	-{ -지, -고, -더라 }	시:켄따
32245-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저린담마리여
32246	던지-(投)	저리고일따
32246-0-1	-{ -지, -고, -더라 }	저런따
32246-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뎌:진다
32247	모이-(集)	뎌지고일따
32247-0-1	-{ -지, -고, -더라 }	뎌절따
32247-0-2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48	만지-(?)	모에들고일따, 모다들드라
32248-0-1	-{ -지, -고, -더라 }	모다드런따
		만진다
		만지드라

3224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만절따
32249 쪽:-(?)	
32249-0-1 -{-지,-고,-더라}	쪽:드라
3224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쪽:아
32250 비틀-(捻)	삐트러
32250-0-1 -{-지,-고,-더라}	삐틀고인따
3225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삐트ړ따
32251 돕:-(-助)	방조
32251-0-1 -{-지,-고,-더라}	방조허고인따
3225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방조헐따
32252 씹-(咀)	
32252-0-1 -{-지,-고,-더라}	씹뜨라
3225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씨버머거라
32253 미끄럽-(滑)	미끄럽따
32253-0-1 -{-지,-고,-더라}	미끄럽뜨라
3225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끄러서, 미끄러바서
32254 닿-(接)	
32254-0-1 -{-지,-고,-더라}	단뜨라
3225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따, 다:따
32255 누르-(壓)	
32255-0-1 -{-지,-고,-더라}	눌:루드라
3225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눌:러서
32256 주무르-(?)	주물러주지
32256-0-1 -{-지,-고,-더라}	주무르고인뜨라
3225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물ړ따
32257 메우-(填)	메꿔
32257-0-1 -{-지,-고,-더라}	미꾸고인따
3225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뀔따
32258 고소하-(香味)	꼬:소하다
32258-0-1 -{-지,-고,-더라}	꼬습뜨라, 꼬습뜨라
3225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꼬소해서 조치
32259 내리-(降)	네린다
32259-0-1 -{-지,-고,-더라}	네리고 인따, 네리드라
3225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가 네리서
32260 구르-(轉)	
32260-0-1 -{-지,-고,-더라}	구불고 인따
3226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구부러서
32261 만들-(作)	만든다
32261-0-1 -{-지,-고,-더라}	만들고 인따
3226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만드ړ따, 만드ړ따
32262 늙-(老)	

32262-0-1 -{-지,-고,-더라}	늑끼
3226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늘겼따
32263 앓-(病)	
32263-0-1 -{-지,-고,-더라}	알코인뜨라, 알트라
3226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랄따
32264 따르-(隨)	따라간다
32264-0-1 -{-지,-고,-더라}	따리드라
3226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링개, 따라서
32265 사-(買)	
32265-0-1 -{-지,-고,-더라}	싸:드라
3226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싸:따
32266 치우-(除)	
32266-0-1 -{-지,-고,-더라}	치우고일따
3226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치와야제
32267 부러지-(被折)	
32267-0-1 -{-지,-고,-더라}	뿐질지마라
3226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뿌리절써, 뿌리절찌
32268 다치-(傷)	
32268-0-1 -{-지,-고,-더라}	다칭기
3226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철따
32269 느리-(緩)	뜨다
32269-0-1 -{-지,-고,-더라}	늘드라
3226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느:레서
32270 무치-(和, 나물을 ~)	
32270-0-1 -{-지,-고,-더라}	무치고일따
3227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무철따
32271 죄:- (締)	쥘다
32271-0-1 -{-지,-고,-더라}	쥐지말라
3227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쥐얼따
32272 팔-(賣)	파라
32272-0-1 -{-지,-고,-더라}	팔고일따
3227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파랄따
32273 뽑-(選)	뽑는다
32273-0-1 -{-지,-고,-더라}	뽑꼬일따
3227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뽑받따
32274 뒤지-(索)	뒤즈끄리본다
32274-0-1 -{-지,-고,-더라}	뒤적꺼리고 일따
3227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뒤절따
32275 마치-(終)	끈날따
32275-0-1 -{-지,-고,-더라}	끈내드라
3227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끈:넨따, 끈:넨뜨라

32276	절이-(鹽)	절군다
32276-0-1	-{-지,-고,-더라}	절구드라
322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절곶따
32277	휘-(曲)	후린다
32277-0-1	-{-지,-고,-더라}	후리고인따
322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후린따
32278	줍:-(拾)	
32278-0-1	-{-지,-고,-더라}	죽꼬인따, 준찌말라
322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선따, 주선뜨라
32279	빼앗-(奪)	빼서
32279-0-1	-{-지,-고,-더라}	뺨찌말라
322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산따
32280	기울-(傾)	
32280-0-1	-{-지,-고,-더라}	찌울고인뜨라
322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울런따, 찌울러야지, 찌울라서
32281	아깝-(惜)	
32281-0-1	-{-지,-고,-더라}	아깝찌
322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까바서
32282	반갑-(歡)	
32282-0-1	-{-지,-고,-더라}	방갑찌
322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바
32283	찌-(蒸)	
32283-0-1	-{-지,-고,-더라}	찌고인따
322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 찼따
32284	노랑-(黃)	
32284-0-1	-{-지,-고,-더라}	노란치
322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래서
32285	푸르-(靑)	
32285-0-1	-{-지,-고,-더라}	파란코
322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래서
32286	서두르-(忙)	
32286-0-1	-{-지,-고,-더라}	서두른다
322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두르드라
32287	서투르-(不熟)	
32287-0-1	-{-지,-고,-더라}	서거푸게 하드라
322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거퍼
32288	게으르-(怠)	
32288-0-1	-{-지,-고,-더라}	게우러서
322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우르드라
32289	따뜻하-(溫)	
32289-0-1	-{-지,-고,-더라}	따:시다
		따:시서조타

3228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시드라
32290 춥-(寒)	
32290-0-1 -{-지,-고,-더라}	춥뜨라
3229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추버서
32291 뜨겁-(極熱)	
32291-0-1 -{-지,-고,-더라}	뜨겁찌
3229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뜨거버서
32292 미지근하-(微溫)	
32292-0-1 -{-지,-고,-더라}	맹:간하다, 맹개:하다
3229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맹개:해서
32293 차갑-(寒)	차드라
32293-0-1 -{-지,-고,-더라}	차갑뜨라
3229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차가바
32294 부럽-(羨)	부럽따
32294-0-1 -{-지,-고,-더라}	부럽뜨라
3229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불버서 죽건따
32295 얄밋-(憎)	
32295-0-1 -{-지,-고,-더라}	얄:밋찌, 얄밋뜨라
3229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얄미워
32296 비슷하-(類似)	비스:타다
32296-0-1 -{-지,-고,-더라}	비스:타드라
3229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스:태서
32297 새롭-(新)	
32297-0-1 -{-지,-고,-더라}	×
3229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8 서:럽-(悲痛)	
32298-0-1 -{-지,-고,-더라}	섭뜨라
3229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서러운거는
32299 까다롭-(難)	까드랍따
32299-0-1 -{-지,-고,-더라}	까드랍뜨라
3229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까드라와서
32300 외롭-(孤)	
32300-0-1 -{-지,-고,-더라}	외롭찌
3230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외로바
32301 아쉽-(不滿)	
32301-0-1 -{-지,-고,-더라}	아쉽찌
3230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쉬바서
32302 단단하-(固)	
32302-0-1 -{-지,-고,-더라}	땅땅하지, 땅땅하드라
3230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땅땅해서
32303 늦-(晚)	

32303-0-1 -{-지,-고,-더라}
 3230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4 남:-{餘)
 32304-0-1 -{-지,-고,-더라}
 3230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5 남기-{(使餘)
 32305-0-1 -{-지,-고,-더라}
 3230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6 넘어뜨리-{(使倒)
 32306-0-1 -{-지,-고,-더라}
 3230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7 쭈그러뜨리-{(使凹)
 32307-0-1 -{-지,-고,-더라}
 3230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8 견주-{(比)
 32308-0-1 -{-지,-고,-더라}
 3230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9 외우-{(誦)
 32309-0-1 -{-지,-고,-더라}
 3230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0 문지르-{(摩)
 32310-0-1 -{-지,-고,-더라}
 3231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1 가리키-{(指)
 32311-0-1 -{-지,-고,-더라}
 3231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2 가르치-{(教)
 32312-0-1 -{-지,-고,-더라}
 3231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3 겨누-{(照準)
 32313-0-1 -{-지,-고,-더라}
 3231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4 겨루-{(競)
 32314-0-1 -{-지,-고,-더라}
 3231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5 달래-{(慰撫)
 32315-0-1 -{-지,-고,-더라}
 3231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6 본받-{(效)
 32316-0-1 -{-지,-고,-더라}
 3231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는깨이러낭기지
 는깨이러나서, 느저서

 냉긴드라
 냉게써, 마이 냉곁따

 냉기드라, 냉게노코
 냉곁써

 너머트리고
 너머트레따, 너머트렘따

 쭈구리트린다, 쭈굴트리고
 쭈구리드린따
 저늬분다
 저누고일따
 저늬따

 외우능기여
 외왈따
 문:대
 문대고일따
 문덴따
 갈친다
 갈치고 일따
 갈철따
 가르쳐
 가르치고 일따
 다 가르철따
 견준다
 전주고일따
 고나가지고 쏘다, 전쥬떠니
 저는다
 전주고 일뜨라
 전주얼따
 달랜다
 달래고 일따, 얼리고 일따
 달렘따, 얼려서

 뽀받찌 말어라
 뽀바다야지

32317	어지르-(散)	
32317-0-1	-{-지,-고,-더라}	어질고 인따
323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지런따
32318	달리-(走)	
32318-0-1	-{-지,-고,-더라}	달리고인따
323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렌따
32319	우기-(拗)	
32319-0-1	-{-지,-고,-더라}	위기드라
323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위깁개
32320	중얼거리-(獨言)	
32320-0-1	-{-지,-고,-더라}	중얼거리지
323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얼거렁개
32321	지껄이-(騷)	
32321-0-1	-{-지,-고,-더라}	지끄린다고
323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끄리고 인는
32322	다니-(行)	
32322-0-1	-{-지,-고,-더라}	마이 땡기드라
323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땡긴개 실타, 땡겐따
32323	떨어뜨리-(使落)	
32323-0-1	-{-지,-고,-더라}	떨권째
323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떨구드라
32324	깨-(覺)	
32324-0-1	-{-지,-고,-더라}	떨귀서
323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난다
32325	시-(酸)	
32325-0-1	-{-지,-고,-더라}	깨나드라
323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난따
32326	쑈-(湧)	
32326-0-1	-{-지,-고,-더라}	시쿨지
323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쿨드라
32327	종:-(好)	
32327-0-1	-{-지,-고,-더라}	시쿠러서
323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사오른다
32328	빨강-(赤)	
32328-0-1	-{-지,-고,-더라}	잘 손는다
323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사올랄따
32329	"끌:-(曳, 땅에 질질 ~)"	
32329-0-1	-{-지,-고,-더라}	조코
323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트라
32330	넓-(廣)	
32330-0-1	-{-지,-고,-더라}	조아:서
		빨간치
		빨개서
		끄지고간다, 끄꼬가지마라
		끄서서
		널롭따
		널롭뜨라

3233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31 하얗-(白)
 32331-0-1 -{-지,-고,-더라}
 3233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널뛰서 조타
 새타야체
 새타야트라
 새타아서

3.2.2. 곡용

32332 국(羹)
 32332-0-1 -이/가
 32332-0-2 -을/를
 32332-0-3 -에(서)
 32332-0-4 -으로
 32332-0-5 -도
 32333 논(沗)
 32333-0-1 -이/가
 32333-0-2 -을/를
 32333-0-3 -에(서)
 32333-0-4 -으로
 32333-0-5 -도
 32334 쌀(米)
 32334-0-1 -이/가
 32334-0-2 -을/를
 32334-0-3 -에(서)
 32334-0-4 -으로
 32334-0-5 -도
 32335 봄(春)
 32335-0-1 -이/가
 32335-0-2 -을/를
 32335-0-3 -에(서)
 32335-0-4 -으로
 32335-0-5 -도
 32336 집(家)
 32336-0-1 -이/가
 32336-0-2 -을/를
 32336-0-3 -에(서)
 32336-0-4 -으로
 32336-0-5 -도
 32337 옷(衣)
 32337-0-1 -이/가
 32337-0-2 -을/를

국
 구기
 구걸 머그라
 구기다 마라라
 구구로
 국또 먹꼬
 논
 노니 크다
 노닐 마니 각꼬 일파
 노네다
 노느로 가
 논도 인꼬
 쌀
 쌀리만타
 싸를 머거
 싸레
 쌀로
 쌀도 인써
 봄
 보미왈써
 보멸, 보멸
 보메
 보메로
 봄도 조코
 지비지
 지블 가지고
 지비서 사라
 지브로 가
 집뚜인써
 옷
 오시 만타
 오설 이버라

32337-0-3 -에(서)
 32337-0-4 -으로
 32337-0-5 -도
 32338 방(房)
 32338-0-1 -이/가
 32338-0-2 -을/를
 32338-0-3 -에(서)
 32338-0-4 -으로
 32338-0-5 -도
 32339 낮(晝)
 32339-0-1 -이/가
 32339-0-2 -을/를
 32339-0-3 -에(서)
 32339-0-4 -으로
 32339-0-5 -도
 32340 낮(顔)
 32340-0-1 -이/가
 32340-0-2 -을/를
 32340-0-3 -에(서)
 32340-0-4 -으로
 32340-0-5 -도
 32341 부엌(廚)
 32341-0-1 -이/가
 32341-0-2 -을/를
 32341-0-3 -에(서)
 32341-0-4 -으로
 32341-0-5 -도
 32342 밭(田)
 32342-0-1 -이/가
 32342-0-2 -을/를
 32342-0-3 -에(서)
 32342-0-4 -으로
 32342-0-5 -도
 32343 앞(前)
 32343-0-1 -이/가
 32343-0-2 -을/를
 32343-0-3 -에(서)
 32343-0-4 -으로
 32343-0-5 -도
 32344 녀(魂)
 32344-0-1 -이/가

오새
 오스로
 온또 인따
 방
 방이 크다
 방얼 딱까라
 방에서
 방으로
 방도 인따
 날:
 나시지
 나설
 나제
 나즈로는
 날또 실타

 나치
 나철
 날체
 나즈로
 날또

 버어기라고, 부서기여, 부서기
 부서글
 부서게
 부석짜그로
 부석또

 바시
 바틀
 바티다

 받또 만타
 압
 아피다
 아풀
 아페서
 아프로
 압또

 너기

32344-0-2 -을/를
 32344-0-3 -에(서)
 32344-0-4 -으로
 32344-0-5 -도
 32345 흙(土)
 32345-0-1 -이/가
 32345-0-2 -을/를
 32345-0-3 -에(서)
 32345-0-4 -으로
 32345-0-5 -도
 32346 여덟(八)
 32346-0-1 -이/가
 32346-0-2 -을/를
 32346-0-3 -에(서)
 32346-0-4 -으로
 32346-0-5 -도
 32347 돌(週歲)
 32347-0-1 -이/가
 32347-0-2 -을/를
 32347-0-3 -에(서)
 32347-0-4 -으로
 32347-0-5 -도
 32348 값(價)
 32348-0-1 -이/가
 32348-0-2 -을/를
 32348-0-3 -에(서)
 32348-0-4 -으로
 32348-0-5 -도
 32349 속:(內)
 32349-0-1 -이/가
 32349-0-2 -을/를
 32349-0-3 -에(서)
 32349-0-4 -으로
 32349-0-5 -도
 32350 돈:(錢)
 32350-0-1 -이/가
 32350-0-2 -을/를
 32350-0-3 -에(서)
 32350-0-4 -으로
 32350-0-5 -도
 32351 발(足)

너글
 ×
 너그로
 녀또

 흐기지
 흘길
 흐게다
 흐그로
 흑또 인씨
 야덜, 야:덜
 야드리
 야드를
 야드리서
 야들부로
 야들또

 도리, 들씨가
 도릴
 도레
 돌로
 둘두

 갑씨
 가벌
 가베
 갑쓰로
 갑또 몰라
 속
 소:기
 소걸
 소:게
 소그로
 속:또 되고
 돈
 도:니
 도늘
 도:네
 도:너로
 돈도

32351-0-1 -이/가	바리
32351-0-2 -을/를	바릴
32351-0-3 -에(서)	바레
32351-0-4 -으로	발로 차
32351-0-5 -도	발도
32352 짐(物)	
32352-0-1 -이/가	지미
32352-0-2 -을/를	지물
32352-0-3 -에(서)	지:메
32352-0-4 -으로	지:무로
32352-0-5 -도	짐:도
32353 입(口)	
32353-0-1 -이/가	이비지
32353-0-2 -을/를	이벌
32353-0-3 -에(서)	이비서
32353-0-4 -으로	이브로
32353-0-5 -도	입또 마가
32354 낫(鎌)	낫
32354-0-1 -이/가	나시:
32354-0-2 -을/를	나설
32354-0-3 -에(서)	나세
32354-0-4 -으로	나스로
32354-0-5 -도	낫또
32355 강(江)	강
32355-0-1 -이/가	강이
32355-0-2 -을/를	강얼
32355-0-3 -에(서)	강으서
32355-0-4 -으로	강으로
32355-0-5 -도	강도
32356 젖(乳)	
32356-0-1 -이/가	저시
32356-0-2 -을/를	저설
32356-0-3 -에(서)	저세다
32356-0-4 -으로	저스로
32356-0-5 -도	젖또
32357 꽃(花)	
32357-0-1 -이/가	꼬시
32357-0-2 -을/를	꼬설
32357-0-3 -에(서)	꼬세
32357-0-4 -으로	꼬스로
32357-0-5 -도	꽃또

32358	팥(赤豆)	
32358-0-1	-이/가	파시 마나
32358-0-2	-을/를	파설
32358-0-3	-에(서)	파시다
32358-0-4	-으로	파스루
32358-0-5	-도	팥뚜
32359	옆(側)	엽
32359-0-1	-이/가	여피
32359-0-2	-을/를	여펼
32359-0-3	-에(서)	여페
32359-0-4	-으로	여프로
32359-0-5	-도	엽또
32360	삯(賃金)	쌈:쩨
32360-0-1	-이/가	쌈:기
32360-0-2	-을/를	쌈걸
32360-0-3	-에(서)	쌈:개
32360-0-4	-으로	쌈그로
32360-0-5	-도	쌈또
32361	닭(鷄)	
32361-0-1	-이/가	다기, 다기
32361-0-2	-을/를	다걸
32361-0-3	-에(서)	달게서
32361-0-4	-으로	달기로
32361-0-5	-도	닥또
32362	밖(外)	배깁
32362-0-1	-이/가	배까시
32362-0-2	-을/를	배까설
32362-0-3	-에(서)	배까세
32362-0-4	-으로	배까트로
32362-0-5	-도	배깁또

제 4 편 문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
40101-0-1	내-가	내가
40101-0-2	내	내 물거니라고
40101-0-3	나-를	나를, 나를
40101-0-4	나-에게	나한테, 나한테
40101-0-5	나-와	나하고, 나랑
40101-0-6	나-는	나는
40101-0-7	나-도	나도
40102	저/제-가	저
40102-0-1	저-가	제가
40102-0-2	저-의	제 거시지
40102-0-3	저-을/를	저를
40102-0-4	저-에게	저한테, 저한테
40102-0-5	저-와/과	저하고
40102-0-6	저/-는	저년
40102-0-7	저/-도	저도
40103	우리	우리 아버지
40104	저희	저희 아버지
40105	너	너
40105-0-1	너-가	네가, 니가 가야지
40105-0-2	너-의	니걸, 니거시다
40105-0-3	너-을/를	너를
40105-0-4	너-에게	너한테
40105-0-5	너-와/과	너랑, 너하고
40105-0-6	너-는	너는 간다
40105-0-7	너-도	너두
40106	자네	자네가 가게, 자네
40107	당신	자기(다), 당신(소)
40108	너희	너네 아버지
40109	개	가:는
40109-1	애	야:는
40109-2	재	자:

40110	자기	제 말만 올타, 자기 마리
40111	당신	당신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여?, 누구십니까?, 누구시요?
40112-0-1	누-가	누가
40112-0-2	누구-의	누구 도니야?
40112-0-3	누구-를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누구한테
40112-0-5	누구-와	누구랑, 누구하고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머이 드런냐?, 머이 드러썸니까?, 머:시
40113-0-1	무엇-이	머가, 머이, 머:시, 뭐이
40113-0-2	무슨	먼: 니를
40113-0-3	무엇-을	뭇
40113-0-4	무엇-과	머:까 가트냐?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디로 가냐?
40115	언제	언제 완능가?
40116	어느	어떤 지비여?
40117	왜	너 왜 울고 인냐?
40118	얼마나	얼매나
40119	어떻게	어트개 지내나?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거시고, 요거시고, 이거슨
40121	그것	그거다고, 그거시고
40122	저것	저거슨, 저거는 머이냐?, 저거슨
40123	여기	여기를
40124	거기	거기
40125	저기	저기를
40126	이리	여그로, 여기로
40127	그리	거기로
40128	저리	저리

4.2. 조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무엇이)	물건잡씨가
40202	-이/가(무엇이)	코가 크다
40203	-을/를(어디를)	귀릴
40204	-을/를(무엇을)	무럴
40205	-에게/게(사람에게)	저사람한테, 저사람에게
40206	-보고/더러(누구더러)	누구보고, 누구한테
40207	-보고/더러(누구보고)	누구보고
40208	-에(집에)	우리집에 간다
40209	-에(나중에)	나중에
40210	-에서(큰집에서)	큰집에서
40211	-에서(서울에서)	연길씨 만내자, 연기례서, 우리집에서
40212	-에서(여기에서)	여그서부터, 여그서
40213	-으로(참쌀로)	쌀로
40214	-으로(짚으로)	지풀로
40215	-으로(새끼로)	새끼루, 새끼로
40216	-으로(어디로)	어드로 가냐
40217	-와/과(수박과 참외)	수박가고 차되
40218	-와/과(나와)	나랑, 나하고
40219	-보다(형보다)	형보다 동생이 더 크네(소), 동생이 형만 더 크네(다)
40220	-처럼(돼지처럼)	돼지처럼
40221	-만큼(너만큼)	저만치, 저만치
40222	-만큼(먹을 만큼만)	머글만치(다), 머글만큼(소)
40223	-아/야(복남아)	봉나마
40224	-아/야(복남이)	봉나미
40225	-아/야(영수야)	영수야
40226	-아/야(누님)	누님
40226-1	-아/야(누님!!예)	누님뇨
40227	-아/야(할아버지!)	하라부지
40227-1	-아/야(할아범요!)	하라바이요
40228	-이랑(술이랑 고기랑)	수리랑 고기랑 과이리랑
40229	-커녕(만 원은커녕)	나는 배권케니 시뵈두 엄네, 배권케는 시뵈두 읍씨

4.2.2. 보조사

40230	-은/는(술은, 담배는)	담배넌, 담배는, 수른
40231	-만(딸만)	딸만
40232	-도(키도, 얼굴도)	밥또 먹꼬 술도 먹꼬
40233	-마다(날마다)	날마담, 날마다, 날마닥
40234	-부터(오늘부터)	오늘부터
40235	-까지(내일까지)	내일끄저, 널:끄지
40236	-조차(물조차)	마실 물조차
40236-1	-조차(비할라)	비할라 오는데
40237	-이야/야(말이야)	마른 잘 혀, 마리사 잘 혀
40238	-을랑(소릴랑)	그런 소리는 다시 마려.
40239	-이라도(부자라도)	부자라도
40240	-밖에(너밖에)	너배끼 업써
40241	-가지고(싸가지고)	싸 가지고 완찌

4.2.3. 문장 뒤 조사

40242	-고(간접인용조사)(오라고)	이리 오라고
40243	-요(높임)(알았어요)	아라썌니다, 아라썌요
40244	-요(높임)(했지요)	누가 해썌요?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앉아라)	안자라
40302	-게(앉게)	앙께
40303	-으오(앉으시오)	안즈시오
40304	-으십시오(앉으십시오)	안즈시오
40305	-세요(앉으세요)	안즈쑤

4.3.2. 청유법

40306	-자(가자)	가자
40307	-세(가세)	가세

40308	-으오(가오)	갑씨다
40309	-십시다(가십시다)	갑씨다
40310	-세요(가세요)	갑씨다

4.3.3. 의문법

40311	-니(오니)	오냐?
40312	-나(오나)	오능가?
40313	-오(오오)	오능가?
40314	-습니까(옵니까)	옵니까?
40315	-나요(오나요)	오오?
40316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니)	어디 가냐?
40317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나)	어디 가능가?
40318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시오)	어디 감니까?, 어디 가오?
40319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40320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세요)	어디 가십니까?

4.3.4. 서술법

40321	-는다(먹는다)	잘 멏는다
40322	-네(먹네)	잘 멏네
40323	-오(먹소)	잘 멏네요
40324	-습니다(먹습니다)	잘 먹쑤니다
40325	-네요(먹네요)	잘 멏네요.
40326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다)	작:따
40327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네)	작꾸마, 짱:네
40328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소)	작쑤
40329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십니다)	짱네요, 작쑤니다
40330	옷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세요)	작쑤니다

4.3.5. 반말

40331	-아(아파)	어디 아파?
40332	-지(거지)	갈꺼지?

4.3.6. -이다

40333	-이다(생일이다)	생이리다
40334	-이니(생일이니)	생이리냐?
40335	-이네(생일이네/생일일세)	생이리네
40336	-인가(생일인가)	생이런가?
40337	-이오(생일이오)	생이랍니다.
40338	-이오(생일이오?)	생이리요?
40339	-입니다(생신이십니다)	생이랍니다
40340	-입니까(생신이십니까)	생이리지요?
40341	-이시지요(생신이시지요)	생이랍니다.
40342	-이시지요(생신이시지요?)	생이랍니다까?
40343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냐)	뭐:시냐?
40344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	머:싱가?
40345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오)	머:심니까?
40346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입니까)	머:심니까?
40347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요)	머:심니까?
40348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야)	머:시요?
40349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어요)	머:심니까?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많습니다)	만썹니다.
40351	-습디다(많습디다)	만썹떠다
40352	-는구나/구나(먹는구나)	잘 멩네, 잘 멩는구나
40353	-는구먼/구먼(먹는구먼)	잘 멩네
40354	-일세(오랜만일세)	오랜마닐세(소), 오랜마니네(다)
40355	-으마(값으마)	가푸마, 감는다
40356	-음세(값음세)	가품세
40357	-올라(다칠라)	다칠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먹고서)	얼른 먹꼬
40402	-으면서(보면서)	밥 머금서, 밥 머금서, 비를 마즘서 완써
40403	-어/-어서	더워서 안 완따, 추워서 안 완따
40404	-으니/-으니까	따따:당개
40405	-관데	무슨 일로
40406	-다가	오다가, 잡싸씀니까?
40407	-거튼	만나거등
40408	-더라도	먹뜨래도, 떼를 쓰드래도
40409	-으려고	농가머글라고, 농가머글라고
40410	-도록	부서지드락, 부서지드롱, 나리 새드락
40411	-을수록	노풀쭈록
40412	-듯이	물 쓰든 하더라, 물 쓰든 한다.
40413	-지	연속꿈만 보지

4.5. 주체 존대

40501	-셔(오셔)	여그 와 안즈셔.
40502	-셨소(하셨소)	다 헨나?, 헨쏘?, 다 헨씀니까?

4.6. 시제

40601	-는/ㄴ-(웃는다)	잘 운넌다.
40602	-는/ㄴ-(기어간다)	긴다, 기어간다
40603	-는/ㄴ-(크다)	크:다
40604	-는/ㄴ-(생일이다)	생이리다
40605	-고 있-(오고 있다)	오고 인따
40606	-았/었-(먹었니/잡수셨습니까)	밤 머겜쏘?, 밤 머겜써?, 밤 머겜씀니까?
40607	-았였(왔었다)	와썸써.
40608	-더-(먹더라)	잘 먹떠라
40609	-더-(먹더냐)	잘 먹떠나?
40610	관형형(만나는)	만내넌 칭구다, 만나는 칭구
40611	관형형(만난)	만넌

40612	관형형(만났던)	만내쁜 칭구
40613	관형형(만날)	만넨 칭구여
40614	관형형(큰)	크나이다
40615	관형형(크던)	크든 아이
40616	관형형(켰던)	커:편 아이여
40617	-겠-(않겠다)	앙켄따
40618	-겠-(오겠다)	쏘다지게 생게따

4.7. 부정

40701	부정(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아직 안 머거써, 안 머거따(다), 먹찌 아날써(소), 아~이 머거써
40702	부정(안 좋다/좋지 않다)	안 존씀니다, 안 존네
40703	부정(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깨끗 안 하다)	앙 깨끗터, 깨끗 아녀(소), 안 깨끗더(다)
40704	부정(장가 안 갔다/안 장가갔다 /장가가지 않았)	아직 앙 갠써
40705	부정(안 만나 보았다/만나 보지 않았 /만나 안 보았다)	몸 만내봐써, 아직 몬 만내봐써, 암 만내봐써
40706	부정(먹지도 않고)	먹찌도 앙코, 안 먹꼬
40706-1	부정(먹도 않고)	먹또 앙코
40707	부정(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마실찌 몰라
40708	부정(맞잖소/안 맞소)	맞찌 안쏘?, 내 마리 맞찌 안쏘?

4.8. 피동과 사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권따, 살련따고, 살리고 인써
40802	늘리다	늘쿤다, 늘구고 인따
40803	말리다1	말련따, 말리고 인따
40804	말리다2	말견따, 말게야지, 말기고 인따
40805	얼리다	얼귀야지, 얼군다
40806	눅이다	노꼴따
40807	신기다	싱끼줘
40808	보이다	보인다, 보열따
40809	알리다	알케줘찌, 알련따
40810	입히다	이피지, 이피야지, 이편따

40811	얹히다	안치지, 안철따
40812	벗기다	버결따, 비결따, 비끼고 일따
40813	웃기다	우결따, 우끼고 일따
40814	썩히다	썩결따, 썩킨다
40815	숨기다	숨결따, 숨키고 일따
40816	끓기다	끓게따, 끓쥔따, 끓긴다
40817	깨우다	깨운다, 깨왈따
40818	돋우다	도깁따, 도꾸고 일따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재웁썤, 재핀다
40820	깎히다	깨결썤, 깨결따
40821	끼히다	쨍결따, 끼왈따고, 찌왈따
40822	떼히다	떠왈썤, 떼완네
40823	채히다	채왈썤, 채인다
40824	닫히다	대깁따, 대끼고 일따
40825	들리다	잘 안 디킨다, 들린다
40826	엮히다	에피왈따, 에피고 일따
40827	바꾸다	배결따, 배끼고 일따
40828	씹히다	씨핀다, 씨웁따
40829	엮히다	언치왈따, 언친다
40830	찍히다	찌웁썤, 찌키고 일따
40831	놀리다	놀리워서, 놀리고 일따
40832	실리다	실려가, 실려갠따
40833	끓기다	끓결따, 끓키고 일따
40834	끓히다	끓키맨썤, 끓결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싶은)	박꼬 시풍게 인냐?
40902	싶다(싶더니)	잘 멩는가 십떠니
40903	보다(보세요)	이버 보시오
40904	버리다(버렸네)	머거 빠린냐?, 머거 빠린냐?, 머거 빠릴꾸나
40905	대다(댄다)	우리댄다, 지서댄:다
40906	-나/는가 보다(오려나 보다)	올랑가부다, 올랑갠따
40907	-나/는가 보다(자나 보다)	자능가부다, 자능갠따

40908 -나/는가 보다(추운가 보다)

충가부다, 충갑따

4.10. 부사

41001	실컷	실큰 머거라, 망:끈 머거라
41002	많이	마~이 머그니
41003	너무	너무 마~이 머그먼
41004	조금	쫘:꼼, 쫘:꼼만
41005	자주	자주 땡긴다
41006	빨리	빨리 왈따
41007	얼른	얼른 머거라, 얼릉 머거
41008	기어코	기여쿵, 기여쿵 간따, 기여:니
41009	가끔	뜨문뜨문(다), 뚜문뚜문(다), 가끔(소)
41010	먼저	먼저 가라
41011	나중에	낭중에 가플께, 이따가 가플께
41012	가득	가득 따랄따
41013	몽땅	다 가파(다), 몽땅 가파라(소)
41014	모조리	몽땅 벼:(다), 모조리 빈다(소), 전부 빈단 말(소)
41015	혼자	혼자 인네
41016	항상	항상 바빠, 늘
41017	똑똑히	또띠기 바라, 잘 봐라
41018	겨우	제:우 차만찌, 게:우
41019	늘	항:상(다), 늘(소)
41020	저절로	절로 나오지
41021	자꾸	차꼬 나온다고, 차꼬 나와
41022	설마	설마
41023	하마터면	하마트라면
41024	함께	가치 가, 함께 간다
41025	걸핏하면	얼런하면, 얼피다면
41026	공연히	매나니(다), 매나네(다), 고여:니(소)
41027	그냥	그냥 도라와
41028	매우	아조 썰다, 아조 찹때, 참 썰다
41029	곧장	고추 가라
41030	벌써	벌써 다헨냐?
41031	가장	제일로 박찌, 제일로 박따, 젤: 박따
41032	가만히	가마~이 이씨라, 가마니 이씨라

41033	미리	미리 방침해라
41034	이따금	이따:금 와, 이따:금

4.11. 관용적 표현

4.11.1. 관용구

41101	관용구(여보)	여보
41102	관용구(여보세요)	어이 어이, 여보시요, 어이
41103	관용구(들어가세요)	끄넙씨다(다), 그만 드르가시요.
(소)		
41104	관용구(수고하세요)	욕보시요, 욕보시겐네요
41105	관용구(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아이고 어찌다 만나네, 어찌다 만넛쑈, 어찌다 만난네
41106	관용구(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안녕이 게쎄씨요?
41107	관용구(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근강하시요
41108	관용구(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서 하는 말))	갑썰 바드시요
41109	관용구(예(질문에 대한 긍정의 대답))	애, 애
41110	관용구(아니(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	아니, 아니요
41111	관용구(아무렇지도 않다)	깐차나
41112	관용구(내버려 뒀)	빼치지 말라고, 내비리 뒀, 내비리 뒀
41113	관용구(개나 소나)	되나 개나, 되나 새나

4.11.2. 속담

41114	속담(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항아리 빠진 도게 물 붓끼여, 밑빠진 도게 물 붓끼여
41115	속담(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두기 소도둑 된다고, 바늘 도두기 큰도둑 된다고
41116	속담(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불 안 땐 구새에 앵기 나네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제주대학교) |
| ◆ 위 원 | 곽충구(서강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충남대학교) |

